

당신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사야서:

야웨의

영원하고 우주적인 구속 계획에 대한

구약의 증거:

선지자와 미래

40-66 장

밥 어틀리  
해석학 교수  
(성경의 해석)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 시리즈  
구약, 제 11 B 권

국제 바이블 레슨: 마샬, 텍사스  
2011

## 신미국표준역(NASB) — 1995 개정판

### 좀 더 읽기 쉽게:

- ▣ 고어체 영어표현(“thee’s” 와 “thou’s” 등)은 현대식 영어로 표현하였다.
- ▣ 지난 20 년 동안 의미의 변화 때문에 잘못 이해할 수 있었던 단어나 구들을 현대식 영어로 개정하였다.
- ▣ 어려운 단어 배열이나 어휘의 절들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재 번역하였다.
- ▣ 고어체 영어와 현대식 영어의 형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리고”(And)로 시작된 문장의 상당수를 좀 더 나은 영어표현으로 재번역 하였다. 원래의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영어와 다르게 구두점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식 영어의 구두점은 많은 경우 원어의 “그리고(And)를 대신으로 사용되었다. 다른 경우에는 원어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and)를 문맥에 따라 “그때”(then) 또는 “그러나”(but)로 해석하였다.

### 좀 더 적절하게:

- ▣ 가장 오래되고 좋은 헬라어 신약 본문에 대한 최근 연구를 재검토 하였고 어떤 구절들은 원본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 ▣ 평행적인 구절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 ▣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몇몇 동사들은 문맥 안에서 좀 더 나은 설명을 위해 재 번역하였다.

### 신미국표준역의 전통을 보존하며:

- ▣ 신미국표준역의 개정판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번역이 아니다. 본 번역의 시험기간을 거치는 동안 신미국표준역이 가진 기준을 따라 최소한의 변화만을 가져왔다.
-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은 신미국표준역이 가진 전통인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 번역을 고수하고 있다.
-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의 번역가들과 자문위원들은 성경언어, 신학에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또는 다른 분야에서 학위를 가진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다. 그들은 다양한 교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 전통을 고수하며:

신미국표준역은 가장 타당한 영어성경의 번역판으로 평판을 받아 왔다. 다른 최근 번역판들은 옳게 번역하였고 읽기에도 쉽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번역판들은 계속해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문자적인 해석은 원본에 충실한 반면 읽기에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번역판들은 자주 의역에 의존한다. 의역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번역가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대로 그 구절의 의미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결과적으로 의역은 성경을 의역된 만큼 설명한다. 신미국표준역 개정판은 번역가가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믿는 대로가 아닌 원본이 실제적으로 말하는 대로 번역한 신미국표준역 전통을 그대로 살렸다.

## 이사야서 주석의 차례

이 주석에서 사용한 전문적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 . . . .	i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동사형에 대한 간략한 정의 . . . . .	iii
이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약어 . . . . .	ix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 . . . .	x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 . . . .	xiii
주석	
이사야서 서론 . . . . .	1
이사야서 40 장 . . . . .	10
이사야서 41 장 . . . . .	40
이사야서 42 장 . . . . .	56
이사야서 43 장 . . . . .	72
이사야서 44 장 . . . . .	82
이사야서 45 장 . . . . .	93
이사야서 46 장 . . . . .	114
이사야서 47 장 . . . . .	120
이사야서 48 장 . . . . .	129
이사야서 49 장 . . . . .	139
이사야서 50 장 . . . . .	150
이사야서 51 장 . . . . .	155
이사야서 52 장 . . . . .	165
이사야서 53 장 . . . . .	173
이사야서 54 장 . . . . .	184
이사야서 55 장 . . . . .	191
이사야서 56 장 . . . . .	199
이사야서 57 장 . . . . .	204
이사야서 58 장 . . . . .	213
이사야서 59 장 . . . . .	220
이사야서 60 장 . . . . .	228
이사야서 61 장 . . . . .	236

이사야서 62 장 . . . . .	243
이사야서 63 장 . . . . .	250
이사야서 64 장 . . . . .	264
이사야서 65 장 . . . . .	270
이사야서 66 장 . . . . .	284
부록 1: 히브리 시의 서론 . . . . .	294
부록 2: 구약 예언의 서론 . . . . .	297
부록 3: 간략한 역사 . . . . .	302
부록 4: 도표	
1. 구약의 연대 . . . . .	309
2.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왕조의 왕들과 사건들 . . . . .	312
3. 분열왕국의 왕들 . . . . .	317
부록 5: 교리적 선언 . . . . .	320

## 이사야서의 특별주제 목차

언약, 40:1 . . . . .	13
손, 40:2 . . . . .	14
하나님의 이름들, 40:3 . . . . .	16
인자한 사랑, 40:6 . . . . .	20
성경에 나오는 “영,” 40:7 . . . . .	21
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가, 40:9 . . . . .	23
메시아, 40:10 . . . . .	30
삼위일체, 40:13 . . . . .	32
이사야서에서의 심판하다, 심판, 정의, 40:14 . . . . .	33
유일신 주의, 40:14 . . . . .	33
밥의 복음적 편향, 40:15 . . . . .	34
인간으로 묘사된 하나님(신인동형적 표현), 41:2 . . . . .	44
속량하다/구속하다, 41:14 . . . . .	49
성화, 41:14 . . . . .	51
혐오, 41:24 . . . . .	53
인격체이신 성령, 42:1 . . . . .	59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아멘), 42:3 . . . . .	60
하늘들, 42:5 . . . . .	64
영광, 42:8 . . . . .	66
용서를 뜻하는 용어, 43:25 . . . . .	79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44:18 . . . . .	87
구약에서의 회개, 44:22 . . . . .	88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44:23 . . . . .	90
알다, 45:5 . . . . .	98
천사들과 귀신들, 45:12 . . . . .	100
영원히(올림), 45:17 . . . . .	103
요한계시록에 대한 중요한 서론(긴장 1-4), 45:23 . . . . .	108
남은 자(세 가지 의미), 46:3 . . . . .	116
슬픔의 의식, 47:1 . . . . .	122
달을 섬김, 47:5 . . . . .	123
불, 47:14 . . . . .	127
의, 48:1 . . . . .	132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 49:7 . . . . .	143
에덴, 51:3 . . . . .	157
인자, 51:12. . . . .	161
“야웨”라는 이름, 52:6 . . . . .	168
그 날, 52:6 . . . . .	169
평화(샬롬), 52:7 . . . . .	171
나사렛 예수, 53:2 . . . . .	176
병고침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53:3 . . . . .	178
만군의 주, 54:5 . . . . .	187
그리스도인의 확신, 55:11 . . . . .	196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의 신 숭배, 57:5-6 . . . . .	207
몰렉, 57:5-6 . . . . .	208
이스라엘이 사용한 뿔, 58:1 . . . . .	215
안식일, 58:13 . . . . .	219
천(엘렐), 60:22 . . . . .	234
성경에서의 기름부음, 61:1 . . . . .	237
구원(구약의 용어), 62:1 . . . . .	244
에돔과 이스라엘, 63:1 . . . . .	252
삼위일체, 63:9 . . . . .	255
아버지되신 하나님, 63:16 . . . . .	257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63:17 . . . . .	259
하늘들, 64:1 . . . . .	265
놀라운 일들, 64:3 . . . . .	266
주님의 이름, 65:2 . . . . .	272
하나님의 두 책, 65:6. . . . .	275
술과 술취함에 대한 성경적 입장, 65:8 . . . . .	277
아멘, 65:16 . . . . .	281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66:12 . . . . .	289

# 이 구약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전문적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 I. 사전

고대 히브리어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사전으로서 여러 종류가 있다.

- 가.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찰스 A. 브릭스가 공저한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이것은 윌리엄 게제니우스의 독어판 사전에 기초한다. 이 책은 약어로 BDB 로 알려져 있다.
- 나. 루드빅 켈러와 발커 바움가트너가 저술하였고 M. E. J. 리차드슨이 영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이 책은 약어로 KB 로 알려져 있다.
- 다. 윌리엄 L. 할러데이가 저술한 *간이 히브리어 아람어구약사전*이 있는데 이 책은 독일어로 쓰여진 위의 사전(가 항)에 기초한다.
- 라. 윌렘 A. 반 게머른이 편저한 다섯 권으로 된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이 책은 NIDOTTE 로 표시된다.

유의할 만하게 사전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곳에서, 나는 여러 영어 번역본(NASB, NKJV, NRSV, TEV, NJB)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번역본들은 “축역적”인 것으로부터 “역동적 등가번역”을 따른 것까지 다양하다(참조,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텐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8-44 쪽).

## II. 문법

문법적인 내용은 요한 요셉 오웬의 4 권으로 된 *구약의 분석적 열쇠*에 일반적으로 의존한다. 이 책은 벤자민 데이빗슨의 *분석적 히브리어 갈대아어 구약사전*으로 뒷받침된다.

“당신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시리즈의 구약주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문법적 구문적 자료는 국제성서공회의 “번역가들을 돕기위한 시리즈”이다. 그 책들은 “\_\_\_\_\_의 핸드북”이란 이름을 가진다.

## III. 본문

나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본문(맞소라 모음부호와 각주가 아니라)이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는다. 전체가 손으로 직접 쓰여져 전해져 왔고, 고대의 본문이기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다음의 이유에 기인한다:

- 가. *하팩스 레고메논*(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인 단어)
- 나. 관용적 용어(문자적 의미를 적용할 수 없는 단어나 구)
- 다. 역사적 불확실성(고대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 라. 히브리어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어휘가 셈어의 다중적인 의미를 가짐
- 마. 고대 히브리어 본문을 후기의 서기관들이 손으로 베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
- 바. 이집트에서 훈련받은 히브리 서기관들은 그들이 필사하는 본문이 자신들에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게 본문을 자유롭게 고치는 경향을 가짐(NIDOTTE 제 1 권 52-54 쪽)

맞소라본문 전통 이외에 히브리어 단어와 본문에 대한 여러 자료가 있다.

- 1. 사마리아 오경
- 2. 사해사본
- 3. 몇 가지 후기의 동전, 편지, 도편 자료(불에 굽지않은 도자기 조각 위에 쓴 글)

그러나 구약은 많은 경우 헬라어 신약 사본의 경우와 달리 사본적 계보가 없다. 맛소라 본문(주후 900년 경)에 대한 본문적 신뢰성에 대하여는 NIDOTTE 제 1권 51-67쪽에 있는 브루스 K. 왈트키의 “구약 성경 본문의 신뢰성”을 참고하라.

히브리어 본문은 독일성서공회에서 1997년에 발행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인데 이 본문은 레닌그라드 사본(주후 1009년에 기초한다. 간혹 히브리어 본문이 명료하지 않거나 분명하게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고대 사본들(헬라어 70인역, 아람어 탈군, 시리아어 페쉬타, 라틴 별게이트)을 참조하였다.

#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동사형에 대한 간략한 정의

## I. 히브리어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간략한 고찰

히브리어는 서남 아시아의 셈족(셈어)어군에 속한다. 이 이름(현대 학자들에 의해 불리)은 노아의 아들인 셈(참조, 창 5:32; 6:10)에서 유래한다. 셈의 후예는 창 10:21-31 에서 아랍인, 히브리인, 시리아인, 아람인, 앗시리아인들이다. 사실상 어떤 셈어는 함의 계열(참조, 창 10:6-14)에 속하는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나안어, 페니키아어, 이디오피아어가 여기에 속한다.

히브리어는 이 셈어의 북서쪽 지류에 속한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고대 언어 그룹에 속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가. 아모리어(주전 18 세기에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마리 서판*)
- 나. 가나안어(주전 15 세기에 유가럿어로 쓰여진 *라스 샤프라 서판*)
- 다. 가나안어(주전 14 세기에 가나안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아마르나 편지*)
- 라. 페니키아어(히브리어는 페니키아 알파벳을 사용한다)
- 마. 모압어(주전 840 년의 메사 비문)
- 바. 아람어(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 언어로서 창 31:47[2 단어]; 램 10:11; 단 2:4-6; 7:28; 스 4:8-6:18; 7:12-26 에 사용되었고 팔레스타인에서 1 세기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언어이다)

히브리어는 사 19:18 에서 “가나안의 입”으로 불린다. 이것은 주전 180 년경 쓰여진 지혜서(벤 시라의 지혜)서론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불린다(그리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속하는 다른 몇 곳에서, 참조, *앵커 바이블 사전*, 제 4 권, 205 쪽 이하). 이 언어는 모압어 및 유가럿에서 사용된 언어와 아주 밀접한 언어이다. 성경 이외의 곳에서 고대 히브리어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 1. 게제르 달력, 주전 925 년(한 남학생의 글씨연습)
- 2. 실로암 명각, 주전 705 년(터널벽에 쓴 글)
- 3. 사마리아 도편, 주전 770 년(부서진 도자기 위에 기록한 세금 내역)
- 4. 라기스편지, 주전 587 년(전쟁과 관련한 통신 내용)
- 5. 마카비 시대의 동전과 인장들
- 6. 사해사본 본문들
- 7. 많은 종류의 비문들(참조, “언어[히브리어],” ABD 4:203 쪽 이하)

히브리어는 다른 모든 셈어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자음(세 자음 어근)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어형변화가 있는 언어이다. 세 자음으로 된 어근은 고유의 뜻을 가진다. 또한 전접어 후접어 혹은 단어 안에 추가되는 어소(후에는 모음, 참조, 수그린,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 46-49 쪽)에 의해 구문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히브리어는 산문과 시에서 단어가 구분되어 사용된다. 단어의 뜻은 전승적 어원(언어적 기원이 아닌)을 따른다. 단어와 소리(유사음어 쓰기)에 기초한 언어유희가 매우 일반적이다.

## II. 술부에 대한 동사의 상

### 가. 동사

문장의 일반적인 순서는 동사, 인칭대명사, 주어(수식 어구와 함께), 목적어(수식 어구와 함께) 이다. 기본적으로 아무 표시가 없는 동사는 칼, 완료, 남성, 단수이다. 히브리어 사전과 아람어 사전은 이 형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동사의 어형변화는 다음을 보여 준다

1. 수—단수, 복수, 쌍수
2. 성—남성과 여성(중성은 없음)
3. 태—직설법, 가정법, 명령법(행동과 사실과의 관계)
4. 시제(동사의 상)

ㄱ. 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시작, 계속, 종결의 의미에서 마쳐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 동사 형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행동을 나타낸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완료형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점은 어떤 일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미완료형은 어떤 상태가 가능하거나 그것을 바라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기대함을 뜻할 수 있지만, 완료형은 그 일이 사실이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이 분명함을 나타낸다”(36 쪽).

S. R. 드라이버는 *히브리어에서 시제의 사용에 대한 논문*에서 이 점을 설명하기를,  
“완료형은 실제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의지적 결심에 의해 이미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결심, 약속,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은 완료형으로 말해진다”(17 쪽, 예, 예언적 완료형).

로버트 B. 치숨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이 동사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동사형태는) 어떤 사건 전체를 외부에서 조망한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일이나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여)와 관련하여 단순히 사실을 나타낸다. 어떤 행동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종종 화자나 해설가의 수사적 관점에서 완료된 것임을 보여준다(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는지 또는 안 일어났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완료형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일어난(날) 행동/상태에 관계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영어처럼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언어로 완료형의 시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반드시 문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86 쪽).

ㄴ. 미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진행중(완료되지 않고, 반복적, 계속적, 혹은 불확실한)임을 뜻하며, 종종 목표를 향해 가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대개 이 동사 형태는 현재와 미래에 속하는 행동을 말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모든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 상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나 발전해 가고 있는 것 혹은 불확실한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이 동사 형태는 어떤 의미(곧, 불완전하다는 의미)에서 부분적이다.

로버트 B. 치숨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말하기를

“미완료형은 상과 태를 함께 나타내기에 이것의 본질을 한 가지 개념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떤 때는 미완료형이 직설법적 의미로서 객관적인 진술에 사용된다. 다른 경우에는 이 동사형태는 어떤 행동을 보다 더 주관적으로 나타내는데 가정적인 것, 조건적인 것, 가능한 것 등이 쓰인다”(89 쪽).

ㄷ. 첨가되는 *와우*, 이것은 동사를 그 앞에 나오는 동사(들)의 행동에 연결시킨다.

ㄹ. 명령형, 이것은 화자의 의지와 청자가 할 여지를 반영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ㅁ. 고대 히브리어에서 오직 큰 문맥이 저자가 의도한 시간적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짓게 한다.

나. 일곱가지 주요 어형변화 형태와 그 기본적 의미. 실제로는 이 동사형태가 문맥에서 서로 연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이해하면 안된다.

1. *칼* 동사,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형태이면서 모든 동사형태의 기본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2. *니팔* 동사, 두 번째로 자주 쓰인다. 대개 수동형이지만, 이 동사형태는 또한 상호작용이나 재귀적 기능을 갖는다. 이 동사도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3. *피엘* 동사, 이 동사는 능동형이고 어떤 행동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것을 나타낸다. *칼*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발전되거나 어떤 상태로 확장되고 있다.
4. *푸알* 동사, 이것은 *피엘* 동사와 대응하는 수동형이다. 종종 분사로 사용된다.
5. *히트파엘* 동사, 이것은 재귀적 혹은 상호작용적 의미를 갖는 동사형태이다. 이것은 반복적 혹은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피엘*형의 행동을 나타낸다.
6. *히필* 동사, 이것은 *피엘* 동사와 대조되며 원인을 나타낸다. 이 동사형태는 허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일의 원인을 드러낸다. 독일인 히브리어 문법학자인 에른스트 엔니는 *피엘* 동사가 일이 어떤 상태로 되는 것을 나타내고 *히필* 동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인다고 믿었다.
7. *호팔* 동사, 이것은 *히필*의 수동형이다. 마지막 두 동사형태는 7 가지 동사 형태 가운데 가장 적게 사용된다.

위 사항의 대부분은 브루스 K. 왈트키 와 M. 오카너가 공저한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43-452 쪽을 참조했다.

작용자와 원인자 도표. 히브리어의 동사체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 열쇠는 이것을 태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동사형태는 다른 동사형태와 대조를 이룬다(예, *칼-니팔*; *피엘-히필*)

다음의 도표는 원인과 관련하여 동사형태의 기본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태 또는 주어	이차 원인자가 없음	능동적 이차 원인자	수동적 이차 원인자
능동태	<i>칼</i>	<i>히필</i>	<i>피엘</i>
중간태 수동태	<i>니팔</i>	<i>호팔</i>	<i>푸알</i>
재귀/상호관계적	<i>니팔</i>	<i>히필</i>	<i>히트파엘</i>

이 도표는 최근의 아카디아어 연구결과에 힘입어 이루어진 동사체계에 대한 좋은 자료에서 왔다(참조, 브루스 K. 왈트키, M. 오카너,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54-359 쪽).

R. H. 케넷은 *히브리어 시제에 대한 짧은 논의*에서 필요한 경고를 제시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히브리어의 동사를 가르치면서 각 동사형태가 히브리인의 마음에 의미하고 있는 뜻을 파악하는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다시말하면 각 히브리어 시제마다 이에 상응하는 여러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형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각 시제를 확일적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은 각 히브리어 동사형태가 구약성경의 언어에 생명력과 힘을 공급하는 분명한 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따르는 어려움은 히브리인들이 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다른 관점의 차이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우리가 ‘시제’라고 표현함에 있어서 보듯이 가장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는 *시간적* 요소는

그들에게는 이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 형태에 크게 의존하여 각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를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히브리인의 마음에 제시하고 있는대로 각 행위의 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분명하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시제’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동사에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낳게 한다. 소위 히브리어의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행위의 *상태*만을 표현한다. ‘상태’라는 용어를 명사와 동사 모두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혼동만 아니라면, 실제로는 ‘상태들’이라는 표현이 ‘시제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히브리어 동사를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히브리어에는 전혀 없는 요소(시간적)를 추가시키는 부작용없이 해내는 것은 불가능함을 항상 명심해야만 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행동을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결코 과거, 현재, 또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고 단지 *완료형*, 즉 이루어진 일, 또는 *미완료형*, 즉 발전하고 있는 과정의 일로서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히브리어 시제가 영어의 과거, 과거완료, 또는 미래와 상응하다고 말함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과거, 과거완료, 미래로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동사형태도 행동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서론과 1 쪽).

다음으로 유익한 경고로서는 슈 그룹,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이 말하기를, “고대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대상으로 현대의 학자가 재구성한 어원적 세계와 지각적 관계성이 단순히 학자들의 통찰력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 자신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대로 그러한 어원적 관계성이 고전 히브리어에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128 쪽).

다. 법

1.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직설법)를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시제나 분사(모든 분사는 직설법이다)를 사용한다.
2.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었다(가정법)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 ㄱ. 특별한 의미를 더 내포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
    - (1) 청유법(자음 *ㅎ* 이 추가됨), 이것은 1 인칭 미완료형으로서 소원, 청원, 혹은 자기 격려(즉, 화자가 소원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 (2) 지시법(내적 변화), 이것은 3 인칭 미완료형으로서(부정문의 경우 2 인칭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원, 허가, 충고, 혹은 권면을 나타낸다
  - ㄴ. 완료 시제를 *루* 또는 *루레*와 함께 사용한다  
이 구조는 코이네 헬라어에서 제 2 유형의 조건절과 유사한 구문이다. 거짓 진술(조건절)이 거짓 결론(조건문의 귀결절)으로 결과를 맺는다.
  - ㄷ. 미완료 시제를 *루*와 함께 사용한다  
문맥과 *루*는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더불어 이러한 가정법적 용법을 가진다. J. 와쉬 왓쓰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 나오는 몇 가지 예는 창 13:16; 신 1:12; 왕상 13:8; 시 24:3; 사 1:18(참조, 76-77 쪽).

라. *와우*-전환/연속/접속. 히브리어(가나안어)가 갖는 이 독특한 구문적 특성은 오랫동안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이 용법은 장르마다 종종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혼란이 생긴 이유는 초기의 학자들이 유럽인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에 비추어 히브리어를 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어려움을 가져오자, 그들은 히브리어가 고대의 고풍스럽게 “보여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탓으로 핑계를 댔다.

유럽의 언어들은 시제(시간)에 기초한 동사형태를 갖는 언어이다. 완료형이나 미완료형의 동사 어간에 자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어떤 종류의 다양한 설명과 문법적인 의미가 특별히 가능하게 된다. 이 용법은 행동이 다르게 보이게 한다.

1. 역사적 이야기체에서는 동사들이 일정한 형태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사용된다.
2. 앞에 붙는 와우로 시작되는 동사는 그 이전에 사용된 동사(들)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3. 항상 큰 문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동사들의 용법을 파악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샘족어의 동사들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어 분석해서는 안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서 완료형과 미완료형 앞에 쓰이는 히브리어 와우용법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52-53 쪽).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나타내지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완료형의 동사는 종종 미래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에 있어서도 일어난다. 즉 와우가 추가된 미완료형의 동사는 과거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시제 자체가 변하여 된 것이 아니라,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그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이 특별히 바뀌는 것에 기인한다. 와우 완료형은 예언에서 잘 사용되는 형태이며, 와우 미완료형은 이야기체에서 잘 사용된다(54, 68 쪽).

왓쓰는 계속해서 정의하기를

“와우 접속법과 와우 연속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해석에서 나타난다:

1. 와우 접속법은 항상 병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2. 와우 연속법은 항상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와우가 연속적인 미완료형과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이다. 와우 연속법으로 연결되는 미완료형의 관계는 시간적 연속, 논리적 연속, 논리적 원인, 또는 논리적 대조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의 연속성이 있다”(103 쪽).

마. 부정사 - 두 종류의 부정사가 있다

1. 부정사 절대형,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뚜렷한 구문이다. . . 주어로서 사용될 때 종종 쓰여진 동사없이 나타난다. 부정사 절대형이 홀로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생략된 동사는 “~이다”라는 동사로 이해된다”

J. 와쉬 왓쓰,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92 쪽).

2. 부정사 연계형, 이것은 “전치사, 소유 대명사, 연계 관계에 의해 문법적으로 문장에 연결된다”(91 쪽).

J. 와인그린은 *고전 히브리어의 실제적 문법*에서 연계상태에 대해 설명하기를

“두 개(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형성할 경우에, 의존적인 단어(혹은 단어들)가 연계상태에 있다고 말한다”(44 쪽).

바. 의문법

1. 이것은 항상 문장의 처음에 나타난다.
2. 해석적인 중요성
  - ㄱ. *하* -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 ㄴ. *할로'* - 저자가 “네”라는 답을 기대한다

## 부정

1. 이것은 항상 부정하려고 하는 단어 앞에 나타난다.
2. 부정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단어는 *로*이다.
3. *'알*이라는 단어는 부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청유형과 지시형과 함께 사용된다.
4. *르빌티*이라는 용어는 “~하지 않기 위해서”를 나타내며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다.
5. *'엔*이라는 용어는 분사와 함께 사용된다.

## 사. 조건절

1. 4 종류의 조건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이네 헬라어의 경우와 평행을 이룬다.
  - ㄱ.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거나 성취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의 경우(헬라어의 제 1 유형)
  - ㄴ.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헬라어의 제 2 유형)
  - ㄷ.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아마 일어날지도 모르는 경우(헬라어의 제 3 유형)
  - ㄹ.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적어서 그 성취가 의심이 되는 경우(헬라어의 제 4 유형)
2. 문법적인 표시
  - ㄱ. 사실이나 실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항상 직설법 완료형 혹은 분사를 사용하는데 대개의 경우 조건절은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 (1) *임*
    - (2) *키*(혹은 *아췌르*)
    - (3) *힌* 혹은 *힌네*
  - ㄴ.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절은 항상 완료 시상 동사나 분사를 사용하는데 불변화사인 *루* 혹은 *룰레*로 시작한다
  - ㄷ.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조건절은 항상 미완료형 동사나 분사가 조건절에 사용되는데, 대개는 불변화사인 *임* 혹은 *키*로 시작한다.
  - ㄹ.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조건절은 미완료형 가정법이 조건절에 나오고 항상 불변화사 *임*으로 시작한다.

## 이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

AB	앵커 바이블 주석,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BD	앵커 바이블 사전 (6 권),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KOT	구약의 분석 열쇄, 존 조셉 오웬스
ANET	고대 근동 본문, 제임스 B. 프릿처드
BDB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C. A. 브릭스 공저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트시아, GBS, 1997
DSS	사해사본
IDB	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 (4 권), 조지 A. 버트릭
ISBE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5 권), 제임스 오르
JB	예루살렘 성경
JPSOA	맛소라 본문에 따른 성경: 새 번역 (미국 유대인 출판협회)
KB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루드빅 켈러, 왈커 바움가르트너
LAM	성경의 고대 동방 사본 (페쉬타), 조지 M. 램사
LXX	칠십인역 (헬리어-영어), 존더반 출판사, 1970
MOF	제임스 모팻의 새 번역 성경
MT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
NAB	새 미국 성경 본문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
NEB	새 영어 성경
NET	NEB 성경: 새 영어역, 제 2 베타역
NASB	새 개정 표준 성경
NIDOTTE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5 권), 윌렘 A. 반게머른 편저

NIV	새 국제역
NJB	새 예루살렘 성경
NRSV	새 개정 표준성경
OTPG	구약성경 분해 가이드, 토드 S. 빌, 윌리엄 A. 뱅크스, 콜린 스미스
REB	개정 영어 성경
RSV	개정 표준역
SEPT	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1970
TEV	세계성서공회의 오늘의 영어역
YLT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 로버트 영
ZPBE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 (5 권), 메릴 C. 텐니 편저

##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대하지만 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 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 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어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 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2.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3.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sup>4</sup>) 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4.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 짓는 것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5.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 제 4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문학적 장르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감받은 원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했다(예를 들면 역사적 이야기체, 역사적 드라마, 시, 예언, 복음서[비유], 서신, 묵시). 이러한 서로 다른 양식은 해석을 위한 특별한 열쇠를 제공한다(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즈의 *구약코드해독*, 또는 로버트 스타인의 *규칙에 따른 놀이*를 보라).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파 중심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원리들은 옛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년 6월 27일

##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답답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찾음,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을 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 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랐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견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전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 I. 전제들

- 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
- 나.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인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 다.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 라.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 1.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 2.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 3.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 4. 전체 메시지와 연관성에서의 문학적 단락의 개요
  - 5.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 6.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 7. 대구(평행) 구절들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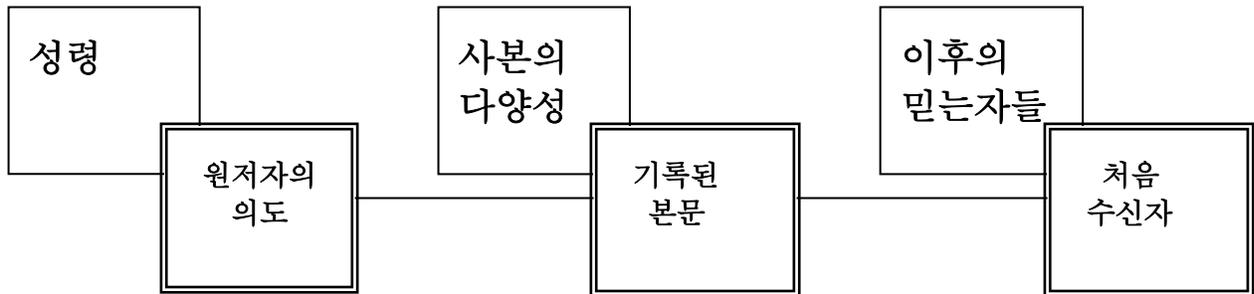
## II. 부적절한 방법들

- 가.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 나.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다.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건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 라.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화화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마.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른 독서법들이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은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해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돕는 주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저자의
  - ㄱ. 역사적 배경
  - ㄴ. 문학적 배경

2. 원저자가 선택한
  - ㄱ. 문법적 구조(구문법)
  - ㄴ. 당시의 용법
  - ㄷ. 문학적 형태
3. 우리의 적절한 이해
  - ㄱ.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ㄴ. 교리 사이의 관계(역설)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네 가지 읽는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 독서의 첫 번째 단계

1.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전체본문의 중심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3. (가능하면)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4.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 ㄱ. 구약
    - 1) 이야기체
    - 2) 시(지혜문학, 시편)
    - 3) 예언서(산문, 시)
    - 4) 법률
  - ㄴ. 신약
    -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 2) 예화(복음서)
    - 3) 편지/서신서
    - 4) 계시 문학

나. 독서의 두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2.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3.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2.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 ㄱ. 저자
  - ㄴ. 날짜
  - ㄷ. 수신자

- ㄹ. 글을 쓴 특별한 이유
- ㅁ.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 ㅂ.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 3.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4.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 라. 독서의 네 번째 단계
  - 1.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 2.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 ㄱ. 반복적인 표현, 엡 1:6, 12, 13
    - ㄴ.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 ㄷ. 대조되는 개념들
  - 3.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 ㄱ. 중요 용어
    - 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 ㄷ.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 ㄹ. 어려운 단어, 절, 문장
  - 4.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 ㄱ.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 1) “조직신학”책
      - 2) 참조성경
      - 3) 성구사전
    - ㄴ.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파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 ㄷ.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5.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 ㄱ. 해설이 있는 성경
    - ㄴ.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 ㄷ. 성경개론서
    - ㄹ. 성경주석(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 (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 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 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 나.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 라.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 마.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가.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 쪽에서: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위한 전문적 강의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경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75 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거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 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가.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나.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다. 각 장 혹은 주요 문학적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1.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2. 뉴킹제임스역(NKJV)
3. 신개정표준역(NRSV)
4. 현대영어성경(TEV)
5. 새예루살렘역(NJB)

문단의 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라. 밥(Bob)의 설명은 한 절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1. 문학적 상황
2.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3. 문법적 지식
4. 단어 연구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마.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1.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2.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3.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4. 프랑스 천주교의 등가 번역본에 기초한 영어역인 예루살렘역
- 바.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1. 사본의 다양성
  2.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3.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4. 애매한 본문
-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 사.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 이사야서 서론

## I. 들어가는 말

- 가.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다른 어떤 예언서 보다도 더욱 많이 인용되는 책이다(411 회 이상). 그의 메시지는 보편적인 유일신 신앙 및 모든 피조물에 대한 구속적 계획을 나타낸다.
1. 한 하나님
  2. 한 세상
  3. 한 믿음
- 나. 이사야서는 굉장히 메시아적인 메시지이다.
1. 새 시대의 특별한 자녀, 7-14 장
  2. 종의 노래, 41:1-4; 42:1-9; 49:1-7; 50:4-11; 52:13-53:12(아마도 61:1-3)
  3. 미래의 메시아 왕국(새 시대), 56-66 장. 창세기 3 장의 타락은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 다. E. J. 영은 *신약개론*에서 말하기를
1. “이사야서가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으로 여겨진 것이 옳다,” 168 쪽.
  2.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및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했다,” 171 쪽.
  3. “구약의 모든 사람 가운데 영적 통찰에 있어서 그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172 쪽.

## II. 책의 이름

- 가. 이 책의 이름은 이 예언을 선포한 사람의 이름에서 왔다.
- 나. 이 이름의 뜻은 “야웨의 구원” 혹은 “야웨께서 구원하신다”이다. 히브리 이름의 마지막 글자인 “야”는 야웨의 축약형이다. 영어에서는 여호수아(Joshua)와 요엘(Joel)에서 보듯이 첫 자음인 “j”와 모음이 이를 이룬다.

## III. 정경화

- 가. 이 책은 후기 예언서를 이루는 4 두루마리의 처음 것이다.
1. 이사야
  2. 예레미야
  3. 에스겔
  4. 12 선지서(소 선지서)
- 나. 이 책은 이른 시기에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다.

## IV. 장르

- 가. 이사야서의 문학적 기교는 다른 모든 예언서의 정도를 뛰어 넘는다. 그의 언어유희와 시적 표현은 뛰어나고 흥미롭다. 이 책은 주로 히브리 시로 되어 있다(부록 1 을 보라).
- 나. 이사야서를 읽은 자리에서 단번에 읽기는 어렵다. 이 책의 개요를 잡는 것도 어렵다. 그 이유는 이사야가 설교가였지 저술가나 편집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가 말로써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은 가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1. 주제에 의해
2. 연대기에 의해
3.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사건에 의해
4. 우리의 문화와 매우 다른 고대 근동의 문화적 기준에 의해
5. 주로 핵심 단어와 언어유희에 의해

## V. 저자

### 가. 저자에 대한 유대인의 견해

1. 탈무드의 *바바 바트라* 15a 는 히스기야와 그의 사람이 이사야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다(즉, 편집하거나 편찬했다)고 말한다.
2. 주전 185 년에 쓰여진 집회서 49:17-25 에서 벤시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1:1; 12:1; 13:1).
3. 대하 32:32 은 평행을 이루는 열왕기서의 기록(왕하 18:19-20:19 은 이사야에 대해 말함)과 더불어 이사야가 본 환상에 대해 증거한다.
  - ㄱ. 그는 예루살렘에 살던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다. 아마도 웃시야 왕의 사촌이었을 것이다.
    - (1) 야웨의 축약형인 “야”(이름의 마지막 글자)는 유다 왕조에서 이름에 특별히 사용하던 요소로서 이를 뒷받침한다
    - (2) 이사야가 웃시야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점도 그의 가족관계를 지지한다
    - (3) 탈무드의 “멕” 10b 를 보라
  - ㄴ. 그는 여선지자와 결혼했다(8:3).
    - (1) 맏아들 “스알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 올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 (2) 둘째 아들 “마헬살랄하스바스”(8:3)는 “서둘러 약탈하라. 급히 전리품을 취하라”라는 뜻이다
  - ㄷ. 이사야는 구약의 어느 선지자 보다도 더 오랜 기간동안 예언활동을 했다. 그는 요담(주전 742-735 년)의 치리 기간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주전 715-687 년) 때까지, 아마도 므낫세(주전 687-642 년)의 치리기간에 이르기까지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므낫세는 주전 696 년부터 섭정으로서 다스렸을 것이다.
  - ㄹ. 만일 대하 26:22 이 이사야에 대한 것이라면, 그는 왕의 국가의 서기관으로서 왕의 역대기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이었다.
  - ㅁ. 전통에 의하면 그는 므낫세의 치리기간 중에 통나무 안에서 두 토막으로 톱질을 당해(참조, *이사야의 승천*) 죽었다(참조, 히 11:37).
4. 주후 11 년 경에 모세 벤 사무엘 이븐 게카틸라는 이사야가 사 1-39 장을 썼고 40-66 장은 제 2 성전 시기(페르시아 시대, 주전 538-430 년)에 기록되었다고 말했다.
5. 게카틸라를 따라 이븐 에스라(주후 1092-1167 년)는 40-66 장을 8 세기에 살았던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었거나 적어도 그가 썼다는 점에 의혹이 있다고 보았다.

### 나. 저자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견해

1. 역사적 개괄을 위해 좋은 자료가 R. K. 해리슨의 *구약개론*(어드먼사, 1969)에 나온다.
2. 두 저자설을 지지하는 전문적 이유에 대한 논의가 S. R. 드라이버의 *구약 문학 개론*(재판, 1972)에 나온다.

3. 1-39 장과 40-66 장으로 나뉜 히브리어 사본이나 헬리어 사본(70 인역)이 발견된 적이 없다.
  - ㄱ. 사해사본에는 33 장의 끝 부분에 두 줄로 된 여백이 있다. 이 점은 39 장이 아니라 이 곳에서 구분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 ㄴ. 1-33 장과 34-66 장 사이에 평행을 이루는 구조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히브리 예언서(참조,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저자 자신의 시대와 미래적인 내용에 기초한다.
4. 오늘날의 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저자가 있었고 어디서 이 책을 나누었는가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다.

다. 이사야서의 통일성을 지지하는 몇 가지 근거

1. 이사야서의 두 부분에서 사용되지만 구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가 25 개 있다(NIV 의 이사야서 개론, 1014 쪽).
2.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하나님의 칭호가 1-39 장에서는 13 회 사용되었고 40-66 장에서는 14 회 사용되었지만 이사야서를 제외한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모두 합해 6 회만 사용되었다.
3. 예수님은 요 12:38,40 에서 사 53:1 과 6:10 을 인용하는데 이 내용을 모두 이사야의 것으로 돌리신다.
4. 마 3:3; 8:17; 12:17; 눅 3:4; 4:17; 요 1:23; 행 8:28; 롬 10:16-20 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0-66 장의 본문이 이사야의 것으로 말해진다.
5. 39 장에서 책을 둘로 구분한 사본적 증거가 없다(맛소라 본문, 사해사본, 또 70 인역).
6. 주전 6 세기의 위대한 선지자(제 2 이사야)에 대한 역사적 언급이 없다.

구약 개론에서 R. K. 해리슨은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한다:

“문학적 스타일에 근거한 논쟁은 19 세기 말에 매우 불명료하게 되었다. 또한 고대 근동 언어에 대한 폭 넓은 이해로 이제 그러한 주장은 한층 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스타일에 대한 매우 주관적인 접근은 그라프와 벨하우젠의 문학적 분석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았다. 그들은 성경 저자에게로 돌려지는 자료를 확인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자기 모순적 행동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각 장에서 어떤 문학적 양식이나 단어가 똑 같은 모습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 저자의 것으로 보기를 거부했다. 분명히 초기의 연구자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성경의 저자에게 돌려지는 모든 자료를 주의 깊게 연구한 후에야 비로소 고대 저자의 스타일에 나타나는 몇 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따라서 책의 어떤 부분 혹은 전체를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철저하게 행해진 객관적 연구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다”(776 쪽).

라. 이사야서의 다중 저자설을 지지하는 몇 가지 근거

1. 40-66 장에서 “이사야”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2. 40-66 장은 이사야의 역사적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
3. 이사야가 혼합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ㄱ. 앗시리아의 침략, 포로, 그들에 대한 심판
  - ㄴ. 바벨론의 침략, 포로, 그들에 대한 심판
4. 다중 저자설에 대한 논리적 근거
  - ㄱ. 역사적 상황의 변화
    - (1) 침략을 받기 이전의 유다, 1-39 장
    - (2) 포로, 40-55 장
    - (3) 포로기 이후의 유다, 56-66 장

- (4) 이사야 1-39 장에서는 성전이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40-66 장에서는 성전이 이미 파괴되었다. 저자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일컫는 용어의 변화

- (1) 메시아인 아기
- (2) 고난받는 종
- (3) 이스라엘
  - (ㄱ) 아내로서, 50:1
  - (ㄴ) 야웨의 종으로서, 54:17

5. 오늘날의 보수적인 학자들

- ㄱ. E. J. 영이 55-66 장에 대해 말한 내용은 유용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사야 학파에 속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른 선지자들이 편집자와 수집가로서 이 부분에 나타난 주제와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88 쪽).
- ㄴ. R. K. 해리슨은 말하기를, “나는 이사야서가 대부분의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에 걸쳐 선포한 내용을 모아 제시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며, 또한 구약 예언의 다른 책을 다루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스타일이나 문학적 표현에 기초한 논쟁은 즉시로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해 손상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렇듯 책으로 모아진 내용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선지자의 창조적 활동에 나타난 저자의 전체적 특색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서를 책으로 모아진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정당한 요소는 예언서의 앞에 나오는 절에서 발견된다. 이 부분은 책 전체의 머릿말에 해당하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상으로 받은 계시적 자료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다. 책으로 모아진 모든 경우가 그러하듯이, 이 책이 선포된 예언적 말씀과 설교의 일부만 포함하고 있음은 매우 명백하다. 또한 이사야가 이 책에 남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선포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 예언서가 책으로 모아진 것을 나타내는 절은 사 2:1 과 13:1 에 있는 표제로서 더욱 분명해진다. 이 표제들은 예언으로 선포된 내용을 초기에 수집하였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780 쪽).

6. 40-66 장의 문학적 특색은 1-39 장의 것과 다르다.

마. 저자에 대한 결론적 견해

- 1. 경건한 학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야서가 어떻게 현재의 형태로 되었는가에 대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다(참조, 사해사본, 맛소라 본문). 야웨의 성품과 목적을 나타냄에 있어서 이 책이 영감으로 된 점과 또한 믿을 수 있음에 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 2.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충성스럽게 전한 것을 부정하는 어떤 전제도 우리는 배격해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예언의 예언적 면을 거부하는 선험적 논리를 배격하며, 구약을 단지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간의 기록으로 여기는 견해도 배격한다.

VI. 시기

- 가. 이사야는 8 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다.

1.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여로보암 II 세(주전 786-640 년)의 치세 기간동안 북왕국(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2. 이사야와 미가는 남왕국(유다)에서 활동했다
- 나. 그는 주전 760 년 경에 태어났고, 웃시야가 죽은 해(6:1)인 주전 742 년 경에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입었다. 웃시야는 아사랴로 불렸다(주전 783-742 년).
- 다. 이사야는 웃시야(주전 783-742 년)의 마지막 해로부터 시작하여 요담(주전 742-735 년), 아하스(주전 735-715 년), 히스기야(주전 715-687 년), 므낫세(주전 687-642 년)의 통치기간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동안에 걸쳐 예언을 했다. 이사야는 산헤립의 죽음(즉, 주전 681 년)을 37:38 에서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다.
- 라. R. K. 해리슨은 이 책이 유다의 여러 왕들이 다스리던 기간에 선지자가 기록하고 설교한 내용을 모은 책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선지자가 죽은 이후인 주전 630 년 경에 최종적으로 모아지고 편집되었다.

## VII. 8 세기 예언서의 역사적 배경

- 가. 성경의 자료는 다음에서 발견된다
1. 왕하 14:3-17:6
  2. 대하 25-28 장
  3. 아모스
  4. 요나
  5. 호세아
  6. 이사야
  7. 미가
- 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다.
1. 2:16, “더 이상 ‘나’를 ‘나의 주인(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2. 4:12-14, “딸들이 행음한다”
  3. 4:17, “에브라임이 우상에 연합했다; 그를 내버려 두라”
  4. 13:2, “사람들이 송아지에게 입맞춘다!” (종교의식)
- 다. 사회적 배경
1. 이 시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확장하던 때였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단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었다. 가난한 자들은 탈취를 당하고 학대받았다. “돈과 힘”이 우상이 되었다!
  2.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회적 재정적 안정을 누리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 ㄱ.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II 세(주전 786-746 년)가 남왕국에서는 웃시야(주전 783-742 년)가 긴 기간동안 다스렸는데 각각 번영을 누리는 시기가 되었다
    - ㄴ. 앗시리아의 아닷-니라리 III 세가 주전 802 년에 시리아를 무찔렀다
    - ㄷ.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
    - ㄹ. 팔레스타인을 통해 남북으로 연결된 무역로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과 수입을 통해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고, 부유층의 사치도 초래했다
  3. “사마리아 도편”은 여로보암 II 세의 시대에 속하는데, 솔로몬 시대의 행정조직과 비슷한 내용을 나타낸다. 이것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의 깊어지는 간격이 있었음을 확인해준다.

4. 부유층의 부정직한 모습은 “사회적 정의의 선지자”로 불리는 아모스서에서 명백하게 말해진다. 재판에서 뇌물을 받는 것과 상거래 행위에서 저울 추를 속이는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횡횡했던 부정직한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두 가지 실례였다.
- 라. 종교적 배경
1. 이 시기는 외적인 종교적 활동은 많이 있었지만 진실된 믿음은 희귀한 때였다. 가나안의 다산숭배적 의식이 이스라엘의 종교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이것이 야웨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유대를 지향하는 경향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교도의 예배와 풍습에 참여하게 했다.
  2.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왕하 17:7-18 에서 언급된다.
    - ㄱ. 8 절에서는 그들이 가나안인들의 예배 풍습을 따랐다고 지적한다.
      - (1) 다산의 신을 섬김(참조, 레 18:22-23)
        - (ㄱ) 산당, 9, 10, 11 절
        - (ㄴ) 기둥(바알), 10, 16 절
        - (ㄷ) 아세라, 16 절, 바알의 여성 배우자의 상징으로 사용된 나무였다. 이것은 조각된 나무거나 혹은 살아 있는 나무였다.
      - (2) 점, 17 절; 이것은 레위기 19-20 장과 신명기 18 장에서 정죄되고 있다.
    - ㄴ. 16 절에서는 여로보암 I 세(왕상 12:28-29)가 야웨의 상징으로서 단과 벧엘에 세운 두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계속해서 섬겼다고 지적한다.
    - ㄷ. 16 절에서는 바벨론의 별신들을 섬겼다고 말한다: 해, 달, 별, 성운.
    - ㄹ. 18 절에서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다산의 신으로서 섬긴 불의 신 몰렉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드려 섬겼다고 말한다(참조, 레 18:21; 20:2-5). 이러한 행위는 몰렉으로 불렸다. 이것은 신의 이름이 아니었다.
  3. 바알숭배(참조, W. F. 올브라이트의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 82 쪽 이하)
    - ㄱ. 가장 좋은 고고학적 자료는 “우가릿에서의 바알 서사시”이다.
      - (1) 이 자료는 계절에 따라 죽고 또 다시 사는 신으로 바알을 묘사한다. 바알은 못에 의해 패하고 지하세계에 감금된다. 땅 위의 모든 생명이 그쳐진다. 그러나 여신(아낏)의 도움으로 이른 봄에 바알이 일어나 못을 물리친다. 그는 다산의 신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흥내내는 요술로 숭배받았다.
      - (2) 바알은 하닷으로도 알려졌다.
    - ㄴ. 엘이 가나안인의 만신전에서 주요 신이었지만, 인기를 차지한 바알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 ㄷ. 이스라엘은 두로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에 의해 두로의 바알숭배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오므리는 자기 아들 아합의 아내로 그녀를 택했다.
    - ㄹ. 이스라엘은 각 지역에 있는 산당에서 바알을 섬겼다. 바알은 똑바로 세워진 돌로 상징되었다.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조각된 막대기가 바울의 배우자인 아세라를 상징했다.
  4. 우상숭배의 여러 형태와 종류가 언급되고 있다.
    - ㄱ. 여로보암 I 세가 야웨께 대한 예배를 위해 벧엘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 ㄴ. 산당에서 섬긴 두로인의 다산의 남신과 여신
    - ㄷ. 당시에 정치적 연맹을 위해 요구되었던 우상숭배
- 마. 팔레스타인에 영향을 미친 8 세기에 있었던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간략한 요약.
1. 8 세기에 활동했던 4 선지자들은 티그리스-유프라테스에서 앗시리아 제국이 흥왕하던 시기였다. 이 잔인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특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되었다.

- ㄱ. “시리아-에브라임 연합”으로 알려진 요단 서편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의 형성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주전 735 년).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로 하여금 자기들과 협력하여 앗시리아에 대항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아하스는 그들과 협력하지 않고 도리어 앗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강력한 제국을 이루려는 꿈을 가졌던 앗시리아의 왕 티글랏 필레셀 III 세(주전 745-727 년)는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를 공격했다.
- ㄴ. 앗시리아가 세운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인 호세아(주전 732-722 년)는 후에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반역하였다. 살만에셀 V 세(주전 727-722 년)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왔다. 이스라엘이 항복하기 전에 그가 죽었지만, 후계자인 사르곤 II 세(주전 722-705 년)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주전 722 년에 점령했다. 앗시리아의 티글랏 필레셀이 주전 732 년에 수 천 명을 사로잡아갔는데, 이번에는 27,000 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갔다.
2. 아하스(주전 735-715 년)가 죽은 후에 앗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군사적 동맹이 맺어졌다(주전 714-711 년). 이것은 “아스돗의 반란”으로 알려져 있다. 앗시리아의 재침공으로 인해 많은 유대의 도시가 파괴되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이 동맹에 가담하였다가 후에 자신의 지지를 철회하였다.
3. 그러나 앗시리아의 강력한 왕인 사르곤 II 세가 주전 705 년에 죽은 틈을 타서 또 다른 동맹이 맺어졌다. 이 때 앗시리아 제국 전체에 여러 반란이 일어났다.
4. 이사야는 메데-페르시아의 통치자인 고레스 II 세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특별하게 예언했다(41:2-4; 44:28; 45:1; 56:11). 니느웨(앗시리아의 수도)는 주전 612 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바벨론 도시는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 주전 539 년에 멸망했다. 주전 538 년에 고레스는 유대에서 사로잡혀 온 자들을 포함하여 포로로 잡혀 온 모든 민족이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칙령을 발표했다. 여러 민족의 성전이 재건할 수 있게 그는 국고의 재원을 지원하기까지 했다. 그는 미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신들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기를 원했다.

## VIII. 문학적 단락

### 가. 간략한 개요

1. 1-39 장, 선지자와 그의 시대
2. 40-66 장(또는 40-55 장과 56-66 장), 새 시대

### 나. 1-39 장, 이사야가 살던 때의 역사적 배경(포로기 이전)

1. 1-6 장, 웃시야 왕과 요담 왕의 시대
2. 7-14 장, 아하스 왕의 시대
3. 15-39 장, 히스기야 왕의 시대(36-39 장의 내용은 왕하 18:13-20:19 의 내용과 평행을 이룬다)

### 다. 40-66 장,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미래의 왕국의 모습을 다룬

1. 1-39 장은 이사야의 설교로서 구두로 전한 내용이며 40-55 장은 새로운 배경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회복이 주된 주제이다. 이 부분은 구두로 전한 내용이라기보다 글로써 전한 것임을 암시하는 문체가 나타난다.
2. 1-39 장(특히 12-14, 21, 39 장)은 앗시리아의 위협과 바벨론의 위협을 분명히 다룬다. 40-55 장은 페르시아 시대를 다루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돌아올 것을 다룬다.

3.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56-66 장은 종말론적 내용으로서,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가져온 은유를 사용하여 온 세상이 유일신인 야웨를 섬기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다.

라. 이사야서의 개요를 나누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1.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을 적어도 두 부분으로 나눈다: 1-39 장과 40-66 장. R. K. 해리슨은 사해사본에 나타난 간격에 근거하여 1-33 장과 34-66 장으로 나눈다. 사해사본에 있는 33 장과 34 장 사이의 분명한 구분은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여기게 한다. W. H. 브라운리는 이 두 부분이 구조상 대칭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b>제 1 권</b>	<b>제 2 권</b>
1-5 장	멸망과 회복	34-35 장
6-8 장	자서전적 자료	36-40 장
9-12 장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가져오는 자	41-45 장
13-23 장	외국 열강에 대한 말씀	46-48 장
24-27 장	우주적 구속과 이스라엘의 구원	49-55 장
28-31 장	윤리적 설교	56-59 장
32-33 장	민족들의 회복	60-66 장

2. 어떤 이들은 역사적 배경이나 메시아적 내용에 초점을 두어 개요를 구분한다.

	<b>NIV 역</b>	<b>류폴드역</b>
7-12 장	“유다에 대한 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협을 인한 예언”	“임마누엘의 책”
28-33 장	“여섯 가지 화: 불신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다섯 가지 화와 앗시리아에 대한 한 가지 화”	“시온의 책” (모퉁이 돌)

3. 문학적 단락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몇 가지 예(1-12 장)

- ㄱ. 1-12 장에 대한 E. Y. 영의 장 구분, 211-214 쪽
- (1) 1:1-12:6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 (ㄱ) 1:1-31 커다란 조정
    - (ㄴ) 2:1-4:6 메시아의 통치와 백성에 대한 심판
    - (ㄷ) 5:1-30 유다에 편만한 죄악
    - (ㄹ) 6:1-13 주님을 이사야가 뵈
    - (ㅁ) 7:1-12:6 아하스의 통치기간 중에 선포한 예언
- ㄴ. 1-12 장에 대한 R. K. 해리슨의 장 구분, 764 쪽
- (1)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1-5 장
  - (2)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자서전적 자료, 6-8 장
  - (3) 당시의 세계 제국과 그들의 역할, 9-12 장
- ㄷ. 1-12 장에 대한 NIV 연구성경의 장 구분, 1016 쪽
- (1) 1-6 장
    - (ㄱ) 서론: 언약을 깨트린 유다에 대한 비난, 1 장
    - (ㄴ) 미래의 교훈 및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광, 2-4 장
      - i 예루살렘이 미래에 받을 축복(2:1-5)
      - ii 유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2:6-4:1)

- iii 시온의 회복(4:2-6)
- (ㄷ) 국가에 대한 심판과 사로잡힘(5 장)
- (ㄹ) 이사야가 독특하게 위임받음(6 장)
- (2) 7-12 장
  - (ㄱ)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음(7 장)
  - (ㄴ) 이사야의 아들과 다윗의 아들(8:1-9:7)
  - (ㄷ)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9:8-10:4)
  - (ㄹ) 앗시리아 제국과 다윗의 왕국(10:5-12:6)
    - i 앗시리아의 멸망(10:5-34)
    - ii 다윗 왕국의 성취 및 그의 왕국(11 장)
    - iii 구원을 인한 기쁨의 노래(12 장)

## IX. 주요 내용

- 가. 이사야는 유다가 다윗에게 주신 언약(삼하 7 장)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택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심(즉, 출 19:5-6)을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창 12:1-3)의 원래 목적을 말한다. 야웨께서 우주를 다스리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속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실 것이다!
- 나. 이사야는 자신이 살던 때에 일어날 세상의 사건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특별하게 예언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일이다(미가서도 그렇다). 이것은 거룩한 왕국이고 우주적 왕국이다(미가서도 그렇다). 이사야는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했다.
- 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 방법과 타락한 인간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의 헛됨을 분명히 지적한다. 구원은 오직 야웨로부터 올 것이다!
- 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이 갖는 3 가지 가장 뚜렷한 특징을 드러낸다.
  1. 메시아의 오심
  2.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
  3. 메시아의 우주적 통치

# 이사야 4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된 본문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받다	하나님의 오심을 공포하기 위해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다	소망의 말씀	구원의 예고
40:1-2 (1-2)	40:1-2 (1-2)	40:1-2 (1-2)	40:1-2 (1-2)	40:1-2 (1-2)
40:3-8 (3-5)	40:3-5 (3-5)	40:3-5 (3-5)	40:3-5 (3-5)	40:3-5 (3-5)
	40:6-8 (6-8)	40:6-11 (6-11)	40:6-8 (6-8)	40:6-8 (6-8)
40:9-11 (9-11)	40:9-11 (9-11)		40:9 (9)	40:9 (9)
			40:10-11 (10-11)	40:10-11 (10-11)
		우주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
40:12-17 (12-17)	40:12-17 (12-14)	40:12-17 (12-17)	40:12-14 (12-14)	40:12 (12)
				40:13-18 (13-18)
	(15-17)		40:15-17 (15-17)	
40:18-20 (18-20)	40:18-20 (18-20)	40:18-20 (18-20)	40:18-20 (18-20)	
				40:19-24 (19-24)
40:21-26 (21-26)	40:21-24 (21-23)	40:21-23 (21-23)	40:21-22 (21-22)	
			40:23-26 (23-26)	
	(24)	40:24 (24)		
	40:25-26 (25-26)	40:25-26 (25-26)		40:25-31 (25-31)
40:27-31 (27-31)	40:27-31 (27-31)	40:27-31 (27-31)	40:27-31 (27-31)	

\* 문단의 분할은 영감되지 않는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번역본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해 해놓았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번역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요약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 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은 다음, 우리의 이해를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부록 1, 2, 3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기술적인 용어들과 약어들을 참조하라.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사야는 주전 8 세기에 살았다. 하지만 이사야 40-66 장의 역사적 배경은 ‘고레스 2 세가 주전 538 년(주전 6 세기)에 칙령’을 발표한 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스 1-6 장)의 지도력 아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과 들어맞는다.
- 나. 이사야서는 한 권의 책이다(서론을 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한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미래의 계획’을 계시하셨다. 나는 이 책의 저자가 두 명 또는 세 명이라는 설을 거부한다. 나는 이 책이 편집 또는 편찬된 것이라고 믿는다.
- 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언약적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을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셨다(참조, 렘 31:31-34). 이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의 삶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로써 정의된다.
- 라.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이 예언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40-66 장의 궁극적인 초점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있다.  
사 40 장은 “종의 노래”(참조, 42:1-9; 49:1-7; 50:4-11; 52:14-53:13)로 알려진 바 메시아에 관한 독특한 본문의 서론을 이룬다.
- 마. 사 1-39 장이 앗시리아와 바벨론에 포로로 감을 다루고 있듯이, 40-66 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 다룬다. 그의 청중의 지역적 배경이 바뀌었다!
- 바. 1-11 절은 전체 단락의 서론이요 요약이다. 새 날이 이르렀다!

개역개정 40:1-2

<sup>1</sup>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sup>2</sup>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그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40:1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용어(BDB 636, KB 688, *피엘 명령, 복수*)는 1-39 장에서는 세 번만 사용되었는데, 40-66 장에서는 14 번 사용되었다(대부분은 *피엘형*). 이 단어는 이 단락의 주제를 이룬다. 이 용어는 야웨의 긍휼하신 돌보심과 관심을 나타낸다(참조, 12:1). 이 단어는 말들이 매우 험뜩이는 모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야웨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벌 하셔야만 하기에 슬퍼하신다. 처벌이 끝났다. 왜 처벌이 끝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즉, 겔 18 장)
2. 비록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었지만, 야웨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행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참조, 겔 36:22-38).

새 날(즉, 새 언약, 참조, 렘 31:31-34)의 동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일이며(참조, 롬 3:21-31; 갈 3 장),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일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여기에 그들을 위한 내용이 들어 있다)에 근거한 일이다.

이 처음 문단과 관련하여 한 가지를 더 언급하려고 한다. 동사들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야웨께서 어떤 대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1. 여러 명의 선지자들(참조, 52:8)
  - ㄱ. 각 선지자
  - ㄴ. 이사야의 “학파”(즉, 그의 추종자들)
2.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즉, 사 6:8 과 41:22-23 의 “우리”)
3. 70 인역은 “너희 제사장들아, 예루살렘의 심장에 말하라”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다

**단수형** 단어(3 절과 6 절의 “목소리”)와 **복수형** 동사들이 함께 사용됨을 주목하라.

1-11 절에서는 12 개의 **명령**이 나온다. 1-11 절에서는 **명령어**가 특징적이며, 12-17 절에서는 “아니다”라는 답을 기대하는 일련의 질문들이 특징을 이룬다.

명령의 중복적 사용은 행동에 대한 강조점을 둔다. 이 용법은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서 자주 사용된 문학적 기교이다(참조, 51:9,17; 52:1,11; 57:14; 62:10).

▣ “너희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것은 언약을 나타내는 용어이다(참조, 창 12 장, 15 장 등).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은 ‘야웨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언약 관계에 계신지’에 의문을 가졌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호칭은 **엘로힘**(40:3 의 특별주제를 보라)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자요 공급자요 이 지구위에 있는 모든 생명의 유지자이심을 나타낸다. 야웨(참조, 2a 절)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분(52:6 의 특별주제를 보라)이시며 구원자와 속량자이심을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 특별주제: 언약

언약을 뜻하는 구약 용어인 **ברית**(BDB 136)은 정의하기에 쉬운 용어가 아니다. 히브리어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다.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개념의 중요성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 단어가 갖는 기능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단어의 용법을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언약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다. 성경의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 계약, 혹은 동의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언약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행동에 기초하고 있다:

1. 창조 자체(참조, 창세기 1-2 장)
2. 아브라함을 부르심(참조, 창세기 12 장)
3. 아브라함과 언약(참조, 창세기 15 장)
4. 노아를 보전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심(참조, 창세기 6-9 장)

그러나 언약은 그 특성상 응답을 요구한다

1. 아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덴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했다
2.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가족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야 했고 장차 후손을 갖게 될 것을 믿어야 했다
3. 노아는 믿음으로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커다란 배를 건축하여야 했고 또 동물들을 모아 들여야 했다
4.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축복 및 저주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종교 및 사회 생활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받았다(참조, 신명기 27-28 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이같은 긴장은 “새 언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긴장 관계는 겔 18 장과 겔 36:27-37 을 비교하여 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에 기초하는가 혹은 요구된 인간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 질문은 옛 언약과 새 언약과 관련하여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두 언약은 같은 목적 (1) 창 3 장에서 상실한 교제를 회복하는 일 (2)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의로운 백성을 형성하는 일을 갖는다.

렘 31:31-34 에 있는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언약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을 배제시킴으로써 그 긴장을 해결한다. 하나님의 법이 외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내적인 갈망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다.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그 목적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이를 이루는 방법은 바뀌었다. 범죄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함을 입증했다. 언약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됨과 약함에 문제가 있었다(참조, 로마서 7 장; 갈라디아서 3 장).

구약의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 사이에 있는 긴장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거저 주시지만, 구원을 위해 회개와 믿음(최초의 또한 계속적인)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법적 선언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이것은 받아 주심에 대한 직설적 진술이며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이다! 신자들은 자신의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참조, 엡 2:8-10). 경건한 삶은 받은 바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긴장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

▣ “**이르시되**” 이 장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식을 선포하시는 것과 관련을 가지는 여러 종류의 **동사**(또한 여러 종류의 화자)가 사용되었다.

1. 말하라 - BDB 180, *피엘 명령*, 2 절
2. 외치라 - BDB 894, *칼 명령*, 2 절과 6 절
3. 부르라 - BDB 894, *칼 능동 명령*
4. 네 목소리를 높이라 - BDB 926, *히필 명령*, 9 절
5. 말하라 - BDB 55, *칼 명령*, 9 절

이 단어는 이사야에 대한 두 번째 부르심과 같은 역할을 한다(참조, 6 장).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그들에게 말하라”로 바뀌었다.

40:2 “마음에 닿도록” 이 용어는 “사랑의 말”을 뜻하는 *레밥*으로서 “심장”에서 왔다(*레브*, BDB 523, KB 516, 참조, 창 34:3; 50:21; 사 19:3; 룻 2:13; 호 2:14).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가지신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인간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뜻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경우는 인간의 표현을 사용한 예에 속한다.

▣

NASB, NKJV	“전투”
NRSV	“정해진 기간 동안 그녀가 노예살이를 했다”
TEV	“충분히 고난을 받았다”
NJB	“노예의 기간”
JPSOA	“노예의 계약 기간”
REB	“노예살이의 기간을 마쳤다”

이 **명사**(BDB 838, 여기서 **여성형**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남성형**임)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전쟁
2. 전투(단 10:1)
3. 레위인이 섬김(즉, 민 4:3,23,30,35,39,43)
4. 고된 노예살이(참조, 욥 7:1; 14:14; 사 40:2)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어야 했다(참조, 출 19:5-6). 하지만 그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내해야 하는 “고된 노예살이”로 바뀌었다(앗시리아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감).

▣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죄악의 댓가를 지불한 것으로 받아들임”을 뜻한다(BDB 953, *니팔 완료형*, 참조, 레 1:4; NASB 의 난외주; TEV).

▣ “여호와와 손에서” 야웨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게 심판을 내리셨다. 그들이 침략을 받고 또 포로로 잡혀간 일은 앗시리아(즉, 8:7; 10:5)나 바벨론의 힘이 세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야웨께로부터 온 일이었다.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벌일 때 그들의 신들이 싸움을 벌여 그 중 힘이 가장 센 신이 승리를 거둔다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해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포로로 잡혀간 일은 그들이 야웨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셈어에서 “손”은 도구를 뜻하는 관용어이다.

**특별주제: 손 (에스겔서에서 사용한 용법)**

“손”(BDB 388)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와 용법을 가진다.

1. 문자적(즉, 사람의 손)
  - ㄱ. 한 사람 전체를 상징함, 3:18; 18:8,17; 33:6,8
  - ㄴ. 사람의 악함을 상징함, 7:17,27; 21:7; 22:14
  - ㄷ. 외국의 적을 상징함, 7:21; 11:9; 16:39; 21:31; 23:9,28; 28:10; 30:12; 34:27; 38:12; 39:23

- ㄹ. 손, 8:11; 12:7; 16:11; 37:17,19,20
- ㅁ. 거짓 지도자의 힘을 상징함, 13:21,22,23; 34:10
- ㅂ. 국가를 상징함, 23:31,37,42,45; 25:14; 27:15; 28:9; 30:10,22,24,25; 31:11; 39:3
- 2. 신을 뜻하는 신인동형적 표현
  - ㄱ. 계시를 받아들임, 1:3; 3:14,22; 8:1; 33:22; 37:1; 40:1(2:9 은 또 다른 은유적 표현임-손에 있는 두루마리)
  - ㄴ. 심판에 나타나는 야웨의 능력, 6:14; 13:9; 14:9,13; 16:27; 20:33; 25:7,13,16; 35:3; 39:21
  - ㄷ. 야웨 자신(그의 직접적인 임재), 20:22
  - ㄹ. 구원하시는 야웨의 능력, 20:34(아마도 출애굽기에서 취한 핵심적 용법임, 참조, 3:20; 4:17; 6:1; 7:19; 13:3)
- 3. 그룹들을 뜻하는 의인적 표현, 1:8; 8:3; 10:7,8,12,21
- 4. 멸망시키는 천사들을 뜻하는 의인적 표현, 9:1-2; 21:11
- 5. 서약 또는 맹세를 상징함, 17:18; 20:5(2 회),6,15,23,28; 36:7; 44:12; 47:14
- 6. 기쁨을 상징함, 25:6
- 7. 천사를 뜻하는 의인적 표현, 40:3,5; 47:3

#### 개역개정 40:3-8

- <sup>3</sup>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 <sup>4</sup>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 <sup>5</sup>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 <sup>6</sup>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 <sup>7</sup>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 <sup>8</sup>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40:3 “길을 예비하라” 이 동사(BDB 815, *피엘 명령*)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다”를 뜻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길을 닦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참조, 40:3; 42:16; 49:11; 57:14; 62:10; 말 3:1).

하나님의 백성이(포로됨에서부터) 하나님(즉, 하나님의 성전)께 나아오는 “거룩함의 도로”라는 개념은 이사야서에서 자주 나온다(참조, 11:16; 26:7; 35:8; 42:13).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바로 야웨 자신이다. 그들은 여정 곧 영적/육신적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 절에는 침례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사용한 내용이 있다(참조, 마 3:3; 막 1:3; 눅 3:4-6). 이 본문은 수 14:10 에서 반영되고 있다. 즉 예루살렘의 지형을 고르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참조, 말 3:1; 4:5,6). 이 일은 “길을 예비하라”라는 표현으로 말해진다(평행을 이루는 문장에 주목하라).

▣ “여호와” 이 용어는 야웨를 뜻한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가. 엘(BDB 42, KB 48)

1.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가 아카디아어의 “강하다” 또는 “능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신을 일컫는 이 고대 용어의 고유한 의미는 불확실하다(참조, 창 17:1; 민 23:19; 신 7:21; 시 50:1).
2. 가나안 만신전에서 높은 신은 엘이다(라스 샴라 본문)
3. 성경에서 엘은 일반적으로 다른 용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 단어가 들어있는 합성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낸다.
  - ㄱ. 엘-엘론 (“아주 높으신 하나님,” BDB 42 & 751 II), 창 14:18-22; 신 32:8; 사 14:14
  - 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BDB 42 & 909), 창 16:13
  - ㄷ.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또는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산의 하나님,” BDB 42 & 994), 창 17:1; 35:11; 43:14; 49:25; 출 6:3
  - ㄹ.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BDB 42 & 761), 창 21:33.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삼하 7:13,16
  - ㅁ. 엘-베릿 (“언약의 하나님,” BDB 42 & 136), 삿 9:46
4. 엘은 다음과 동격을 이룬다
  - ㄱ. 야웨, 시 85:8; 사 42:5
  - ㄴ. 엘로힘, 창 46:3; 욥 5:8, “나는 엘 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엘로힘)이다”
  - ㄷ. 샤다이, 창 49:25
  - ㄹ. “시기,” 출 34:14; 신 4:24; 5:9; 6:15
  - ㅁ. “자비,” 신 4:31; 느 9:31
  - ㅂ. “신실하신,” 신 7:9; 32:4
  - ㅅ. “크고 두려우신,” 신 7:21; 10:17; 느 1:5; 9:32; 단 9:4
  - ㅇ. “지식,” 삼상 2:3
  - ㅈ. “나의 견고한 피난처,” 삼하 22:33
  - ㅊ. “나의 신원자,” 삼하 22:48
  - ㅋ. “거룩하신 분,” 사 5:16
  - ㅌ. “힘,” 사 10:21
  - ㅍ. “나의 구원,” 사 12:2
  - ㅎ. “크고 능하신,” 렘 32:18
  - ㄱ. “값스심,” 렘 51:56
5. 수 22:22 에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함께 나온다(엘, 엘로힘, 야웨 가 반복됨)

나. 엘론 (BDB 751, KB 832)

1. 이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높은,” “존귀하신,” 또는 “높이 들리신”이다(참조, 창 40:17; 왕상 9:8; 왕하 18:17; 느 3:25; 램 20:2; 36:10; 시 18:13).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칭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ㄱ. 엘로힘 - 시 47:1-2; 73:11; 107:11
  - ㄴ. 야웨 - 창 14:22; 삼하 22:14
  - ㄷ. 엘 샤택 - 시 91:1,9
  - ㄹ. 엘 - 민 24:16
  - ㅁ. 엘라 - 다니엘 2-6 장, 에스라 4-7 장에서 많이 사용됨; 단 3:26; 4:2; 5:18,21 에서는 일라이르 (아람어로 “높으신 하나님”)와 연결됨
3.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였다.
  - ㄱ. 벨기세텍,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16
  - ㄷ. 모세, 신 32:8 에서 나라들에 대해 말함
  - ㄹ.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신약의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ιστοσ*를 사용(참조, 1:32,35,76; 6:35; 8:28; 행 7:48; 16:17)

다. 엘로힘 (복수형) 및 시에서 주로 사용된 엘로야 (단수형) (BDB 43, KB 52)

1. 이 이름은 구약 이외의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이방의 신들을 가리킨다(참조, 출 12:12; 20:3).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졌다(참조, 수 24:2).
3.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출 21:6; 시 82:6).
4. 엘로힘은 다른 영적 존재들(천사, 악령)에게도 사용되었다, 신 32:8(LXX); 시 8:5; 욥 1:6; 38:7.
5. 이것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름이다(참조, 창 1:1). 이 이름은 이 이름과 야웨가 함께 사용된 창 2:4 이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기본적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 보존자, 공급자로 나타낸다(참조, 시 104 편).  
이 이름은 엘의 동의어를 이룬다(참조, 신 32:15-19).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 14 편(엘로힘)이 시 53 편(야웨)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듯이, 이 이름은 야웨와 평행을 이룬다(엘로힘, 1,2,5 절; 야웨, 2,6 절; 심지어 *아돈도* 4 절).
6. 비록 복수형이 이방신들에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호칭은 종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이름은 단수형 동사를 가져 유일신적 의미를 나타낸다.
7. 이스라엘의 유일신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 비록 아주 분명하지만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 ㄱ. 히브리어에는 많은 복수형이 있는데 이것은 종종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복수형이 어떤 개념을 극대화하는 후기의 히브리어 문법적 특징으로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의 개념을 가진다.
  - ㄴ. 이것은 천사들의 모임을 일컬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참조, 왕상 22:19-23; 욥 1:6; 시 82:1; 89:5,7).
  - ㄷ. 이것은 신약의 계시에서 삼위이신 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 1:1 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창 1:2 에서는 성령의 행하심을

말한다; 신약에서 볼 때, 예수님은 창조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대행자였다(참조, 요 1:3,10; 롬 11:36; 고전 8:6; 골 1:15; 히 1:2; 2:10).

라. 야웨 (BDB 217, KB 394)

1. 이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약속,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다(참조, 시 103 편).

이 이름은 창 2:4 에서 엘로힘과 함께 나타난다. 창 1-2 장은 창조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아니라 두 강조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우주  
 (물질적)의 창조자이시고 (2) 인류의 특별한 창조자이시다. 창 2:4 은 인간의  
 특권적인 지위와 창조 목적에 대한 특별한 계시로 시작하며, 또한 죄의 문제와  
 인간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반역을 다룬다.

2. 창 4:26 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야웨)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한다. 한편  
 출 6:3 은 초기에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족장들과 그들의 가족)은 하나님을 오직  
 엘 사다이로 알았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는 오직 한 번 출 3:13-16  
 (특히 14 절)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모세의 글은 종종 어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조, 창 17:5; 27:36; 29:13-35) 언어유희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IDB 제 2 권 409-11 쪽에서 취함):

- ㄱ. 아라비아 어원, “뜨거운 사랑을 보임”
- ㄴ. 아라비아 어원, “불어냄”(폭풍의 신으로서 야웨)
- ㄷ. 우가릿어(가나안어) 어원, “말하다”
- ㄹ. 페니키아어 비문에서 원인을 말하는 분사, “유지시키는 자” 또는 “세우는  
 자”
- ㅁ. 히브리어 칼 형, “계신 분” 또는 “존재하시는 분”(미래적 의미로는 “앞으로  
 계실 분”)
- ㅂ. 히브리어 히필 형, “있게 하시는 분”
- ㅅ. 히브리어 어원인 “살다”(예, 창 3:20)로 “항상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분”
- ㅇ. 출 3:13-16 의 문맥에서 미완료형이 완료형의 의미로 쓰인 것, “나는 내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또는 “나는 내가 항상 있었듯이 계속  
 있을 것이다”(참조, 와쉬 왓쓰의 구약 문맥 개설 67 쪽). 야웨란 이름은  
 종종 축약적으로 혹은 원래의 형태로서

- (1) 야(예, 할렐루-야, BDB 219, 참조, 출 15:2; 17:16; 시 89:9;  
 104:35)
- (2) 야후(이름의 끝 자인 “야,” 예, 이사야)
- (3) 요(이름의 첫 자인 “요,” 예, 여호수아 혹은 요엘)

3.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언약적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다(4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 의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에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주”-아돈 혹은 아도나이(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야웨가 나올 때마다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왜 야웨를 주(LORD)라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4. 엘 처럼 야웨는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 가능한 조합의 여러 경우 가운데 그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다.

- ㄱ. 야웨-이레(야웨께서 공급하신다, BDB 217 & 906),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야웨는 너의 치료자이시다, BDB 217 & 950, 칼 분사),  
 출 15:26

- ㄷ. *야웨-니시* (야웨는 나의 깃발, BDB 217 & 651), 출 17:15
- ㄹ. *야웨-메카디스켄* (야웨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BDB 217 & 872, *피엘 분사*), 출 31:13
- ㄱ. *야웨-살롬* (야웨는 평화이다, BDB 217 & 1022), 삿 6:24
- ㅅ. *야웨-쓰바웃* (만군의 야웨, BDB 217 & 878), 삼상 1:3,11; 4:4; 15:2; 종종 예언서에 쓰임
- ㅇ. *야웨-로이* (야웨는 나의 목자, BDB 217 & 944, *칼 분사*), 시 23:1
- ㅈ. *야웨-치드케누* (야웨는 우리의 의이다, BDB 217 & 841), 렘 23:6
- ㅊ. *야웨-삼마* (야웨께서 거기 계시다, BDB 217 & 1027), 겔 48:35

▣ “**광야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떠나 동쪽으로 옮기심을 보았다(참조, 겔 10:18-19; 11:22-23; 43:1-3).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함께 가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심’을 이 절이 나타낸다.

40:4 이 문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심’을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하여야 함을 가리킨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참조, 9-11 절). 이 내용은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의 연장선에 있는 묘사이다. 이 절은 백성들이 쉽게 거저로 하나님께 나아옴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주셨다(즉, 새 언약, 참조, 렘 31:31-34). 이 새 길은 새로운 출애굽으로 묘사된다

1. 여기서는 육신이 포로로 사로잡혀감에서의 출애굽을 말한다
2. 은유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출애굽을 말한다

40:5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이 본문을 사 6 장(즉, 3 절)과 연결시키는 또 다른 내용이다. 40 장은 이사야를 두 번째로 부르심에 대한 것이다. 25 절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출애굽과 광야 방랑 기간에 나타났던 “영광의 구름”을 암시한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상징한다. 랍비들은 이것을 *쉐키나*로 불렀는데, 이 용어는 “거주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하심을 재확인하기를 원했다(참조, 출 13:21-22; 14:19). 새 출애굽이 이르렀다!

영광에 대하여는 42: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육체”(BDB 142)는 인간들을 의미한다(참조, 7 절).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우주적 요소이다(즉, 49:6; 51:4-5; 52:10).

▣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야웨께서 하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8 절; 창 1:3,6,9,11,14,20,26; 사 55:11).

40:6 “**외치라**” 40:1 의 설명을 보라.

▣	
NASB	“그가 대답하였다”
NKJV	“그가 말하였다”
NRSV, NJB	“내가 말하였다”
TEV	“내가 묻는다”
REB, LXX, DSS	“내가 물었다”

시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종류(태)가 나타남을 주목하라. 사해사본과 70 인역에 의하면 천사/영이 이사야에게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것은 자주 사용된 은유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육체적 존재가 지닌 허약함과 덧없음을 가리킨다(참조, 창 6:3; 욥 10:4; 14:1-2; 시 78:39; 90:5-6; 103:15-18; 벧전 4:24-25).

누구에게 이 소리가 말을 하는 것인가?

1. 모든 인간
2. 세계의 강대국

이것은 인간 정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인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힘이 있다. 시간적 제약이 있는 힘이기애, 진정한(즉,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힘은 아니다!!

▣ “아름다움” 이것은 *헤세드*(BDB 338 I, 4 항)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것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성실하심을 종종 나타낸다.

### 특별주제: 인자한 사랑(*헤세드*)

이 용어는 넓은 범주의 의미를 갖는다. BDB 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338-339 쪽).

가. 인간과 관련된 용법

1. 동료 인간에 대한 친절(예, 삼상 20:14; 대하 24:22)
2.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에 대한 친절(예, 미 6:8)
3. 동정(참조, 렘 2:2; 호 6:4)
4. 모습(참조, 사 40:6)

나. 하나님과 관련된 용법

1. 언약적 충성과 사랑
  - ㄱ. “원수로부터 혹은 어려움에서 구속하심”(예, 렘 31:3; 스 7:28; 9:9)
  - 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지키심”(예, 욥 10:12; 시 86:13)
  - ㄷ. “영적 생명을 활기차게 하심”(예, 시 119:41,76,88,124,149,150)
  - ㄹ. “죄에서 구하심”(참조, 시 25:7; 51:3)
  - ㅁ. “언약을 지키심”(예, 대하 6:14; 느 1:5; 9:32)
2.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함(예, 출 34:6; 미 7:20)
3. 하나님의 친절
  - ㄱ. “풍성하심”(예, 느 9:17; 시 103:8)
  - ㄴ. “범위가 넓음”(예, 출 20:6; 신 5:10; 7:9)
  - ㄷ. “영원하심”(예, 대상 16:34,41; 대하 5:13; 7:3,6; 20:21; 스 3:11)
4. 친절하신 행동(예, 대하 6:42; 시 89:2; 사 55:3; 63:7; 애 3:22)

40:7-8 여기서는 결론적인 진술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미완료형**)”를 제외한 모든 동사가 **완료형**(즉, 완료된 행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옴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다!

40:7 “기운” 이 히브리 용어는 *루아흐*(BDB 924)로서 “바람,” “호흡,” 또는 “영”을 의미한다.

##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영

### I. 헬라어 용어

- 가. *프네오*, 불다
- 나. *프노에*, 바람, 호흡
- 다. *프뉴마*, 영, 바람
- 라. *프뉴마티코스*, 영에 관한
- 마. *프뉴마티코스*, 영적으로

### II. 헬라 철학적 배경(*프뉴마*)

-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용어를 출생 때부터 시작하여 자기 훈련의 시기까지 가지는 생명력으로 사용했다
- 나. 스토아학파는 이 용어를 오감 및 인간의 지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프쉬케*(혼) 또는 *누스*(마음)의 동의어로 사용했다
- 다. 헬라의 사상 - 이 용어는 신적 활동을 뜻하였다(즉, 신탁, 마술, 주술, 예언 등)

### III. 구약(*루아흐*)

- 가. 유일신의 행동(즉, 성령, 구약에서 약 90 회 사용됨)
  - 1. 긍정적, 창 1:2
  - 2. 부정적, 삼상 16:14-16,23; 왕상 22:21-22; 사 29:10
- 나.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주신 생명력(즉, 하나님의 호흡, 참조, 창 2:7)
- 다. 70 인역은 *루아흐*를 *프뉴마*로 번역한다(70 인역에서 100 회 정도 사용됨)
- 라. 후기에 속하는 랍비들의 글, 묵시 문학, 사해사본에서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프뉴마*를 천사들과 악령에 대해 사용함

### IV. 신약(*프뉴마*)

- 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능력, 힘주심
  - 나.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을 가지심
    - 1. 예언
    - 2. 기적행함
    - 3. 담대히 복음을 선포함
    - 4. 지혜(즉, 복음)
    - 5. 기쁨
    - 6. 새 시대의 도래
    - 7. 회심(즉, 마음을 열게 하심과 거주하심)
    - 8. 그리스도를 닮음
    - 9. 사역을 위한 특별한 은사들
    - 10. 신자들을 위한 기도
-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도록 각성시킨다. 인간은 이 교제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 교제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의 삶과 사역을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영적 각성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섬김과 신뢰로 이끈다.
- 다. 이 영적 연속성의 한 쪽에 성령이 위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은 다른 한 편에 위치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라. 바울은 성령/영에 대한 신학을 발전시킨 신약의 저자이다
    - 1. 바울은 성령을 몸(즉, 죄의 본질)과 대조시킨다
    - 2. 바울은 영을 육체와 대조시킨다
    - 3. 바울은 성령/영을 인간의 사고, 지식, 존재와 대조시킨다

마. 고린도후서에서 예를 들면

1. 성령, 12:3
2.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성령을 통해 나타남, 2:4-5
3. 하나님의 행하심이 신자에게 나타남
  - ㄱ. 새로운 마음가짐, 2:12; 14:14,32
  - ㄴ. 새 성전, 3:16; 6:19-20
  - ㄷ. 새 생명(즉, 도덕성), 6:9-11
  - ㄹ. 침례(세례)로 상징되는 새 생명, 12:13
  - ㅁ. 하나님과 하나됨(즉, 회심), 6:17
  - ㅂ.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2:12-15; 14:14,32,37
  - ㅅ. 모든 신자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받는 영적 은사, 12 장과 14 장
4. 영이 육체와 대조를 이룸, 9:11; 10:3; 15:44
5. 영적 영역이 육체의 영역과 대조를 이룸, 2:11; 5:5; 7:34; 15:45; 16:18
6. 인간의 영적/내적 삶을 육신과 구별하여 말함, 7:34

바. 인간은 창조된 세계의 두 영역에서 산다(즉, 물리적 및 영적).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떨어져 나왔다(창 3 장).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죽으심, 부활하심, 약속하신 재림을 통하여 범죄한 인간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권고하신다. 성령은 이 “세대”에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와 성자의 옹호자로서 일하신다. 현재 새 시대가 도래했으나, 범죄하고 반역한 옛 시대가 아직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고 계신다.

40:8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훈계를 행하시는 중에라도’ 확실하다(참조, 시 103:17-18; 사 55:8-11; 59:21; 렘 29:10; 마 5:17-20; 24:35). 이 진술은 모든 신자가 가질 확실한 믿음의 소망/확신이다.

개역개정 40:9-11

- <sup>9</sup>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 <sup>10</sup>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움이 그의 앞에 있으며
- <sup>11</sup>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40:1 “시온에 . . . 예루살렘에” 이 두 용어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졌지만, “시온”( 다윗이 이곳에 왕궁을 건설함)은 도시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어이다.

이 의인화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 하나님의 선지자들
2.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지파의 교사들
3. 새 시대의 전령(즉, 침례요한)

이 구는 다음의 내용을 가리키는가?

1.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즉, 52:7-9; 62:10-12)
2. 마카비가 거둔 승리
3. 예수의 초림(사 62:11, 이 본문을 마 21:50 에서 인용함)
4. 예수의 재림(사 40:10; 62:11. 이 본문을 계 22:12 에서 암시함)

(1)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시대 사이에 유동성이 있다. 이 본문은, 신약의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는, 대단원을 이룬다. 예수께서 이러한 소망을 완성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시는 일(구원자와 왕)은 이중적인 성취를 나타내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언들은 여전히 미래적이다. 그 예언들은 주전 539 년에 스킴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돌아옴으로써 성취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생애에 이르러서야 성취되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9-11 절의 문단은 다가오고 있는 무리/개인/군대에 관하여 “파수군”이 도시에 알리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강하신 분(즉, 하나님)이 오고 계신데, 그는 침략자로서가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목자로서 오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보호하고 공급하시려고 오신다. 이스라엘의 목자(시 23 편)께서 겔 8-10 장에서 버려진 바 된 자신의 땅/백성에게로 오신다!

**특별주제: 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가?**

내가 여러 해 동안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마지막 때에 대한 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영역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 심리적 또는 교단적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만 복음전도의 긴급성에 대하여는 놓치고 있다! 신자들이 종말론적(마지막 때) 사항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복음전파의 대위임에는 참여할 수 있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때에 완성됨을 받아들인다. 이 일이 완성되는 시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따르는 해석적 어려움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개의 역설에 기인한다.

1. 구약 언약의 예언적 모델과 신약 언약의 사도적 모델 사이의 긴장
2. 성경의 유일신론(모든 이에게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택(특별한 한 민족) 사이의 긴장
3. 성경에 있는 언약과 약속의 조건적인 면(“만일. . .그때에는”)과 범죄한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신실하심 사이의 긴장
4. 근동 문학의 장르와 현대 서구 문학적 모델 사이의 긴장
5.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와 ‘아직 미래’ 사이의 긴장
6.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믿음과 어떤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 사이의 긴장.

이 긴장의 내용을 한 번에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긴장(구약의 인종적 국가적 지역적 영역 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왕국이 다시 세워져, 그곳으로 지구 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후손을 섬기고 찬양하려고 모일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하지만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은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구약이 영감받지 않은 책인가

(참조, 마 5:17-19)? 신약의 저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생략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끝에 관하여 알려 주는 여러 자료가 있다:

1. 구약의 예언서(이사야, 미가, 말라기)
2. 구약의 묵시적 글(참조, 겔 37-39 장; 단 7-12 장; 스가랴)
3. 신구약 중간기의 정경이 아닌 유대의 묵시적 글(에녹 1 서의 경우 유다서에서 암시함)
4. 예수님 자신(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
5. 바울의 글(참조, 고전 15 장; 고후 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
6. 요한의 글(요한일서와 계시록)

이 자료들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사항(사건, 시간적 순서, 인물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가? 그들은 다 영감을 받았는가(신구약 중간기에 속하는 유대인의 글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성령은 구약의 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범위에서 진리를 그들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 성령께서 구약의 이러한 종말론적 개념을 세계적인 것으로 확장하셨다(“그리스도의 신비,” 참조, 엡 2:11-3:13, 10:7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와 관련을 가진 예를 여기서 일부 제시하려고 한다:

2.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시온). 그러나 신약에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제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계 21-22 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의미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일이 창 3:15에서 예시하듯이 범죄한 인간을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보여졌다. 그 때는 유대인도, 유대인의 수도도 전혀 없었던 시기였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경우에도(참조, 창 12:1-3)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었다(참조, 창 12:3; 출 19:5).
3.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나라들이었는데, 신약에서는 그 개념이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모든 자들로 확대되었다. 국지적 개념의 싸움이 전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싸움으로 바뀌었다(참조, 골로새서).
4.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땅의 약속’(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들, 참조, 창 12:7; 13:15; 15:7,15; 17:8)은 이제 전세계에 대한 내용이 되었다. ‘근동의 한 지역에 위치 하거나 혹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장소가 아닌 새 예루살렘이 재창조된 지구로 내려온다(참조, 계 21-22 장)
5. 구약의 예언적 요소가 확장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ㄱ.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는 영적으로 할례받은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롬 2:28-29)
  - ㄴ. 언약백성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포함한다(참조, 롬 9:24-26에서 인용한 호 1:10; 2:23; 또한 고후 6:16-18에서 인용한 레 26:12; 출 29:45; 딤후 2:14에서 인용한 출 19:5; 신 14:2)
  - ㄷ. 성전이 이제는 예수(참조, 마 26:61; 27:40; 요 2:19-21)를 또 예수를 통하여 지역교회(참조, 고전 3:16)와 각 신자(참조, 고전 6:19)를 가리킨다
  - ㄹ.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구약의 특징적인 표현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즉, “이스라엘,” 참조, 롬 9:6; 갈 6:16; 즉, “제사장 나라,” 참조, 벧전 2:5,9-10; 계 1:6)

예언의 모델(즉,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가위*)이 성취되었고 확장되어 상당히 포괄적이 되었다. 예수님과 사도인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때를 제시하지 않았다(참조, 마틴 원가텐, *예언에 나타난 왕국의 미래와 성취*). 구약의 모델을

문자적이고 규범적으로 해석하려는 자들은 계시록을 상당히 유대적인 책으로 왜곡시키며, 예수님과 바울이 사용한 모호하면서도 따로 떨어져 있는 구에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를 나타내도록 강요한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우주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로 종말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원적이고 목회적인 목적을 가졌다(참조, 고전 15:58; 살전 4:18).

한편, 신약 저자들 사이에도 긴장이 나타난다. 그들은 종말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다. 여러 면에서 볼 때, 놀랍게도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묘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또는 바울의 글) 구약의 암시를 사용한다! 처음에 에스겔, 다니엘, 스가라가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신구약 중간기(유대인의 묵시문학)에 발전된 문학적 장르를 계시록이 따르고 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요한이 사용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님께 반역을 함과 인간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헌신하심을 드러낸다! 비록 계시록이 구약의 표현, 인물, 사건들을 암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1 세기 로마의 상황에 비추어 재해석하였음을 기억해야만 한다(참조, 계 1:7).

#### **두 번째 긴장(유일신론 대 선택된 한 백성)**

성경의 강조점은 한 분 곧 영이시며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강조점을 둔다(참조, 출 8:10; 사 44:24; 45:5-7,14,18,21-22); 46:9; 렘 10:6-7). 구약의 독특성은 바로 유일신론에 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는 다신론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한 분 이심이 구약의 계시에서 핵심을 이룬다(참조, 신 6:4). 창조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누리는 장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다(참조, 창 1:26-27).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도력과 목적을 거스르고 반역하였다(참조, 창 3 장)!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여, 타락한 인류를 속량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나라를 택하시어 인류 전체를 속량하려고 결정하셨을 때 긴장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유대인을 제사장들의 나라로 택하신 일은(참조, 출 19:4-6) 섬김이 아니라 교만을, 포함시킴이 아니라 배제시킴이 일어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모든 인류를 축복할 의도에서 행해진 일이었다(참조, 창 12:3). 구약에서 선택이 섬김을 위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적도 없고(즉, 롬 9:6), 그들의 출생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적도 없다(참조, 요 8:31-59; 마 3:9). 오직 믿음과 순종에 의하여 각 사람이 그러한 관계와 구원을 누린 것이다(참조, 창 15:6, 롬 4:3,9,22; 갈 3:6 에서 인용함.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려(이제는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이다, 참조, 1:6; 벧후 2:5,9), 의무를 특권으로 또 봉사를 특별한 지위로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를 선택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 **세 번째 긴장(조건적 언약 대 무조건적 언약)**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 사이에 신학적 긴장 혹은 역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속 목적/계획은 무조건적인 것이 사실이다(참조, 창 15:12-21; 또 메시아께서 오심). 그러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응답은 항상 조건적이다!

“만일... 그 때에는”의 형식이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 이러한 긴장은 많은 혼동을 일으켰다. 해석자들은 “진퇴양난의 경우”에서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가졌다—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주권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가지 모두 성경적이며 또 함께 가야 한다.

지 않았다

이것은 종말론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구약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에

묵여 계시다; 하나님의 명성이 이 일에 달려 있다(참조, 겔 36:22-38).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이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었다(참조, 사 53 장)! 하나님의 지고한 신실하심이 회개하여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에 나타나는 것이지, 누가 당신의 아버지요 어머니인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언약과 약속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참조, 행 7 장 및 갈 3 장).

복음 선포를 통한 세계선교가 교회에게 전해졌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이것은 여전히 조건적인 언약에 속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거부하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참조, 롬 9-11 장). 마지막 때에 믿는 이스라엘이 설 장소가 있으며 그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참조, 스후 12:10).

#### 네 번째 긴장(근동 문학의 장르 대 서구의 문학적 모델)

장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회는 서구(헬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했다. 동양의 문학은 오늘날 서구문화의 문학 양식에 비하여 상당히 회화적이고 은유적이며 상징적이다. 이것은 분명한 명제적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만남, 사건에 관심을 둔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예언(구약과 신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사 및 문학적 모델을 사용’하는 잘못을 범한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각 자신의 시대와 지역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와 문학적성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들 모두 잘못되었다! 성경의 예언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날의 서구 문화가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은 건방진 견해이다!

영감을 받은 원저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장르는 ‘독자와 맺은 하나의 문학적 협약’이다.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 책은 편지(1-3 장)와 예언과 묵시문학(주로 이 형태임)이 결합된 형태이다.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내용을 성경이 말하게 하는 일’은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했던 것 보다 더 적은 내용을 성경이 말하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계시록과 같은 종류의 책을 다룸에 있어서 해석가들의 거만함과 교조주의는 더 더욱 부적합하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교회가 결코 가지지 않았다. 내가 소망하는 바는 어떤 일부분을 취사선택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듣고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경은 ‘긴장으로 가득찬 짝을 이루는 진리’를 동양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제시한다. 우리 서구인이 가진 바 명제적 진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계시록이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만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계시록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이 책의 장르에 비추어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 해석가들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피와 스튜아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49-264 쪽). 계시록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반드시 처음 독자가 무엇을 이해했고 또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다루어야만 한다(즉, 존 L. 브레이, *성취된 마태복음 24 장*). 여러 면에서 볼 때, 서구의 해석가들은 이 책에 수 많이 있는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계시록의 주요 취지는 박해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낸다(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역사가 정해진 끝(심판과 축복)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1 세기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어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과 통치를 확증해 준다!

이 책은 신학적으로 같은 방법으로써 각 시대의 신자들에게 말한다. 이 책은 선과 악의 우주적 대결을 묘사한다. 1 세기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책이 증거하는 강력한 진리를 안다. 오늘날 서구의 해석가들이 계시록의 세부적인 내용을 자신들의 현재 역사에 대한 것이 되도록 강요함으로써, 잘못된 해석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지도자(참조, 살후 2 장)와 그러한 문화에서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세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놀랍도록 실제적인 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으심과 관련된 구약의 본문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의 말씀(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과 바울의 가르침(참조, 고전 1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는 누구도 이 계시록의 문자적 성취 여부를 알 수 없다. 추측과 짐작과 교리적 주장은 모두 부적합하다. 묵시문학은 이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기술을 뛰어 넘는 이미지와 상징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주석은 장르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오늘날 서구의 해석가들은 종종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장르가 가진 ‘모호하고 상징적이며 드라마적인 면’을 다룸에 있어서 빈약한 접근을 하는 반면, 명백하고 논리적인 신학적 구조를 추구한다. 이러한 모습을 랄프 P. 마틴이 *신약의 해석*(I. 하워드 마샬 편저)에 실린 “신약 석의를 위한 접근”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이 책의 드라마적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언어적 표현이 종교적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묵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며, 또 환상이 마치 문자적 의미를 가지는 산문으로 기록된 책인양 이 책을 해석할 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여 그 시기를 말할 수 있는 역사상의 사건으로 파악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게 된다. 특별히 마지막에 언급한 오류는 해석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문제를 낳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접근은 묵시적 본문의 핵심적 의미를 변형시켜 신약에서 이 부분이 가진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만든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남’을 신화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제시한 드라마적인 주장 및 ‘하나님의 통치를 힘과 사랑으로 제시하는 역설’을 놓치게 만든다(참조, 5:5,6; 사자가 어린양이시다)” (235 쪽).

W. 랜돌프 테이트는 자신의 책 *성경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을 열정적으로 읽지만 그 어떤 장르도 ‘묵시’(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경우)처럼 암담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 장르의 문학적 형태와 구조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기인하여 이 장르는 재난적인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통을 당하여 왔다. 묵시가 곧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인하여 많은 이들은 이것을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이끄는 지도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의 비극적인 결점은 이 책이 저자 당시의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독자의 시대에 대한 것이라는 확고한 가정에 따른 것이다. 묵시, 특별히 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접근은 ‘본문의 상징을 해석함으로써 오늘날의 사건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암호’를 얻을 수 있는 것 처럼 임하게 한다. . . 첫째로, 해석가는 묵시가 상징주의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임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상징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잘못된 해석을 낳을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묵시적 책에 기록된 사건들이 역사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사건들은 역사상에 일어날 수 있다: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저자는 사건을 제시하되 이미지와 암호를 통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137 쪽).

리켄이 편집한 *성경의 이미지 사전*에서 윌호스트와 롱맨 III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이 장르에 의해 종종 당황하고 당혹해 한다. 예상치 못했던 이미지 및 이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경험들은 이상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 본문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학적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 들이는 일은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질서한 상태에 처하게 하고 결국 이 묵시적 메시지의 의도를 놓치게 만든다” (35 쪽).

### 다섯 번째 긴장(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임)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다. 이 신학적 역설은 종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예상한다면, 주로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그곳에 회복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됨을 찾게 될 것이며, 또 그러한 신학적 강조점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5장에서 교회의 비밀스런 휴거가 일어남을 또 나머지 장들은 이스라엘과 관련을 가짐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계 22:16의 설명을 보라).

한편, 만일 초점이 약속된 구약의 메시아에 의해 왕국이 시작됨에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임하고 따라서 초점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과 가르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놓이게 된다. 또 신학적 강조점을 현재의 구원에 두게 된다. 왕국이 임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어떤 이들을 다스리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구원을 제공하심’에서 구약이 성취된다!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심을 말씀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디에 그 강조점이 놓여 있는가? 나는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은 초림 즉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짐(참조, 단 2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같은 내용이다(참조, 단 7장). 구약에서는 초점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두지만,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서다(참조, 고전 15:26-27).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진리인가는 옳은 질문이 아니다. 둘 다 진리이기 때문이다. 바른 질문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다. 다음 사실을 분명히 해 두어야만 하겠다: 어떤 해석가들은 메시아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것(참조, 계 20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심을 말하는 성경의 강조점을 놓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은 선행적인 사건이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심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듯이, 메시아의 통치가 일시적인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도 명확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치심에서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이것은 현재적(구원과 섬김에 있어서)이며 동시에 미래적(견고함과 능력의 면에서)이다. 만일 계시록이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참조, 계 20장), 그 왕국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선행적인 것이다(참조, 계 21-22장). 구약에서 일시적인 통치를 필요로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사실상 단 7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한 것이지 천년의 통치에 대한 것이 아니다.

### 여섯 번째 긴장(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대 지연된 *파루시아*)

많은 신자들은 예수의 재림이 곧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있을 것임을 배웠다(참조, 마 10:23; 24:27,34,44; 막 9:1; 13:30; 계 1:1,3; 2:16; 3:11; 22:7,10,12,20).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기대를 가진 신자들의 세대는 빗나갔다! 곧 있을 (즉시) 예수의 재림은 모든 세대에게 강력한 약속의 소망이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직 한 세대(박해를 받는 한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신자들은 반드시 ‘마치 예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하지만, 만일 그의 오심이 지체된다면 대위임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며 살아야 한다(참조, 마 28:19-20).

복음서(참조, 막 13:10; 눅 17:2; 18:8)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어떤 본문은 지연된 재림(*파루시아*)에 기초한 본문이다. 어떤 일들이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먼저 일어날 것이다:

1. 전세계적 복음전도(참조, 마 24:14; 막 13:10)
2. “죄의 사람”이 나타남(참조, 마 24:15; 살후 2장; 계 13장)
3. 대박해(참조, 마 24:21,24; 계 13장)

의도적인 모호함이 있다(참조, 마 24:42-51; 막 13:32-36)! 매일 매일이 마치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미래의 사역을 위해 계획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지속성과 균형

오늘날 종말론적 해석을 하는 모든 종류의 학파는 ‘반쪽 진리’만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어떤 본문에 대하여 그들은 잘 설명하고 또 잘 해석한다. 문제는 지속성 및 균형이라는 면에서 생긴다. 종종 미리 가진 여러 전제를 사용함으로써 성경의 본문을 미리 설정한 신학적 주형에 짜 맞춘다. 성경은 논리적이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되는 조직적인 종말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가족 앨범과 같다. 사진들이 모두 진짜지만, 시간적 순서나 문맥이나 어떤 논리적 틀에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진들은 앨범의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났는데, 나중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는 원저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문학적 장르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많은 해석가들은 신약의 다른 장르를 해석하는데 사용한 자신의 도구와 절차를 가져와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신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또 계시록으로 하여금 회화적인 내용이 되게 하는 대신에’ 구약에 집중한다.

내가 이 주석을 저술함에 있어서 계 22:18-19 에 나오는 저주를 인하여서가 아니라, 이 책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또 그 논란이 계속됨을 인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인 경우에도 이것은 진실되다(참조, 롬 3:4)! 이 주석이 당신에게 어떤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촉구하는 것이 되고, 약도가 아니라 교통표지판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무엇을...”이 되기를 바란다. 나 자신이 부적합하며 편견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의도를 추구하는 자임을 나는 계속하여 직면하고 있다. 나 또한 그러한 면을 다른 해석가들의 경우에서 보았다.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발견하기를 기대했던 바로 그것’으로 여겨진다. 장르 자체가 남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장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에 들어 있다. 이 장르가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에 들어있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자신의 진영을 구축하지 말고 서로 손을 잡자; ‘어떤 것이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아마 사실일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증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신다!

▣ “아름다운 소식” 이것은 “기쁜 소식을 지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사르*(BDB 142, *피엘 분사*)라는 동사이다. 이 단어는 여기서 공훈의 메시지 곧 ‘야웨의 속량하심과 받아주심’을 나타낸다(참조, 40:9[2 회]; 41:27; 52:7[2 회]; 나훔 1:15). 바울은 롬 10:15 에서 사 52:7 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사 53:1 을 롬 10:16 에서 인용함).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제시한다.

▣ “두려워하지 말고” 이 동사(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는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며, 예루살렘(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용이다. 죄는 두려움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의 백성들에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참조, 41:10,13,14; 43:1,5; 44:2,8[다른 어휘들임]; 51:7,12; 54:4,14).

▣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이사야가 아니라 후기에 속하는 포로기 이후의 저자가 이 부분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 언급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진다. 그 이유는 주전 586 년에 느부갓네살이 모든 성읍들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 기다림의 시기가 끝났다(참조, 25:9; 26:8; 33:2; 40:31; 49:23; 51:5; 60:9)!

40:1 “주 여호와께서” 이 구는 문자적으로 “아도나이 야웨”로서, 이를 직역한다면 “주, 주님”(Lord, LORD)이다(참조, 시 110:1). “주”라는 단어는 *아돈*이라는 히브리어로서 님, 주인, 남편, 주를 뜻한다.

▣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능력을 나타내는 셈어의 신인동형적 관용어이다(41:2의 특별주제를 보라). 사 9:6-7; 11:1-5; 미 5:2-5a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이 문장이 메시아적 대리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안다(참조, 시 110편).

**특별주제: 메시아**

이것은 다니엘 9:6에 대해 내가 쓴 주석에서 가져 온 내용이다. 이 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갖는 어려움은 메시아 혹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BDB 603)라는 용어가 가지는 여러 의미를 인함이다.

1. 유대인의 왕들에 대해 사용됨(예, 삼상 2:10; 12:3)
2. 유대인의 제사장들에 대해 사용됨(예, 레 4:3,5)
3. 고레스에 대해 사용됨(참조, 사 45:1)
4. 시 110편과 속 4장에서는 1항과 2항이 결합되어 나타남
5.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오는 다윗 계보의 왕이 의의 새 시대를 가지고 오를 나타냄
  - ㄱ. 유다 지파에서(참조, 창 49:10)
  - ㄴ. 이새의 가정에서(참조, 삼하 7장)
  - ㄷ.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참조, 시 2편; 사 9:6; 11:1-5; 미 5:1-4 이하)

나는 개인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나사렛 예수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단 2장에서 네 번째 제국인 영원한 왕국을 제시하기 때문이고
2. 단 7:13에서 “인자”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심을 말하기 때문이고
3. 단 9:24에 있는 구속에 대한 구절이 범죄한 세계 역사의 귀결점을 가리키기 때문이고
4.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다니엘서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마 24:15; 막 13:14)

▣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용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와 똑같은 구가 사 62:11에서 나오며, 계 22:12에서는 이 내용을 암시한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을 뜻한다(41:10a). 임마누엘께서 오셨다(참조, 7:14)!

40:11 “목자 같이” 능하신 야웨(참조, 10절)께서 목자도 되신다(참조, 시 23편; 80:1; 렘 31:10; 겔 34:11-16). 겔 34:23에서는 ‘야웨께서 자신을 대표하는 자로서 자신의 메시아를 세우심’을 주목하라!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다(참조, 요 10장). 그는 속 11-12장과 사 52:13-53:12에 기록된 바와 같이 “상함을 받은” 목자이시다.

**개역개정 40:12-17**

<sup>12</sup>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잣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라

13 누가 여호와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14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6 레바논은 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40:12-17 9-11 절에서 야웨께서 구원자로서 친히 임재하심을 나타내듯이, 12-17 절에서는 야웨를 창조자로서 나타낸다.

1. 물을 측량하셨다(즉, ‘무질서한 원래의 물’을 주관하시고 정리하시는 분), 12 절
2. 이 행성의 환경을 디자인하신 분, 12 절
3. 마른 땅에게 명령하신 분(“티끌을 세시며” “산들과 작은 산들의 무게를 달아보셨다” [히브리어의 평행법]), 12 절
4. 영을 대리인으로 삼으시되 모사가 필요없으신 분, 13-14 절
5.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지식에 비교하여 볼 때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님(참조, 6-8 절, 이 내용은 욥 38-41 장의 내용과 비슷함), 15-17 절

40: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12 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가 완료형이다(즉, 완료된 행위). 이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일련의 질문이다. 이 본문은 욥 38-41 장의 내용과 비슷하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주권 및 권위에 대한 욥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12 절은 41:26 의 본문과 상당히 비슷하다.

평행되는 내용을 주목하라.

1. 헤아렸다 - BDB 551, KB 547
2. 잰다 - BDB 1067, KB 1744
3. 되에 담아 보았다 - BDB 465, KB 463
4. 저울로 달아 보았다 - BDB 1053, KB 1642

이 항목들은 모두 창조자의 행위를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창세기 1 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명령을 내리시며 또 유지하시는 분이심을 회화적으로 표현한다. 존 H. 왈톤의 *창세기 1 장의 잃어버려진 세계*가 이것에 대하여 좋은 설명을 제시한다.

40:13-14 이 두 절에 나오는 “누가”는 1-3 절에 나오는 복수형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용어들은 천상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을 가리킨다. 천사인 이 종들을 다음 경우에 볼 수 있다

1. 창 1 장과 6 정에 나오는 “우리”
2. 왕상 22:19-23
3. 욥 1:6-12; 2:1-6,7
4. 단 7:10,26

40:13 “누가 여호와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13 절과 14 절은 평행을 이룬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본문이 아니라, 창 1:2 의 경우와 상당히 비슷한 구약의 본문이다. 창 1:2 에서 “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한다(7 절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한 문맥적 상황에서 각각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개념은 설득력이 있다.

가. 복음서

- 1. 마태복음 3:16-17; 28:19(또한 이와 평행을 이루는 구절에서)
- 2. 요한복음 14:26

나. 사도행전 - 행 2:32-33,38-39

다. 바울

- 1. 롬 1:4-5; 5:1,5; 8:1-4,8-10
- 2. 고전 2:8-10; 12:4-6
- 3. 고후 1:21; 13:14
- 4. 갈 4:4-6
- 5. 엡 1:3-14,17; 2:18; 3:14-17; 4:4-6
- 6. 살전 1:2-5
- 7. 살후 2:13
- 8. 딤후 3:4-6

라. 베드로 - 벧전 1:2

마. 유다 - 20-21 절

하나님의 복수성을 구약에서 암시하고 있다

가.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형**

- 1. 엘로힘이란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항상 **단수형 동사**를 가진다.
- 2. “우리” 창세기 1:26-27; 3:22; 11:7

나. 하나님의 천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나타남

- 1. 창세기 16:7-13; 22:11-15; 31:11,13; 48:15-16
- 2. 출애굽기 3:2,4; 13:21; 14:19
- 3. 사사기 2:1; 6:22-23; 13:3-22
- 4. 스가랴 3:1-2

다. 하나님과 성령은 서로 구별됨, 창 1:1-2; 시 104:30; 사 63:9-11; 겔 37:13-14

라. 하나님(야웨)과 메시아(아돈)는 서로 구별됨, 시 45:6-7; 110:1; 스가랴 2:8-11; 10:9-12

마. 메시아와 성령은 서로 구별됨, 스가랴 12:10

바. 사 48:16; 61:1 에서는 3 위가 모두 언급됨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위격은 경직된 유일신을 믿는 초기의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다.

- 1. 터툴리안 - 성자를 성부께 종속시킴
- 2. 오리겐 - 성자와 성령의 신적 속성을 종속시킴
- 3. 아리우스 -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
- 4. 모나키안 주의 - 한 하나님께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연속해서 나타나셨다고 믿음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자료에 기초한 사항을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내용이다.

- 1. 주후 325 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그가 성부와 동등하심을 확인함
- 2. 콘스탄티노플 회의(주후 381 년)에서는 완전한 위격과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 동등하심을 확인함
- 3.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거스틴의 *데 트리니타테*에서 잘 설명된다.

여기에 커다란 신비가 있다. 한편 신약은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 위격으로 나타나셨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40:14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여기에 나타나는 평행법에 주목하라. 구약의 “길”은 신약에서 “도”를 뜻하는 단어의 배경이 된다. 초대교회에는 사도행전에서 “도”로써 불렸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삶에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함을 가리킨다.

“정의”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절은 본질적으로 유일신론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이사야서에서의 심판하다, 심판, 정의(사팔)**

이것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BDB 1047)이다. NIDOTTE 제 4 권 214 쪽은 이 단어의 분포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오경, 13%, 사람 재판관
2. 역사서, 34%, 사람인 지도자
3. 지혜문학, 22%, 하나님의 행하심
4. 예언서, 31%, 대부분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련이 있음

다음의 표를 보라.

재판장이신	재판장이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야웨	메시아	이상적 재판관들	실제 재판관들
2:4	9:7	1:17,21,23	3:2
3:14	11:3,4	26:8	5:7
4:4	16:5	56:1	10:2
5:16	32:1	58:2,8	59:4,9,11,14,15
28:6,17,26	40:14		
30:18	42:1,3,4		
33:5,22	51:4,5		
61:8	53:8		
66:16			

이스라엘은 야웨의 성품을 열방에게 나타내어야 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따라서 야웨는 “이상적”인 한 이스라엘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이루게 하셨다(즉,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참조, 사 52:11-53:12)!

■ 이 절은 본질적으로 유일신론을 나타낸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유일신 주의**

“유일신 주의”라는 개념(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신교의 “높은 신” 혹은 이란의 이원론(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선한 신과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다(아브라함, 주전 2000 년). 이집트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이 개념이 나타났다(아멘호텝 4 세, 아케나텐으로 알려짐, 주전 1367-1350 혹은 1386-1361 년).

이 개념은 구약에서 여러 번 나타난다.

1. “우리 하나님 야웨와 같은 이가 없다,” 출 8:10; 9:14; 신 33:26; 왕상 8:23
2.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신 4:35,39; 32:39; 삼상 2:2; 삼하 22:32; 사 45:21; 44:6,8; 45:6,21
3. “야웨는 한 분이시다,” 신 6:4; 롬 3:30; 고전 8:4,6; 딤후전 2:5; 약 2:19
4. “당신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삼하 7:22; 램 10:6
5. “당신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시 86:10; 사 37:16
6.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 43:10
7.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사 45:5,6,22

8.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사 45:14,18
9.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사 45:21
10.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사 46:9

이 중요한 교리가 점진적으로 드러난 것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 이른 시기의 진술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한 신을 믿는 것” 혹은 실행적인 유일신 주의(여러 신이 있지만 우리를 위한 신은 오직 한 분 이시다, 참조, 출 15:11; 20:2-5; 신 3:28; 5:7; 6:4,14; 10:17; 32:12; 왕상 8:23; 시 83:18; 86:8; 136:1-2)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심(철학적 유일신론)을 나타내는 처음 본문은 이른 시기에 속한다(참조, 출 8:10; 9:14; 신 4:35,39; 33:26). 이에 대한 완전하고 긴 형태의 주장은 이사야서 43-46 장에서 발견된다(참조, 43:11; 44:6,8; 45:7,14,18,22; 46:5,9).

신약은 롬 3:30; 고전 8:4,6; 엡 4:6; 딤후 2:5; 약 2:19 에서 신 6:4 의 내용을 암시한다. 예수께서는 마 22:36-37; 막 12:29-30; 눅 10:27 에서 이것을 첫 계명으로 말씀하셨다. 신약은 물론 구약도 다른 영적 존재(귀신, 천사)의 실재성을 인정하지만,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만을 주장한다(야웨, 창 1:1).

성경적 유일신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유일하시다(존재적 의미를 가정하지만 이를 특정적으로 말하지 않음)
2.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참조, 창 1:26-27; 3:8)
3.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시다(참조, 출 34:6; 느 9:17; 시 103:8-10)
4.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창 1:26-27) 교제를 위해(즉, 2 향)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는 시기하시는 분이시다(참조, 출 20:2-3)

신약에서 볼 때

1.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격적인 세 분으로 나타내셨다(8:11 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2.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드러나셨다(참조, 요 1:1-14; 골 1:15-19; 히 1:2-3)
3. 범죄한 인간의 속량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시는 일이다(사 53 장; 막 10:45; 고후 5:21; 빌 2:6-11; 히브리서)

40:15-17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은 열방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거나 공허히 여기지 않으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본문이다(참조, 렘 10:10). 야웨께서는 인류 전체의 구속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나라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참조, 17:13; 29:5,7).

#### 특별주제: 밤의 복음적 편향

나는 독자인 당신에게 내가 이 점에 있어서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나의 조직신학은 칼빈주의나 세대주의의 것(즉, 마 28:18-20; 눅 24:46-47; 행 1:8)이 아니라 대위임에 기초한 복음주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예, 창 3:15; 12:3; 출 19:5-6; 렘 31:31-34; 겔 18 장; 36:22-39; 행 2:23; 3:18; 4:28; 13:29; 롬 3:9-18,19-20,21-31), 즉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이(참조, 창 1:26-27)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다(참조, 갈 3:28-29; 골 3:11). 예수님은 감추어져 계셨지만 지금은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시다(참조, 엡 2:11-3:13)! 성경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이다.

이러한 사전 이해는 내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갖고 있는 색채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본문을 읽는다! 이것은 정말 어떤 편향을 나타낸다(모든 해석자는 편향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사실에 기초한 전제조건이다.

40:16 이 절의 핵심적 내용은 ‘산림이 우거지고 많은 들짐승이 있는 장소(즉, 레바논)라도 높으신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에는 부족함’을 나타낸다. 적합한 희생제물을 드리기에는 어렵없는 시도에 대하여 왕상 8:63 에서 말한다.

40:1

NASB “의미 없는”

NKJV “가치 없는”

NRSV, NJB “헛됨”

토후(BDB 1062)라는 단어는 창 1:2 에서 지구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음을 나타내었다(참조, 사 34:11; 45:18; 렘 4:23). 이 단어는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도 사용되었다(삼상 12:21; 사 41:29; 44:9).

이사야는 인간 통치자들(즉, 이집트, 앗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및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원수’)이 아무 것도 아님을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조직과 권세를 야웨의 능력과 계획에 비교할 수 없다.

개역개정 40:18-20

<sup>18</sup>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sup>19</sup>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sup>20</sup>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40:18-20 이 단락은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한 것으로서, 사 44:9-20 및 46:1-7 의 본문과 비슷하다.

▣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이것은 유일신 사상으로 불리는 바(참조, 신 6:4-5) 유대인의 중요한 신학적 사상을 나타낸다(참조, 25 절; 46:5; 출 8:10; 15:11; 삼상 2:2; 미 7:18). 14 절의 특별주제를 보라.

40:19

NASB “꾸미고”

NKJV, NRSV, NJB “던지고”

TEV “세우고”

REB “맞추고”

JPSOA “주조하고”

이 동사(BDB 864, KB 1057)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 금속을 녹여 어떤 특별한 형태로 구조함을 나타낸다(참조, 41:7; 46:6). NIDOTTE 제 2 권 1000 쪽에서는 히브리의 동의어적 평행법에 근거하여 “던지기”라는 일반적 번역보다 “구조하기”를 더 지지한다(부록 1: 히브리 시의 서론을 보라).

40:20 “나무” 이 단어(BDB 781)는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나무를 일컫는다(참조, 44:19; 45:20; 호 4:12). 이 나무가 아주 단단한 종류의 것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된다!

**개역개정 40:21-26**

<sup>21</sup>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sup>22</sup>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sup>23</sup>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sup>24</sup>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 가는 초개 같도다  
<sup>25</sup>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sup>26</sup>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40:21-26 이 연은 신학적으로 12-17 절과 연결된다. 두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에 대하여, 또 하나님과 비교할 때 ‘모든 것이 작고 무의미한 존재임’에 대하여 설명한다. 하나님은 유일한 실재이시며, 유일한 진리이시고,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상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존재한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며, 또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며, 또 누가 그 분과 같단 말인가?

40:21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28 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주신 계시의 내용을 기억하게 돕는’ 일련의 질문이다.

▣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문맥에서 이것은 창조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암시이다. 흥미롭게도 야웨께서 창조 이전에 하신 일에 대하여 신약에서 5 번에 걸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한다.

1. 마 25:34 -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2. 요 17:24 -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3. 엡 1:4 -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 뵤전 1:19-20 -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5. 계 13:8(가능한 목적어로는)
  - ㄱ.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 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의 창조 이전에는 물론, 창조의 과정 중에, 또 창조 이후에도 활동적으로 일하셨다. 모든 인류의 속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및 그리스도의 시대에 활동적으로 일하셨다(40:15의 특별주제를 보라).

40:22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차일 같이... 천막 같이 치셨고” 이것은 고대 근동인이 가진 공통적인 개념이다(참조, 42:5; 욥 9:8; 시 104:2; 렘 10:12; 51:15; 슥 12:1). 이집트의 죽은 자의 책에서는, 하늘을 “가죽”으로 묘사한다. 리그 베다에서는 하늘을 “짐승의 가죽과 같이 펼쳐진 것”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지구 위의 궁창(즉, 이 행성의 대기권)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이것은 은유적 표현이다.

“차일”(BDB 201)은 이 본문에서 같은 개념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부딪히다”를 뜻한다(참조, 40:15, “고운 먼지”). 이 단어는 “얇은 것”을 나타냄이 분명하다(KB 229, 즉 지구를 덮는 둥근 지붕). 해석가들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을 기억하라

1. 문맥
2. 섹어적 어근
3. 동족 언어

그러나 1항에 우선권이 있다!

40:25 “거룩하신 이” 6:3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11A 권). 이 호칭은 이사야에 대한 최초의 부르심(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듣지 않는다는 말씀, 참조, 6:9-11)과 두 번째 부르심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킨다(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말씀을 들음). 이제 그들이 들을 것이다!

40: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보라” 이 두 단어 모두 칼 명령이다. 26a,b 절의 두 행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하라.

▣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주이시며 공급자 이시며 천체의 주관자 되심’을 말하는 이 본문은 바벨론의 별신숭배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놀라운 내용이다(참조, 창 1:16; 시 8:3; 렘 31:35).

26절에 나오는 “창조하다”는 *בָּרָא*라는 히브리 단어이다. 이 단어는 창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것을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이 단어가 사 40-66장에서 20회 나온다(참조, 40:26,28; 41:20; 42:5; 43:1,7,15; 45:7[2회], 8,12,18[2회]; 48:7; 54:16[2회]; 57:19; 65:17,18[2회]).

▣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것은 “그 가운데 하나라도 소집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없다”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별들과 행성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개역개정 40:27-31**

<sup>27</sup>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 너는 알지 못하였으나 듣지 못하였으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0:27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유대인들(즉, “야곱아. . .이스라엘아”)은 야웨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느꼈다(참조, 49:14). 야웨께서는 잠시 동안 자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감추셨다(참조, 1:15; 8:17; 54:8; 롬 9-11 장).

40:28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호칭들을 주목하여 보라.

1. 영원하신 하나님 - 창 21:33, 또한 출 15:18; 신 32:40; 시 90:2; 램 10:10 을 보라
2. 여호와 - 야웨(40:3 의 특별주제를 보라)
3. 창조자 - (이 호칭은 40 장 전체의 핵심적 사항이다)
4. “거룩하신 이”로 25 절에서는 일컬음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신다.

▣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것은 “그가 조급해하지 않으신다”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피곤함” 및 “곤비함”과 관련을 가진 언어유희가 28-31 절에서 나타난다.

1. 28 절 - 곤비함, BDB 419, KB 421  
피곤함, BDB 388, KB 386
2. 30 절 - 곤비함, BDB 419, KB 421  
피곤함, BDB 388, KB 386
3. 30 절 - 넘어짐, 부정사와 미완료형 동사(BDB 505, KB 502)
4. 31 절 - 피곤함, BDB 388, KB 386  
곤비함, BDB 419, KB 421

야웨께서는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에게 힘과 안정을 주신다! 야웨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전해진다(참조, 29-31 절).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그들도 강하게 된다!

▣

NASB	“헤아릴 수 없으시며”
NKJV	“그의 명철하심을 알 수 없으며”
NRSV	“찾을 수 없으시며”
NJB	“깊이를 잴 수 없으시며”

이 히브리 단어(BDB 350)는 찾는 것을 기본적으로 나타낸다. 여기서는 그 가능성이 부정되고 있다(참조, 욥 5:9; 9:10; 36:26; 시 145:3). 바울은 같은 내용의 진리를 롬 11:33 에서 사 40:13-14 을 인용하여 말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의 길은 분명하고 그의 생각은 깊으시다. 예기치 못함이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참조, 29-31 절)!

**40: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야웨께서 자신이 심판하신 자들을 위로하신다(참조, 41:10; 시 107:9; 램 31:25). 이것은 예수께서 마 11:28-30 에서 하신 말씀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와 매우 비슷한 내용이다.

**40:30 “장정”** 이것은 군인으로 선택된 젊은이를 가리킨다.

▣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것은 같은 어근(BDB 505, KB 502)을 가진 **칼 부정사 절대형과 니팔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40:31 “앙망하는”** 이것은 적극적인 기대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BDB 875, KB 1082)이다. 이 단어는 농부가 작물의 수확을 기다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사 5:4,7). 이 단어는 매복한 강도에 대하여 사용되었다(참조, 시 56:6; 119:95).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망한다(참조, 8:17; 25:9; 30:18; 33:2).

▣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동사(BDB 322, KB 321)는 다음을 의미한다

1. 교환하다 - 레 27:10
2. 바꾸다 - 창 31:7,41; 35:2
3. 성공하게 하다 - 사 40:31

▣ **“독수리...갈을 것이요”** 유대인의 연구성경(864 쪽)은 ‘털갈이를 한 독수리가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많은 이가 생각했음을 소개한다(참조, 시 103:5).

# 이사야 4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스라엘이 위로받다	하나님께서 도움심을 이스라엘이 확신하다	민족들에 대한 심판 (41:1-42: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주심	야웨의 도구인 고레스
41:1-4 (1-4)	41:1 (1)	41:4 (1)	41:1 (1)	41:1-7 (1-7)
	41:2-4 (2-4)	41:2-10 (2-10)	41:2-4 (2-4)	
41:5-16 (5-16)	41:5-7 (5-7)		41:5-7 (5-7)	야웨께 선택받고 보호받는 이스라엘
	41:8-10 (8-10)		41:8-10 (8-10)	41:8-20 (8-20)
	41:11-13 (11-13)	41:11-13 (11-13)	41:11-13 (11-13)	
	41:14-16 (14-16)	41:14-16 (14-16)	41:14-16 (14-16)	
41:17-20 (17-20)	41:17-20 (17-20)	41:17-20 (17-20)	41:17-20 (17-20)	
	우상의 헛됨		주께서 거짓 신들에게 도전하심	우상의 헛됨
41:21-24 (21-24)	41:21-24 (21-24)	41:21-24 (21-24)	41:21-24 (21-24)	41:21-29 (21-29)
41:25-29 (25-29)	41:25-29 (25-29)	41:25-29 (25-29)	41:25-29 (25-29)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에서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대해 바벨론이 가진 패권을 고레스 2 세에게 주시려고 부르심을 통해’ 야웨께서 자신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신 것을 말한다. 이렇듯 통치자가 바뀌는 일은 다음의 사항을 나타낸다
1.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야웨의 계획(즉, 포로에서 돌아옴)
  2. 백성들이 섬기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들’에 대한 야웨의 심판
- 나. 41 장에는 많은 수의 명령이 나오는데, 수사학적이고 문학적인 기교를 위해 사용되었다.
1. “해변 거민들”에 대한 내용, 1 절
    - ㄱ. “나의 말을 들으라” - BDB 361, KB 357, *히필 명령*
    - ㄴ.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 BDB 322, KB 321, *히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ㄷ. “가까이 나아오라” - BDB 620, KB 67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ㄹ. “그들로 말하게 하라” - BDB 180, KB 210, *피엘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ㅁ.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 BDB 897, KB 1132, *칼 청유형*
  2. “동쪽에서 오는 자”에 대한 내용(즉, 고레스 2 세), 2 절 - BDB 921, KB 1190, *히필 지시형*
  3. 해변에 거한 자들이 서로 하는 말, “강하라” - BDB 304, KB 302, *칼 명령*
  4.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 ㄱ. “두려워 말라” - 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또한 13,14 절을 보라)*
    - ㄴ. “걱정스럽게 네 주위를 둘러보지 말라” - BDB 1043, KB 1609, *히필 지시형*
  5. 재판장이신 야웨(또 천상의 회의에 참석한 자들)께서 우상들을 재판에 불러 모으심 (21-24 절)
    - ㄱ. “네 소송을 제출하라” - BDB 897, KB 1132, *피엘 명령*
    - ㄴ.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 BDB 620, KB 670, *히필 명령*
    - ㄷ. “진술하라” - BDB 620, KB 670, *히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ㄹ. “우리로 알게 하라” - BDB 616, KB 665, *히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ㅁ.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 BDB 616, KB 665, *히필 명령*
    - ㅂ. “우리가 마음에 두고” - BDB 962, KB 1321, *칼 청유형*
    - ㅅ. “그 결말을 알아 보리라” - BDB 393, KB 390, *칼 청유형*
    - ㅇ.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 BDB 1033, KB 1570, *히필 명령*
    - 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 BDB 616, KB 665, *히필 명령*
    - ㅊ.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 BDB 393, KB 390, *칼 청유형*
    - ㅋ. “복을 내리라” - BDB 405, KB 408, *히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ㅅ. “재난을 내리라” - BDB 949, KB 1269, *히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ㅈ. “우리가 함께 보리라” - BDB 1043, KB 1609, *히트파엘 청유형*  
 ㅎ. “놀라리라” - BDB 431, KB 432 (혹은 BDB 906, KB 1157, *칼 청유형*), *칼 지시형*  
 6. 야웨께서 우상들에게 판결을 내리신다(25-29 절)  
 ㄱ.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 BDB 393, KB 390, *칼 청유형*  
 ㄴ. “우리가 ‘그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 BDB 55, KB 65, *칼 미완료형*, 그러나 *청유형*의 의미임  
 ㄷ. “내가 보니 아무도 없도다” - BDB 906, KB 1157, *칼 지시형*  
 다. 은유적 심판을 통하여 ‘민족들이 불러 나와 아뢰을 나타낸다(1,21 절). 그들이 야웨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예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새로운 우상들을 만든다.  
 라. “나”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야웨께서 행동을 취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일은 겔 36:27-38 의 내용과 비슷하다.  
 마. 포로됨에서의 새 출애굽이 사 35 장의 경우와 같이 농업적인 용어로서 표현되었다. 신 27-29 장의 약속이 이제 실현되었다.  
 바. 이스라엘은 야웨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인하여 언약적 상태로 회복되었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1:1

- <sup>1</sup>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sup>2</sup>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 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 같게 하매  
<sup>3</sup>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  
<sup>4</sup>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41:1 1 절의 내용은 구약에서 종종 사용한 문학적 기교이다(즉, 재판 장면, 참조, 1:18-20; 43:26; 50:8; 호 4 장; 미 6 장; 부록 2 를 보라). 야웨께서 민족들(21 절에서도)과 그들의 우상들을 재판자리에 불러 세우신다.

▣  
 NASB, NKJV, NRSV “해변지대”  
 TEV “먼 곳에 있는 땅”  
 NJB, REB “해변과 섬들”

이 단어(BDB 15)는 “해안” 혹은 “지역”을 뜻한다. 이사야는 이 용어으로써 지중해 지역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종종 가리킨다(참조, 11:11; 24:15; 40:1,5; 41:1; 42:4,10,12; 49:1; 51:5; 59:18; 60:9; 66:19).

이 단어는 “백성들”(BDB 522, 참조, 49:1)과 평행을 이룬다. 에돔 국가가 “반역하는 나라들”의 총칭으로써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즉, 34:5-17; 63:1-6; 렘 49:7-22; 애 4:21-22; 겔 25:12-14; 35:1-15; 오바다; 말 1:2-4). 이사야서에서 이 용어는 종종 팔레스타인과 페니키아와 같은 이방국가들을 뜻한다(참조, 23:2-6).

▣ “잠잠하라” 이것도 재판 장면과 관련을 가지는 용어이다(참조, 합 2:20; 슥 2:13). 야웨의 존전과 능력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다.

▣ “힘을 새롭게 하라” 40:31 에서 이스라엘에게 사용되었던 같은 동사(BDB 322, KB 321, *히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가 이제는 “민족들”(즉,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사용됨이 놀랍다.

▣ “가까이 나아오라” 제사장이 야웨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감을 뜻하는 “가까이 나아가다”(BDB 620, KB 67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라는 이 동사가, 여기서는 변호를 위해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34:1; 48:16).

41:2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 구는 고레스 2 세를 가리킨다(참조, “북쪽에서 오는 이,” 25 절). 그의 이름이 특별히 사 44:28; 45:1 에서 언급되었다. 고레스 2 세는 이러한 인물이다

1. 주전 558 년에 안산의 왕이 되었다
2. 주전 550 년에 메데를 손에 넣었다
3. 주전 546 년에 리디아를 손에 넣었다
4. 주전 539 년에 바벨론을 정복했다
5. 주전 538 년에 칙령을 발표했다. 그 칙령은 앗시리아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민족들(유대인도 포함하여)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 “공의로 그를 불러” JPSOA 는 이 구가 1 행과 2 행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누가 승리자를 동쪽에서부터 일깨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탈군이 이 절을 번역하였음을 유대인의 연구성경(864 쪽)이 언급하고 있다. 2 절에 나오는 군사적 면은 같은 맥락에서 창 14 장 곧, 아브라함이 왕들을 물리친 사건을 가리킬 것이다.

▣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언약궤가 야웨의 발등상 곧 그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적 언어)**

I. 이러한 용법은 구약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종류의 표현이다(일부만 예로 들었음)

가. 신체의 일부분

1. 눈 - 창 1:4,31; 6:8; 출 33:17; 민 14:14; 신 11:12; 스펀 4:10
2. 손 - 출 15:17; 민 11:23; 신 2:15
3. 팔 - 출 6:6; 15:16; 신 4:34; 5:15; 26:8
4. 귀 - 민 11:18; 삼상 8:21; 왕하 19:16; 시 5:1; 10:17; 18:6
5. 얼굴 - 출 33:11; 민 6:25; 12:8; 신 34:10
6. 손가락 - 출 8:19; 31:18; 신 9:10; 시 8:3
7. 소리 - 창 3:8,10; 출 15:26; 19:19; 신 26:17; 27:10
8. 발 - 출 24:10; 겔 43:7
9. 인간의 모양 - 출 24:9-11; 시 47 편; 사 6:1; 겔 1:26
10. 하나님의 천사 - 창 16:7-13; 22:11-15; 31:11,13; 48:15-16; 출 3:4,13-21; 14:19; 사 2:1; 6:22-23; 13:3-22

나. 신체적 행동

1. 창조의 방편으로 말씀하심 - 출 1:3,6,9,11,14,20,24,26
2. 에덴에서 걸으심(즉, 소리) - 창 3:8; 레 26:12; 신 23:14
3.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심 - 창 7:16
4. 번제를 흠향하심 - 창 8:21; 출 29:18,25; 레 26:31
5. 내려 오심 - 창 11:5; 18:21; 출 3:8; 19:11,18,20
6. 모세를 묻으심 - 신 34:6

다. 인간의 감정(일부만 예로 들었음)

1. 후회하심/회개하심 - 창 6:6,7; 출 32:14; 사 2:18; 삼상 15:29,35; 암 7:3,6
2. 화내심 - 출 4:14; 15:7; 민 11:10; 12:9; 22:22; 25:3,4; 32:10,13,14; 신 6:15; 7:4; 29:20
3. 시기하심 - 출 20:5; 34:14; 신 4:24; 5:9; 6:15; 32:16,21; 수 24:19
4. 싫어하심/혐오하심 - 레 20:23; 26:30; 신 32:19

라. 가족적 용어(일부만 예로 들었음)

1. 아버지
  - ㄱ. 이스라엘의 - 출 4:22; 신 14:1; 사 1:2; 63:16; 64:8
  - ㄴ. 왕의 - 삼하 7:11-16; 시 2:7
  - ㄷ. 아버지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 신 1:31; 8:5; 시 27:10; 잠 3:12; 렘 3:4,12; 31:20; 호 11:1-4; 말 3:17
2. 부모 - 호 11:1-4
3. 어머니 - 시 27:10(젖먹이는 어머니에 대한 유추); 사 49:15; 66:9-13
4. 신실한 젊은 연인 - 호 1-3 장

II. 이러한 종류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나.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관계를 취하여 말씀하신다(아버지, 어머니, 부모, 연인)

다. 비록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육체적 형태로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참조, 출애굽기 20 장; 신명기 5 장)

라. 궁극적인 신인동형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만진 바 되셨다(참조, 요일 1:1-3).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다(참조, 요 1:1-18).

▣ “그가” 야웨께서 고레스 2 세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주목하여 보라.

1. 동방에서 일깨우신다
2. 공의로 그를 부르신다
3.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 주신다
4.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ㄱ. 티끌 같게  
    ㄴ. 초개 같게

3 절은 그의 승리가 신속함을 나타낸다. 4 절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그에게 승리 주실 것임을 말한다.

▣

NASB	“정복하다”
NKJV	“다스리다”
NRSV, JPSOA	“짓밟다”
TEV	“승리하다”
NJB	“복종시키다”
REB	“던져버리며”

드물게 사용된 이 동사(BDB 921, KB 1190, *히* 𐤀𐤍𐤁 지시형)의 이해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단어가 문맥에 잘 들어 맞지 않기에, 여러 해석이 제시되었다. 이 동사가 고레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41:3

NASB	“그의 발로 횡단하여”
NKJV	“그의 발로 가 보지 않은”
NRSV, NJB	“그의 발로 거의 닿지 않은 길”
REB	“어떤 도보 여행자보다도 더 빠르게”
JPSOA	“그의 발에 착고가 없이”

이 히브리 구는 모호하다. 고대 역본들은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1. 70 인역 - “그의 발의 길이 평화롭게 전진할 것이다”
2. 페쉬타 - “그가 그 길을 걸어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3. 사해사본 - “그들이 그의 발의 길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의 영어 역본에서는 이것을 ‘신속성’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취한다. 그러나 JPSOA 는 고대 아람어 어근에 근거하여 “길”을 “착고”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지경을 가리킬 것이다(NET).

41:4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것은 야웨께서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심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40:21; 41:26; 44:7; 45:21). 야웨께서 자신의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아브라함의 씨를 불러내셨다. 구약의 예언적 측면은 성경이 영감으로 된 것임을 아주 강력하게 입증한다!

▣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히브리 용어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

1. “여호와”는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다(참조, 출 3:14; 40:3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처음과 나중”(참조, 사 44:6)
3. “내가 곧 그니라”는 “야웨”를 가리킨다(참조, 사 43:10; 46:4; 요 8:57-58; 13:9)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용어들은 ‘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40:14의 특별주제: 유일신주의를 보라). 이 용어들이 계 1:8,17; 22:13에서 야웨의 메시아이신 예수께 사용되었다.

개역개정 41:5-16

- 5 <sup>5</sup>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 6 <sup>6</sup>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 7 <sup>7</sup>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메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땀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 8 <sup>8</sup>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 9 <sup>9</sup>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 10 <sup>10</sup>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11 <sup>11</sup>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 12 <sup>12</sup>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 13 <sup>13</sup>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 14 <sup>14</sup>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 15 <sup>15</sup>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 16 <sup>16</sup>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41:5 “땅 끝” 이 두 번째 행은 “섬들”과 평행을 이룬다. 1 절에 대한 설명을 보라. 이 둘은 지중해와 근동 세계에서 “알려진” 모든 나라들을 가리킨다.

41:6-7 “힘을 내다”라는 히브리 동사(BDB 304, KB 302)가 이 두 절에서 세 번 사용되었다.

1. 칼 명령 - 힘을 내라, 6 절
2. 피엘 미완료형 - 격려하다, 7 절
3. 피엘 미완료형 - 단단히 하다, 7 절

민족들이 도움을 구하고자 각각 자신의 신들을 바라보지만, 그들의 우상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41: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 왕이나 선지자 같은 개인을 가리킴(참조, 민 12:7)
2.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킴(참조, 사 41:19; 44:21)
3.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이스라엘인이신 메시아를 가리킴(참조, 사 52:13-53:13)

이사야서는 2 항과 3 항의 내용을 종종 합쳐서 말한다.

▣ **“내가 택한”** 이 동사(BDB 103, KB 119, **칼 완료형**)는 하나님의 선택에 강조점을 둔다(참조, 9 절; 43:10; 44:1,2; 49:7; 신 7:6; 14:2). 구약에서 선택은 봉사를 위한 것이었다(참조, 창 12:3; 출 19:5-6). 그러나 신약에서는 ‘봉사로 나아가는 구원’을 위한 선택을 말한다

▣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창 12 장, 15 장, 22 장에 기록된 바 야웨께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일을 주목하라. 바울은 롬 4 장과 갈 3 장에서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의 중요성을 다룬다. 아브라함은 대하 20:7 및 약 2:23 에서 야웨의 벗으로 불린다. 아브라함은 창 18 장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였다.

**41:9 “내가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두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즉, 완료된 행동).

1. 붙들었다 - BDB 304, KB 302, **히필 완료형**
2. 불렀다 - BDB 894, KB 1128, **칼 완료형**

또한 다음의 내용에 평행법이 나타남을 주목하라.

1. 땅 끝에서부터
2. 땅 모퉁이에서부터

이 문맥에서 이것은 앗시리아(주전 722 년)가 이스라엘을 재정착시킨 일(즉, 포로로 잡아감)과 바벨론(주전 605, 597, 586, 582 년)이 유다를 재정착 시킨 일을 가리킨다.

▣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유다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일과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느꼈다.

“버렸다”라는 동사(BDB 549, KB 540, **칼 완료형, 부정**)는 레 26:44 에서 사용되었다. 그 본문에서는 죄악과 언약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은 이 약속이 신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점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

1. 이스라엘은 여전히 마지막 때의 일들에서 중요한 역할은 한다(즉, 롬 9-11 장).
2.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을 항상 의미하였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아브라함의 씨를 가리켰지만, 멜기세덱(창 14 장), 욥(욥 1 장), 이드로(출애굽기), 갈렙(여호수아), 우리아(삼하 11 장) 및 이스라엘인이 아닌 여러 사람들도 가리켰다. 신약에서 이 용어는 믿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확대되었다(즉, 롬 2:28-29; 갈 3 장).

**41:10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다(참조, 13,14 절; 43:1,5; 44:2,8; 51:7,12; 55:4,14).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주목하여 보라.

1. 야웨께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하신다
2. 야웨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3.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4.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10,14 절)
5.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10,13 절)
6. 그들을 적대하는 모든 자들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ㄱ. 부끄럽게 된다
  - ㄴ. 명예를 잃게 된다
  - ㄷ.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11-12 절)
  - ㄹ. 망하게 된다

▣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구에는 동사가 없다(NKJV 를 보라).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동사(내가 있다)의 의미와 ‘하나님의 이름’인 야웨의 뜻(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참조, 출 3:14) 사이에 명백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참조, 13 절). 40:3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성경 전체에서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없다(참조, 마 28:20; 행 18:20).

▣	
NASB	“걱정하며 네 주위를 바라보지 말라”
NKJV, 폐쉬타	“낙심하지 말라”
NRSV, REB	“두려워하지 말라”
TEV	“아무 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라”
NJB	“공포에 떨지 말라”
LXX	“방황하지 말라”

이 히브리 동사(BDB 1043, KB 1609)는 *히트파엘*로서 “(두려움에 차서) ~을 응시하지 말라”를 뜻한다.

이 동사가 다른 어근(*샤타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단어는 우가릿어에서 “두려워함”을 뜻한다(NET, 1250 쪽, 21 항).

41:11 “너와 다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또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참조, 창 12:3).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신뢰나 소망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웨께 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주목하라.

1. 네게 노하던 자들, 11 절
2. 너와 다투는 자들, 11 절
3. 너와 싸우던 자들, 12 절
4. 너를 치는 자들, 12 절

또 그들이 당할 운명을 주목하라.

1. 수치를 당할 것이다, 11 절
2. 욕을 당할 것이다, 11 절
3.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11 절
4. 멸망할 것이라, 11 절
5.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12 절
6.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12 절
7. 그들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12 절

41:14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을 벌레로 지칭하는 이 표현은 그를 얽잡아 보는 말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에게 아무런 희망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적 표현으로 여겨진다(참조, 욥 25:6; 시 22:6). 이 표현은 겔 16:6 에 나오는 상징적 표현과 비슷한 내용이다.

▣ “네 구속자” 이 단어(분사형으로 된 호칭, 참조, 43:14)는 *고엘*(BDB 145, KB 169)이라는 히브리어 용어를 반영한다. 이 히브리어 용어는 “친척인 속량자” 또는 “복수자”를 지칭한다. 그는 ‘종이나 전쟁포로가 된 자신의 가까운 친척’을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자를 가리킨다(참조, 룻 4:1 이하에 나오는 보아스의 예).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

**I. 구약**

가. 이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법적 용어가 두 가지 있다:

1. *가알*, 기본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나온 *고엘* 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일원인(즉, 친척인 속량자) 개인적 중재자의 개념을 추가한다. 물건, 동물, 땅(참조, 레 25, 27 장)이나 친척(참조, 룻 4:15; 사 29:22)에 대한 권리를 되돌리는 이 문화적 일이 신학적으로 사용되어 야웨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심을 나타낸다(참조, 출 6:6; 15:13; 시 74:2; 77:15; 렘 31:11). 그는 “구속자”가 되신다(참조, 욥 19:25; 시 19:14; 78:35; 잠 23:1; 사 41:14; 43:14; 44:6,24; 47:4; 48:17; 49:7,26; 54:5,8; 59:20; 60:16; 63:16; 렘 50:34).
2. *파다*(BDB 804), 기본적으로 “구해내다” 또는 “구출하다”라는 뜻이다
  - ㄱ. 첫 태생의 속량(출 13:13,14; 민 18:15-17)
  - ㄴ. 신체의 속량은 영적 속량과 대조를 이룬다(시 49:7,8,15)
  - ㄷ. 야웨는 이스라엘을 죄와 반역으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시 130:7-8)

나. 신학적 개념은 다음에 나오는 여러 영역과 관련을 갖는다.

1. 필요, 속박, 상실, 감금의 상태가 있다.
  - ㄱ. 육체적
  - ㄴ. 사회적
  - ㄷ. 영적(참조, 시 130:8)
2. 자유, 해방,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 ㄱ. 이스라엘 민족의(참조, 신 7:8)
  - ㄴ. 개인의(참조, 욥 19:25-27; 33:28)
3. 반드시 어떤 사람이 중재자로서 또는 후원자로서 행동해야만 한다. *가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이 역할을 한다(즉, *고엘*, BDB 145).
4. 야웨는 종종 자신을 가족과 관계된 단어로 묘사하셨다:
  - ㄱ. 아버지
  - ㄴ. 남편
  - ㄷ. 가까운 친척인 구속자/보수자
 구속은 야웨의 개인적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값이 지불되었고 구속이 성취되었다!

**II. 신약**

가. 여러 단어가 이 신학적 개념을 나타낸다:

1. *아고라조*(참조, 고전 6:20; 7:23; 벧후 2:1; 계 5:9; 14:34). 이것은 어떤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함을 의미하는 상업용 용어이다.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2. *엑싸고라조*(참조, 갈 3:13; 4:5; 엡 5:16; 골 4:5). 이것 역시 상업용 용어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인 행위에 기초한 율법(즉, 모세의 율법, 참조, 엡 2:14-16; 골 2:14)에 의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참조, 막 10:45; 고후 5:21) 저주를 담당하셨다(참조, 신 21:23)!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용서, 받아들여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융합된다!
3. *뤼오*, “자유롭게 하다”
  - ㄱ. *뤼트론*, “지불된 값”(참조, 마 20:28; 막 10:45). 이 용어는 예수께서 자신이 지지 않은 죄의 빚을 갚으심으로써(참조, 요 1:29)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오신 자신의 목적을 생각하시며,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강력한 단어이다.
  - ㄴ. *뤼트루*, “해방하다”
    - (1) 이스라엘을 구속하심, 눅 24:21
    - (2) 백성을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 딤후 2:14
    - (3) 죄 없으신 대속물이 됨, 뱌전 1:18-19
  - ㄷ. *뤼트로시스*, “구속, 구출, 해방”
    - (1) 예수님에 대한 스가라의 예언, 눅 1:68
    - (2)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드린 안나의 찬양, 눅 2:38
    - (3) 예수님께서 단 번에 드리신 더 나은 제사, 히 9:12
4. *아포리트로시스*
  - ㄱ. 재림 때의 구속(참조, 행 3:19-21)
    - (1) 누가복음 21:28
    - (2) 로마서 8:23
    - (3) 에베소서 1:14; 4:30
    - (4) 히브리서 9:15
  - 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
    - (1) 로마서 3:24
    - (2) 고린도전서 1:30
    - (3) 에베소서 1:7
    - (4) 골로새서 1:14
5. *안틸뤼트론*(참조, 딤후전 2:6).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인해 놓임을 받게 됨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딤후 2:14 에서와 같이). 예수께서는 “모든 자”를 위해 죽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유일한 제물이시다 (참조, 요 1:29; 3:16-17; 4:42; 딤후전 2:4; 4:10; 딤후 2:11; 뱌후 3:9; 요일 2:2; 4:14).
- 나. 신약이 내포하는 신학적 개념:
  1.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참조, 요 8:34; 롬 3:10-18; 6:23).
  2. 죄에게 인간이 속박을 받음은 구약의 모세율법(참조, 갈 3 장)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참조, 마 5-7 장)에 의하여 드러났다.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사형이 선언되었다(참조, 골 2:14).
  3. 하나님의 죄없는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참조, 요 1:29; 고후 5:21). 우리를 죄로부터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참조, 롬 6 장).
  4. 함축적으로 말하면 야웨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이것은 가족적 은유의 연속이다(즉, 아버지, 남편, 아들, 형제, 가까운 친척).

5. 구속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즉, 중세 신학) 하나님의 말씀 및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및 완전한 섭리와 화목을 이룸을 말한다. 십자가에서 평화가 회복되었고, 인간의 반역이 용서받았으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친밀한 교제 안에서 다시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6. 구속의 미래적인 면이 아직 남아 있다(참조, 롬 8:23; 엡 1:14; 4:30). 구속은 우리 몸의 부활 및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적 친밀함을 포함한다. 우리의 부활체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게 될 것이다(참조, 요일 3:2). 그는 육체를 가지셨지만 매우 특별한 차원에 속하는 면도 지니셨다. 고전 15:12-19 와 고전 15:35-38 에 나타난 역설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육체에 속한 땅의 몸이 있으며 하늘에 속한 영적 몸이 있다. 예수께서는 둘 다 가지셨다!

▣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즐겨 사용한 호칭이다(참조, 1:4; 5:19; 10:17,20; 12:6; 17:7; 29:19,23; 30:11,12,15; 31:1; 37:23; 이 호칭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도 사용되었다, 40:25; 41:14,16,20; 43:3,14,15; 45:11; 47:4; 48:17; 49:7; 54:5; 55:5; 60:9,14).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만 한다(참조, 레 19:2; 마 5:48; 뱀전 1:16).

어떤 면에서, 이 호칭은 ‘범죄하여 타락한 자들이 거룩한 기준에 이르는 일’이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긴장을 보여준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을 지키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참조, 행 15 장; 갈 3 장; 히브리서). 옛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가 불가능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타락한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답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그들을 준비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고, 자신의 메시아를 통하여 그것을 만족시키신다. 비록 새 언약(참조, 렘 31:31-34; 겔 36:22-38)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지만(참조, 약 2:14-26), 이 언약은 ‘믿음과 회개의 언약’이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언약이 아니다. ‘열방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참조, 마 5:48).

#### 특별주제: 성화

죄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께 돌아올 때 그들은 즉시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성화된다고 신약은 단언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새 위치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다(참조, 롬 4 장). 그들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선언받았다(하나님의 법적 행위).

신약은 또한 신자가 계속적으로 거룩함과 성화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기초한 신학적 지위이며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와 행동으로의 부르심을 포함한다. 구원이 은사이자 값진 삶의 양식이듯이 성화도 그러하다.

최초의 응답

행 20:32; 26:18  
롬 15:16  
고전 1:2-3; 6:11  
살후 2:13  
히 2:11; 10:10,14; 13:12  
벧전 1:2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

롬 6:19  
고후 7:1  
엡 1:4; 2:10  
살전 3:13; 4:3-4,7; 5:23  
딤후 2:15  
딤후 2:21  
히 12:14  
벧전 1:15-16

41:15-16 이스라엘의 적을 “타작되는” “산들”(BDB 249)과 “언덕들”(BDB 148)로서 묘사한다. 타작은 추수를 가리키는 농업적 용어이다(참조, 미 4:13; 합 3:12). 이것은 히브리 시이다. 이 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개역개정 41:17-20

<sup>17</sup>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sup>18</sup>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sup>19</sup>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식당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sup>20</sup>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41:17-20 이 절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으로 인하여’ 자연 산물에 있어서 풍요를 누리게 됨을 나타낸다(참조, 신 27 장).

41:19 고대의 식물과 동물에 대한 유용한 자료인 UBS 성경의 동식물을 보라.

개역개정 41:21-24

<sup>21</sup>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sup>22</sup>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은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sup>23</sup>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sup>24</sup>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41:21 이것은 재판장의 배경이다(참조, 1 절).

▣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이 호칭은 여기서만 사용되었다. 야웨께서는 언약 백성의 이상적인 왕이셨다(참조, 44:6; 삼상 8:7). 야곱(즉, 이스라엘)의 이름은 모든 언약백성 곧 열 세 지파를 대표한다(참조, 45:4).

41:22-24 이 본문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것을 예언해보라고 요구하시지만, 그것들이 ‘헛 것이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이기에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24,48-29 절).

41:23 이 절은 맛소라 본문의 편집자들이 히브리어적 변이를 인식하고 본문을 바꾸기를 제안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23c 절의 맛소라 본문에는 “두려워 하다”(케티브, *wnr*[*웨니르에*], BDB 431, 칼 미완료형, NASB)로 되어 있는데 그들은 “보다”(케레, *wnr'h*[*웨니르에*], BDB 906, 칼 미완료형, NKJV, 류폴드역)로 읽을 것을 제안하였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보다”에 B 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41:24 “가증하니라”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혐오**

“혐오”(BDB 1072)는 다음의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1. 이집트인들과 관계된 것들:
  - ㄱ. 그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창 43:32
  - ㄴ. 그들은 양치는 자들을 몹시 싫어했다, 창 46:34
  - ㄷ. 그들은 히브리인의 제사를 몹시 싫어했다, 출 8:26
2.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야웨의 감정과 관계된 것들:
  - ㄱ. 부정한 음식, 신 14:2
  - ㄴ. 우상, 신 7:25; 18:9, 12; 27:15
  - ㄷ. 이방 신접자들, 신 18:9, 12
  - ㄹ. 몰렉에게 어린이들을 태워 바치는 것, 레 18:21-22; 20:2-5; 신 12:31; 18:9, 12; 왕하 16:3; 17:17-18; 21:6; 램 32:35
  - ㅁ. 가나안의 우상숭배, 신 13:14; 17:4; 20:17-18; 32:16; 사 44:19; 램 16:18; 겔 5:11-6:9; 11:18, 21; 14:6; 16:50; 18:12
  - ㅂ. 흠있는 동물의 제사, 신 17:1(참조, 15:19-23; 말 1:12-13)
  - ㅅ. 우상에게 제사함, 램 44:4-5
  - ㅇ. 이혼한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 신 24:2
  - ㅈ. 남자의 의복을 입는 여자(가나안의 예배에서), 신 22:5

- 츠. 창기가 번 돈(가나안의 예배), 신 23:18
  - ㅋ.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램 2:7
  - ㅌ. 동성애(가나안의 예배에서), 레 18:22; 20:13
  - ㅍ. 거짓 추의 사용, 신 25:16; 잠 11:1; 20:23
  - ㅎ. 음식규정을 범하는 것(가나안의 예배에서), 신 14:3
3. 지혜서의 예:
- ㄱ. 잠 3:32; 6:16-19; 11:1,20; 12:22; 15:8,9,26; 16:5; 17:15; 20:10,23; 21:27; 28:9
  - ㄴ. 시 88:8
  - ㄷ. 욥 30:10
4. 다니엘(참조, 9:27; 11:31; 12:11)에서 “가증한 것”이란 종말론적 구절이 반복된다. 이것은 세 가지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중복적인 예언 성취):
- ㄱ.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안 시대의 안티오커스 4 세인 에피파네스(참조, 마카비아 I서 1:54, 59; 마카비아 II서 6:1-2)
  - ㄴ. 로마 장군이었던 티투스(후에 황제가 됨)는 주후 70 년에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을 파괴했다(참조, 마 24:15; 막 13:14; 눅 21:20)
  - ㄷ. “불법의 사람”(참조, 살후 2:3-4) 또는 “적그리스도”(참조, 요일 2:18; 4:3; 계 13 장)로 불리는 마지막 때의 세계 지도자

**개역개정 41:25-29**

<sup>25</sup>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sup>26</sup>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 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sup>27</sup>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sup>28</sup>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sup>29</sup>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41:25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 사람은 고레스 2 세를 뜻한다(참조, 2 절; 44:28; 45:1). 사람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올 때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는 북쪽이었다. 왜냐하면 동쪽(즉, “해가 떠 오르는 곳”)은 사막으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이것은 대하 36:22-23 또는 스 1:1-2 을 가리킨다.



NASB “그가 고관들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NKJV “그가 고관들에게 대항하여 올 것이다”  
 NRSV, TEV, NJB “그가 고관들을 짓밟을 것이다”  
 REB “그가 고관들에게 대항하여 행군한다”  
 JPSOA “그가 고관들을 짓밟았다”

맞소라 본문에서 자주 사용된 동사인 “오다”(BDB 97, KB 112, *칼 미완료형*)를 번역가들은 이 문맥에서 “밟다”로 번역한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또 다른 어근을 제시한다.

1. *웨이바* - 그가 올 것이다/밟을 것이다
2. *웨이바스* - 그가 짓밟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1 항을 지지하면서도, 그것에 “C” 등급(많이 불확실함)을 준다. NET 은 2 항을 취한다(1251 쪽, 18 항).

41:26 야웨께서는 역사에서 행하실 일을 예언하심으로써 자신의 실존과 능력을 나타내신다(참조, 43:9; 45:21).

41:27 “이제 그들을 보라” 28 절과 29 절이 ‘거짓 선지자들’ 및 ‘도울 수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비극에 대하여 말하듯이, 이것은 참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이사야 4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세계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자신의 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종	첫 번째 종의 노래	하나님의 종	첫 번째 종의 노래
42:1-4 (1-4)	42:1-4 (1-4)	42:1-4 (1-4)	42:1-4 (1-4)	42:1-9 (1-9)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42:5-9 (5-9)	42:5-9 (5-9)	42:5-9 (5-9)	42:5-7 (5-7)	
	하나님을 찬송하라		42:8-9 (8-9)	
			찬송의 노래	승리의 노래
42:10-13 (10-13)	42:10-13 (10-13)	42:10-13 (10-13)	42:10-13 (10-13)	42:10-17 (10-17)
백성들의 눈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다	
42:14-17 (14-17)	42:14-17 (14-17)	42:14-17 (14-17)	42:14-15 (14-15)	
		눈 멀고 귀 먹은 종인 이스라엘	42:16-17 (16-17)	
			이스라엘이 배우기를 실패함	이스라엘이 눈먼
42:18-22 (18-22)	42:18-20 (18-20)	42:18-25 (18-25)	42:18-20 (18-20)	42:18-25 (18-25)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순종			
	42:21-22 (21-22)		42:21-22 (21-22)	
42:23-25 (23-25)	42:23-25 (23-25)		42:23-25 (23-2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것은 야웨의 종에 대한 특별한 시 가운데 처음 것이다.
1. 42:1-4 또는 42:1-7 또는 41:1-9
  2. 49:1-6 또는 49:1-7 또는 49:1-13
  3. 50:4-9 또는 50:4-11
  4. 52:13-53:12
- 처음 세 본문이 정확히 어디서 끝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 나. 그 종은 공동체(즉, 이스라엘)인 동시에 개인(즉,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문맥 및 ‘종이 하는 일에 대한 묘사’에 근거하여서만 각 본문이 둘 가운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 메시아는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 또는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이다(신약의 히브리서를 보라).
- 다. 아람어 역본들과 탈군으로 불리는 주석들은 이 종이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민족들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될 것이다. 고레스 2세가 야웨의 손 안에 있는 도구로서 새 출애굽/구원(즉, 포로에서 돌아옴)을 이루었듯이, 메시아도 타락함(창 3장)을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하게 됨에서 돌아옴’ 또는 영적인 새 출애굽을 가져오실 것이다. 그는 인간 안에 있는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에덴에서 가졌던 초기의 교제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 고레스는 세상에 갈이 되었지만(참조, 41:6), 메시아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실 것이다(참조, 42:6). 빛은 영적인 구출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49:6).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2:1-4

- <sup>1</sup>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 <sup>2</sup>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 <sup>3</sup>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 <sup>4</sup>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42:1 “보라” 두 번 사용된 “보라”(BDB 243, 참조, 41:29 및 42:1)는 민족들이 섬기는 생명없는 우상들을 야웨의 활동하심과 대조시키며,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을 민족들이 한 선택과 대조시킨다 (참조, 41:29).

40 장에서와 같이 “야웨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은 이들이 될 것이다.

1. 선지자
2. 천상의 회의에 참석한 자
3. 야웨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야웨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 기교

▣ “나의 종” 이것은 존중함과 소명을 나타내는 호칭이다(BDB 713).

1. 이 호칭을 공동체에게 사용하였다
  - ㄱ. 족장들을 통칭함 - 신 9:27
  - ㄴ. 선지자들 - 왕하 9:7; 17:13; 스 9:11; 렘 7:25; 26:5; 29:19; 35:15; 44:4
  - ㄷ. 이스라엘 - 시 105:6; 136:22; 사 41:8-9; 42:18-19; 44:1,2,21; 45:4; 48:20; 49:3; 렘 30:10; 46:27,28
  - ㄹ. 70 인역은 1 절이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하도록 한 구를 첨가시켰다(“야곱이 나의 종이다, 내가 그를 도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자이다”)
2. 이 호칭을 공동체에게 사용하였다
  - ㄱ. 아브라함 - 26:34; 시 105:6
  - ㄴ. 욥 - 욥 1:8; 2:3; 42:7,8
  - ㄷ. 이삭 - 창 24:14
  - ㄹ. 야곱 - 대상 16:13; 시 105:6; 겔 28:25
  - ㅁ. 모세 - 출 14:31; 민 12:7-8; 신 34:5; 수 1:1-2,7,13,15
  - ㅂ. 여호수아 - 수 24:29; 사 2:8
  - ㅅ. 갈렙 - 민 14:24
  - ㅇ. 다윗 - 겔 37:25
  - ㅈ. 스킵바벨 - 학 2:23
  - ㅊ. 솔로몬 - 왕상 3:8
  - ㅋ. 이사야 - 사 20:3; 44:26
  - ㅌ. 예수 - 마 12:15-21(사 42:1-4 의 인용임)

▣ “내가...하는” 야웨께서 자신의 특별한 종을 위하여 행하셨고 또 행하실 일들을 주목하여 보라.

1. 내가 불드는, 1 절
2. 내 마음에 기뻐하는, 1 절
3.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1 절

▣ “그가...하리라” 종이 하게 될 일들을 주목하여 보라(일련의 미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다).

1.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즉, 전세계적인 영향, 참조, 1 절, 4b,c 절)
2. 그는 외치지 아니한다, 2 절
3.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2 절
4.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2 절
5.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3 절
6.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3 절
7.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3 절
8. 그는 쇠하지 아니한다, 4 절
9. 낙담하지 아니한다, 4 절
10.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른다, 4 절

▣ “내가 택한 사람” 이 용어(BDB 103, KB 119)는 야웨께서 자신을 섬기도록 택하신 사람, 장소, 단체를 가리킨다.

1. 집합적으로는
  - ㄱ. 족장들의 씨 - 신 4:37; 10:15
  - ㄴ. 이스라엘 - 신 7:7; 시 135:4; 사 44:1; 겔 20:5
  - ㄷ. 민족 - 왕상 3:8
  - ㄹ. 유다 지파 - 대상 28:4; 시 78:68
  - ㅁ. 레위인들 - 대상 15:2; 대하 29:11
2. 개인들로는
  - ㄱ. 아브라함 - 느 9:7
  - ㄴ. 야곱 - 시 135:4
  - ㄷ. 아론 - 민 16:5; 17:5; 시 105:26
  - ㄹ. 다윗 - 삼상 10:24; 16:8,9,10; 시 78:70
  - ㅁ. 솔로몬 - 대상 29:1
  - ㅂ. 스룹바벨 - 학 2:23
3. 장소로는(즉, 성전) - 신 12:5,11,14,18,21,26; 14:23,24,25

▣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것은 예수께 대하여 성부께서 사용한 호칭인 “내 사랑하는 자”와 비슷하다(참조, 마 3:17; 17:5).

▣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것은 종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부음을 받고 준비되었음을 가리킨다(참조, 11:2; 59:21; 61:1). 40:7 의 특별주제: “영”(פּנּוּמָא)을 보라.

**특별주제: 인격체이신 성령**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즉, רוּאֹחַ)은 야웨의 목적을 성취하는 힘이었지만 이것이 인격적임을 말하는 암시가 없다(즉, 구약의 일신주의).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의 인격과 위격은 밝히 나타난다.

1. 성령에 대하여 신성모독을 범할 수 있다(참조, 마 12:31; 막 3:29)
2. 성령께서 가르치신다(참조, 눅 12:12; 요 14:26)
3. 성령께서 증거하신다(참조, 요 15:26)
4. 성령께서 유죄를 선고하시고, 인도하신다(참조, 요 16:7-15)
5. 성령께서 “그분”(즉, 호스)으로 불리신다(참조, 엡 1:14)
6. 성령께서 슬퍼하실 수 있다(참조, 엡 4:30)
7. 성령께서 소멸되실 수 있다(참조, 살전 5:19)

삼위일체를 말하는 본문도 세 인격에 대해 증거한다

1. 마 28:19
2. 고후 13:14
3. 벧전 1:2

성령은 인간의 활동과 관계하신다.

1. 행 15:28
2. 롬 8:26
3. 고전 12:11
4. 엡 4:30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사건이 아니라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다. 예수께서는 항상 성령을 갖고 계셨다. 그의 침례(세례)는 성령의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다. 누가는

교회가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새 장을 준비한다. 예수는 여전히 초점에 있으시다. 성령도 여전히 효과적인 방편이시며, 성부의 사랑과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모든 사람을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40: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이방에” 이 구와 4b,c 절과 6c,d 절과 10-12 절이 전세계적으로 적용됨을 주목하라! ‘미래에 있을 야웨의 왕국에 이방인들이 포함됨’을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가 가장 명확히 보았다!

42: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것은 다음의 한 가지를 가리킬 것이다

1. 예수께서 받으신 심문을 나타내는 53:7 과의 관련성
2. 조용하게 이루어진 그의 사역에 대한 묘사
3. 종이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를 울리지 않음에 대한 암시(참조, 65:14)

이 용어의 어원적 면을 고려할 때 3 항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42:3 “상한 갈대를 . . . 꺼져가는 등불을” 이것은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사역을 묘사한다(참조, 57:15).

▣

NASB, NRSV, NJB “신실하게”  
 NKJV, LXX “진리”  
 JPSOA “참된 길”

레에뵤이라는 히브리 단어(BDB 52)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진리” 및 “열방”이 아닌 것에 A 등급(확실함)을 준다(참조, NEB). “진리”와 “신실한”은 이 단어의 어근이 뜻하는 범주에 속한다.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아멘)**

I. 들어가는 말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 개념이 구약에서는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고 사용됨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약에 이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몇 핵심 귀절 및 사람들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구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섞여있다

가. 개인과 공동체

나. 개인적 경험과 언약에의 순종

믿음은 개인적 경험이요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양식이다! 이것을 사전적 형태(즉, 단어 연구)보다는 사람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러한 개인적 측면은 다음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가. 아브라함과 그의 씨

나. 다윗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철저히 바뀌었다(완벽한 삶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시험이 그들이 가진 약점과 강점을 드러내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생애를 거쳐 지속된다! 그들이 시험을 받고 정화되지만, 그들의 헌신과 헌신된 삶의 양식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한다.

II. 사용한 주요 어근

가. *야만*(BDB 52)

1. 동사

- ㄱ. *칼* 형 - 지지하다, 공급하다(즉, 왕하 10:1,5; 예 2:7, 신학적 용어가 아님)
- ㄴ. *니팔* 형 - 분명히 하다 또는 확실히 하다, 달성하다, 확인하다, 신실하다 또는 충성스럽다
  - (1) 사람, 사 8:2; 53:1; 렘 40:14
  - (2) 물건, 사 22:23
  - (3) 하나님, 신 7:9,12; 사 49:7; 렘 42:5
- ㄷ. *히팔* 형 - 굳게 서다, 믿다, 신뢰하다
  -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 창 15:6
  - (2)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다, 출 4:31; 14:31(신 1:32 에 반대의 내용이 나옴)
  - (3) 야웨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 출 19:9; 시 106:12,24
  - (4)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사 7:9
  - (5) 누구든지 그것/그를 믿는 자는, 사 28:16
  - (6)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믿다, 사 43:10-12

2. 명사(남성형) - 신실함(즉, 신 32:20; 사 25:1; 26:2)

3. 부사 - 진실로, 참으로, 내가 동의하여, 그렇게 되기를(참조, 출 27:15-26; 왕상 1:36; 대상 16:36; 사 65:16; 렘 11:5; 28:6). 이 용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의 예식적 용법을 이룬다.

나. *에펠*(BDB 54) 여성형 명사, 단단함, 신실함, 진리

- 1. 사람, 사 10:20; 42:3; 48:1
- 2. 하나님, 출 34:6; 시 117:2; 사 38:18,19; 61:8
- 3. 진리, 신 32:4; 왕상 22:16; 시 33:4; 98:3; 100:5; 119:30; 렘 9:4; 슥 8:16

다. *에무나*(BDB 53), 굳음, 견실함, 충성됨

- 1. 손, 출 17:12
- 2. 시간, 사 33:6
- 3. 인간, 렘 5:3; 7:28; 9:2
- 4. 하나님, 시 40:11; 88:12; 89:2,3,6,9; 119:138

III. 바울이 사용한 이 구약 개념

가.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에 야웨와 구약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이해의 기초를 두고 있다(참조, 행 9 장; 22 장; 26 장).

나. 그는 *야만*이라는 어근이 있는 구약의 두 가지 핵심 본문에 기초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새로운 의미를 설명한다.

- 1. 창 15:6 - 아브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창 12 장)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가져 왔다(창 12-22 장). 바울은 로마서 4 장과 갈라디아서 3 장에서 이 점을 암시한다.
- 2. 사 28:16 - 믿는(즉,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견고히 머릿돌로 세우신 이를)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결코 보지 않는다
  - ㄱ. 롬 9:33,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는 “실망한다”
  - ㄴ. 롬 10:11, 위의 내용과 같음

3. 합 2:4 -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램 7:28). 바울은 이 본문을 롬 1:17 과 갈 3:11 에서 사용한다(또한 히 10:38 의 설명을 보라).

#### IV. 베드로가 사용한 구약의 개념

가. 베드로는 단어를 합성하고 있다

1. 사 8:14 - 뱀전 2:8(걸려 넘어지는 돌)
2. 사 28:16 - 뱀전 2:6(모퉁이돌)
3. 시 118:22 - 뱀전 2:7(건축가들이 버린 돌)

나. 그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독특한 표현인 “선택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을 다음에서 취하였다

1. 신 10:15; 사 43:21
2. 사 61:6; 66:21
3. 출 19:6; 신 7:6

또한 이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교회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 V. 요한이 사용한 구약의 개념

가. 이 단어의 어원

“믿다”라는 용어는 헬라어(πιστευω)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믿다,” “믿음,” 혹은 “신뢰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명사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한다. 요 2:23-25 에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진실되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믿다”라는 용어가 피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는 요 8:31-59 과 행 8:13,18-24 에 나온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초기에 나타내는 반응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13:20-22,31-32).

나.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용법

1. *에이스*는 “안으로”를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가 그들의 신뢰/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문이다
  - ㄱ. 그의 이름 안에(요 1:12; 2:23; 3:18; 요일 5:13)
  - ㄴ. 그 안에(요 2:11; 3:15,18; 4:39; 6:40; 7:5,31,39,48; 8:30; 9:36; 10:42; 11:45,48; 17:37,42; 마 18:6; 행 10:43; 빌 1:29; 뱀전 1:8)
  - ㄷ. 내 안에(요 6:35; 7:38; 11:25,26; 12:44,46; 14:1,12; 16:9; 17:20)
  - ㄹ. 아들 안에(요 3:36; 9:35; 요일 5:10)
  - ㅁ. 예수 안에(요 12:11; 행 19:4; 갈 2:16)
  - ㅂ. 빛 안에(요 12:36)
  - ㅅ. 하나님 안에(요 14:1)
2. *엔*은 “안”을 뜻한다, 요 3:15; 막 1:15; 행 5:14
3. *에피*는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24; 9:33; 10:11; 딤후전 1:16; 뱀전 2:6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격*,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5. *호티*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다(요 6:69)
  - 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성부 안에 성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요 11:27; 20:31)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요 11:27; 20:31)
- ㄴ.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요 11:42; 17:8,21)
- ㄷ. 예수님은 성부와 하나이다(요 14:10-11)
- ㄹ.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오셨다(요 16:27,30)
- ㅈ.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의 언약적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 하셨다(요 8:24; 13:19)
- ㅊ.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 ㅋ.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살전 4:14)

## VI. 결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을 시작하신다(즉, 요 6:44,65). 한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화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신뢰

2. 언약적 순종

성경적인 믿음은 다음을 뜻한다

1. 개인적 관계(최초의 믿음)

2. 성경의 진리를 확인함(하나님의 계시를 믿음)

3. 그 진리에 대한 적합한 순종(매일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천국행 표나 천국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참조, 창 1:26-27)과 창조에 대한 목적이다. “친밀함”이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학적 지위가 아니라 교제를 바라신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녀들이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기를 요구한다(즉, 거룩함, 참조, 레 19:2; 마 5:48; 뱀전 1:15-16). 타락(참조, 창 3 장)은 적합하게 응답해야 할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참조, 겔 36:27-38). 새 마음과 새 영은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세 가지를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을 알고(히브리어와 헬라어적 의미에서) 또 우리의 삶에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믿음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인간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뢰함에 있어서 인간의 진실함은 그 결과이지(신약) 그 기초가 아니다(구약). 구원에 대한 신약적 관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 인간이 처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보내셨고 공급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참조, 엡 2:8-9,10)!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실한 백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또 믿지 않던 자들이 각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42:4 “~에 이르리니” 이 용어는 “상처를 받으심”(즉, 52:13-53:12)이 정해진 때에 일어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세상...섬들” 이 둘은 평행적인 관계 즉 동의어적 관계를 이룬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언급이다. 41:4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42:5-9

<sup>5</sup>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sup>6</sup>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sup>7</sup>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sup>8</sup>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sup>9</sup>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42:5-9 이 단락은 40:12-17 과 매우 비슷하다. 40 장의 본문은 야웨께서 창조자이시며 피조물인 물질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42:5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두 이름이다(40:3 의 특별주제를 보라).

1. 엘 - 고대 근동에서 사용한 하나님의 일반적 이름( BDB 42). 여기서는 정관사가 있다
2. 야웨 - “있다”라는 동사(BDB217)에서 유래한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

▣ “창조하여” 이 동사(BDB 135, KB 153, *칼능동 분사*)는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나타내는 독특한 용어이다(참조, 창 1:1).

▣ “하늘”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하늘들

이 히브리 용어(BDB 1029, “천국,” “하늘,” “궁창,” “공중”으로 번역됨)는 여러 가지 것을 가리킨다(즉, 창조된 여러 층의 둥근 천장 또는 둥근 구):

1. 창 1:8-20 에서 이것은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지상 위의 대기층을 가리킨다.
2.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이 둥근 천장(참조, 창 1:6,20; 사 40:22; 42:5)’에서 비를 보내신다(즉, “하늘의 창,” 참조, 시 78:23-29; 말 3:10 또는 “하늘의 물통,” 참조, 욥 38:37).
3. 이 둥근 천장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을 나타낸다(즉, 삼층 천 혹은 칠층 천). 이곳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즉, 신 10:14; 왕상 8:27,30,32; 시 2:4; 148:4; 사 66:1).
4. 이 단어가 가지는 신학적 강조점들은 다음과 같다
  - 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

- 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시다(즉, 빛과 어두움, 비와 가뭄).
- ㄷ. 하나님께서 밤에 빛을 내는 것들을 지으셨고 각각의 위치에 두셨다(해, 달, 별들, 행성들, 혜성들).
- ㄹ. 실재의 영역이나 공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지상
  - 2) 지구 위의 영역
  - 3) 보이지 않는 영역/천사들의 영역(참조, 골 1:16)
  - 4) 하나님께서 계시며 거하시는 영역
- 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

NASB	“자손”
NKJV, NRSV	“그것에서 나오는 것”
TEV	“그곳에 사는 모든 것”
NJB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
JPSOA	“그것이 낳는 모든 것”

이 용어(KB 993)는 두가지 면을 나타낸다.

1. 식물 - 욥 31:8; 사 34:1; 42:5
2. 인간(후손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 - 욥 5:25; 21:8; 27:14; 사 22:24; 44:3; 48:19; 61:9; 65:23

그가 “누구”이신지를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하늘을 창조하여
2. 펴시고
3. 땅을 펴시고
4. 그 소산을 내시며
5.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네페스, BDB 675)을 주시며
6.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루아흐, BDB 924)을 주시는

만일 이 내용이 창 1 장의 경우와 같은 종류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단어가 식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이 내용이 동의어적 평행법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 단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생명(이것이 문제가 아니다)은 야웨께로부터 왔다. 야웨만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42:6-7 이 두 절은 야웨께서 자신의 언약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은 선택하셨다(40:15의 특별주제를 보라).

1. 그들을 의로 부르심(BDB 894, KB 1128, 칼 완료형)
2. 그들을 손으로 붙드심(BDB 304, KB 302, 히필 지시형)
3. 그들을 살피주심(BDB 665, KB 718, 칼 미완료형)
4. 그들을 언약백성으로 삼으심(BDB 678, KB 733, 칼 미완료형)
  - ㄱ. 이방의 빛이 되도록
  - 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도록
  - ㄷ.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도록

아브라함의 씨는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1. 제사장들의 나라
2. 왕/제사장(메시아, 참조, 시 110 편)

그는 세상 사람들을 어두움 및 ‘죄의 감옥’에서 구하려고 오셨다(창 3 장).

3 항의 히브리 어근과 관련하여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1. 보호하다(*나차르*) - NASB, NKJV, NRSV
2. 형성하다(*야차르*) - NJB, JPSOA, REB

메시아/종이 무엇을 성취하시는지를 주목하라.

1. 의로 다스리심(참조, 9:6-7; 11:3-4)
2. 세계를 다스리심(참조, 45:22; 49:6; 52:10; 미 5:4)
3. 눈 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심(참조, 29:18; 32:3; 35:5)
4. 죄인들을 놓아주심(참조, 61:1)

42:8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이다. 40: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 영광” 이것은 정의하기에 어려운 용어(BDB 458)이다. 6:3 에서는 이것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다. 40:5 에서는 이것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야웨께서 친히 임재하심을 나타낸다.

신약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의 삶 안에 ‘야웨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말한다(참조, 요 1:14; 11:4,40; 17:4).

#### 특별주제: 영광(독사)

“영광”이라는 성경의 개념은 정의하기가 어렵다. 복음을 알고 영광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다(참조, 1:29-31; 램 9:23-24).

구약에서 “영광”(카보드, BDB 217)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원래 저울 (“무겁다”)과 관련된 상업 용어였다. 무게가 나가는 것은 가치가 있거나 내재적인 가치를 가졌다. 종종 밝음의 개념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 첨가되었다(참조, 출 19:16-18; 24:17; 사 60:1-2). 하나님은 홀로 귀하시며 영예로우시다. 그는 매우 빛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를 볼 수 없다(참조, 출 33:17-23; 사 6:5).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야웨를 알 수 있다(참조, 요 14:8-11; 골 1:15; 히 1:3). “영광”이란 단어는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행을 이룬다
2.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온전하심”을 가리킨다
3.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컬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참조, 창 1:26-27; 5:1; 9:6) 후에 반역 때문에 그것이 망가졌다(참조, 창 3:1-22). 이 용어는 광야 방랑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출 16:7,10; 레 9:23; 민 14:10 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주지 아니하리라” 사 40:18-26 을 보라. 이 본문에서는 야웨께서 실재하시지만 우상들은 실재하지 않는 존재임을 말한다.

42:9 “새 일...새 노래” “새로운”이라는 용어(BDB 294)는 사 43:19; 48:6; 62:2; 65:17; 66:33 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주제이다. 이것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번 나온다.

▣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것은 40:18-26 을 가리키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 본문에서는 야웨께서 우상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여 그들이 실재함을 나타내어 보라고 명하신다. 하지만 우상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오직 야웨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

개역개정 42:10-13

- <sup>10</sup>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 <sup>11</sup>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 <sup>12</sup>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 <sup>13</sup> 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  
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42:10-13 이 단락은 “해변”으로서 전세계에 대한 강조를 하는 41:1 과 평행을 이룬다. 이방인들은 빛을 간절히 소망했다(즉, 2:2-4; 40:4,5,6; 49:6).

야웨께서는 ‘빛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피난처와 도움이 되신다(6-7 절). 하지만 야웨께서는 ‘우상에게 매어달리는 자들’을 향하여는 투사가 되신다(13 절)!

▣ 이 단락에는 여러 개의 명령이 나온다.

1. “노래하라” - BDB 1010, KB 1479, **칼 명령**, 10 절
2.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라” - BDB 669, KB 724,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11 절
3. “크게 노래하라” - BDB 943, KB 1247,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11 절
4. “즐거이 부르라” - BDB 846, KB 1011,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11 절
5. “영광을 돌리라” - BDB 962, KB 1321,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12 절
6. “전할지어다” - BDB 619, KB 665, **하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12 절

42:10 10 절의 마지막 두 행은 41:1(참조, 42:12b)에서 “해변”이 제시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1.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여
2. 너희 섬들이여

42:11 “게달” 이것은(BDB 871) 아랍 민족을 뜻할 것이다. 히브리 어근은 다음을 가리킬 수 있다

1. 아랍 유목민족 - 사 21:16; 42:11; 60:7; 램 2:10; 49:28; 겔 27:21
2. 이스마엘의 선조 - 창 25:13; 대상 1:29

▣ “셀라” 이것은 “바위”(BDB 709)를 뜻한다. 이것은 예돔의 수도인 페트라를 뜻할 것이다(BDB 701, 참조, 16:1).

▣ “노래하며 . . .즐거이 부르라” 그들이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야웨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셨다(12a 절). 빛이 만민에게 이르렀다(6d 절). 그 빛은 언약 백성을 의미하며 또 그들이 야웨를 아는 일을 의미한다!

42:13 이 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을 막음을 인하여 야웨께서 그들을 공격하심을 나타낸다.

1. 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실 것이다
2. 여호와께서 전사 같이 분발하며 나가실 것이다
3. 여호와께서 외치실 것이다
4. 여호와께서 크게 부르실 것이다
5. 여호와께서 그 대적(즉, 우상숭배자들, 참조, 17 절)을 크게 치실 것이다

9:7; 26:11; 37:32; 59:17 에서는 “열심”(BDB 888)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야웨께서 의도하신 일들이 승리를 거두게 됨’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다!

**개역개정 42:14-17**

- <sup>14</sup>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혈떡일 것이라
- <sup>15</sup>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 <sup>16</sup>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 <sup>17</sup>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42:14 이것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시기를 가리킬 것이다. 야웨께서는 자신의 언약백성이 포로됨을 인하여 큰 슬픔을 겪으셨다.

1.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2. 잠잠하고 참았으나
3.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이
  - ㄱ. 부르짖으리니(BDB 821, KB 949)
  - ㄴ. 숨이 차서(BDB 983, KB 1375)
  - ㄷ. 심히 혈떡일 것이라(BDB 675, KB 730)

42:15-16 돌아오는 언약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실 일들을 이 두 절에서 묘사하고 있다.

1. 15 절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길을 닦아 준비함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또한 16d 절)
2. 16a-c 절에서는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묘사하고 있다
3. 16e-f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 분명함을 제시한다(두 개의 **칼 완료형**)

42:17 이 절에서는 야웨께서 ‘우상숭배를 거부하시며 정죄하심’을 계속하여 다룬다(즉, 1:28-31; 44:9-11; 45:16).

개역개정 42:18-22

18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19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20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21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22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42:18-22 이 연은 언약백성에 대하여 묘사하는 내용이다. 그들도 우상숭배자들이 되어버린 일이 충격적이다! 한편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볼 때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을 가진다

1. 족장들
2. 언약들
3. 약속들(참조, 롬 9:4-5)

어두움에 있는 민족들을 빛으로 이끌어야 할 자들이 어두움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사 6:9-10에 기록된 저주에 완벽하게 처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 35:5에서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한다!

42:18 두 명령형을 주목하라.

1. 들으라 - BDB 1033, KB 1570, *칼 명령*
2. 밝히 보라 - BDB 613, KB 661, *히필 명령*

▣ “너희 못 듣는 자들아...너희 맹인들아” 이 단어들은 이 문맥에서 거듭하여 사용되었다. 이 내용은 사 6:9-10의 암시이다.

42:19 평행을 이루는 여러 호칭을 주목하여 보라: (1) 1 행에 있는 “나의 종” (2) 2 행에 있는 “나의 사자” (3) 4 행에 있는 “여호와의 종.” 또한 “맹인”(BDB 734)이라는 용어가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됨을 주목하여 보라. “맹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 NASB “나와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 그”
- NKJV “완전한 그”
- NRSV “내가 임명한 자”
- JPSOA “선택받은 자”
- REB “신뢰하는 자”

꺾술람(BDB 1023)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불확실하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다음을 뜻할 것이다.

1.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다른 호칭과 평행을 이룬다(위의 설명을 보라)
2. 자신들이 받은 부르심과 정체감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었는가를 나타낸다

42:20 1 행(보는 일과 관련을 가짐)과 2 행(듣는 일과 관련을 가짐) 사이에 명백한 평행이 나타난다. 맛소라 편집자들이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변이를 제시해 주고 있다.

1. 맛소라 본문에는 “보는 것”로 되어 있다(*칼 부정사 절대형, 케레*)
2. 유대인 학자들은 “너희가 보았다”를 제시한다(*칼 완료형, 케티브*, 사해사본에서도 이리함)

42:21 이스라엘이 가진 문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수 없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타락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참조, 22 절; 즉, 겔 36:22-38). 이스라엘이 범죄한 일에 그 결과가 따랐다! 렘 31:31-34 의 새 언약은 ‘인간이 가진 이러한 무능력’에 대한 답이었다(참조, 23-25 절).



NASB, NJB “굴에”  
 NKJV, NRSV, JPSOA “구멍에”

맛소라 본문에는 “젊은 남자들”(BDB 104)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맥에서는 “구멍에”(BDB 359)를 뜻한다.

1. *바후림* - 젊은 남자들
2. *브호림* - 구멍에

문맥, 문맥, 문맥이 중요하다! 히브리 시의 해석에 있어서 평행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역개정 42:23-25

<sup>23</sup>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sup>24</sup>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sup>25</sup>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망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42:24 “다니기를” 성경에서 이 용어는 믿음이 신학적인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헌신이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도”로 불린 배경이 될 것이다(참조, 9:2; 19:9; 22:4; 24:14,22; 요 14:6).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하였는가? (참조, 40:27)
2.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가?
3. “내 종”은 유대인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메시아를 가리키는가?
4. 이 본문에서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가?
5.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가?

# 이사야 4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구속자	눈 멀고 죽은 자인 이스라엘 (42:18-43:7)	자신의 백성을 구출해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해방자이신 하나님
43:1-7 (1-7)	43:1-7 (1-7)	43:1-7 (1-7)	43:1-5a (1-5a)  43:5b-7 (5b-7)	43:1-7 (1-7)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종인 이스라엘은 주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증인이다	야웨만 홀로 하나님이시다
43:8-13 (8-13)	43:8-13 (8-13)	43:8-13 (8-13)	43:8-9 (8-9)  43:10 (10)  43:11-13 (11-13)	43:8-12a (8-12a)   43:12b-13 (12b-13)
멸망받게 될 바벨론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 (43:14-44:5)	바벨론에서 피함	바벨론에 대하여
43:14-21 (14-21)	43:14-15 (14-15)  43:16-21 (16-21)	43:14-21 (14-21)	43:14-15 (14-15)  43:16-17 (16-17)  43:18-21 (18-21)	43:14-15 (14-15)   새 출애굽의 기적  43:16-21 (16-21)
이스라엘의 잘못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간청함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이 감사를 모름
43:22-24 (22-24)	43:22-24 (22-24)	43:22-24 (22-24)	43:22-25 (22-25)	43:22-28 (22-28)
43:25-28 (25-28)	43:25-28 (25-28)	43:25-28 (25-28)	43:26-28 (26-2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스라엘이 ‘야웨의 언약백성’이라는 독특한 내용이 1-7 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1.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다, 1,7 절
  2.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다, 1 절
  3.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셨다, 1,7 절
  4.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2 절
  5.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적 하나님이 되신다, 3 절
  6.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다, 4 절
  7.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다, 4 절
  8.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4 절
  9.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5 절
- 나. 야웨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사 민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8-10 절 (특히 10c 절).
- 다. 10d-f 절부터 13 절은 야웨의 독특하신 면을 신학적으로 입증하는 본문이다. 40:14의 특별주제: 유일신 사상을 보라.
- 라. 야웨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로됨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5-6,14,16,19-20 절)
  1. 고레스 2 세를 통하여
  2.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 마. 비록 이스라엘이 구속받기에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야웨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다(참조, 22-24 절).
- 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야웨’가 이 장의 핵심 내용을 이룬다(참조, 1,3,11,14,25-26 절). 야웨께서는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신의 목적이 어떠한을 인하여 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속량을 위해 하나님의 손 안에 들린 귀한 도구이다.
- 사. 43 장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이름(40:3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은 다음과 같다
  1. “**여호와**” (1,3,11,14 절) 야웨 -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참조, 출 3:14),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다.

2. “하나님” (3 절; 13 절에서는 엘) 엘로힘 - 이것은 복수형이다. 야웨는 공허하심을 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세상과 관련하여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신 이름(즉, 창조자, 유지자)이라고 랍비들은 설명한다. 이 두 가지 이름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성호이다.
3.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3,15 절) - 이 호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성을 나타낸다(서론의 5, 다항 및 40:25 의 설명을 보라).
4. “구원자” (3,11,12 절) 야샤 - 이 호칭은 여호수아 및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어근을 가진다. 기본적인 의미는 “넓게 되다” 또는 “공간이 있는”을 뜻한다(참조, 19:20; 45:15,21; 49:26; 60:16; 63:8).
5. “속량자” (14 절) - 이 호칭은 친족인 구속자 또는 피의 복수자를 뜻하는 고엘을 그 어근으로 한다(참조, 룻 4:4,6). 이 용어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까운 친족으로 묘사한다(참조, 41:14; 44:6,24; 47:4; 48:17; 49:7,26; 54:5,8; 59:20; 60:16; 63:16).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심을 나타낸다. 이러한 비슷한 예는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남편이라고 묘사하는 경우이다.
6. “창조자” (15 절) - 창조자이신 야웨께서는(참조, 40:28) 또한 이스라엘의 언약적 하나님이다. 이 용어(바라라는 동사, 참조, 1 절)는 중요한 주제이다(참조, 사 40-66 장).
7. “왕” (15 절) -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 땅 위의 왕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참조, 삼상 8 장).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3:1-7

- <sup>1</sup>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 <sup>2</sup>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 <sup>3</sup>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 <sup>4</sup>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 <sup>5</sup>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 <sup>6</sup>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1 “여호와” 이 호칭은 야웨를 가리킨다. 출 3:14 에서 이 단어는 “나는 스스로 있다”로 번역되었다. 이 단어는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다. 40: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너희의 창조자” 이것은 칼 분사(BDB 135, KB 153)이다. 이것은 종의 노래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이다. 여기서 이것은 민족들을 세우심을 가리킨다(참조, 창 12,15,22 장).

43 장의 두 번째 행은 “조성하다”(BDB 427, KB 428, 칼 분사, 참조, 21 절; 44:2,21,24)라는 동사가 평행을 이룬다. 야웨께서는 물질세계 뿐 아니라 언약백성의 창조자이시다(참조, 창 12,15,18, 22 장).

▣ “야곱아...이스라엘아” 이 두 호격은 아브라함의 씨인 언약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다(BDB 431, KB 432,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칼 미완료형이다). 따라서 이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및 포로됨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참조, 40:9; 41:10,13,14; 44:2; 54:4).

▣ “구속하였고” 41: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것(“구속했다”와 “불렀다”는 칼 완료형이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을 나타낸다(참조, 7 장; 45:3-4).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특별히 부르신 일을 나타낸다(참조, 창 12, 15, 18, 22 장).

▣ “너는 내 것이라” 21 절과 출 19:5-6 을 보라. 이스라엘은 야웨의 독특한 백성이다.

43:2 “물...불...불길” 이것은 매우 놀라운 본문이다! 이것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원수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큰 약속이다(즉, 그의 개인적 임재, 참조, 5 절; 신 31:6,18; 시 23:4; 마 28:20).

▣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 다른 예를 단 3 장에서 보라.

43:3 “구원자” 이 어근의 기본적 의미는 “넓다”(BDB 446, KB 448)이다.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이 어근을 가진다.

▣ “속량물” 이것은 값을 많이 치루어 속량함을 뜻한다(41: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절은 고레스 2 세의 정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43:4 3 절과 4 절 사이에 명백하게 평행이 나타난다

1. 3 절 - 이집트, 구스, 스바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속량물이 됨
2. 4 절 - 속량물에 다음과 같은 종류가 포함됨
  - ㄱ. 다른 남자들
  - ㄴ. 다른 백성들

UBS 본문 프로젝트(111 쪽)는 REB 에 나오는 내용을 제시한다(즉, 앓시리아...에돔). 이러한 차이는 자음의 변화없이 가능하다. 한편, UBS 본문 프로젝트는 1 항에 A 등급(매우 확실함)을 준다.

3 절과 4 절은 문학적으로 ‘이스라엘에 향한 야웨의 큰 사랑’ 및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고레스의 군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원하심’을 나타낸다.

43:5-7 이것은 고레스 2 세가 내린 칙령에 의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됨을 반영한다.

43:7 “불려지는... 창조한 자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참조, 10 절; 창 12:1-3; 출 19:5-6). 40: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43:8-13**

<sup>8</sup>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sup>9</sup>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sup>10</sup>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sup>11</sup>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sup>12</sup>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sup>13</sup>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43:8 “보지 못하고” 이 일은 그들의 지속적인 불신앙 및 언약에 대한 불순종을 인하여 일어났다(참조, 6:9-10; 42:18-22).

43:9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일련의 **칼미완료형**이 사용되었다(참조, NRSV, NJB “~하게 하라).

1. 그들로 그들의 증인을 세우게 하라(BDB 678, KB 733)
2. 그들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게 하라(BDB 842, KB 1003)
3. 그들로 듣게 하라(BDB 1003, KB 1570)
4. 그들로 말하게 하여 보라(BDB 55, KB 65)

민족들도 40 장에 나오는 우상들처럼 미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야웨께서만 자신의 손 안에서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되,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특별한 증인 메시아를 사용하실 것이다.

- 43:10-13 여러 모습으로 야웨의 독특하심과 능력과 영원하심을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야웨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기대하셨다
    - ㄱ. 알기를(BDB 393, KB 390, *칼 미완료형*)
    - ㄴ. 믿기를(BDB 52, KB 63, *히필 미완료형*)
    - ㄷ. 이해하기를(BDB 106, KB 122, *칼 미완료형*)
  2. 야웨께서만 하나님이다
    - ㄱ. 내가 그이다, 10,11,12,13 절
    - 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10 절
    - ㄷ.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0 절
    - ㄹ.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1 절
  3. 야웨께서 다음의 일을 행하신다(모든 단어가 *히필 완료형*임)
    - ㄱ. 그가 말씀하셨다(BDB 616, KB 665)
    - ㄴ. 그가 구원하셨다(BDB 446, KB 448)
    - ㄷ. 그가 선언하셨다(BDB 1033, KB 1570)
  4. 야웨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 13a 절
  5. 야웨의 능력, 13b,c 절
- 이 진리들을 민족들이 알고 받아들여야 했다, 9 절.

43:10 “너희는 나의 증인” 이 구는 모든 민족들이 모여 있는(참조, 9 절) 재판 장소의 모습을 나타낸다(참조, 12 절; 41:21; 44:8; 롬 8:31-38).

▣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이것은 유일신 사상을 가리킨다(참조, 10-13 절. 40:14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내용은 출 20:5을 반영하고 있다.

43:13 “태초로부터” 이 부분은 70 인역을 따른 것이다. 맛소라 본문에서는 “그 날로부터”로 되어 있다.

**개역개정 43:14-21**

- <sup>14</sup>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 <sup>15</sup>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 <sup>16</sup>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 <sup>17</sup>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 <sup>18</sup>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 <sup>19</sup>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sup>20</sup>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sup>21</sup>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43:14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 . .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것은 고레스 2 세에 의하여 바벨론이 멸망함을 가리킨다. 신바벨론 제국을 이긴 것은 고레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야웨의 능력과 목적을 인함이었다(즉, “너를 위하여”).

히브리 본문의 자음이 나타내는 음가가 다음의 의미를 가지도록 조정하면 다음과 같다.

1. “포로들”(NASB, NKJV, NET 성경)
2. “빛장들”(JPSOA, NRSV, NJB, TEV)

▣ “갈대아 사람” 헤로도투스(주전 450 년, *Hist. I*)는 어떤 민족(참조, 왕하 24:1-4; 단 5:30)과 어떤 제사장 계급(참조, 단 2:2; 3:8; 4:7; 5:7,11)에 대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용법은 고레스 2 세에게로 거슬러 간다. 이 때보다 더 이른 시기에도 앗시리아인들은 이 용어(BDB 505)를 사용하여 어떤 민족을 나타내었다(참조, R. K. 헤리슨, *구약개론*, 1113 쪽). *엑스포지터스 성경주석* 제 7 권(14-15 쪽) 또는 로버트 덕 윌슨의 다니엘서 연구(시리즈 1)에서 비슷한 이 두 용어(즉, 칼두 혹은 카스두)에 관한 좋은 논의를 살펴보라.

창 11:28 에서 갈대아 우르를 데라와 그의 가족의 고향으로 말하기 때문에, 갈대아는 셈족(즉, 히브리인들과 같은 인종적 그룹)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 있다.

▣ 히브리어의 자음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배 안으로(NASB, NKJV)
2. 탄식하여(JPSOA, NRSV, NJB, TEV, REB, NET)
3. 70 인역에서는 “배에 묶인”으로 되어 있다

‘배를 타고 강(즉, 유프라테스)을 따라 내려가면 페르시아의 군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14 절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15 “너희의 왕이니라” 이 본문은 삼하 7 장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43:16 이것은 (1)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돌아옴을 예시하는 사건인 이집트에서의 출애굽(참조, 17 절; 출 14-15 장) 또는 (2) 야웨께서 무질서한 물을 제어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43:19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 . . 내리니” 이것은 성경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참조, 40:1-4).

▣ “강” 사해사본에서는 “길”로 말한다(REB).

43:20 저주(참조, 신 27-29 장)가 있지 않고 들짐승들이 순하게 된다. 야웨께서 임재하시며 축복하심을 인하여 자연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개역개정 43:22-24

<sup>22</sup>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sup>23</sup>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sup>24</sup>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43:22-24 이것은 모든 제사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정죄하는 내용이다(참조, 램 7 장). 모든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반역이 고착된 상태임을 드러낸다.

43:24 “향품” 이 용어는 기름부음에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을 가리킨다(참조, 출 30:23; 램 6:20).

개역개정 43:25-28

<sup>25</sup>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sup>26</sup>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sup>27</sup>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sup>28</sup>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 주며 이스라엘이 비방 거리가 되게 하리라

43: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에 근거한 일이다(참조, 37:35; 48:9,11; 켈 36:22-38).

▣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참조, 1:18; 38:17; 44:22; 시 103:12; 미 7:19). 사탄이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얼마나 필요한 진리인가! 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은혜여!

특별주제: 죄 사함을 나타내는 단어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반역을 용서하심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히브리 단어와 구를 여기에 제시한다.

1. “용서하다,” “사하다,” *살라흐* - BDB 699, KB 757, 즉, 출 34:9; 레 4:20,26,31,35; 5:10,13,16,18; 6:7; 19:22; 민 14:20; 15:25-28; 30:5,8,12; 왕상 8:30,34,36,39,50; 시 25:11; 103:3; 사 55:7; 단 9:19; 암 7:2(이 용어는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사용됨)
2. “쓸어 버리다,” “지우다,” *나샤* (여러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 자주 쓰인 단어임) - BDB 669, KB 724, 즉, 출 23:21; 32:32; 34:7; 민 14:18; 수 24:19; 시 25:18; 32:1,5; 85:2; 99:8; 미 7:18

3. “덜다,” “속죄하다,” *카파르* - BDB 497, KB 493, 즉, 레위기에서 아주 많이 쓰임; 시 65:3; 78:38; 79:9; 사 6:7; 22:14; 렘 18:23; 겔 16:63; 단 9:24
4. “지우다,” “쓸어 버리다,” *마하* - BDB 562, KB 567, 즉, 느 4:5; 시 51:1,9; 사 43:25; 44:22; 렘 18:23
5. “병을 고치다,” *라파* - BDB 950, KB 1272, 즉, 대하 7:14; 시 41:4; 103:3; 사 6:10; 57:18; 렘 3:22; 17:14; 30:17; 호 5:13; 14:4
6. “건너가다,” *아바르* - BDB 716, KB 778, 즉, 잠 19:11; 암 7:8; 8:2; 미 7:18
7. “씻다,” *카바스* - BDB 460, KB 459, 즉, 시 51:2,7; 렘 2:22; 4:14
8. “깨끗게 하다,” *타하르* - BDB 372, KB 369, 즉, 레 16:30; 시 51:7; 잠 20:9; 겔 24:13; 36:25
9. “등 뒤로 던지다,” *살락* - BDB 1020, KB 1527, 즉, 사 38:17; 미 7:19
10. “제거하다,” *하타* - BDB 306, KB 305, 즉, 시 51:7(이 단어는 매우 일반적인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을 나타낸 것으로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됨)
11.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다,” *사타르* - BDB 711, KB 711, 즉, 시 51:9
12. “기억하다”(부정), *자카르* - BDB 269, KB 269, 즉, 사 43:25
13. “밟다”(문자적으로, “정복하다”), *카바쉬* - BDB 461, KB 460, 즉, 미 7:19

43:26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것은 법정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참조, 1:18; 41:21; 롬 8:31-38). 이 절에는 재판장이 발하는 여러 명령이 나온다.

1. 나를 기억하라 - BDB 269, KB 269, *히필 명령*
2.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 BDB 1047, KB 1627, *니팔 청유형*
3. 네 사정을 진술하라 - BDB 707, KB 765, *피엘 명령*

43:27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버지”이다. 이 단어는 아담 또는 야곱 또는 유대인의 선조를 가리킨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구약은 원죄만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죄가 현재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한다. 바울 및 어떤 랍비들은 창 3 장의 사건을 강조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창 6 장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 “교사들” 이것은 다음의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다

1. 선지자들
2. 제사장들
3. 정치가들

43:28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욕되게 하다”라는 동사(BDB 320 III, KB 319, *피엘 미완료형*)는 “깨뜨다”를 뜻한다(BDB 318, 참조, 왕하 25:18-27). NEB 와 REB 는 70 인역을 따라서 히브리어의 자음을 약간 바꾸어 “네 지도자들이 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번역한다.

28 절에 있는 두 동사가 과거를 뜻하는지 또는 미래를 뜻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히브리어 본문은 27 절과 28 절을 연결시켜 제시한다. 28 절은 과거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43 장의 대부분은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됨에서 이제 구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다. 히브리어의 *시제*는 시간이 아니라 행동을 말한다; 문맥에서만 시간을 알 수 있다.

▣ “진멸 당하도록” 이것은 *헤렘*이라는 단어이다(BDB 356). 어떤 것은 “거룩하기에” 범죄한 인간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진멸시켜야만 되었다. 그 예가 여리고의 경우이다(참조, 수 6 장).

# 이사야 44:1-23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여수론	주님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위해 쌓아 놓으신 축복
44:1-5 (2-5)	44:1-5 (2-5)	44:1-5 (1-5)	44:1-5 (1-5)	44:1-5 (1-5)
우상숭배의 어리석음	우상숭배는 어리석은 일이다	우상숭배에 빚댄 풍자	우상숭배는 어리석은 일이다	우상들의 우둔함
44:6-8 (6-8)	44:6-8 (6-8)	44:6-8 (6-8)	44:6-8 (6-8)	44:6-8 (6-8)
44:9-17	44:9-11 (9-11)	44:9-11	44:9-11	44:9-11
	44:12 (12)	44:12-17	44:12	44:12
	44:13-14 (13-14)		44:13-17	44:13-17
	44:15-17 (15-17)			
44:18-20	44:18-20 (18-20)	44:18-20	44:18-19	44:18-19
			44:20	44:20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속량하신다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속량받았다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야웨께 대한 충성
44:21-23 (21-23)	44:21-22 (21-22)	44:21-22 (21-22)	44:21-22 (21-22)	44:21-23 (21-23)
	44:23 (23)	44:23 (23)	44:23 (2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4:1-5

- <sup>1</sup>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 <sup>2</sup>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 <sup>3</sup>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 <sup>4</sup>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 <sup>5</sup>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44:1 “들으라” 이 명령(BDB 1033, KB 1570)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많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 특징적으로 나타난다(참조, 1:2,10; 6:8,9,10; 7:13; 28:14; 32:9; 33:13; 34:1; 36:13; 39:5; 42:18; 46:3,12; 47:8; 48:1,12,14,16; 51:1,7,21; 55:2,3; 59:1; 66:5).

이 단어는 “행할 수 있도록 잘 들으라”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신 6:4-5에 있는 바 유대인의 유명한 기도문의 이름(שמע)이 되었다.

▣ “나의 종 야곱” 1행과 2행 사이의 평행법을 주목하라. 야웨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 “내가 택한” 야웨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셨다

1.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1,2 절
2. 이스라엘을 만드셨다, 2 절
3. 이스라엘을 지어 내셨다, 2 절
4.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2 절

44:2 1행과 2행 사이의 평행법을 주목하라.

1. “너를 만들었다” - BDB 793, KB 889, *칼 분사*, 1행
2. “너를 지어 냈다” - BDB 427, KB 428, *칼 분사*, 2행

야웨의 창조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히브리 단어가 여러 가지 있다.

▣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BDB 431, KB 432,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미완료형**)는 40-66 장에서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40:9; 41:10,13,14; 43:1,5; 44:2; 51:7; 54:4,14; 57:11). 그들은 다음의 이유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다

1.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2.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3. 그들이 형벌을 다 받았기에
4.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로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기에

▣ “여수룬” 이것은(BDB 449) “바른 자”라는 뜻을 가진 용어로서 드물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용되었다(참조, 신 32:15; 33:5,26). 이것은 “오, 나의 종 야곱”과 평행을 이룬다.

▣ “부어 주리니” 이 동사(BDB 427, KB 428, **칼 미완료형**)는 종종 기름부음 또는 제사와 관련을 가진다. 이 절에서는 두 번 사용되었다.

1. 한 번은 물을 기적적으로 넘치게 주심을 가리킨다
2. 또 한 번은 성령을 가리킨다(참조, [1] 32:15, 다른 단어[BDB 788]를 사용하여 [2] 율 2:28 에서 다른 단어[BDB 1049]를 사용하여)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상징하였듯이, 야웨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참조, 4 절).

▣ “네 후손에게” 축복은 저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통하여 전달된다(참조, 신 5:9-10; 7:9) 이 후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야웨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5 절).

44:5 이 절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관하여 어려움이 따른다.

1.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자손들
2.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고 높이는 외국인들(참조, 56:3-6)

“부르다”라는 동사(BDB 894, KB 1128, **칼 미완료형**)는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1. 수동태, 아랍어 탈군, “불려질 것이다”
2. 재귀형(*니팔*), 70 인역과 페쉬타, “자기 자신을 부를 것이다”
3. 능동태, 히브리 본문, “부를 것이다”(즉, 예배의 행위)

문맥을 고려할 때 2 행과 3 행의 평행법은 외국인들에 대한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홀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 나아감’을 분명히 나타내는 본문이다! 이 좋은 민족들에게 빛이 될 뿐 아니라 민족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창 3:15 과 12:3 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 개역개정 44:6-8

<sup>6</sup>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sup>7</sup>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sup>8</sup>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44:6 이 문맥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호칭을 주목하여 보라(43:3,15 의 본문과 비슷함).

1. 여호와(야웨)
2. 이스라엘의 왕
3. 구속자(BDB 145 I, 참조, 41:14)
4. 만군의 여호와
5.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참조, 41:4; 43:10; 48:12; 계 1:8,17; 22:13)
6. 하나님(엘로힘)
7. 반석, 8 절(참조, 17:10; 26:4; 30:29; 시 18:2)

40:3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이 호칭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독특성과 영원성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것은 독특하심과 유일신 신앙을 확증하는 내용이다. 40: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주제는 이사야서에서 반복되고 있다.

44:7 “외치며 알리며” 이것은 또 다시 법정 장면에 대한 암시이다. 야웨께서는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존재와 능력을 입증하여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상들은 그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없다(참조, 사 41:21-24; 43:8-9). 그것들은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

거짓된 신들(민족들의 우상들)에게 대하여 사용한 여러 종류의 명령을 주목하여 보라.

1. 외치라 - BDB 894, KB 1128,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2. 알리라 - BDB 616, KB 615, **하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설명하라 - BDB 789, KB 884,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4. 알리라 - 2 항과 같음

44:8 민족들이 섬기는 거짓된 우상의 무기력함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되어서는 안되었다

1. 두려워하지 말며 - BDB 808, KB 922,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칼 미완료형**
2. 겁내지 말라 - BDB 923(*라하*), KB 437(*야라*),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칼 미완료형**  
(2 절에서 사용한 다른 어근의 단어)

▣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자신의 종들/중에 대하여 가지신 특별한 목적을 야웨께서 계시하셨다.

▣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야웨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하신다. 동사형이 **칼 완료형**이다; 다른 신이나 신들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 뿐이다(40: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44:9-11**

<sup>9</sup>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sup>10</sup>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sup>11</sup>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44:9-20 이 본문은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 산문형식으로 말한다(참조, 렘 10:2-16).

44:9  
 NASB “헛된”  
 NKJV “쓸모없는”  
 NRSV “아무 것도 없는”  
 TEV “가치없는”  
 NJB “아무 것도 없음”

이 히브리 단어(BDB 1062)가 창 1:2 에서는 “형태가 없는”으로 번역되었고, 사 34:11 에서는 “황폐함”으로, 41:29 에서는 “비어 있음”으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는 실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44:11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칼 미완료형**을 연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1. 그들이 다 모일 것이니라, BDB 867, KB 1062,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히트파엘 미완료형*
2. 그들이 설 것이니라, BDB 763, KB 840,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칼 미완료형*
3. 그들이 두려워 할 것이니라, BDB 808, KB 922,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칼 미완료형*
4.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BDB 101, KB 116,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칼 미완료형*

**개역개정 44:12-17**

<sup>12</sup>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sup>13</sup>목공은 줄을 늘여 채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sup>14</sup>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sup>15</sup>이 나무는 사람이 땀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sup>16</sup>그 중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sup>17</sup>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44:14-20 이것은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참조, 렘 10:2-16).

1. 나무를 심는다
2. 다음의 용도를 위하여 나무를 자른다
  - ㄱ.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 ㄴ. 음식을 조리하려고
  - ㄷ. 신을 만들려고
3. 잘라낸 나무의 남은 조각으로 만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신’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 그들은 나무토막에게 도와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빈다!
4. 우상을 만든 자들이 스스로 속아 이러한 준비과정을 모두 생각지 않는다(20 절)

**개역개정 44:18-20**

<sup>18</sup>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sup>19</sup>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 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중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sup>20</sup>그는 재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44:18 불신앙과 미신이 다음 중 어느 것의 결과인가?

1. 타락
2. 야웨의 손?

구약에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린다(즉, 바로, 또한 6:9-10; 29:10의 설명을 보라).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신비한 관계를 나타낸다(즉,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간의 행동, 참조, 55:7). 아마도 시 81:12은 이 주제를 가장 잘 요약하여 제시한다(참조, 롬 1:24,26,28).

**특별주제: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선택은 놀라운 교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애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속을 위한 통로가 되거나 혹은 방편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섬김을 위한 것이었고, 신약에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섬김을 낳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있는 표면상의 모순을 화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둘을 다 인정하고 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로마서 10장에 있는 인간이 해야 할 반응(참조, 10:11,13) 사이의 긴장은 성경에 있는 이러한 긴장의 좋은 예이다.

이러한 신학적 긴장에 대한 열쇠를 엡 1:4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는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칼 바르트). 예수는 타락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예”가 되신다(칼 바르트). 에베소서 1:4도 예정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거룩함(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끌리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소홀히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선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임은 물론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교리는 다른 진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지 따로 떨어진 하나의 진리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좋은 유추는 성운 대 한 개의 별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서양이 아닌 동양의 장르로 나타내신다. 우리는 교리적 진리들의 변증법적(역설적) 쌍이 형성하는 긴장을 제거해서는 결코 안된다:

1.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2. 신자의 안전 대 인내의 필요
3. 원죄 대 의지적 죄
4. 죄없음(완전함) 대 죄를 적게 지음
5. 최초의 즉각적인 칭의와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6.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7. 하나님의 초월성 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8. 궁극적으로 알수 없는 하나님 대 성경에서 알려진 하나님
9.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 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10.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 대 인간이 언약을 따라 가져야 하는 응답으로서의 회개
11. 하나님이신 예수 대 인간이신 예수
12. 예수께서 성부와 동등하심 대 예수께서 성부께 복종하심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항상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을 정하시는 분으로서)을 의미하는 내용으로서 인간에게 요청되는 최초의 회개와 믿음 및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묶는다. 역설적 진리의 어느 한 쪽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느라 다른 한 쪽을 약화시키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직 당신이 좋아하는 교리나 조직신학의 내용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44:19 “가증한 물건” 41:24의 특별주제: 가증한 것을 보라.

개역개정 44:21-23

<sup>21</sup>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sup>22</sup>내가 네 허물을 뺨뺨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sup>23</sup>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이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이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44:21-23 우상숭배의 거짓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야웨의 백성이 하는 참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는다

1. 기억하라, 21 절 - BDB 269, KB 269, **칼 명령**
2. 돌아오라, 22 절 - BDB 996, KB 1427, **칼 명령**

야웨께서 창조하신 세계도 증거를 한다

1.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23 절 - BDB 943, KB 1247, **칼 명령**
2. 땅의 깊은 곳들이 높이 부를지어다, 23 절 - BDB 929, KB 1206, **히필 명령**
3. 산들이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23 절 - BDB 822, KB 953, **칼 명령**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나무를 태우고 또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야웨의 구속’ 및 ‘이스라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이 나무들이 크게 기뻐하는 일은 큰 대조를 이룬다.

44:21

NASB, NKJV, NRSV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REB, 70 인역,

페쉬타, JPSOA “결코 나를 잊지 말라”

이 차이는 모음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1 항(NASB)에 “C” 등급(상당히 불확실함)을 준다.

44:22 이것은 완전한 용서에 관한 아주 놀라운 또 하나의 약속이다. “없이 한다”라는 **동사**(BDB 562, KB 567, **칼 완료형**)가 43:25; 시 51:3,11 에서도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죄도 잊어버려 주신다(참조, 1:18; 38:17; 43:25; 44:22; 미 7:19).

우리의 범죄함을 완전히 지워 없애시는 일은 다음에 기초한다.

1. 야웨의 구속하심
2. 신자의 회개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회개**

이 개념은 중요하지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취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히브리(또한 헬라어) 단어가 신학적으로 “고정된” 어떤 정의를 특별히 뜻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단어가 그렇게 “고정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신약의 저자들(누가를 제외하고는)은 코이네 헬라이어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히브리 단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개념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nhm*(*나함*, BDB 636, KB 688)

2 *swb*(*숄*, BDB 996, KB 1427)

처음 단어인 *나함*은 원래 숨을 깊이 쉬는 것을 뜻하며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ㄱ. “휴식” 또는 “위로” (예, 창 5:29; 24:67; 27:42; 37:35; 38:12; 50:12; 종종 이름으로 사용됨, 참조, 왕하 15:14; 대상 4:19; 느 1:1; 7:7; 나훔 1:1)

ㄴ. “슬퍼하다” (예, 창 6:6,7)

ㄷ. “마음을 바꾸다” (예, 출 13:17; 32:12,14; 민 23:19)

ㄹ. “동정” (예, 신 32:36)

이 단어들이 모두 마음 속 깊이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임을 주목하라! 여기에 열쇠가 있다: 마음 속 깊이 있는 느낌이 행동을 낳는다. 이것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행동의 변화이다. 여기에 주의를 요하는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라”(참조, 창 6:6,7; 출 32:14; 사 2:18; 삼상 15:11,35; 시 106:45)라는 말은 죄나 잘못에 대한 슬픔으로 인한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정을 가지시고 돌보심을 문자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참조, 민 23:19; 삼상 15:29; 시 110:4; 램 4:27-28; 겔 24:14). 만일 죄인이 진실되게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죄와 반역으로 인한 형벌을 용서받는다.

이 용어는 어원적으로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진다.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결정지움에 있어서 문맥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용어인 *숄*은 “돌아가다”(~에서 돌아 오다, 돌아 가다, ~로 돌아 가다)를 뜻한다. 만일 언약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내용이 “회개”와 “믿음”(예, 마 3:2; 4:17; 막 1:4,15; 2:17; 눅 3:3,8; 5:32; 13:3,5; 15:7; 17:3) 이라면, *나함*은 자신의 죄를 강도있게 느끼는 것과 죄로부터 돌이킴을 뜻하고 *숄*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이 두가지 영적 행동이 나오는 경우는 아모스서에서 찾을 수 있다: 4:6-11,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5 회]와 암 5:4,6,14, “나를 찾으라 . . . 야웨를 찾으라 . . .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회개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예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밧세바와 관련하여 범죄하였을 때이다(참조, 삼하 12 장; 시 32 편; 51 편). 다윗 자신과 그의 가정 및 이스라엘에 계속적인 영향이 미쳤지만 다윗과 하나님의 교제는 회복되었다! 악했던 르밧세바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참조, 대하 33:12-13).

이 두 용어는 시 90:13 에서 병행하여 나타난다. 죄를 인식하고 죄로부터 의식적이고 개인적으로 돌아서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것이 요구된다(참조, 사 1:16-20). 회개는 인식적인 면,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함과 이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 나감에 있어서 이 세 영역이 모두 요구된다. 후회함의 깊은 감정이 하나님께 향한 또한 하나님을 위한 지속적인 헌신으로 바뀐다!

44:23

NASB, NKJV “땅의 낮은 부분들”

NRSV, JPSOA “땅의 깊음”

TEV “땅의 깊은 장소들”

NJB “지하세계”

70 인역, 페쉬타 “땅의 기초들”

이것은 분명히 스올을 가리킨다(BDB 982).

##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 I. 구약

- 가. 모든 인간은 스올(어원이 불확실함, BDB 1066)에 간다. 지혜서와 이사야서에서 이것은 대부분 죽음 또는 무덤을 가리킨다. 구약은 이곳이 그늘진 곳이고 의식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기쁨이 있는 상태는 아닌 곳으로 말한다(참조, 욥 10:21-22; 38:17; 시 107:10,14).
- 나. 스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불), 신 32:22
  2. 심판의 날 이전에 있는 형벌과도 관계가 있다, 시 18:4-5
  3.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받돈*(멸망)과 관계가 있다, 욥 26:6; 시 139:8; 암 9:2
  4. “구덩이”(무덤)와 관계가 있다, 시 16:10; 사 14:15; 젤 31:15-17
  5. 악한 자는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간다, 민 16:30,33; 시 55:15
  6. 종종 큰 입을 가진 동물로서 의인화 된다, 민 16:30; 사 5:14; 14:9; 합 2:5
  7. *르파임*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는 곳, 사 14:9-11

### II. 신약

- 가. 히브리어의 스올은 헬라어로 *하테스*라고 번역된다(보이지 않는 세상)
- 나. *하테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죽음을 가리킨다, 마 16:18
  2. 죽음과 관련이 있다, 계 1:18; 6:8; 20:13-14
  3. 종종 영원한 형벌의 장소(*게헨나*)로 표현된다, 마 11:23(구약의 인용); 눅 10:15; 16:23-24
  4. 종종 무덤으로 표현된다, 눅 16:23
- 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랍비들)
1. 낙원으로 불리는 의로운 부분(실제적으로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이름, 고후 12:4; 계 2:7), 눅 23:43
  2. *타타루스*라고 불리는 악한 부분, 벤후 2:4, 악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곳(참조, 창 6 장; 에녹 I 서)
- 라. *게헨나*
1. 구약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예루살렘의 남쪽)를 나타낸다. 이곳은 페니키아의 불의 신인 *몰렉*(BDB 574)에게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참조, 왕하 16:3; 21:6; 대하 28:3; 33:6) 장소이다. 이것은 레 18:21; 20:2-5 에서 금지되었다.
  2.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방인의 예배장소에서 야웨의 심판 장소로 바꾸었다(참조, 렘 7:32; 19:6-7). 에녹 I 서 90:26-27 과 Sib. 1:103 에서 그곳은 영원한 불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
  3.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 이방 숭배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곳을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바꾸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은유의 많은 부분은 이 쓰레기 하치장에서 왔다(불, 연기, 벌레, 악취. 참조, 막 9:44,46). 오직 예수님만 *게헨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약 3:6 을 제외하고).
  4. 예수께서 사용하신 용어인 *게헨나*
    - ㄱ. 불, 마 5:22; 18:9; 막 9:43
    - ㄴ. 영구적인, 막 9:48(마 25:46)
    - ㄷ. 멸망의 장소(영과 육 모두), 마 10:28
    - ㄹ. 스올과 평행인 개념, 마 5:29-30; 18:9

- ㄱ. 악한 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특징짓는, 마 23:15
- ㄴ. 사법적 판결의 결과, 마 23:33; 눅 12:5
- ㄷ. *게헨나*의 개념은 두 번째 죽음(참조, 계 2:11; 20:6,14) 또는 불의 못(참조, 마 13:42, 50; 계 19:20; 20:10,14-15; 21:8)과 평행을 이룬다. 불의 못을 인간(스올에서)과 악한 천사(*타타루스*에서, 베헤 2:4; 유 6 절 또는 지옥, 참조, 눅 8:31; 계 9:1-10; 20:1,3)가 영원히 거할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 ㅇ. 이것은 사람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나 그의 천사들을 위한 것이다, 마 25:41

마. 스올, *하데스*, *게헨나*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다음 설명이 가능하다

1. 원래 모든 인간은 스올/*하데스*에 갔다
2. 심판의 날 이후에 그곳에서 갖는 그들의 경험(좋고/나쁜)은 심화될 것이지만, 악한 자의 장소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KJV 역이 *하데스*(무덤)를 *게헨나*(지옥)로 번역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3. 심판 전에 받는 고통에 대해 언급한 신약 본문은 오직 눅 16:19-31의 비유이다(나사로와 부자). 스올은 또한 현재의 형벌 장소로서 묘사된다(참조, 신 32:22; 시 18:1-5). 그러나 비유에 근거하여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

### III. 죽음과 부활의 중간 상태

가. 신약은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 고대 관점 중의 하나인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

1. 인간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적 생명이 있기 전에 존재한다
2. 인간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 이전과 이후에 영원하다
3. 종종 육체적 몸은 감옥으로, 죽음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 가는 것으로 말해진다

나. 신약은 죽음과 부활 사이를 육체가 분리된 상태로 암시한다.

1.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나누어 말씀하신다, 마 10:28
2. 아브라함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막 12:26-27; 눅 16:23
3.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상에서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다, 마 17 장
4.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혼들이 그들의 새 몸을 먼저 갖게 된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살전 4:13-18
5. 부활의 날 믿는 자들이 새로운 영적 몸을 가진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전 15:23,52
6. 믿는 자들은 *하데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후 5:6,8; 빌 1:23.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의로운 자를 하늘로 취하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다, 베헤전 3:18-22.

### IV. 천국

가. 이 용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지구 위의 대기, 창 1:1,8; 사 42:5; 45:18
2. 하늘의 별, 창 1:14; 신 10:14; 시 148:4; 히 4:14; 7:26
3. 하나님 보좌의 자리, 신 10:14; 왕상 8:27; 시 148:4; 엡 4:10; 히 9:24(삼층천, 고후 12:2)

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많은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마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방법도 능력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참조, 고전 2:9).

다. 천국은 장소일 뿐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말한다(참조, 고후 5:6,8). 천국은 회복된 에덴동산일 수 있다(창 1-2 장; 계 21-22 장). 땅은 정결하여지고 회복될 것이다(참조, 행 3:21; 롬 8:21; 벧후 3:10). 하나님의 형상(창 1:26-27)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에덴동산의 친밀한 교제는 다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이 아니라 은유적일 것이다(계 21:9-27의 크고 네모 반듯한 도시인 천국). 고전 15 장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름을 성장한 식물의 씨로서 묘사한다. 고전 2:9(사 64:6 과 65:17 에서의 인용)은 참으로 위대한 약속이며 희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을 것임을 나는 안다(참조, 요일 3:2).

V. 도움이 되는 자료

가. 윌리엄 헨드릭슨,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성경말씀*

나. 모리스 롤링스, *죽음의 문 너머*

# 이사야 44:24-45:25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유다가 회복될 것임	고레스의 임명 (44:24-45:13)		세상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44:24-28 (24-28)	44:24-28 (24-28)	44:24-28 (24-28)	44:24-28 (24-28)	44:24-28 (24-28)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도구인 고레스	고레스의 임명 (44:24-45:13)	주께서 고레스를 임명하시다	하나님의 도구인 고레스
45:1-7 (1-7)	45:1-7 (1-7)	45:1-4 (1-4)	45:1-4 (1-4)	45:1-7 (1-7)
하나님의 뛰어난 권세		45:5-7 (5-7)	45:5-7 (5-7)	기도
45:8 (8)	45:8 (8)	45:8 (8)		45:8 (8)
			피조세계와 역사의 주	야웨의 뛰어난 권세
45:9-10 (9-10)	45:9-10 (9-10)	45:9-13	45:9-13 (9-13)	45:9-13 (9-13)
45:11-13 (11-13)	45:11-13 (11-13)			
	유일한 구세주이신 주님	민족들이 회개함		민족들이 회개함
45:14-17 (14-17)	45:14 (14)	45:14-17 (14-17)	45:14-17 (14-17)	45:14-19 (14-19)
	45:15-17 (15-17)			
45:18-19 (19)	45:18-19 (18-19)	45:18-19 (18-19)	45:18-19 (18-19)	
			세상의 주님과 바벨론의 우상들	온 세계의 주이신 하나님
45:20-25 (20-25)	45:20-21 (20-21)	45:20-21 (20-21)	45:20-21 (20-21)	45:20-25 (20-25)
	45:22-25 (22-25)	45:22-23 (22-23)	45:22-23 (22-23)	
		45:24-25 (24-25)	45:24-25 (24-2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44:24-45:25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이것은 매우 특별한 예언이다. 고레스 대제로 알려진 고레스 2 세의 이름이 44:28 및 45:1 에서 언급되고 있다. 예언의 예언적인 면(이것의 주요 증거는 41:22-23; 44:7,26 이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여러 명이 이사야서를 기록했다’는 주장을 촉발시켰다. ‘이사야서가 한 명의 저자가 기록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앓시리아 제국의 미래 뿐 아니라 바빌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미래에 관한 내용도 8 세기에 속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셨다’라고 나는 믿는다.
- 나. 고레스에 대한 이 특별한 내용은, 그가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본향에 돌아가되, 페르시아 국고의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신들을 위한 전을 세우도록 한’ 주전 538 년의 칙령과 관계가 있다. 유대인들의 귀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스 1:2-4; 6:3-5 에서 볼 수 있다. 고레스가 이렇게 하는 주된 동기는, 그들의 신에게서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들을 위해 복을 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참조, 스 6:10; 7:23).
- 다. 나는 사 45:6 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일’ 뿐 아니라 ‘고레스를 선택하신 일’을 나타낸다. 온 세상 사람을 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으로 고레스를 선택하셨다.
- 라. ‘창조’에 대해 말하기 위하여 여러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BDB 427, KB 428 - 조성하다, 창조하다, 44:24; 45:7,9(2 회),18(2 회)
  2. BDB 793, KB 889 - 만들다, 행하다, 44:24; 45:7,9,11,18
  3. BDB 135, KB 153 - 창조하다, 45:7(2 회),8,12,18(2 회)
- “새 시대”를 신학적으로 강조하는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1. 오직 야웨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2.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3. 오직 야웨께서만 하나님이시며, 특별하신 분이시다(유일신 신앙)
  4. 야웨께서 자신의 존재를 다음에 의하여 나타내셨다
    - ㄱ. 예언적인 면을 가지는 예언
    - ㄴ. 이스라엘의 존재

개역개정 44:24-28

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찢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25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짐 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26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27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4:24-28 이 단락은 히브리어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NIV 에서는 일련의 관계절(~한 자)을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짜임새 있는 이 문단에서, 28 절에 나오는 고레스의 이름이 절정을 이룬다. 이 단락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철저히 대비시키고 있다. 야웨께서는 자신의 실존과 능력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공표하시고 계시다(참조, 41:22-23; 44:7,26).

NIV 에서 “~을 하시는 분”(즉, 칼 분사)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주목하여 보라.

1. 모태에서 너를 지은, 24 절
2. 만물을 지은, 24 절
3. 홀로 하늘을 찢으며, 24 절
4.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친, 24 절
5.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25 절
6.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며, 25 절
7.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25 절
8.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25 절
9.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하며, 27 절
10.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며, 28 절

44:24 “구속자” 이 용어는 고엘로서 가까운 친족이 “속량함”을 나타낸다. 이 용어는 종종 하나님의 호칭으로써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성품을 드러낸다. 41:14 의 특별주제 및 43:14 의 설명을 보라.

▣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을 뜻한다(참조, 2 절). 이 구는 출애굽 사건을 특별히 가리킨다. 이 출생의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낸다.

▣ “나 여호와”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나는 야웨이다”라는 구로서, 구약에서 핵심적인 용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과 관련이 있다. 그 이름은 “있다”라는 동사에서 왔다(참조, 출 3:14). 그 기본적 뜻은 “나는 항상 있는 자이며, 또한 살아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진다. 40:3의 특별주제를 보라.

▣ “만물을 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구속자이심을 강조한다(참조, 45:12,18).

▣ “홀로 하늘을 꿰으며” 여기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말한다. 이 표현은 사 40:22; 42:5; 45:12,18; 51:13에서 사용되었다.

▣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나 혼자”(케레, NEB)는 문자적으로는 수사학적인 질문이다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는가?”(케티브, 사해사본, 70 인역, NRSV). 이것은 앞에 나온 “나 홀로”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감당하신 역할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그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참조, 욥 38:4 이하). 40:14의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 “징표를... 점 치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 이 절은 주위의 나라, 특히 바벨론에서 행한 미신적 행위를 드러낸다. 이 본문은 26절에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배경을 이룬다. 신 13:1-3; 18:22에서는 성경적으로 참 선지자들을 알아 보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시함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이 대조를 이룬다.

“자랑하는 자들”이란 히브리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거짓말장이, 헛된 말을 하는 자(BDB 95 III)
2. 점장이, 아카디아 어근에서(AB 제 20 권 72 쪽), 이 단어는 “점치는 자들”(2행)과 평행을 이룬다. 히브리 단어들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라.

1항의 *바담*과 2항의 *바림*

바벨론의 바림 제사장들은 그들의 예언으로 유명했다(류폴드, 133 쪽).

44:26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홀로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인류에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다(참조, 41:22-23; 45:7,26). 이 단락 전체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주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지 않다.

“종”(BDB 712)과 “사자”(BDB 521)는 평행을 이룬다. 앞의 것은 **단수형**이고 뒤의 것은 **복수형**이다. 이것이 다음 항목 가운데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가?

1. 그 종
2. 선지자들

혹은 둘을 다 그 선지자로서 이해해야 하는가? 결국 “종”은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할 것이다.

이 절은 사 2:2-4, 또는 미 4:1-4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 뿐 아니라, 유다의 도시들도 회복될 것임을 말하는 매우 중요한 예언이다(참조, 2:2-4; 미 4:1-3).

44:27 이 절의 의미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제기된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야웨께서 혼란스러운 물을 다스리신다(참조, 창 1장; 시 74:12-17; 사 51:10).
2.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 강을 가르신 일, 즉 출애굽을 나타낸다.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해결하심을 뜻한다. 또한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하시거나, 그 장애를 넘게 하사(즉, 사 11:15-16의 설명을 보라)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심을 나타낸다.

4.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분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낸다. 즉,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신다.

44: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 . .하며” 고레스의 이름이 이 문맥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그의 이름이 45:1 에서도 언급되었다.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유대 고대사 11.5)에서 ‘고레스에게 예언이 보여져서, 그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다로 돌아가게 하였다’고 믿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음을 말한다. 우리는 고레스가 대상 36:22-23 에 있는 예언의 내용들에 감명받은 것도 알고 있다.

▣ “내 목자라” 이 용어는 주로 지도자나 행정관을 뜻한다. 직접적으로 왕을 뜻하는 두 단어가 여기에 나온다: “목자”(BDB 944 I, 44:28)와 “기름부음을 받은 자”(BDB 603, 45:1).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고레스를 사용하심을 나타낸다. 이것은 고레스가 신자가 됨을 뜻하지 않고(참조, 5c 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을 그 도구로 사용하심을 나타낸다(즉, 출 3:7-10).

▣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예루살렘 성 및 성전과 관련이 있는 이 예언의 성취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개서에 그 내용이 나온다.

개역개정 45:1

<sup>1</sup>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sup>2</sup>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못문을 쳐서 부수며 쇠빰장을 꺾고  
<sup>3</sup>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sup>4</sup>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sup>5</sup>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sup>6</sup>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sup>7</sup>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45:1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용어는 구약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용한 호칭이다.

1. 사울왕에게, 삼상 12:3; 24:6

2.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 3:13
3. 족장들에게, 시 105:15
4. 제사장들에게, 레 4:3,5,16
5. “오실 이”에게, 단 9:25; 시 2:2

이것은 신구약 중간시대에 메시아의 호칭으로 발전되었다. “메시아”(40:14의 특별주제를 보라)라는 용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다. 고레스가 이 호칭으로 불리는 것은 구약에서 선택이 주로 섬김을 위함이지, 구원을 위함이 아님을 나타낸다.

▣ “오른손을 붙들고” 40:2의 특별주제를 보라.

▣ “왕들의 허리를 풀어” 이것은 몸에 매는 띠로서 ‘남자의 옷이 흘러내리게 되어 움직이기 어렵게 됨’을 뜻하거나, 또는 무기를 매달 수 있는 띠로서 ‘무기들을 땅에 떨어뜨림’을 뜻한다(참조, 5절).

45:2

NASB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NKJV	“굽은 곳을 똑바로 되게 하며”
NRSV, TEV	“산들을 깎으며”
NJB	“성문을 열게 하며”

NRSV의 표현은 문자적이다(참조, 49:11). 이것은 사해사본과 70 인역에서도 발견된다. 산들은 문체, 혹은 두려움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참조, 40:4; 41:15; 42:15).

▣ “눗문을 쳐서 부수며 쇠빛장을 꺾고” 이 은유적 표현은 모두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에 있는 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들을 정복함에 있어서,’ 야웨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실 것임을 나타낸다. 흥미롭게도 역사가인 헤로도투스(1:179)는 바벨론 성에 100개가 넘는 눗문이 있었다고 말한다.

45:3 “흑암 중의 보화화” 이 용어는 메소포타미아와 근동에 있는 제국들의 감추인 보화를 뜻한다.

45:4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처음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1)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회복과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길 원했다(6절). 그러나 이스라엘이 빛이 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이다(참조, 겔 36:22-38).

▣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비록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 4절과 5절과 6절에는 “알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히브리서에서 “알다”라는 용어는 인식적인 지식 뿐 아니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실 만한 어떤 일을 고레스가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를 사용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이다(40:15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알다(대부분 신명기를 전형적인 예로 사용함)**

히브리어의 “알다”(BDB 393)는 칼 동사형에서 여러가지 의미(의미의 장)를 나타낸다.

1. 선과 악을 이해하다 - 창 3:22; 신 1:39; 사 7:14-15; 온 4:11
2. 이해하여 알다 - 신 9:2,3,6; 18:21
3. 경험으로 알다 - 신 3:19; 4:35; 8:2,3,5; 11:2; 20:20; 31:13; 수 23:14

4. 고려하다 - 신 4:39; 11:2; 29:16
5. 개인적으로 알다
  - ㄱ. 사람 - 창 29:5; 출 1:8; 신 22:2; 28:35,36; 33:9
  - ㄴ. 신 - 신 11:29; 13:2,6,13; 28:64; 29:26; 32:17  
야웨 - 신 4:35, 39; 7:9; 29:6; 사 1:3; 56:10-11
  - ㄷ. 성적으로 - 창 4:1,17,25; 24:16; 38:26
6. 습득한 기술 또는 지식 - 사 29:11,12; 암 5:16
7. 지혜로움 - 신 29:4; 잠 1:2; 4:1; 사 29:24
8. 하나님께서 아심
  - ㄱ. 모세를 - 신 34:10
  - ㄴ. 이스라엘을 - 신 31:21,27,29

45: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이것은 유일신 신앙을 확증하는 내용이다(참조, 44:24; 45:6-7,14,18,21,22. 40: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것도 유일신 신앙에 대한 것이다.

▣ “나는 네 띠를 동일 것ियो” 이것은 “너를 무장시킬 것이다”를 의미한다. 허리에 무기를 매었다(참조, 1 절). 이것은 1d 절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45: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과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또 나온다. 즉, 하나님을 온 세계에 드러내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45:7 이 절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는 본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지으신 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절의 핵심은 이원론적 우주관을 부인함에 있다. 이 본문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적 영향을 반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고레스가 이러한 발달된 이원주의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않다. 이 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주에는 오직 단 하나의 원인자만 있다’는 내용이다(참조, 전 7:14; 암 3:6b).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악도 사용하신다! 이것은 유일신 신앙을 확증하는 내용이다.

7 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대하여 말하는 일련의 **칼 분사**가 대비적인 짝을 이루고 있다.

1. 형성함 - BDB 427, KB 428
2. 창조함 - BDB 135, KB 153
3. 일어나게 함 - BDB 793, KB 889
4. 창조함 - BDB 135, KB 153
5. 행함 - BDB 793, KB 889

어떤 한 절을 그것이 들어있는 시적 문맥에서 끄집어 내어, 어떠한 교리적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장르와 문맥이 적합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역개정 45:8

<sup>8</sup>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45:8 선지자가 ‘하나님의 미래의 왕국’을 제시하기 위하여 당시의 위기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이 절은 문맥상 6 절의 영향을 받는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며 예배하는 일’이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인데, 그것은 원래 창조에서 의도한 바였다(참조, 창 3:8).

▣ 8 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와 관련을 가지는 일련의 명령(즉, 기도)이다.

1. 뿌릴지어다 - BDB 950, KB 1271, *히필 명령*
2. 부을지어다 - BDB 633, KB 683,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열릴지어다 - BDB 834, KB 986,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4. 싹트게 할지어다 - BDB 826, KB 963,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5. 움돋게 할지어다 - BDB 855, KB 1033,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야웨께서 ‘자신의 창조 능력에 대한 요약적 진술로써’ 이 문단/절을 마치신다(BDB 135, KB 153, *칼 완료형*)! 창조주 되심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특히, 18 절)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듯이 이스라엘도 창조하셨다. 창조는 관계를 위한 것이다.

개역개정 45:9-10

<sup>9</sup>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sup>10</sup>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45:9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진대 화 있을진저” 우리는 사 40:45 에서 범정의 장면을 나타내는 문학적 형식에 대한 여러 암시를 본다. 여기의 “화 있을진저”는 또 다른 예언적 문학 형태인 “장례식 만가”를 나타낸다. 이것은 야웨께 의문을 가진 자들(유대인과 이방인들)에 주는 “심각한” 경고의 내용이다. 문맥에서, 이 연은 이방인들이 포함됨을 인하여 유대인들이 충격받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을 베푸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한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나타낸다(참조, 11 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같은 불신자들’ 사용하심을 인하여 힘들어 했다(참조, 13 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심’을 하박국 선지자가 의아해 한 일과 상당히 비슷하다.

▣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말할 수 있겠느냐” 인간을 진흙으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나타내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자주사용되었다. 이는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1. 인간이 티끌이나 진흙으로 지음을 받아 티끌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참조, 사 39:16; 렘 18:1 이하; 롬 9:20-21)
2. 이 비유는 야웨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자신의 창조세계에 행하실 자유가 있음을 강조하여 드러내기 때문이다

▣  
NASB, NKJV “그는 손이 없다”  
NRSV, JPSOA “네가 한 일에는 손잡이가 없다”  
REV, REB “너는 기술이 없다”  
NJB “네가 한 일에는 손이 없다”

페쉬타 “내가 네 손으로 만든 작품이나”  
 NAB “네가 만들고 있는 것에는 손이 없다”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의미할 것이다

1. 우상들이 손이 없다
2. 장인이 기술이 없다
3. 그릇에 손잡이가 없다

이 내용의 애매모호함을 인식하는 한편, 9 절과 10 절을 통하여 문맥에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음을 받은 것(자)이 창조주(만든 이)께 질문을 할 수 없다!

**개역개정 45:11-13**

<sup>11</sup>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sup>12</sup>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sup>13</sup>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45:11 이 절은 하나님의 여러 호칭으로써 시작된다.

1. 야웨
2.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3.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BDB 427, KB 428, 칼 분사)

이 후에는 야웨께서 미래의 일(즉, 고레스의 정복)을 예시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UBS 본문 프로젝트(125 쪽)는 “장차 올 일들에 대하여 나에게 묻는다. (하지만) 내 아들과 내 손의 일에 관하여는, 나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하라!”로 제시한다.

45:12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야웨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여기서 또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신다. 바벨론 사람들은 별들과 행성들을 예배했다. 야웨께서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셨다(BDB 845, KB 1010, 피엘 완료형)는 것은 매우 강력한 진술이다(참조, 40:26). 야웨께서 천체(즉, 해, 달, 별, 행성, 유성)를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강조는 창세기 1 장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별을 숭배함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사 24:21-22 에서는 “모든 군대”란 단어가 각 나라들의 배후에 있는 천사들의 권능을 가리킨다(참조, 신 32:8 및 단 10 장의 70 인역). 이 용어가 천사들을 의미하든지 또는 행성들을 의미하든지 간에, 엘로힘( Elohim )으로 불리는 우주의 모든 작은 신들을 야웨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야웨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다른 영적 세력들은 존재한다.

**특별주제: 천사들과 귀신**

가. 고대인들은 정령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연의 힘, 동물, 자연물에 인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과 이런 영적 존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명을 이해하였다.

나. 이와 같은 의인화는 다신교(많은 신들)로 나타났다. 보통 귀신( 켄나 )은 개별적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좀 더 낮은 신 또는 반신반인( 좋거나 악한 )이었다.

1. 메소포타미아, 혼돈과 투쟁
2. 이집트, 질서와 기능
3. 가나안, W. F. 알브라이트의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제 5 판, 67-92 쪽)

다. 구약은 강한 유일신 사상으로 인해 낮은 신, 천사, 또는 귀신의 주제를 다루거나 이를 발전시키지 않는다(참조, 출 8:10; 9:14; 15:11; 신 4:35,39; 6:4; 33:26; 시 35:10; 71:19; 86:6; 사 46:9; 렘 10:6-7; 미 7:18). 구약은 이방 민족의 거짓 신을 언급하고 그것들의 몇몇 이름을 말한다.

1. *세임*(색마[바커스를 섬기는 반인반수의 숲의 신] 또는 털 많은 귀신, 참조, 레 17:7; 대하 11:15)
2. *릴리쓰*(여성, 부추기는 귀신, 참조, 사 34:14)
3. *마웨트*(지하의 가나안 신에게 사용한 죽음이라는 히브리 용어, *모트*, 참조, 사 28:15,18; 렘 9:21; 그리고 아마도 신 28:22)
4. *레쉐프*(재앙, 참조, 신 33:29; 시 78:48; 합 3:9)
5. *테베르*(전염병, 참조, 시 91:5-6; 합 3:5)
6. *아사셀*(불확실한 이름이지만 아마도 사막 귀신이거나 장소 이름, 참조, 레 16:8,10,26)(이 예들은 *쥬다이카 백과사전* 제 5 권의 1523 쪽에서 취한 것이다.) 어쨌든 구약에는 이원론주의 개념도 없고 야웨께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천사는 없다. 사탄은 야웨의 종(참조, 욥 1-3 장; 슥 3 장)이지 적이 아니다(참조, A. B. 데이빗슨, *구약신학* 300-306 쪽).

라.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기간(주전 586-538) 동안 발전되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인격화된 이원주의(*마즈다* 또는 *올마즈드*라고 불린 좋고 높은 신과 *아리만*이라고 불린 악한 적수의 신)을 신봉하던 페르시아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포로시대 이후의 유대교가 야웨와 그의 천사 및 사탄과 그의 악마로 인격화시킨 이원주의를 수용하게 했다.

인격화시킨 악에 대한 유대교의 신학은 알프레드 에더셰임의 *메시아 예수의 일생과 시간*(제 2 권, 부록 XIII[749-863 쪽]과 XVI[770-776 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잘 제시하고 있다. 유대교는 악을 세 가지로 인격화시킨다.

1. 사탄이나 삼마엘
2.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의도(*에트저 하라*)
3. 죽음의 천사

에더샤임은 이것을 (1) 고소자 (2) 유혹자 (3) 처벌자라고 특징짓는다(제 2 권 756 쪽). 포로시대 이후의 유대교와 신약에서의 악에 대한 제시와 설명은 신학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마. 신약(특히 복음서)은 사람에게와 야웨께 대한 악한 영적 존재의 실재와 방해를 주장한다(유대교에서 사탄은 인간의 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왕국을 반대한다.

예수님은 이런 악마적 존재와 마주 대하시고 내쫓으셨으며 또한 사람으로부터 (1) 더러운 영(참조, 눅 4:36; 6:18) 또는 (2) 악한 영(참조, 눅 7:21; 8:2)을 불러 내셨다. 예수님은 병든 것(육체적 그리고 정신적)과 귀신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셨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인식하시고 내쫓으시는 것을 통해 그의 능력과 영적 통찰력을 나타내셨다. 악한 영은 종종 예수님을 인식했고 예수님께 말하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증언을 거부하시고 그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명령하셨으며 그들을 내쫓으셨다. 귀신을 내쫓는 일은 사탄의 왕국을 쳐부수는 표이다.

신약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는 놀라우리만큼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적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은사 목록에 전혀 없고, 또한 사역자나 믿는 자들의 장래 세대를 위해 주어진 축사의 방법이나 절차도 없다.

바. 악은 실재한다; 악은 인격체이다; 악은 현존한다. 이것의 기원이나 목적은 전혀 계시되지 않았다. 성경은 악의 실재를 단언하고 그것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실제로 궁극적인 이원론은 없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장하신다; 악은 패배하였고 심판받았으며 피조물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사.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대적해야만 한다(참조, 약 4:7). 악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치할 수는 없지만(참조, 요일 5:18) 그들은 악에게 유혹받을 수 있고 그들의 증거나 영향력은 악에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참조, 엡 6:10-18). 악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드러난 한 부분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재 정의할 권리가 없다(루돌프 발트만의 비신화화); 악을 비인격화(폴 틸리히의 사회적 구조)하거나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완전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말라(시그먼트 프로이드). 이것의 영향력이 퍼져 있지만 이것은 실패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45:13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NIV 는 “그”를 고레스로 번역하였다. 야웨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분기시키셨다. 이 본문은 (1) 고레스가 거둘 신속하고 완전한 정복과 (2) 고레스가 내린 칙령 곧, 포로살이를 하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본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신전들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뜻한다. 이 칙령은 바벨론이 멸망하여 한 해가 지난 때인 주전 538 년에 포고되었다.

▣ “값이나 값음이 없이” 야웨께서 고레스 2 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는 그 보답으로 어떤 뇌물이나 값을 치름이 없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유다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TEV).

유대인의 연구성경(876 쪽)에서는 14 절이 고레스에 대한 야웨의 상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 개역개정 45:14-17

- <sup>14</sup>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 <sup>15</sup>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 <sup>16</sup>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45:14 14-17 절이 하나의 문학적 단위를 이루는지는 불확실하다. 15-17 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임이 분명하다. 14 절이 유다가 아니라 페르시아에 대한 내용일 수 있다(참조, 43:3). 한편, 43:3 에서는 이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속량물’로 말한다. 45:20-22 에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올 것임을 제시한다. 따라서 유다가 14 절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회복된 시온으로 몰려들 것’을 말하는 예언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다(참조, 2:2-4; 60:1 이하; 시 72:8-11).

14 절을 요약하는 행인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16 절로 이어진다(즉, “그들”).  
 우상들과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부끄러움을 당한다 - BDB 101, KB 116, 칼 완료형
2. 욕을 받는다 - BDB 487, KB 480, 니팔 완료형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참조, 17 절)!

45:15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하라

1. 하나님(엘, BDB 42)
2. 이스라엘의 하나님(엘로헤이, BDB 43)
3. 구원자(BDB 446)

이스라엘의 구원자께서 어느 기간 동안 자기 백성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죄와 반역을 인함이었다(참조, 1:15; 8:17; 54:8; 57:17; 시 44:24; 88:14; 또한 욥 13:24 을 주목하라). 그러나 심판의 기간이 지나고(참조, 40:2),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옴과 회복이 시작되었다.

AB 제 20 권(82 쪽)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이었기 때문에 ‘숨어 계신 것’이라고 설명한다.

45:16 14 절의 설명을 보라. 16 절은 신학적으로 44:11 과 평행을 이룬다.

45:17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내용을 단순하게 읽음으로써, 헬라와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거듭 정복당하고 망한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점은 이 본문을 사용하여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준다.

야웨의 사랑과 약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음에 그 문제가 있었다.

“영원한”(BDB 761) 및 “영원히”(BDB 761)라는 히브리 어근은 넓은 범주의 의미(의미론적 영역)를 가진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올람(영원히)**

히브리 용어인 올람(BDB 761, KB 798)의 어원은 분명치 않다(NIDOTTE 제 3 권 345 쪽). 이것은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보통 문맥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다음은 오직 몇 가지 예이다.

1. 고대의 것
  - ㄱ. 사람, 창 6:4; 삼상 27:8; 램 5:15; 28:8
  - ㄴ. 장소, 사 58:12; 61:4

- ㄷ. 하나님, 시 93:2; 잠 8:23; 사 63:16
- ㄹ. 물건, 창 49:26; 욥 22:15; 시 24:7,9; 사 46:9
- ㅁ. 시간, 신 32:7; 사 51:9; 63:9,11
- 2. 미래의 시간
  - ㄱ. 사람의 생명, 출 21:6; 신 15:17; 삼상 1:22; 27:12
  - ㄴ. 왕에 대한 과장, 왕상 1:31; 시 61:7; 느 2:3
  - ㄷ. 계속 존재하는 것
    - (1) 지구, 시 78:69; 104:5; 전 1:4
    - (2) 하늘, 시 148:6
  - ㄹ. 하나님의 존재하심
    - (1) 창 21:33
    - (2) 출 15:18
    - (3) 신 32:40
    - (4) 시 93:2
    - (5) 사 40:28
    - (6) 렘 10:10
    - (7) 단 12:7
  - ㅁ. 언약
    - (1) 창 9:12,16; 17:7,13,19
    - (2) 출 31:16
    - (3) 레 24:8
    - (4) 민 18:19
    - (5) 삼하 23:5
    - (6) 시 105:10
    - (7) 사 24:5; 55:3; 61:8
    - (8) 렘 32:40; 50:5
  - ㅂ. 다윗에게 하신 특별한 약속
    - (1) 삼하 7:13,16,25,29; 22:51; 23:5
    - (2) 왕상 2:33,45; 9:5
    - (3) 대하 13:5
    - (4) 시 18:50; 89:4,28,36,37
    - (5) 사 9:7; 16:5; 37:35; 55:3
  - ㅅ. 하나님의 메시아
    - (1) 시 45:2; 72:17; 89:35-36; 110:4
    - (2) 사 9:6
  - ㅇ. 하나님의 법
    - (1) 출 29:28; 30:21
    - (2) 레 6:18,22; 7:34; 10:15; 24:9
    - (3) 민 18:8,11,19
    - (4) 시 119:89,160
    - (5) 사 59:21
  - ㅈ. 하나님의 약속
    - (1) 삼하 7:13,16,25; 22:51
    - (2) 왕상 9:5
    - (3) 시 18:50

- (4) 사 40:8
- ㅈ.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의 땅
  - (1) 창 13:15; 17:18; 48:4
  - (2) 출 32:13
  - (3) 대상 16:17
- ㅋ. 언약적 절기
  - (1) 출 12:14,17,24
  - (2) 레 23:14,21,41
  - (3) 민 10:8
- ㅌ.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
  - (1) 왕상 8:13
  - (2) 시 61:7-8; 77:8; 90:2; 103:17; 145:13
  - (3) 사 26:4; 45:17
  - (4) 단 9:24
- ㅍ. 시편이 말하는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할 것
  - (1) 감사하라, 시 30:12; 79:13
  - (2)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시 41:12; 61:4,7
  - (3)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라, 시 52:8
  - (4)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 52:9
  - (5) 찬양하라, 시 61:7; 89:1
  - (6)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 시 75:9
  - (7)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시 86:12; 145:2
  - (8)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시 145:1
- 3. 시간적으로 이전과 이후(“영원부터 영원까지”)
  - ㄱ. 시 41:13(하나님을 송축함)
  - ㄴ. 시 90:2(하나님 자신)
  - ㄷ. 시 103:17(여호와의 인자하심)

문맥이 이 용어가 갖는 의미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을 기억하라. 영원한 언약과 약속은 조건적이다(즉, 램 7 장). 이렇게 매우 유동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시간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적인 관점이나 당신의 신약적 조직 신학으로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를 대하려는 것을 주의하라. 신약은 구약의 약속을 보편화시킨다.

#### 개역개정 45:18-19

- <sup>18</sup>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 <sup>19</sup>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45:18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창 1:2 에 대한 암시이다. 이것은 “형태가 없는”(BDB 1062)으로 번역될 수 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발전이 있었다. 이 본문은 ‘창 1:1 과 1:2 사이에 어떤 종류의 파괴가 있었음’(즉, 갭 이론)을 입증하지 않는다.

▣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한다’고 랍비들이 강조하여 말하기 위해 사용한 본문이다.(참조, 창 1:28; 9:1,7).

45:19 이사야서의 이 단락에서 야웨께서는 ‘자신이 듣고 행하는 하나님이심’을 거듭거듭 강조하신다; 누가 미래를 알며 또 그 코스를 정하는가! 이 신학적 주장은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다!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또 약속의 땅에 그들이 돌아온 일’이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된다.

개역개정 45:20-25

<sup>20</sup>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sup>21</sup>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sup>22</sup>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sup>23</sup>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sup>24</sup>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sup>25</sup>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45:20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 .한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어떤 이는 이것이 ‘흩어져 포로된 이스라엘이 본향으로 돌아옴’을 가리킨다고 말한다(즉,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또한 25 절의 설명을 보라). 하지만 어떤 이는 6 절, 22 절, 23 절에 있듯이 이것이 ‘이방 국가들에 대한 일반적 초청’이라고 믿는다(참조, 롬 14:11; 빌 2:10). 이 문맥에서 둘 다 가능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야웨께 나아가야 하며 또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여야 할지’에 관한 일련의 명령이 20-22 절에 나온다.

1. 너희는 모이라 - BDB 867, KB 1062, *니팔 명령*, 20 절
2. 오라 - BDB 97, KB 112, *칼 명령*, 20 절
3. 가까이 나아오라 - BDB 620, KB 670, *히팔 명령*, 20 절
4. 내게로 돌이켜라 - BDB 815, KB 937, *칼 명령*, 22 절
5. 구원을 받으라 - BDB 446, KB 448, *니팔 명령*, 22 절

신약에서는 23 절을 두 차례 인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대한 말씀’으로 제시한다(즉, 롬 14:1 또한 특별히 빌 2:10)! 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이며 또 창 3:15 및 12:3 의 성취인가! (40: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이것은 민족들로 하여금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우상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행동을 취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45:21 이것은 재판법정의 장면이다. 이 본문은 (1) 고레스의 성공과 (2) 이스라엘이 돌아옴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들의 귀향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음전도적 도구가 된다. 여기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부르고 있는데,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제시한다(참조, 22 절).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은 명백히 유일신 사상(40:14 의 특별주제를 보라)을 나타낸다(참조, 창 1:26-27).

45:22 “내게로 돌이켜” 이 히브리 용어는 예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BDB 815, KB 937).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들은 우상숭배와 죄에서 떠나야 한다(참조, 55:7).

인간은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들은 야웨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우상에게로 돌이켜(참조, 레 19:4,31; 20:6; 신 31:18,20) 소망이 없게 되든지 선택하여야 한다!

▣ “땅의 모든 끝이여...구원을 받으라” 이것은 ‘회개하고 야웨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보편적 구원을 가리킨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참조, 21 절). 이 보편적 제시는 이사야서의 큰 특징을 이룬다. 이것은 “그들 자신을 구원하라”( *니팔 명령*)는 뜻으로서, 창 12:3 과 관련을 가지는 언어유희일 것이다.

45:23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 보다 더 큰 맹세는 있을 수 없다!

▣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말로써 하신 말씀’이 가지는 능력에 대한 고대인의 믿음을 나타낸다(참조, 24:3; 25:8; 40:8; 55:10-11).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즉, 요 3:16)!

▣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 문맥에서 이것은 야웨께 대하여 사용되었다. 한편, 빌 2:10 에서는 ‘의식을 가진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을 이 본문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문맥에서 다시 한 번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원하시고 계심’을 말한다. 이후의 계시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우주적 제안이 성취됨을 말한다(참조, 막 10:45; 고후 5:21).

신학적 주제가 매우 명확하다. 신약이 계시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들은 그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별주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중요한 서론적 글**

**“왜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많은 종류의 교리적 해석을 하는가”**

내가 여러 해 동안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마지막 때에 대한 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영역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 심리적 또는 교단적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만 복음전도의 긴급성에 대하여는 놓치고 있다! 신자들이 종말론적(마지막 때) 사항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복음전파의 대위임에는 참여할 수 있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때에 완성됨을 받아들인다. 이 일이 완성되는 시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따르는 해석적 어려움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개의 역설에 기인한다.

1. 구약 언약의 예언적 모델과 신약 언약의 사도적 모델 사이의 긴장
2. 성경의 유일신론(모든 이에게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택(특별한 한 민족) 사이의 긴장
3. 성경에 있는 언약과 약속의 조건적인 면(“만일...그때에는”)과 범죄한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신실하심 사이의 긴장
4. 근동 문학의 장르와 현대 서구 문학적 모델 사이의 긴장
5.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와 ‘아직 미래’ 사이의 긴장
6.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믿음과 어떤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 사이의 긴장.

이 긴장의 내용을 한 번에 하나씩 살펴보고 한다.

**처음 긴장(구약의 인종적 국가적 지역적 영역 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왕국이 다시 세워져, 그곳으로 지구 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후손을 섬기고 찬양하려고 모일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하지만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은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구약이 영감받지 않은 책인가(참조, 마 5:17-19)? 신약의 저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생략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끝에 관하여 알려 주는 여러 자료가 있다:

1. 구약의 예언서(이사야, 미가, 말라기)
2. 구약의 묵시적 글(참조, 겔 37-39 장; 단 7-12 장; 스가랴)
3. 신구약 중간기의 정경이 아닌 유대의 묵시적 글(에녹 1 서의 경우 유다서에서 암시함)
4. 예수님 자신(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
5. 바울의 글(참조, 고전 15 장; 고후 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
6. 요한의 글(요한일서와 계시록)

이 자료들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사항(사건, 시간적 순서, 인물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가? 그들은 다 영감을 받았는가(신구약 중간기에 속하는 유대인의 글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성령은 구약의 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범위에서 진리를 그들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 성령께서 구약의 이러한 종말론적 개념을 세계적인 것으로 확장하셨다(“그리스도의 신비,” 참조, 엡 2:11-3:13. 10:7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와 관련을 가진 예를 여기서 일부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시온). 그러나 신약에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제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계 21-22 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의미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일이 창 3:15 에서 예시하듯이 범죄한 인간을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보여졌다. 그 때는 유대인도, 유대인의 수도도 전혀 없었던 시기였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경우에도(참조, 창 12:1-3)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었다(참조, 창 12:3; 출 19:5).

2.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나라들이었는데, 신약에서는 그 개념이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모든 자들로 확대되었다. 국지적 개념의 싸움이 전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싸움으로 바뀌었다(참조, 골로새서).
3.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땅의 약속'(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들, 참조, 창 12:7; 13:15; 15:7,15; 17:8)은 이제 전세계에 대한 내용이 되었다. '근동의 한 지역에 위치 하거나 혹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장소가 아닌 새 예루살렘이 재창조된 지구로 내려온다(참조, 계 21-22 장)
4. 구약의 예언적 요소가 확장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ㄱ.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는 영적으로 할례받은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롬 2:28-29)
  - ㄴ. 언약백성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포함한다(참조, 롬 9:24-26 에서 인용한 호 1:10; 2:23; 또한 고후 6:16-18 에서 인용한 레 26:12; 출 29:45; 단 2:14 에서 인용한 출 19:5; 신 14:2)
  - ㄷ. 성전이 이제는 예수(참조, 마 26:61; 27:40; 요 2:19-21)를 또 예수를 통하여 지역교회(참조, 고전 3:16)와 각 신자(참조, 고전 6:19)를 가리킨다
  - ㄹ.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구약의 특징적인 표현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즉, "이스라엘," 참조, 롬 9:6; 갈 6:16; 즉, "제사장 나라," 참조, 벧전 2:5,9-10; 계 1:6)

예언의 모델(즉,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가위*)이 성취되었고 확장되어 상당히 포괄적이 되었다. 예수님과 사도인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때를 제시하지 않았다(참조, 마틴 원가덴, *예언에 나타난 왕국의 미래와 성취*). 구약의 모델을 문자적이고 규범적으로 해석하려는 자들은 계시록을 상당히 유대적인 책으로 왜곡시키며, 예수님과 바울이 사용한 모호하면서도 따로 떨어져 있는 구에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를 나타내도록 강요한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우주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로 종말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원적이고 목회적인 목적을 가졌다(참조, 고전 15:58; 살전 4:18).

한편, 신약 저자들 사이에도 긴장이 나타난다. 그들은 종말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다. 여러 면에서 볼 때, 놀랍게도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묘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또는 바울의 글) 구약의 암시를 사용한다! 처음에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가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신구약 중간기(유대인의 묵시문학)에 발전된 문학적 장르를 계시록이 따르고 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요한이 사용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님께 반역을 함과 인간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헌신하심을 드러낸다! 비록 계시록이 구약의 표현, 인물, 사건들을 암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1 세기 로마의 상황에 비추어 재해석하였음을 기억해야만 한다(참조, 계 1:7).

#### 두 번째 긴장(유일신론 대 선택된 한 백성)

성경의 강조점은 한 분 곧 영이시며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강조점을 둔다(참조, 출 8:10; 사 44:24; 45:5-7,14,18,21-22); 46:9; 렘 10:6-7). 구약의 독특성은 바로 유일신론에 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는 다신론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한 분 이심이 구약의 계시에서 핵심을 이룬다(참조, 신 6:4). 창조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누리는 장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다(참조, 창 1:26-27).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도력과 목적을 거스르고 반역하였다(참조, 창 3 장)!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여, 타락한 인류를 속량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나라를 택하시어 인류 전체를 속량하려고 결정하셨을 때 긴장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유대인을 제사장들의 나라로 택하신 일은(참조, 출 19:4-6) 섬김이 아니라 교만을, 포함시킴이 아니라 배제시킴이 일어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모든 인류를 축복할 의도에서 행해진 일이었다(참조, 창 12:3). 구약에서 선택이 섬김을 위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적도 없고(즉, 롬 9:6), 그들의 출생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적도 없다(참조, 요 8:31-59; 마 3:9). 오직 믿음과 순종에 의하여 각 사람이 그러한 관계와 구원을 누린 것이다(참조, 창 15:6, 롬 4:3,9,22; 갈 3:6 에서 인용함.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려(이제는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이다, 참조, 1:6; 벰후 2:5,9), 의무를 특권으로 또 봉사를 특별한 지위로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를 선택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 세 번째 긴장(조건적 언약 대 무조건적 언약)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 사이에 신학적 긴장 혹은 역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속 목적/계획은 무조건적인 것이 사실이다(참조, 창 15:12-21; 또 메시아께서 오심). 그러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응답은 항상 조건적이다!

“만일... 그 때에는”의 형식이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 이러한 긴장은 많은 혼동을 일으켰다. 해석자들은 “진퇴양난의 경우”에서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가졌다—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주권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가지 모두 성경적이며 또 함께 가야 한다.

지 않았다

이것은 종말론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구약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에 묶여 계시다; 하나님의 명성이 이 일에 달려 있다(참조, 겔 36:22-38).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이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었다(참조, 사 53 장)! 하나님의 지고한 신실하심이 회개하여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에 나타나는 것이지, 누가 당신의 아버지요 어머니인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언약과 약속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참조, 행 7 장 및 갈 3 장).

복음 선포를 통한 세계선교가 교회에게 전해졌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이것은 여전히 조건적인 언약에 속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거부하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참조, 롬 9-11 장). 마지막 때에 믿는 이스라엘이 설 장소가 있으며 그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참조, 스펴 12:10).

#### 네 번째 긴장(근동 문학의 장르 대 서구의 문학적 모델)

장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회는 서구(헬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했다. 동양의 문학은 오늘날 서구문화의 문학 양식에 비하여 상당히 회화적이고 은유적이며 상징적이다. 이것은 분명한 명제적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만남, 사건에 관심을 둔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예언(구약과 신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사 및 문학적 모델을 사용’하는 잘못을 범한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각 자신의 시대와 지역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와 문학적성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들 모두 잘못되었다! 성경의 예언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날의 서구 문화가 중심에 있다라는 견해는 건방진 생각이다!

영감을 받은 원저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장르는 ‘독자와 맺은 하나의 문학적 협약’이다.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 책은 편지(1-3 장)와 예언과 묵시문학(주로 이 형태임)이 결합된 형태이다.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내용을 성경이 말하게 하는 일’은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했던 것 보다 더 적은 내용을 성경이 말하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계시록과 같은 종류의 책을 다룸에 있어서 해석가들의 거만함과 교조주의는 더 더욱 부적합하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교회가 결코 가지지 않았다. 내가 소망하는 바는 어떤 일부분을 취사선택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듣고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경은 ‘긴장으로 가득찬 짝을 이루는 진리’를 동양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제시한다. 우리 서구인이 가진 바 명제적 진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계시록이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만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계시록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이 책의 장르에 비추어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 해석가들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피와 스튜아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49-264 쪽). 계시록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반드시 처음 독자가 무엇을 이해했고 또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다루어야만 한다(즉, 존 L. 브레이, *성취된 마태복음 24 장*). 여러 면에서 볼 때, 서구의 해석가들은 이 책에 수 많이 있는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계시록의 주요한 취지는 박해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낸다(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역사가 정해진 끝(심판과 축복)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1 세기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어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과 통치를 확증해 준다!

이 책은 신학적으로 같은 방법으로써 각 시대의 신자들에게 말한다. 이 책은 선과 악의 우주적 대결을 묘사한다. 1 세기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책이 증거하는 강력한 진리를 안다. 오늘날 서구의 해석가들이 계시록의 세부적인 내용을 자신들의 현재 역사에 대한 것이 되도록 강요함으로써, 잘못된 해석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지도자(참조, 살후 2 장)와 그러한 문화에서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세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놀랍도록 실제적인 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관련된 구약의 본문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의 말씀(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과 바울의 가르침(참조, 고전 1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는 누구도 이 계시록의 문자적 성취 여부를 알 수 없다. 추측과 짐작과 교리적 주장은 모두 부적합하다. 묵시문학은 이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기술을 뛰어 넘는 이미지와 상징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주석은 장르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오늘날 서구의 해석가들은 종종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장르가 가진 ‘모호하고 상징적이며 드라마적인 면’을 다룸에 있어서 빈약한 접근을 하는 반면, 명백하고 논리적인 신학적 구조를 추구한다. 이러한 모습을 랄프 P. 마틴이 *신약의 해석*(I. 하워드 마샬 편저)에 실린 “신약 석의를 위한 접근”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이 책의 드라마적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언어적 표현이 종교적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묵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며, 또 환상이 마치 문자적 의미를 가지는 산문으로 기록된 책인양 이 책을 해석할 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여 그 시기를 말할 수 있는 역사상의 사건으로 파악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게 된다. 특별히 마지막에 언급한 오류는 해석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문제를 낳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접근은 묵시적 본문의 핵심적 의미를 변형시켜 신약에서 이 부분이 가진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만든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남’을 신화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제시한 드라마적인 주장 및 ‘하나님의 통치를 힘과 사랑으로 제시하는 역설’을 놓치게 만든다(참조, 5:5,6; 사자가 어린양이시다)” (235 쪽).

W. 랜돌프 테이트는 자신의 책 *성경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을 열정적으로 읽지만 그 어떤 장르도 ‘묵시’(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경우)처럼 암담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 장르의 문학적 형태와 구조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기인하여 이 장르는 재난적인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통을 당하여 왔다. 묵시가 곧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인하여 많은 이들은 이것을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이끄는 지도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의 비극적인 결점은 이 책이 저자 당시의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독자의 시대에 대한 것이라는 확고한 가정에 따른 것이다. 묵시, 특별히 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접근은 ‘본문의 상징을 해석함으로써 오늘날의 사건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암호’를 얻을 수 있는 것 처럼 임하게 한다. . . 첫째로, 해석가는 묵시가 상징주의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임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상징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잘못된 해석을 낳을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묵시적 책에 기록된 사건들이 역사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사건들은 역사상에 일어날 수 있다: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저자는 사건을 제시하되 이미지와 암호를 통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137 쪽).

리켄이 편집한 *성경의 이미지 사전*에서 윌호스트와 롱맨 III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이 장르에 의해 종종 당황하고 당혹해 한다. 예상치 못했던 이미지 및 이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경험들은 이상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 본문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학적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 들이는 일은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질서한 상태에 처하게 하고 결국 이 묵시적 메시지의 의도를 놓치게 만든다” (35 쪽).

45:24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 문장은 ‘야웨를 믿든 믿지않든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야웨를 주로 인정하게 됨’을 나타낸다(참조, 빌 2 장). 어떤 이는 그 전에 야웨를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되지만, 어떤 이는 심판과 분리됨 직전에 가서야 야웨를 인정하게 된다(참조, 마 25:31-46; 계 20:11-15).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사 45:24-28 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하라(9 개의 관계절이 나온다).
2.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를 선택하셨는가?
3. “알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참조, 45:4-6)?
4. 왜 사 45:6 이 그렇게 중요한가?
5.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신 사상에 대한 교리가 몇 번 나오고, 또 어떻게 그것이 제시되는지 말하라.
6. 사 45:8 은 포로됨에서의 귀환을 뜻하는가 아니면 메시아의 왕국으로 돌아감을 뜻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7. 사 45:22 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8. 사 45:23 이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또 이 절이 그 본문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

# 이사야 4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바벨론의 우상들과 참 하나님	죽은 우상들과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원하신다	세상의 주님과 바벨론의 우상들 (45:20-46:13)	바벨론의 멸망
46:1-2 (1-2)	46:1-2 (1-2)	46:1-2 (1-2)	46:1-2 (1-2)	46:1-13 (1-13)
46:3-4 (3-4)	46:3-4 (3-4)	46:3-4 (3-4)	46:3-4 (3-4)	
46:5-7 (5-7)	46:5-7 (5-7)	46:5-7 (5-7)	46:5-7 (5-7)	
46:8-11 (8-11)	46:8-11 (8-11)	46:8-11 (8-11)	46:8-11 (8-11)	
46:12-13 (12-13)	46:12-13 (12-13)	46:12-13 (12-13)	46:12-13 (12-1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류폴드는 자신의 이사야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기시킨다(147 쪽)
  1. 사 14 장은 바벨론 왕국이 심판받음에 대한 내용이다
  2. 사 46 장은 바벨론의 우상들이 심판받음에 대한 내용이다
  3. 사 47 장은 여왕으로 의인화된 민족이 심판받음에 대한 내용이다
- 나. 바벨론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사회적 조직과 역할’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의 힘(자원)으로 해결하려 든다. 계 18 장에서는 바벨론을 큰 음녀로 의인화시켜 제시한다.

개역개정 46:1-2

<sup>1</sup>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sup>2</sup>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46:1 “벨” 벨(BDB 128, KB 243, 아카디아어로 “주”를 뜻함)은 가나안인들이 사용한 *바알*과 비슷한 호칭이다. 이것은 아카디아의 만신전에서 으뜸되는 신을 가리킨다(“주”로 불린 *엔릴*).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면서 으뜸되는 신의 이름이 *마르둡*(BDB 597, 참조, 램 50:2)으로 바뀌었다.

▣ “느보” 이것은 *마르둡*의 아들이자(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이 이름이 나옴) 배움과 글씨를 쓰는 일을 주관하는 신이었다(BDB 612). 벨과 느보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한 여러 이름에 나온다(느부갓네살[단 1:1]; 느부사스반[램 39:13]; 느부사라단[램 39:9]; 나보폴라살[신바벨론 제국의 첫 왕이며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벨사살의 아버지로서,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드사살[단 1:7]; 벨사살[단 5:1]). 이 둘은 바벨론의 만신전에서 가장 주요한 두 신이었다.

▣ “엎드러졌고...구부러졌도다” 이것은 “경배함”(BDB 505, KB 499)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 이것은 바벨론의 신들이 창조주이신 야웨 앞에서 엎드림을 말하는 45:23 과 연결이 된다.

▣ “실렸으니...떠메고 다니던...무거운 짐” 1-2 절과 3-4 절 사이에 “메고 다니다”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첫째로, 바벨론의 우상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옮겨져야 했다. 그것들을 옮기는 이유는 침공해 오는 페르시아인들로부터 피하거나 혹은 큰 성들의 거리로 행진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함이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태중에서부터 또 나중에는 그들의 인생살이를 통하여 옮겨 주신다(참조, 1 절). 바벨론의 우상들은 듣거나 행동을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며 은혜를 따라 행하신다. 이러한 대조가 1-4 절에 나온다.

46:2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여기서는 이 바벨론의 우상들이 그것들을 섬기던 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감을 의인화하여 나타낸다.

개역개정 46:3-4

<sup>3</sup>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sup>4</sup>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46:3 “들을지어다” 이 용어는 12 절의 경우와 같이 **칼 명령**(BDB 1033, KB 1570)이다. 44:1 의 설명을 보라.

▣ “남은 모든 자”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남은 자의 세 가지 의미**

“신실한 남은 자”라는 구약의 개념은 예언서(주로 8 세기의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포로 생활에서 생존한 사람들(예, 사 10:20-23; 17:4-6; 37:31-32; 렘 42:15,19; 44:12,14,28; 암 1:8)
2. 야웨께 계속 신실한 자들(예, 사 4:1-5; 11:11,16; 28:5; 율 2:32; 암 5:14-15; 미 2:12-13; 4:6-7; 5:7-9; 7:18-20)
3. 종말에 있을 새롭게 됨과 새 창조에 참여할 자들(예, 암 9:11-15)

포로로 잡혀가는 문맥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포로로 잡혀가 생존한 자들) 가운데 오직 일부(신실한 열심을 가진 자들)만 유다로 돌아오게 선택하신다. 우리가 이 장의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난다(6 절).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줄이셔서 자신의 능력과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드러내신다(예, 기드온, 삿 6-7 장).

▣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이스라엘을 자녀로’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출애굽과 더불어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됨을 가리킨다(참조, 신 1:31; 사 63:9).

46: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즉, 그들을 “옮기시거나” “받아주신다,” 참조, 출 19:4; 신 1:31; 32:11).

▣ “내가 그리하겠고” 이것은(문자적으로, 나는 그이다, 참조, NKJV) 하나님께서 불변하심을 나타내는 개념이다(참조, NJB, 참조, 말 3:6). 이스라엘이 비록 언약에 불성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분이시다. 그는 어제와 오늘과 또 영원에 이르도록 한결 같으시다!

▣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인 동시에 각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단수형 동사들). 4 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주목하여 보라.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BDB 793, KB 889
2.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계속하여 공급하실 것이다
  - ㄱ. 너희를 업을 것이다 - **칼 미완료형**, BDB 687, KB 741 (2 회)
  - ㄴ. 너희를 품을 것이다 - **칼 미완료형**, BDB 669, KB 724 (2 회)
  - ㄷ.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다 - **칼 미완료형**, BDB 572, KB 589

**개역개정 46:5-7**

<sup>5</sup>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sup>6</sup>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7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46:5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이것은 아무도 야웨에 비교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참조, 43:11; 44:6,8; 45:6). 이 문장은 야웨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비교하고 있다(참조, 사 40:18-20; 44:9-20).

다음의 평행법을 유의하여 보라.

1.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 *피엘 미완료형*(BDB 197, KB 225)
2. 누구와 짝하겠느냐 - *히필 미완료형*(BDB 1000, KB 1436)
3.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 *히필 미완료형*(BDB 605, KB 647)
4. 서로 같다 하겠느냐 - *칼 미완료형*(BDB 197, KB 225)

야웨께서는 독특하신 분이시다! 그는 항상 살아 계신 분이시며, 살아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시다(40:14 의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또한 40:13 의 특별주제인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라.

46:6-7 이 두 절에서는 야웨(5 절)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비교하고 있다.

1.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여 우상의 모양을 만든 후,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예배한다(6 절).
2.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상들을 여기 저기로 옮겨 놓는다. 우상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다(7 절).

**개역개정 46:8-11**

8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9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46:8 “기억하고” 이 절과 9 절의 첫 행에는 일련의 명령이 나온다.

1. 기억하라, 8 절 - *칼 명령*(BDB 269, KB 269)
2. 분명히 하라, 8 절 - *히트포엘 명령*(BDB 84, KB 100)
3. 마음에 두라, 8 절 - *히필 명령*(BDB 996, KB 1427)
4. 기억하라, 9 절 - 1 항과 같음

2 항은 드물게 사용된 **동사형**이다. 아랍어 탈굼에서는 이것을 “용기를 내어라”로 번역하는데, 이 번역은 아랍어 어근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류폴드, 145 쪽).

▣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행하심에 대하여 여전히 의심을 가졌음을 나타낸다(참조, 45:9-11, 하박국서). 12 절에서는 이 그룹의 사람들을 “마음이 완악한” 유대 백성이라고 부른다.

46:9 “옛적 일” 이 용어는 다음을 가리킬 것이다

1. 야웨께서 옛적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일(참조, 43:18; 65:17; 렘 16:14; 23:7)
2. 야웨께서 그들을 낳으신 일(즉, 출애굽 사건)
3.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고 옛적에 한 약속(참조, 신 32:7)
4. 야웨께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심으로써 자신의 실재를 증명하신 일(참조, 10 절과 11 절; 42:9)

▣ “나는 하나님이라” 5 절의 설명을 보라.

46:10-11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예언적 내용의 예언으로써’ 자신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신다. 10-11 절에서 아주 자주 언급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강조는 역사가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신적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즉, 신학적; 참조, 사 14:24,26; 25:1).

개역개정 46:12-13

<sup>12</sup>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sup>13</sup>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46:12-13 이것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공휼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휼하심에 합당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완고하여 목이 쇠의 짐줄 같았다(참조, 48: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의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참조, 겔 36:22-38). 이것은 새언약의 모델이다(참조, 렘 31:31-34).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음을 나타낸다

1. 내 계획(BDB 420)이 설 것이다 - BDB 877, KB 1086, 칼미완료형
2. 나의 모든 목적(BDB 481 과 343 의 합성)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 BDB 793 I, KB 889, 칼미완료형

이같이 ‘야웨께서 자신의 신적 목적을 이루심’에 대하여 확증하는 내용이 14:24; 25:1; 40:8; 55:11 에서도 나타난다(밀라드 에릭슨의 그리스도인의 신학, 제 2 판, 371-390 쪽을 보라).

10a 절에 있는 구는 신학적으로 41:4; 44:6; 48:12 과 평행을 이룬다. 야웨는 “아주” 처음부터 “가장” 끝까지(즉, 처음부터 끝까지) “현존하시는 분”이시다!

▣

NASB, NKJV,

70 인역, 페쉬타 “의”

NRSV “구원”

TEV, JPSOA, REB “승리”

NJB “구원하는 정의...정의”

히브리어에서는 “의”(BDB 842)를 두 번 사용하였다. BDB 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6a)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사 45:8; 46:13; 51:6).

“구원”(BDB 448)이라는 히브리 용어는 13b 절과 평행을 이룬다.

▣ “멀리 떠난 너희여”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야웨의 구원하심이 가까이 있음(“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13b 절)을 묘사한다

1. 고레스 2 세를 통하여(일시적으로)
2. 메시아를 통하여(종말적으로)

# 이사야 4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바벨론에 대한 애통	바벨론이 낮아짐	바벨론에 대한 애통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애통
47:1-7 (1-7)	47:1-3 (1-3)	47:1-4 (1-4)	47:1-3 (1-3)	47:1-3 (1-3)
	47:4 (4)		47:4 (4)	47:4-7 (4-7)
	47:5-7 (5-7)	47:5-7 (5-7)	47:5-7 (5-7)	
47:8-11 (8-11)	47:8-9 (8-9)	47:8-9 (8-9)	47:8-9 (8-9)	47:8-15 (8-15)
	47:10-11 (10-11)	47:10-13 (10-13)	47:10-13 (10-13)	
47:12-15 (12-15)	47:12-15 (12-15)			
		47:14-15 (14-15)	47:14-15 (14-1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46 장이 바벨론의 우상들이 망함을 강조하고, 47 장은 제국 자체(즉, 바벨론 성)가 그 예언자들 및 제사장들과 더불어 망함을 묘사하고 있다.

- 나. 1-7 절에는 창녀/여왕으로 묘사되는 바벨론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일련의 명령이 나온다.
1. 내려오라, 1 절 - 칼 명령(BDB 432, KB 434)
  2. 티끌에 앉으라, 1 절 - 칼 명령(BDB 442, KB 444)
  3. 땅에 앉으라, 1 절 - 2 항과 같음(이 용어가 1 절[2 회],5 절,8 절[2 회]사용됨을 주목하라)
  4. 가져라, 2 절 - 칼 명령(BDB 542, KB 534)
  5. 가루를 갈아라, 2 절 - 칼 명령(BDB 377, KB 374)
  6. 너울을 벗으라, 2 절 - 피엘 명령(BDB 162, KB 191)
  7. 치마를 걷어라, 2 절 - 칼 명령(BDB 362, KB 359)
  8. 네 속살을 드러내라, 2 절 - 피엘 명령(BDB 162, KB 191)
  9. 강을 건너라, 2 절 - 칼 명령(BDB 716, KB 778)
  10.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이게 하라, 3 절 - 니팔 지시형(BDB 162, KB 191)
  11. 잠잠히 앉으라, 5 절 - 3 항 및 4 항과 같음
  12. 흑암으로 들어가라, 5 절 - 칼 명령(BDB 97, KB 112)
- 다. 이 장의 예언적인 문학 형태는 “장례식 만가”이다. 이 형식은 히브리어에서 독특한 리듬/박자를 갖는다(3 과 2 의 운율 , 애가의 형식과 같음). 이것은 장례식 애가이지만 풍자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다(비웃는 노래).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7:1-7

- <sup>1</sup> 창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 <sup>2</sup> 멧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 <sup>3</sup>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 <sup>4</sup>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 <sup>5</sup>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 <sup>6</sup>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멩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 <sup>7</sup>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47:1 “내려와서” 이것은 히브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용한 세 가지 문학적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1. 장례식 만가
2. 법정장면
3. 약속의 말씀

▣ “치녀 딸 바벨론이여” 이것은 가족과 관련을 가진 은유적 표현으로서 ‘안전함과 귀함을 나타내는’ 셈어적 관용어이다. 그녀(신바벨론 제국)가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지내왔지만, 이제는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앉다”이다 (참조, 2 절[2 회], 5 절, 8 절[2 회]). 이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육체적 표시 가운데 하나였다.

#### 특별주제: 슬픔의 의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자신의 회개와 관련하여 혹은 공동체의 범죄를 인한 슬픔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했다.

1. 겹옷을 찢음, 창 37:29,34; 44:13; 사 11:35; 삼하 1:11; 3:31; 왕상 21:27; 욥 1:20
2. 베로 동임, 창 37:34; 삼하 3:31; 왕상 21:27; 렘 48:37
3. 신발을 벗음, 삼하 15:30; 사 20:3
4. 손을 머리에 얹음; 삼하 13:9; 렘 2:37
5. 재를 머리에 뿌림, 수 7:6; 삼상 4:12; 느 9:1
6. 땅에 앉음, 애 2:10; 겔 26:16(땅에 누움, 삼하 12:16); 사 47:1
7. 가슴을 침, 삼상 25:1; 삼하 11:26; 나 2:7
8. 몸을 뺨, 신 14:1; 렘 16:6; 48:37
9. 금식함, 삼하 1:16,22; 왕상 21:27
10. 애가를 부름, 삼하 1:17; 3:31; 대하 35:25
11. 머리를 밍(머리카락을 잡아 뽑거나 면도함), 렘 48:37
12. 수염을 짧게 깎음, 렘 48:37
13. 머리카락이나 얼굴을 가림, 삼하 15:30; 19:4

▣ “갈대아” 이것은 “바벨론”과 평행을 이룬다. 43:14 을 보라.

▣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이 두 가지 용어(BDB 940 과 772)는 신 28:6 에서 사치하고 낭비적인 삶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표현은 2-3 절과 대조를 이룬다. 즉, 그녀가 이제는 다음과 같이 되었다

1. 종
2. 창녀

47:2-3 이것은 전에는 열국의 여왕이었으나(5,7 절), 이제는 종이 된 자에 대한 묘사이다.

1. 그녀가 멧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 2 절
2. 그녀가 너울을 벗는다, 2 절
3. 그녀가 고된 노동을 하기 위하여 옷을 준비한다, 2 절
4. 그녀를 모셔 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강을 건너야 한다(아마도 포로됨을 뜻함), 2 절
5. 그녀의 벌거벗음이 드러난다, 3 절

- ㄱ. 죄에 대한 벌(참조, 20:4)
- ㄴ. 종으로서 헐벗은 옷을 입고 성적인 학대에 취약해짐을 나타냄

47:3  
 NASB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NKJV “내가 사람과 쟁론을 벌이지 아니하리라”  
 NRSV “내가 아무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TEV “아무도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  
 NJB “아무도 내 길을 막지 못하느니라”  
 JPSOA “아무도 중재하지 못하게 하라”  
 REB “아무에게도 관용을 나타내지 말라”

이것은 약간 모호한 용어이지만(BDB 803), 중보기도와 어원적으로 관련을 가진다(참조, 53:12; 59:16; 렘 36:25). 아무도 바벨론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야웨께서 미리 결정하신 일’을 멈출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인간이 없음을 시사한다.

47:4 갑작스럽게 시의 흐름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저자가 감탄하여 발하는 말이다. 그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아름다운 호칭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말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린다. 그 호칭은 다음과 같다

1. 구속자 -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강조함; 하나님은 노예된 백성을 사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2. 만군의 여호와 - 다음 두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에 강조점을 두는 페르시아 호칭
  - ㄱ. 천사들의 회의, 사 24:21-22
  - ㄴ. 바벨론의 별신들, 사 40:26
3.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호칭

47:5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 강대국이 이제 소작농처럼 되었다. 이 절은 그들에게 잊혀짐을 구하며 잠잠히 있을 것을 말한다(두 명령).

▣ “여러 왕국의 여주인” 이것은 신바벨론이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관용어이다(참조, 7 절). 여왕이 성(sex)을 제공하는 노예로 전락하였다(참조, 2-3 절, 8a 절). 그녀가 포로들에게 행하였던 그 일이 이제 그녀에게 일어날 것이다(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할이 뒤바뀌게 하심).

이 관용어는 신바벨론 제국으로 하여금 마르독을 섬기는 데서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달신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게 한 나보니두스와 관련을 가지는 내용일 것이다. 그 여신은 신으로 불렸다(아카디아어, 또는 *난나*[수메리아어]).

**특별주제: 달 숭배**

달을 숭배하는 일은 고대 근동에서 수메르(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의 신화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아주 널리 퍼졌다. 신화에는 남신과 여신이 다 나온다. 원래 달신은 하늘의 신인 *엔릴*이 곡식의 여신인 *닌릴*을 강간함으로써 태어났다. *엔릴*은 만신전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가 한 일에 대해 정죄받아 지하세계로 처해졌다. 그런데 *닌릴*이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된 것을 알고 나서는 그와 한 편이 되었다. 그 자식인 *신*(혹은 *진*)은 밤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달신의 숭배는 달의 주기마다 행해졌다.

1. 새 달 - *아심밧발*
2. 초승달 - *신*
3. 보름달 - *나나이*(수메르어로 “지혜의 신”인 *엔수*가 “빛을 비춤”)

이러한 이름은 갈대아의 우르에서 섬겼던 “지혜로운 주”(즉, *수엔*) 혹은 “빛을 비춤”(나나이)을 기본적으로 뜻한다. 도시 자체가 종종 난날의 도시로 불렸다. 도시에 세워진 지구랏(위가 평평한 커다란 피라미드)에서는 짝으로 된 풍요의 신들을 섬겼다. 태양신(*샤마스*)은 이 부부의 장자이며 그 다음은 *에레스키갈*(지하세계의 여왕)과 *난나*(하늘/공중의 여왕)이다.

이 종교는 모든 고대 근동 세계에 전파되었지만, 이 종교의 주된 예배장소는 다음과 같았다

1. 우르
2. 하란
3. 테마
4. 가나안
5. 맥카

다산의 신을 섬기는 일과 결합된 이 신화는 기본적으로 별신들을 섬기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

구약은 별신을 섬기는 것(참조, 신 4:19; 17:3; 왕하 21:3,5; 23:5; 렘 8:2; 19:13; 슥 1:5)과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것(즉, *바알*과 *아세라*, 우가릿의 시)을 거부한다. 원래 유목민인 히브리인들은 달신 섬기는 것을 거부하기를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그 이유는 농경문화에 속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태양신을 섬긴 반면에 밤에 이동하는 유목민들은 달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유목민이 마침내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 때에는 별신을 섬기는 일이 문제로 부각 되었다.

47:6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이것은 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고대 세계에서 국가의 신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로잡혀간 일을 세상 사람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여’ 일어난 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열강들을 사용하신 경우였다(참조, 42:24).

▣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앗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넘겨 주어 벌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이 일에 있어서 지나치게 행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은 일을 인하여,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47:7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동사가 완료형으로서, 고착된 자세를 나타낸다.

1.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 일들에 심장을 두지 않았다”임
2. 그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8 절에서 이 사상이 계속됨을 주목하라.

개역개정 47:8-11

<sup>8</sup>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sup>9</sup>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sup>10</sup>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sup>11</sup>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47:8-9 “평안히 지내며 . . .하는 자여 . .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이것은 단 5 장 및 ‘바벨론 사람들이 진군해오는 페르시아 군대들을 비웃었다’는 헤로도투스의 글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페르시아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 놓고 이 거대한 성벽 밑을 뚫고 공격해 왔다. 그래서 이 도시가 갑자기 망하였다(참조, 단 5 장). 바벨론 사람들은 페르시아인들을 해방자로 여겼다. 그 이유는 벨사살과 그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신(난나, 47:5의 특별주제를 보라)으로 불리는 새로운 여신인 달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한 고레스가 그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신들인 벨, 마르둑, 느브를 섬기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47:8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표현은 야웨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참조, 10 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였는가? 누가 참되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신가?

47:9 “자녀를 잃으며” 사 13:16,18의 설명을 보라. 바벨론이 다른 민족에게 행했던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 바벨론 사람들이 행하던 주술적 관습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9 절에서 하였는데, 그 내용을 11-13 절에서도 계속하여 다룬다. 신 18:9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습을 정죄한다. 바벨론 사람들이 행한 모든 종류의 마술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다. 이 일은 주술적 관습이 부패하였고 효과가 없는 것임을 드러낸다(즉, 그들의 신들이 약함).

47:10 “네 악을 의지하고” 사해사본은 “악함”이라는 단어에서 “ㄷ” 발음을 “ㄹ” 발음으로 바꾸어 “지식”으로 제시한다. 이 문맥에서는 둘 다 적합하다.

▣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악하며, 또 그들이 자기 자신을 숨기려 한 것’을 그들이 알았음을 이 구절이 나타낸다(참조, 사 29:15).

47:11 “물리칠 능력” 이것은 “뇌물을 주다”라는 뜻을 가진다. 그들은 마술적 주술로써 야웨를 매수할 수 없었다(참조, 3c 절).

▣ “속량” 이것은 “덮다”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로서, 구약에서는 ‘은혜의 보좌를 피로써 덮는 개념’을 가진다(참조, 레 16 장).

**개역개정 47:12-15**

<sup>12</sup>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sup>13</sup> 네가 많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sup>14</sup> 보라 그들은 초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sup>15</sup>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47:12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류폴드는 “”나를”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그들의 주문이 하나님을 위협하거나 놀라게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 문장을 설명한다. 본문의 의미가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페르시아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NJB).

47:13 바벨론의 신들 뿐 아니라(참조, 1-3,5 절), 그들의 선지자들, 자문관들, 주술자들이 아무런 도움도 못주는 존재로서 굴욕을 당하였다(참조, 14 절).

▣  
 NASB, NKJV, 70 인역 “모사들”  
 NRSV, NJB “고문들”  
 TEV “조언”

이것은 46:10,11 에서 “목적”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이다(BDB 420). 이것은 ‘이루어 질 야웨의 계획/목적’과 ‘바벨론 종교지도자들의 거짓되고 약하며 효과없는 계획/목적’을 대조시킨다!

아무도 야웨께 “자문을 드리지” 못했다(참조, 40:1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항상 성취하신다(참조, 44:26; 46:10,11).

▣  
 NASB, NKJV, TEV,  
 NJB, 70 인역 “점성가들”  
 NRSV “하늘을 연구하는 자들”  
 JPSOA “하늘을 살피는 자들”

페쉬타  
강조 성경

“갈대아 사람들”  
“하늘을 나누는 자들”

맛소라 본문에서는 칼 완료형(BDB 211, KB 237, 케티브)으로 되어 있어 “나누다”라는 아랍어 어근을 나타낸다. 맛소라 학자들은 같은 어근의 칼 분사형을 제시하였다(케레). 만일 이것이 정확하다면, 이 내용은 “별들을 들여다 보는 자들”(즉, 천문학자들)과 평행을 이룬다.

47:14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여기서, 불은 바벨론의 주술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써 사용된다. 불은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불은 심판의 불이 될 것이다.

**특별주제: 불**

성경에서 불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 긍정적 의미

1. 따뜻하게 함(참조, 사 44:15; 요 18:18)
2. 빛을 비춤(참조, 사 50:11; 마 25:1-13)
3. 음식을 익힘(참조, 출 12:8; 사 44:15-16; 요 21:9)
4. 정화함(참조, 민 31:22-23; 잠 17:3; 사 1:25; 6:6-8; 렘 6:29; 말 3:2-3)
5. 거룩함(참조, 창 15:17; 출 3:2; 19:18; 겔 1:27; 히 12:29)
6. 하나님의 인도하심(참조, 출 13:21; 민 14:14; 왕상 18:24)
7.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심(참조, 행 2:3)
8. 보호하심(참조, 슥 2:5)

나. 부정적 의미

1. 태움(참조, 수 6:24; 8:8; 11:11; 마 22:7)
2. 멸망시킴(참조, 창 19:24; 레 10:1-2)
3. 화냄(참조, 민 21:28; 사 10:16; 슥 12:6)
4. 벌함(참조, 창 38:24; 레 20:14; 21:9; 수 7:15)
5. 거짓된 종말론적 표식(참조, 계 13:13)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써 나타난다

1. 그의 진노가 불타고 있다(참조, 호 8:5; 슥 3:8)
2. 그가 불을 쏟고 있다(참조, 나 1:6)
3. 영원한 불(참조, 렘 15:14; 17:4)
4. 종말론적 심판(참조, 마 3:10; 13:40; 요 15:6; 살후 1:7; 벨후 3:7-10; 계 8:7; 13:13; 16:8)

라. 성경에서 사용한 다른 은유적 표현과 같이(즉, 누룩, 사자) 불은 문맥에 따라서 축복 혹은 저주를 나타낸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사 45:23 과 46:1-2 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2. 사 46:1-2 과 46:3-4 사이에 어떠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는가?
3. 사 46 장과 47 장에서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여러 방법을 열거하라.
4. 사 46:8 과 사 46:13 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5.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6. 왜 사 46:12-13 은 우리가 가진 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가?
7. 바벨론이 사치함에서 중됨으로 전락하게 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열거하라.
8. 사 47:9-13 에 나오는 주술행위의 종류를 열거하라.

# 이사야 4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스라엘의 완고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이 정화됨	듣고 보라	하나님은 미래를 다스리는 주이시다	야웨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48:1-11 (1-11)	48:1-2 (1-2)	48:1-2 (1-2)	48:1-2 (1-2)	48:1-11 (1-11)
	48:3-5	48:3-5	48:3-5	
	48:6-8 (6-8)	48:6-8 (6-8)	48:6-8 (6-8)	
	48:9-11 (9-11)	48:9-11 (9-11)	48:9-11 (9-11)	
구원을 약속하심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인 고레스	야웨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셨다
48:12-16 (12-16)	48:12-13 (12-13)	48:12-13 (12-13)	48:12-13 (12-13)	48:12-15 (12-15)
	48:14-16 (14-16)	48:14-16 (14-16)	48:14-16 (14-16)	이스라엘의 운명
			48:16 (16a)	48:16-19 (16-19)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48:17-19 (17-19)	48:17-19 (17-19)	48:17-19 (17-19)	48:17 (17)	
			48:18-19 (18-19)	포로됨의 끝
48:20-22 (20-22)	48:20-21 (20-21)	48:20-22 (20-22)	48:20-22 (20-22)	48:20-22 (20-22)
	48:22 (2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46 장과 47 장에서는 야웨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자신의 백성, 돌아온 자들,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 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을 주목하여 보라.
1. 야곱의 집이여, 1 절
  2.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1 절
  3.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 1 절
  4.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1 절
  5.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 1 절
  6. 너희는 완고하도다, 4 절
  7.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 8 절
  8. 야곱아, 12,20 절
- 다. 야웨께 대하여 사용한 여러 종류의 호칭을 주목하여 보라.
1. 여호와와 이름, 1 절
  2. 이스라엘의 하나님, 1,2 절
  3. 나는 그이다, 12 절
  4.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12 절
  5. 여호와(YHWH), 14,17,20,22 절
  6. 구속자, 17 절
  7. 거룩하신 이, 17 절
  8. 여호와 너희 하나님, 17 절
- 라.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는 의미심장하면서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여러 구절이 있다. 그 내용이 신약에서 더 발전된다.
1. 45:23
  2. 46:8-11
  3. 48:8-11
  4. 48:16
- 마. 류폴드는 이 장의 제목을 “날카로운 책망과 은혜로운 도전”으로 부른다(158 쪽). 심판과 긍휼하심이 나타내는 이러한 변동은 예언적 글의 특징을 이룬다. 또 이러한 특징은 종종 어떤 전환이 거의 없이 나란히 나타난다.

개역개정 48:1-11

- <sup>1</sup>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 <sup>2</sup>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 <sup>3</sup>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 <sup>4</sup>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
- <sup>5</sup>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 <sup>6</sup>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 <sup>7</sup>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 <sup>8</sup>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 <sup>9</sup>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 <sup>10</sup>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 <sup>11</sup>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8:1 “들을지어다” 이것은 자주 사용된 명령(BDB 1033, KB 1570)으로서, 이사야서, 신명기서, 열왕기서, 욥기, 시편, 아모스서에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기에 위해 사용하였다(참조, 1:2,10; 7:13; 28:22; 36:13; 37:17; 47:18; 46:3,12; 47:8; 48:1,2,14,16; 49:1; 51:1,7; 55:2; 66:5). 야웨께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셨다. 계시는 순종을 요구한다! 진리는 지적인 것 뿐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할 내용이다!

■	
NASB, NRSV	“유다의 허리에서”
NKJV	“유다의 원천에서”
TEV	“너희 유다의 자손들”
NJB	“유다의 물에서 나온”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히브리 단어가 제시 되었다.

1. “물들,” *우뭇메이*(UBS 본문 프로젝트는 이것에 B 등급을 준다)
2. “허리들,” *우뭇브에이*(NASB, NRSV, AB)
3. “씨,” *우미즈라*

이 히브리 용어는 모두 ‘단체, 족속, 가족을’ 자연적으로 이루는 후손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자손 모두를 다음과 같이 일컫고 있음을 주목하라

1. 야곱
2. 이스라엘
3. 유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가리킨다(대부분은 유다로 불리는 남쪽의 세 지파 출신임).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 속하는 모든 자들 일컫는다. 이것은 통일왕국이 분열된 해인 주전 922년 이전에 사용하던 이름이었다.

■ “맹세하며 ... 기념하면서도” 이 두 단어는 예배 행위를 가리킨다.

1. 내 이름으로 맹세하다(참조, 19:18; 65:16)
2. 기념하다(문자적으로, “기억하게 하다,” *히필*, 참조, 12:4; 26:13; 62:6)

■	
NASB, NKJV, 70 인역	“그러나 진리와 의가 없이”
NRSV	“그러나 진리와 신실함이 없이”
TEV	“그러나 네가 말하는 단어를 너는 뜻하지 않는다”
NJB	“좋은 믿음이나 바름이 없지만”
JPSOA	“진리와 신실함이 없지만”
REB	“그러나 정직함과 신실함이 없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정죄하는 이 얼마나 두려운 평가인가! “진리”라는 용어는 *에메츠*(BDB 54)로서 “신실함”을 뜻한다. 42:3의 특별주제를 보라.

두 번째 단어인 *즈다카*(BDB 842)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의

“의”는 성경학도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 또는 “의”(BDB 841)로 설명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단어는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벽과 울타리가 수평적으로 곧은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곧은 날(자)이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재판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참조, 창 1:26-27; 5:1,3; 9:6).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무대요 배경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 있어서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인간의 충성된 여부를 시험하셨으나(참조,

창 3 장), 최초의 부부는 이것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다(참조, 창 3 장; 롬 5:12-21).

하나님은 망가진 교제를 고쳐 회복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인간은 이 단절을 회복시킴에 있어 무력하다(참조, 롬 1:18-3:20).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언약의 개념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이 회개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반응에 기초한다. 타락을 인하여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갖고 다음의 일을 하셨다

1.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즉, 법적인 의)
2.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를 거저 주심(즉, 전가된 의)
3. 의(즉, 그리스도를 닮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를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심
4. 에덴 동산에서의 교제를 회복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즉, 거저 주시고) 공급하시지만, 인간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1. 회개
2. 믿음
3.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
4. 인내

따라서 의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의 결작 사이의 언약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힘주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적합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 개념은 “믿음에 의한 칭의”로 불린다. 이 개념은 복음서에 나타나지만 이 용어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주로 바울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는 헬라어 단어인 “의”를 여러 형태로 100 번 이상 사용하였다.

바울은 잘 교육받은 랍비로서 히브리적 개념인 *세덱* 을 나타내기 위해 헬라 문학적 용례에서 단어를 택하지 않고 70 인역에서 사용한 *디카이오쉬네* 를 사용했다. 헬라 저작에서 이 용어는 신과 상류사회의 기대에 들어 맞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히브리어적 개념에서 이 용어는 항상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야웨는 공평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닮기 원하셨다. 구속받은 인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움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로마 카톨릭은 칭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은 신성국가로서 세속적인 것(사회적 규범)과 신성한 것(하나님의 뜻)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분은 “정의”(사회와 관련됨)와 “의”(종교와 관련됨)의 경우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 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의 복음(좋은 소식)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통하여, 성자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간청과 복음으로 이끄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경건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어거스틴의 입장은 종교개혁가들의 강조점인 거저주시는 복음과 로마 카톨릭의 강조점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 두 가지 다였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목적적 소유격**으로 이해했다(즉,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행위[지위적인 성화])인 반면, 카톨릭은 **주격 소유격**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닮는 과정(경험적이고 점진적인 성화)이다. 사실상 두 가지 다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창세기 4 장부터 계시록 20 장까지 이르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에덴에서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배경으로 시작하고(참조, 창 1-2 장) 같은 배경으로 마친다(참조, 계 21-22 장).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은 회복될 것이다!

위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되는 헬라어 단어 그룹을 예시하는 신약성경의 구절들을 보라:

1.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종종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제시된다)
  - ㄱ. 로마서 3:26
  - ㄴ. 데살로니가 후서 1:5-6
  - ㄷ. 디모데 후서 4:8
  - ㄹ. 요한계시록 16:5
  
2.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 ㄱ. 사도행전 3:14; 7:52; 22:14(메시아의 칭호)
  - ㄴ. 마태복음 27:19
  - ㄷ. 요한일서 2:1,29; 3:7
3.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이다
  - ㄱ. 레위기 19:2
  - ㄴ. 마태복음 5:48(참조, 5:17-20)
4. 의를 제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 ㄱ. 로마서 3:21-31
  - ㄴ. 로마서 4 장
  - ㄷ. 로마서 5:6-11
  - ㄹ. 갈라디아서 3:6-14
  - ㅁ. 하나님께서 주심
    - 1) 로마서 3:24; 6:23
    - 2) 고린도 전서 1:30
    - 3) 에베소서 2:8-9
  - ㅂ. 믿음으로 받음
    - 1) 로마서 1:17; 3:22,26; 4:3,5,13; 9:30; 10:4,6,10
    - 2) 고린도 전서 5:21
  - ㅅ.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 1) 로마서 5:21-31
    - 2) 고린도 후서 5:21
    - 3) 빌립보서 2:6-11
5. 하나님의 뜻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 ㄱ. 마태복음 5:3-48; 7:24-27
  - ㄴ. 로마서 2:13; 5:1-5; 6:1-23
  - ㄷ. 디모데 전서 6:11
  - ㄹ. 디모데 후서 2:22; 3:16
  - ㅁ. 요한일서 3:7
  - ㅂ. 베드로 전서 2:24
6.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 ㄱ. 사도행전 17:31
  - ㄴ. 디모데 후서 4:8

의는 하나님의 특성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선언이고
2. 하나님의 선물이며

3.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4. 이렇게 살아야 할 삶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됨의 과정은 활발하면서도 건실하게 추구해야 하는 일로서 재림의 때에 하루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회복되지만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결론으로서 인용할 좋은 내용이 있다. 이것은 IVP 에서 출판한 *바울과 바울서신 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가 관계에 미치는 면에 대하여 루터가 했던 것 보다도 더 강조했다.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면제의 측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갖는 놀라운 특징 혹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강조했다” (834 쪽).

나에게 있어서 신자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1.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동방 교회와 칼빈의 강조점)

2. 복음은 진리다(어거스틴과 루터의 강조점)

3. 복음은 변화된 삶이다(로마 카톨릭의 강조점)

위의 것은 모두 진실되며 건강하고, 바르며,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다. 어느 것이든 하나만을 더 강조하거나 어느 한 쪽을 빠뜨리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48:2** 처음 두 행은 예레미아의 “성전 설교”(렘 7 장)를 생각나게 한다. 그 설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웨를 신뢰하지 않고 성전을 신뢰하고 있음에 대하여 말한다.

1. 그들이 거룩한 성 백성이라고 자신들을 칭한다(BDB 894, KB 1128, *니팔 완료형*, 참조, 1 절)

2. 의지한다(BDB 701, KB 759, *니팔 완료형*)

그들의 예배는 정통적이고 경건하게 보였지만, 거짓된 것이었고 ‘잘못된 원천’을 향한 예배였다.

**48:3** 야웨께서 자신이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심에 대하여 또 다시 말씀하신다(“내가”가 여러 번 나옴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실존과 능력’을 보이시려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다.

**48:4**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신다

1. 완고하다(참조, 겔 2:4; 3:7)

2. 목은 쇠의 힘줄이요

3. 이마는 놋이다

▣ “**알거니와**” 이 단어(BDB 393, KB 390)가 이 장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48:4,6,7,8[2 회]). 이 장의 다른 곳에서는 이 용어가 “~에 대한 지식”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와의 깊은 교제”를 뜻한다.

**48:6** 첫 두 행에 나오는 **동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약간의 질문이 있다. 나는 NJB 의 번역을 좋아한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들었고 보았다. 왜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야웨께서 미리 예언하신 내용을 가리킨다(참조, 5 절). 야웨께서는 자신의 지식 및 ‘이스라엘/유다는 물론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칠 미래의 사건을 주관하고 계심’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입증하고 계신다.

48:8 “네가 정녕 배신하여” 이것은 같은 어근(BDB 93, KB 108)을 가진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으로서, 문법적으로 강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단 9:7 을 보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조차도,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행했다(즉, 겔 20:8,13; 암 5:25-26).

48:9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와 관련하여 야웨께서 겪으신 문제에 대한 적절한 요약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다(참조, 창 12:3, 40: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가 죽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셨다(즉, 창 2:16,17; 겔 18:4,20).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이 같음을 가진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을 위해 행하실 것이다(즉, 모든 인간의 구원, 참조, 삼상 12:22; 시 106:8; 렘 14:7; 겔 20:8-9,14,17). 이 점을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으로는 겔 36:22-38 이 있다!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사 48:11 에서 확인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것은 이사야가 전한 놀라운 메시지이다. 40: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개역개정 48:12-16

<sup>12</sup>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sup>13</sup>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찢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sup>14</sup>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sup>15</sup>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험통하리라  
<sup>16</sup>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48:12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관용구이다(참조, 41:4; 44:6), 계 1:8,17; 22:13 에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자주 사용한 표현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하심(13 절)과 영원하심을 나타낸다. 곧,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뜻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바로 야웨이시다(40:14 의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48:14 1 행에 나오는 두 명령이 16 절의 1 행에서 반복되고 있다.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와 “그의 팔”이 평행을 이루고 있음도 주목하라.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바벨론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48:15 처음 구(“나 곧 내가 말하였고,” BDB 180, KB 210, *피엘 완료형*)는 야웨께서 하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다(참조, 55:11).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이 좌절될 수 없다!

48:16

NASB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NKJV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와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NRSV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TEV

“이제는 주권자 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보내셨느니라”

NJB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영과 함께 보내셨느니라”

JPSOA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덧 입히사 나를 보내셨느니라”

70 인역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놀랍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언급되고 있으며 또 그들이 누구인가?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한 분은 야웨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아마도 창 1:2; 사 11:2; 42:1; 61:1 에 나오는 바로 그 분일 것이다. 그러나 “나를”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 3 행에 나오는 “나”
2. 선지자 이사야
3. 메시아(또는 중)
4. 고레스 2 세(마치 그가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맥에서 삼위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40: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세 위격이 61:1 에서 또 다시 언급된다.

42:1 의 특별주제: 인격적 존재이신 성령을 보라.

#### 개역개정 48:17-19

- <sup>17</sup>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 <sup>18</sup>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 <sup>19</sup>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품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48:17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 이것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관용구이다(참조, 41:14; 43:14; 49:7,26; 54:5,8). 이 내용이 49:26 에서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평행을 이루고 있다: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 40:3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유익”(BDB 418 I, *히필 부정사 연계형*)은 유리하다는 의미를 가진다(참조, 욥 21:15; 35:3; 렘 12:13; 사 47:12). 이 단어는 종종 우상들이 우상숭배자들을 위해 해 줄 수 없는 일을 나타내었다(참조, 44:9,10; 57:12; 삼상 12:21; 렘 2:8; 7:8,11; 23:32; 함 2:18).

▣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이것은 “좋은 길”(참조, 시 32:8; 119:105)로서, 의로운 삶을 가리키는 섹어의 관용어이다. 여기서, 이것은 포로살이에서 본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리는 야웨의 임재하심과 공급하심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20 절; 49:9-10).

48:18-19 이것은 “만일 ~한다면, . . .”이라는 본문으로서, 레 26 장과 신 27-29 장에 나오는 언약적 축복과 저주를 반영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무서운 결과를 거두었다. 이스라엘은 의와 계시를 증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인하여 그들이 어두움과 혼동에 처하게 되었다.

**개역개정 48:20-22**

<sup>20</sup>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 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sup>21</sup>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어나게 하셨느니라  
<sup>22</sup>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48:20 이것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옴에 대한 일련의 명령이다.

1.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 칼 명령(BDB 422, KB 425)
2. 갈대아인을 피하고 - 칼 명령(BDB 137, KB 156)
3.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 히필 명령(BDB 616, KB 665)
4. 들려 주며 - 히필 명령(BDB 1033, KB 1570)
5.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 - 히필 명령(BDB 422, KB 425)
6. ~하셨다 하라 - 칼 명령(BDB 55, KB 65)

야웨께서는 자기 백성이 포로된 곳을 떠나 본향으로 갈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시며(참조, 62:11; 렘 31:10; 50:2), 또 자신이 이를 성취하셨음을 알리신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나아오기를 원하신다(참조, 2:2-4; 42:6; 45:22-23; 51:4-5; 60:1,3; 행 13:46-49)!

48:21 앗시리아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일은 새 출애굽과 새 광야 방랑으로 보였다. 야웨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모두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48:22 이것은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관련한 요약적 진술이다(참조, 57:21; 59:8). 야웨께서 함께하지 않는 길은, 모두 멸망과 파멸의 길이다. 이러한 결정 과정은 구약에서 “두 길”로 알려져 있다(참조, 신 30:15; 잠 4:10-19; 렘 21:8; 마 7:13-14).

# 이사야 4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구원이 땅끝에 미치다	이방인의 빛인 종	두 번째 종의 노래	열방의 빛인 이스라엘	종의 두 번째 노래
49:1-4 (1-4)	49:1-2 (1-2)  49:3-4 (3-4)	49:1-4 (1-4)	49:1-3 (1-3)   49:4-5 (4-5)	49:1-7 (1-7)
49:5-7 (5-7)	49:5-6 (5-6)  49:7 (7)	49:5-6 (5-6)  돌아옴과 회복  49:7 (7)	49:6 (6)  49:7a (7a)  49:7b (7b)	
49:8-13 (8-13)	49:8-9a (8-9a)  49:9b-12 (9b-12)  49:13 (13)	49:8-12 (8-12)	49:8-10 (8-10)   49:11-16 (11-16)	기쁨의 귀향  49:8-12 (8-12)
시온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시온을 기억하실 것이다	49:13 (13)		49:13-17 (13-17)
49:14-21 (14-21)	49:14-18 (14-18)	49:14-18 (14-18)	49:17-18 (17-18)	49:18-22 (18-22)
49:19-21 (19-21)	49:19-21 (19-21)	49:19-21 (19-21)	49:19-21 (19-21)	
49:22-23 (22-23)	49:22-23 (22-23)	49:22-23 (22-23)	49:22-23 (22-23)	49:23-26 (23-26)
49:24-26 (24-26)	49:24 (24)	49:24-26 (24-26)	49:24 (2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사야 40-66 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하는 사역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심에 초점을 둔다(참조, 49-57 장).
- 나. 이 본문은 두 번째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다. 노래/시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42 장의 서론 가항에서 보라.
- 다. 이 장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가 나온다.
  1.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구원자/종을 준비하셨다
  2. 이 특별한 종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된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으셨다
- 라. 40 장과 49 장 사이의 평행을 이루는 주제와 상징을 주목하라.

**단어와 구의 연구****개역개정 49:1-4**

<sup>1</sup>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sup>2</sup>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sup>3</sup>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sup>4</sup>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49:1 “들으라” 48:1 에서 단락의 앞쪽에 나오는 명령의 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이 새 단락을 시작함에 있어서 두 명령이 나온다.

1. 들으라 - *칼 명령*(BDB 1033, KB 1570)

2. 귀를 기울이라 - *히필 명령*(BDB 904, KB 1151)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목적에 대하여 계시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평행을 이루는 이 구는 “**종**”의 사역이 전 세계적인 것임을 드러낸다(참조, 42:7). 하나님의 사랑은

1.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참조, 5-6b 절)

2. 모든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한다(참조, 6c 절; 창 3:15; 12:3)

야웨의 메시지에 두 가지 면이 있다

1. 고레스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

2. 종/메시아에 의하여 열방이 돌아오는 일

이사야서에는 항상 현재(앗시리아), 가까운 장래(바벨론, 페르시아), 먼 미래(복음의 시대)를 바라본다.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다음과 같았지만

1. 의

2. 열방에 대한 계시

이 일은 결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복음전도적 사명(40:15 의 특별주제를 보라)이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옮겨졌다(참조, 마 28:18-20; 눅 24:46-47; 행 1:8).

▣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 NASB 역에서는 이 **대명사**를 대문자체로 제시하여 개인인 종, 즉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종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를 부르신 것으로 나타난다(예레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참조, 램 1:5). “**종**”과 관련을 가진 여러 본문에서 그 종이 개인을 뜻하는가 혹은 공동체를 뜻하는가에 있어서 긴장이 명백하게 있다. 41:8-9; 42:19; 43:10; 49:3 에서 볼 때, 이 호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한편, **단수형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여 개인에게 강조점을 두는 49 장 및 52:13-53:12 에서 제시하는 개인적 사역을 고려할 때, 이 본문들은 두 가지 초점을 가진다. 이러한 이중적 강조점이 42 장에서도 나타난다. 1-4 절은 메시아에 대한 것이며, 19-21 은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다. 이스라엘은 창 12:1-3; 출 19:4-6 에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언약을 지키지 않고 또 지킬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다. 한 명의 신실한 이스라엘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사람에 대한 구속적 사역을 이루셨다!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이같은 긴장을 49:6 에서 볼 수 있다. 이 본문을 눅 2:32 에서 인용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행 13:46-49 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가리킨다.

▣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복중**”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장 기관**”(BDB 588)을 뜻한다. 이 표현은 태아의 창조와 형성과정을 나타낸다(참조, 시 139:13). 이 단어가 48:19 에서 “**헌신**”을 나타낸다(창 15:4 의 설명도 보라).

▣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야웨께서 종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를 부르셨고 또 이름을 부르셨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이다.

이 본문은 야웨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말하는 43:1 과 평행을 이룬다. 종과 관련하여, 공동체적 묘사와 개인적 묘사 사이에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49:2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오” 이것은 강력한 대변인을 묘사하는 은유적 표현인데, 여기서와 엡 6:17; 히 4:12 에서는 계시에 대한 묘사이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서 나타낸다(사 11:4; 계 1:16; 2:12-16; 19:15,21).

▣ “그의 손 그늘에” 이 절은 적당한 때가 되기까지 보호와 숨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참조, 51:16). 종의 특별한 사역을 독특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을 신약에서는 “때가 차매”로 종종 제시한다(참조, 막 1:15; 갈 4:4; 엡 1:10; 딤편 2:6; 딤후 1:3).

49:3-4 이 두 절의 강조점은 ‘종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공동체로서의 종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패하였다’라는 점에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였다(6c,d 절).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구속함을 받아야만 되었다(참조, 5-6a,b 절; 53:8d 절).

49:4 이 단락에서 우리가 가지는 문맥적 질문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것인가 또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것인가이다. 모든 동사가 완료형이다. 모호성은 의도적인 것이다!

4 절의 마지막 두 행은 하나님의 정의와 상주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낸다(참조, 5c 절).

▣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이것이 53:10-11 과 관련을 가진다고 이해한다. 전세계적 범위에서 행해지는 속량이 그 보응이 될 것이다!

개역개정 49:5-7

<sup>5</sup>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sup>6</sup>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sup>7</sup>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49:5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 절과 6b 절은 종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종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것은 종이 하는 말이다. 이것은 종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실망과 반대를 겪는 종을 격려하는 내용이다(참조, 53:1-12).

49:6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 구는 선택받은 백성(계시를 드러내도록 선택받은 도구인) 가운데 남은 신실한 자들을 가리킨다(46: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믿게 되는 일’에 대한 소망이 슥 12:10; 롬 9-11 장에 나타난다([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이 책들에 대한 무료 주석을 참고하라).

▣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종/메시아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라. 만일 5 절이 이스라엘에 집중한 복음서에서의 사역을 반영한다면, 6 절은 전세계로 확장된 초대교회의 사역을 나타낸다. 복음이 이렇게 전세계로 퍼지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주제이다(참조, 2:2-4; 42:6; 45:22-23; 51:4; 60:1,3; 행 13:46-49).

49:7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 이 일련의 호칭(48:17 의 설명을 보라)은 다음 항목 사이의 같음을 나타낸다

1. 초월적이고 편재적인 하나님
2.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재판장이신 하나님
3. 친구이신 하나님과 지도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붙들어야만 한다. 이 둘은 동일한 한 가지 목적을 이룬다! 야웨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

▣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것은 종이 낮아짐을 나타낸다. 즉 종이 거부당함을 말한다(참조, 50:4-11; 52:14-53:6; 시 22 편).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마침내 그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참조, 빌 2:6-11, 이 내용은 사 45:22-23 을 암시한다).

멸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은 분께서(참조, 시 2 편) 열방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바로 그 분이신 점은 놀라운 일이다!

▣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가진 소망의 열쇠인 야웨의 신실하심이 나온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의 성품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특성**

- |                                 |  |
|---------------------------------|--|
| 1. 자비하심(BDB 933)                | - 출 34:6; 신 4:31; 대하 30:9; 시 86:15; 103:8; 111:4; 느 9:17,31; 율 2:13; 은 4:2 |
| 2. 자애로우심(BDB 337)               | - 출 34:6; 대하 30:9; 시 86:15; 103:8; 111:4; 느 9:17,31; 율 2:13; 은 4:2         |
| 3. 노를 더디내심(BDB 74 와 BDB 60)     | - 출 34:6; 시 86:15; 103:8; 느 9:17; 율 2:13; 은 4:2                            |
| 4. 인자가 많으심(BDB 912 I 과 BDB 338) | - 출 34:6-7; 시 86:15; 103:8; 느 9:17; 율 2:13; 은 4:2                          |

5. 신실하심(BDB 54) - 출 34:6; 시 86:15
6. 용서가 많으심(BDB 699) - 느 9:17
7. 버리지 않으심(BDB 736 I) - 느 9:17,31
8. 악을 버리심(BDB 636, KB 688, *니팔 분사* + BDB 948) - 율 2:13; 은 4:2
9. 위대하심(BDB 42, 152) - 느 1:5; 9:32
10. 크고 두려우심(BDB 152, 431) - 느 1:5; 4:14; 9:32
11. 언약을 지키심(BDB 1036, 136) - 느 1:5; 9:32
12. 영원한 사랑(BDB 338) - 느 1:5; 9:32

개역개정 49:8-13

- <sup>8</sup>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 <sup>9</sup>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 <sup>10</sup>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 <sup>11</sup>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돌우리니
- <sup>12</sup>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냇 땅에서 오리라
- <sup>13</sup>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49:8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평행을 이루는 것을 주목하라. 이 본문을 고후 6:2 에서 인용하였다. 이 본문은 시 49:13-15 에서 구출의 날을 뜻한다. 이 구들은 신체적 또는 영적 구출/구원을 나타낸다. 희년(레 25:10)은 빛을 근본적으로 면제받음을 상징한다. 이 문맥에서는, 그들이 주전 538 년에 내린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옴을 나타낸다. 이 일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취되었다.

1. 세스바잘 - 스 1 장
2.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 스 2 장
3. 느헤미야 - 느 1 장
4. 에스라 - 느 8 장

8 절에서 야웨의 행하심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동사들**을 주목하라.

1.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 칼 완료형(BDB 772, KB 851)
2. 내가 너를 도왔도다 - 칼 완료형(BDB 740, KB 810)
3.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겠다 - 칼 미완료형(BDB 665, KB 718)
4. 너에게 주겠다 - 칼 미완료형(BDB 678, KB 733)
  - ㄱ. 나라를 일으켜 - 히필 부정사 연계형(BDB 877, KB 1086)
  - ㄴ.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 히필 부정사 연계형(BDB 635, KB 686)

▣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 구는 42:6 에서 이미 나왔다. 이것은 49:6,8 의 주제와 일치한다. 야웨께서 아브라함 및 그의 씨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대상을 포함한다(참조, 창 12:3; 40: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은 온 세계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즉, 열방). 이것은 유일신 사상의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귀결이다—즉,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40: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음(참조, 창 1:26-27), 또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속의 약속(창 3:15.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주신 내용이다).

49:8d-12 이 단락은 양들을 푸른 초장에서 먹이심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이 구절들은 신 27-28 장에 나오는 언약적 축복을 반영하여 나타낸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바울은 고후 6:2 에서 새 시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본문을 사용한다. 계 7:16 에서는 10 절을 사용하여, 이방인들이 포함됨을 말한다.

49:9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즉, 죄수들, BDB 63, 참조, 42:7; 51:1).

1. 묶여 있는 자들
2. 어두움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1. 나오라 - 칼 명령(BDB 422, KB 425)
2. 나타나라 - 니팔 명령(문자적으로 “네 자신을 드러내라,” BDB 162, KB 191)

49:10 “그들을 공홀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이 본문은 야웨께서 사용된 설명적 호칭이다.

1. 그들을 공홀히 여기는 이 - 피엘 분사(BDB 933, KB 1216)
2. 그들을 이끄는 이 - 피엘 미완료형(BDB 624, KB 675)
3. 그들을 인도하는 이 - 피엘 미완료형(BDB 624, KB 675)

▣ 9 절에서 시작된 공급하심을 나타내는 농업적 표현이 계속되고 있다.

1. 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2.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3.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보호와 풍성한 공급하심을 받으며 용이하게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같은 비유적 표현이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계 7:16 에서 나온다. 야웨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그들의 목자이시다(참조, 시 121:5-6).

49:11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모든 종류의 방해물이 제거되며, 보수되고 평평하게 닦인 길이 만들어 진다(참조, 11:16; 19:23; 62:10).

열방에서 사람들이 야웨를 예배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나아올 것이다. 열방이 도착하였다! 이사야서에서 상당히 자주 고속도로의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1. 포로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대로, 11:16; 57:14
2. 이방인 예배자들이 오는 대로, 19:23
3. 거룩함의 대로, 26:7; 35:8; 43:19; 49:11; 51:10
4. 메시아의 대로, 40:3; 42:16

49:12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 지명의 위치는 불확실하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백성이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그들을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1. NASB, NKJV, 페쉬타 - “시님”
2. NRSV, REB - “스예네”
3. TEV, NIV, NJB - “아스완”
4. 사해사본 - “스예니아 사람들”

이 모든 지명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이집트 남부의 도시(고대와 현대)를 가리킨다(참조, 켈 30:6).

49:13 “하늘이여 . . . 땅이여 . . . 산들이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을 하였다(즉, 44:23).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쁘게 증거한다(참조, 48:1 이하)!

연속적으로 사용된 명령을 주목하여 보라.

1. 노래하라 - 칼 명령(BDB 943, KB 1247)
2. 기뻐하라 - 칼 명령(BDB 162, KB 189)
3. 즐거이 노래하라 - 칼 명령(BDB 822, KB 953)

#### 개역개정 49:14-21

- <sup>14</sup>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 <sup>15</sup>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 <sup>16</sup>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 <sup>17</sup>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 <sup>18</sup>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 <sup>19</sup>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 <sup>20</sup>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 <sup>21</sup> 그 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49:14-21 이 단락은 낙담하고 황무하게 된 예루살렘(즉, 시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다. “잇다”(BDB 1013, KB 1489)가 여러 번 사용되었음을 주목하라.

1. “주께서 나를 잇으셨다” - 칼 완료형
2.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잇겠느냐” - 칼 미완료형
3. “그들은 혹시 잇을지라도” - 칼 미완료형
4. “나는 너를 잇지 아니할 것이라” - 칼 미완료형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신실한 보호하심을 말씀하기 위하여 신인동형적 표현을 사용하신다. 이것은 여성적 표현이다(“어렵고 논란이 있는 본문” 및 “하나님의 여성성”에 대한 설교[111 번 향]를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들으라).

49:15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놀라운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66:9-13). 야웨께서 유모로서 묘사된다. 4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49:16-17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유적 표현이다. 예루살렘이 파괴를 당한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의 새 날’을 바라본다!

49:17

- |       |                     |
|-------|---------------------|
| NASB  | “네 건축자들이 서두른다”      |
| NKJV  | “네 자녀들이 서두른다”       |
| NJB   | “너의 재건축자들이 서두르고 있다” |
| JPSOA | “네 자녀들이 빠르게 오고 있다”  |

UBS 본문 프로젝트(134-135 쪽)는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한다.

1. 너희 아들, *바나익* - 맛소라 본문, 사해사본
2. 너희 건축자들, *보나익* - UBS 는 이것을 “바벨론식 발음”으로 부른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2 행에 “C” 등급(많이 불확실함)을 준다.

2 행에 대하여도 질문이 생긴다.

1. REV - “네 건축자들이 너를 멸망시키는 자들을 앞지른다”
2. NEB- “너를 재건축하려는 자들이 너를 무러뜨린 자들보다 더 빠르다”

이러한 차이는 히브리 자음을 어떻게 발음하는가에 딸린 차이일 뿐이다(UBS 본문 프로젝트, 135 쪽).

49:18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 이 도시가 자녀를 잃은 어머니로 묘사된다(참조, 20-21 절). 그녀의 남편인 야웨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며, 노년에 있어서 면류관인 수 많은 자녀를 주셨다!

야웨께서 돌아온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신다

1. 네 눈을 들라 - 칼 명령(BDB 669, KB 724)
2. 사방을 보라 - 칼 명령(BDB 906, KB 1157)

49:21-22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이 아주 많아서 이 도시가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야웨께 대한 예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즉, 성전).

개역개정 49:22-23

<sup>22</sup>주 여호와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sup>23</sup>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49:22-23 7 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반역을 행한다(참조, 시 2 편). 이제,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다. 이 절은 옛 언약을 위대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본문이다! 이방인들이 야웨의 백성을 높이는 일은 야웨께 대한 그들의 존경심을 나타낸다(참조, 45:14).

49:22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이것은 “내가 못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와 평행을 이룬다. 종이 열방(즉, 이방인들)으로 하여금 모이게 하는 표식/기치가 된다(참조, 11:10,12). 언약 백성이 회복되는 궁극적 이유는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45:23의 특별주제를 보라.

49:23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은 민족들을 향하여 증인이 되어야 했다. 이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야웨를 신뢰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들도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나타낸다(참조, 롬 9-11 장).

▣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라다”라는 개념이 이사야서에서 자주 나온다: 25:9; 26:8; 40:31(시 37:9). 이것은 종을 “신뢰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구는 구약의 주제이다(참조, 45:17; 시 25:3; 율 2:27). 바라는/신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실망하게 되지 않는다!

**개역개정 49:24-26**

<sup>24</sup>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sup>25</sup>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sup>26</sup>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49:24-26 이 단락은 두 번째 출애굽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대국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시고 계신다. 이번의 구출에서도 처음 구출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 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신다(참조, 26c 절; 45:6; 말 1:11).

49:24b

NASB, NRSV, NJB “독재자”  
NKJV “의로운 자”  
REB “공홀이 없는 자”  
JPSOA “승리자”

NKJV의 번역은 맛소라 본문에는 나오지만 사해사본, 시리아역, 벌게이트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온다.

1. 의로운 - 차딕
2. 독재자 - 아리츠

49:25 “내가...대적하고” 이것은 “법정 장면”을 나타낸다. 램 50:34이 이 용법에 대한 설명이 된다. 야웨/중께서 ‘검사에서 변호사’로 바뀌셨다!

49:26d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놀라운 호칭을 또 다시 주목하라(참조, 41:14; 43:14; 44:6,24; 47:4; 48:17; 49:7,26; 54:5,8; 59:20; 60:16; 63:16).

# 이사야 5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도우신다	이스라엘의 희망인 종	언약, 신실함,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50:1-3 (1-3)	50:1-3 (1-3)	50:1-3 (1-3)	50:1 (1)	50:1-3 (1-3)
			50:2-3 (2-3)	
			주님의 종의 순종	종의 세 번째 노래
50:4-11 (4-11)	50:4-6 (4-6)	50:4-6 (4-6)	50:4-6 (4-6)	50:4-11 (4-11)
	50:7-9 (7-9)	50:7-9 (7-9)	50:7-9 (7-9)	
	50:10-11 (10-11)	50:10-11 (10-11)	50:10-11 (10-11)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이것은 종의 세 번째 노래이다(50:4-9).

나. 49:25d 에서 사용한 법정 장면은 종을 변호사로서 제시한다. 여기서 사용한 법정 장면은 언약 백성이 신실하지 않음을 인하여 야웨께서 그들과 이혼하시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 다. 언약 백성의 신실치 않음과 ‘이상적인 이스라엘인이신 중’의 신실함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종이 성취할 것이다!
- 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4-11 절을 세 문단으로 구분하여, 세 가지 주요 진리를 나타낸다.
1. 4-6 절
  2. 7-9 절
  3. 10-11 절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50:1-3

<sup>1</sup>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sup>2</sup>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나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같하여 죽으리라

<sup>3</sup>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베로 덮느니라

50:1 이스라엘의 법적 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고대의 법적 진술이 두 가지 나온다.

1. 신실하지 않은 아내의 이혼(참조, 54:6-7; 렘 3:1,8; 호 2:4)
2. 빚진 자를 종으로 파는 일(참조, 신 32:30; 왕하 4:1; 느 5:5)

자신들의 “죄악”과 “배역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다. 이것은 야웨께서 약하여 생긴 일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반역함을 인하여 일어난 일이다(참조, 59:2).

50:2 이 절에는 4 가지 수사적 질문이 나온다. 1 절에는 이러한 질문이 2 가지 있었다. 처음 두 질문은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 없음을 인하여, 야웨께서 놀라시며 질문하시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심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를 질문하신다!

▣ “내 손이 어찌 짧아” 이것은 같은 어근(BDB 894, KB 1126)을 가진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질문으로 사용되었다.

▣ “구속” 41:4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단어는 “구출하다”와 평행을 이룬다.

개역개정 50:4-11

- <sup>4</sup>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 <sup>5</sup>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 <sup>6</sup>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 <sup>7</sup>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 <sup>8</sup>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 <sup>9</sup>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 <sup>10</sup>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 <sup>11</sup>보라 불을 피우고  
헛불을 둘러 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헛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50:4-6 이 단락은 종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그 자신의 표현으로써).

1. 알아듣게 되심
2. 격려할 수 있게 되심, 4a 절
3. 그가 들으신다
  - ㄱ. 곤고한 자들의 소리(참조, 렘 31:25), 4b 절
  - ㄴ. 야웨, 4c,d, 5a 절
4. 그가 거역하지 않으심, 5b 절
5. 그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심, 5c 절
6. 그가 지도자들에게 고통을 받게 자신을 내어주셨다(참조, 마 26:67; 27:30; 막 15:9)
  - ㄱ. 그가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등을 맡기셨다
  - ㄴ. 그가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자신의 뺨을 맡기셨다

ㄷ. 그가 침 뱉음을 당하셨다

종의 말은 그를 청중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게 할 것이다(참조, 11 절).

50:4a “학자”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단어(BDB 541)로서, 이 의미로는 이곳과 8:16 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대개 “배운”으로 번역되었다(54:13).

50:4b

- NASB, NRSV “곤고한 자를 붙들어 줄 줄을”
- NKJV “곤고한 자에게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줄을”
- TEV “곤고한 자를 강하게 할 줄을”
- NJB “곤고한 자에게 위로의 말을 줄 줄을”
- JPSOA “곤고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로 말할 것을”
- REB “곤고한 자를 위안할 줄을”

맞소라 본문에 나타난 모호성은, “붙들어 주다”(BDB 736, KB 804)가 이곳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50:4c,d “일깨우다”라는 뜻을 가진 *히필 미완료형*(BDB 734, KB 802)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단어의 *히필형*은 어떤 행동을 분기시키는 것 또는 자극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1. 13:17 - 메데인들(렘 51:11)
2. 41:2,25 - 고레스 2 세
3. 45:13 - 고레스 2 세
4. 이 곳 - 중
5. 단 11:2 - 신구약 중간시대의 통치자

야웨께서 세계 역사 및 세상에 대한 구원을 주관하신다!

50:6 순종하는 종에 대한 특별한 이해는 예수께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절은 종의 네 번째 노래인 52:13-53:13(특히, 3,4-5,7-9 절)에 대한 소개이다. 종이 아웨께 바친 충성과 신뢰와 순종을 인하여 높은 보답을 받게 된다(참조, 시편 2 편, 22 편). 그가 고난받으심에 있어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참조, 막 10:45; 고후 5:21; 히브리서).

50:7-9 이 연의 처음 절은 9a 절에서 반복된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이 사실 때문에 종이 다음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1. 부끄러워하다
2. 얼굴을 부딪돌 같이 굳게 하다(참조, 눅 9:51)
3. 수치를 당하다

‘왜 야웨께서 그를 위하여 행하시는가’는 다른 여러 질문을 이끈다(8-9 절). 이 문법적 구조(즉, “누가. . .?”)가 10 절까지 계속된다.

50:8

- NASB, NRSV “변호하신다”
- NKJV, 70 인역 “옳다고 하신다”
- TEV “내가 무죄함을 입증하신다”
- NJB “구원의 정의”
- JPSOA “나를 변호하시는 이”
- REB “내 이름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6-7 절은 불의한 재판에 대하여 다루고, 8 절은 공정한 변호에 대하여 묘사한다. 이 *동사*(BDB 842, KB 1003)는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필 분사*이다(참조, 출 23:7; 신 25:1;

왕상 8:32; 잠 17:15). 이것은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본문인 사 5:23 에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다음의 내용을 묘사한다

1.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을 뜻한다
2. 53:11 에서는 종을 뜻한다

▣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이것은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이 **동사**(BDB 620, KB 670)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재판장에게 가까이 나아감을 뜻한다. 여기서 야웨의 종이 재판장이심을 주목하라.

50:10-11 AB 에서는 이 두 절을 야웨의 종(116 쪽)에 대한 야웨의 반응으로 해석한다(류폴드, 196 쪽). 두 종류의 “빛”이 대조를 이룬다.

1.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두움에 있어, 잘 알지 못하고 있다(10 절)
  - ㄱ.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하라 -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칼 미완료형** (BDB 105, KB 120)
  - ㄴ.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칼 미완료형** (BDB 1043, KB 1612)
2. 자기 스스로 불을 피우고(즉, 불, 47: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칼 명령**)은 결국 그 불에 소멸되고 말 것이다(즉,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11 절)

# 이사야 5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권면을 받는 이스라엘	주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구원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의 말씀	선택받은 백성을 위하여 쌓인 축복
51:1-3 (1-3)	51:1-2 (1-2)	51:1-3 (1-3)	51:1-2 (1-2)	51:1-3 (1-3)
	51:3 (3)		51:3 (3)	
51:4-8 (4-8)	51:4-6 (4-6)	51:4-8 (4-8)	51:4-6 (4-6)	51:4-8 (4-8)
	51:7-8 (7-8)		51:7-8 (7-8)	
				야웨께서 깨심
51:9-11 (9-11)	51:9 (9)	51:9-11 (9-11)	51:9-11 (9-11)	51:9-11 (9-11)
	51:10-11 (10-11)			자문자이신 야웨
51:12-16 (12-16)	51:12-16 (12-16)	51:12-16 (12-16)	51:12-16 (12-16)	51:12-16 (12-16)
	하나님의 분노가 그쳐짐	왕이신 하나님 (51:17-52:12)	예루살렘의 고난이 그침	예루살렘이 갠
51:17-20 (17-20)	51:17-20 (17-20)	51:17-20 (17-20)	51:17-20 (17-20)	51:17-23 (17-23)
51:21-23 (21-23)	51:21-23 (21-23)	51:21-23 (21-23)	51:21-23 (21-2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 적절하게 응답하도록 요청하는 여러 명령이 이 장에 나온다.
1.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라, 51:1,4,7,21
  2. 켜지어다, 51:19[3 회],17[2 회]
  3. 보라, 눈을 들어 보라, 51:1-2,6
- 이러한 강조가 52 장에까지 계속된다.
- 나. 이 문맥의 주제가 일련의 수사적 질문에 의해 제시된다: 51:9-10,12-14; 52:5.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51:1-3

#### <sup>1</sup>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 <sup>2</sup>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 <sup>3</sup>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51:1 “들을지어다” 이것은 *שמע*라는 히브리 단어이다(BDB 1033, KB 1570). 이것은 “행동하기 위해 듣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의 명령형이 이사야서에서 자주 반복된다! 바로 이 단어가 신 6:4-6 에 나오는 유명한 ‘유일신 신앙적 기도’의 처음 단어이다.

▣ “~하는 너희는” 이들은 신실한 언약 백성을 가리킨다(참조, 50:10). 세 가지 구가 이들에 대해 사용되었다.

1. 의를 따르는 자들, 1 절
2.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1 절.
3.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 7 절

“구원”(BDB 841, “의”)이 2 행에 있는 야웨와 평행을 이룬다. 따라서 이것은 호칭, 즉 “의로우신 분”을 뜻한다. “~한 너희는”은 신실한 자들로서 다음과 같은 자들을 나타낸다

1.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1 행
2. 하나님을 찾는 자, 2 행

▣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뜻한다(참조, 2 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즉,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 장소였다(그발 강). 야웨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참조, 창 12:1-3; 15:1-11; 18:18; 22:16-18).

51:2 “너희를 낳은” 이것은 일반적인 출산을 가리킨다(참조, 창 3:16).

▣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야웨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

1. 아브라함을 축복하심 - BDB 138, KB 159, *피엘 미완료형*
2. 그를 창성케 하심 - BDB 915, KB 1176, *히필 미완료형*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를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다음과 같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1. 땅의 티끌(창 13:16; 28:14; 민 23:10)
2. 하늘의 별(창 15:5; 22:17; 26:4)
3. 바닷가의 모래(창 22:17; 32:12)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 어떤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될 것임을 본다. 이 가족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다(참조, 롬 2:28-29; 3:21-31; 4:1-25; 갈 3:1-29; 6:16).

51:3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여” “위로하다”라는 동사(BDB 636, KB 688, *피엘 완료형*)가 1 행과 2 행에서 두 번 나온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이 후반부에서 거듭되는 주제이다(참조, 40:1 [2 회], 49:13; 51:3[2 회], 12, 19; 52:9; 54:11; 61:2; 66:13[3 회]). 이 단어의 *피엘형*이 가지는 기본적 의미는 “위로하다” 또는 “위안하다”이다. 이 용어는 포로됨을 끝나게 하여 그들을 기쁨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킴을 나타낸다(참조, 40:1). 이것은 신 27-28 장에 있는 언약적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심을 말한다.

▣ “황폐한 곳들을...그 사막을...그 광야를” 물질적인 면에서의 아름다움과 결실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의 표이다(참조, 레 26 장; 신 27-29 장). 에덴에 대한 언급은 풍요함 뿐 아니라 현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 에덴은 하나님의 전이었다(참조, 존 H. 왈튼, *고대 근동의 사상과 구약*, 124 쪽).

#### 특별주제: 에덴

에덴은 창 2-3 장에 나오는 장소이다(즉, 우가릿어에서는 “평지”). 이 곳에는 특별한 정원이 있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뛰어난 피조물(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참조, 창 1:26-27)인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곳이다(참조, 창 2:8). 이 특별한 동산에 대하여 사 51:3; 겔 28:13; 31:9, 16, 18[2 회]; 36:35; 율 2:3 에서 암시하고 있다.

“풍성함”이라는 뜻을 이 단어의 아람어 어근이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BDB 727 III, 792 II)에서는 이 단어의 어근이 “즐거워함” 또는 “쾌락”(문자적으로)을 나타낸다. 이 용어는 창세기 이후에서, 물이 잘 공급되어 많은 결실을 내는 장소를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이것은 행복한 사회 생활을 뜻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나타내는 표이다.

51:4-8 영어 성경에서 **인칭 대명사**가 여러 번 나타남을 주목하라.

1. 야웨
  - ㄱ. 그, 4c, d, 8a
  - ㄴ. 야웨, 4a, 5a, 7a
2. 종/메시아
  - ㄱ. 나를, 4a, c, 6a, 7a, 8a, b, d, e

ㄴ. 내가, 4b, 5b,c, 6a,c, 7b,c,d

ㄷ. 나의, 4d, 5a, 6a,b,c, 7c

와! 야웨께서 이 종과 얼마나 친밀하게 계시며, 또 그에게 얼마나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계신지!

51:4 1 행과 2 행 사이의 평행법을 주목하라. 명령이 다음과 같이 평행법을 이룬다:

1. 주의하라 - BDB 904, KB 1151, *히필 명령*,
2. 귀를 기울이라 - BDB 24, KB 27, *히필 명령*

3 행과 4 행도 평행법을 이룬다. 야웨의 가르침(토라, BDB 435)이 축복을 위한 것임을 주목하여 보라:

1. 이스라엘
2. 온 세계(참조, 42:6; 49:6; 60:1,3); 51:5b 의 “백성들”과 51:5c 의 “해변 거민들”이 복수형임을 주목하라;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야웨의 종을 기다린다

▣ “율법...공의” 이 두 명사가 서로 평행을 이룬다. 그들이 야웨의 진리 및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이제 모든 이들이 이것(즉, 성경, 계시)을 누리게 되었다.

#### 개역개정 51:4-8

<sup>4</sup>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sup>5</sup>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sup>6</sup>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sup>7</sup>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sup>8</sup>옷 같이 쪼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 같이 쪼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51:5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 동사(BDB 422, KB 425)는 *칼 완료형*이다. 이 시행은 46:13 과 평행을 이룬다. 야웨께서 ‘자신의 종을 통하여 또 종 안에서’ 행동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5 절은 열방의 영적 배고픔에 대하여 말한다. 이스라엘이 무사안일 주의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적 배고픔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긴다!

▣ “내 팔” 이것은 9 절; 52:10 에 나오는 경우와 같이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 이것은 역사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4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51:6 “하늘이 연기 같이 사라지고” 하늘과 땅은 이전에 증인이었다. 그런데 이들조차 사라질 것이다(참조, 65:17; 66:22; 뱀후 3:10).

▣

NASB(각주),NKJV,

NRSV “하루살이”

TEV, REB “파리”

NJB “해충”

JPSOA “또한”

이것은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구이다. 이 용어의 복수형을 종종 “하루살이”로 번역하였다(BDB 485 I).

▣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마지막 두 행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간의 유한성 및 피조물의 유한성과 비교하고 있다(참조, 12 절; 40:6-8; 욕 14:1-2; 시 90:5-6; 103:15-18; 마 24:35; 히 1:10-12; 뱀전 1:24-25).

51:7 “너희는 듣고”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또 하나의 단어이다(참조, 1 절).

▣ “~한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라.

1. 의를 아는 자들아, 7a 절
2.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7b 절

그들이 가진 지식을 인하여

1. 너희는 . . . 두려워하지 말라 - 7c, BDB 431, KB 432,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칼 미완료형**
2.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 7d, BDB 369, KB 365,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칼 미완료형**

▣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모세의 글에서 이 관용어는 ‘진리를 잘 알고 있고 또 항상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출 28:29; 신 6:6). 이 구는 지혜문학(참조, 잠 3:3; 7:3; 시 37:31; 40:8) 및 예언서(참조, 사 51:7; 렘 17:1)에서도 나온다.

51:8 “좁이 . . . 좁별레가” 이 문맥에서 여러 곤충을 언급한다(참조, 6 절[NASB 각주], “하루살이”). 14:11 과 66:24 에 나오는 “구더기”는 죽음과 멸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자연이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 버린다!

▣ “나의 공의는 . . . 나의 구원은” 이 표현은 5 절에서도 평행을 이루었다. 5 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밖으로 나갔는데, 여기서는 영원히 남아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45: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개역개정 51:9-11

<sup>9</sup> 여호와와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sup>10</sup>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sup>11</sup>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51:9 “깨소서 깨소서” 세 번 나오는 이 명령(BDB 734, KB 802, 칼 명령)이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1) 9 절에서는 하나님 쪽에서 (2) 17 절에서는 이스라엘 쪽에서(참조, 52:1,11).

▣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것은 출애굽 때에 하신 야웨의 행동을 암시한다(참조, 출 6:6; 신 4:34; 5:15; 26:8).

▣ “라합...용” 이 단어(KB 1193)는 세 가지 용법을 가진다.

1.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 - 사 51:9; 욥 9:13; 26:12; 시 74:13; 89:10; 148:7

2. 나일강이 꼬인 것에 기초하여 이집트를 은유적으로 가리킴 - 사 30:7; 시 87:4; 겔 29:3

3. “교만함”(NASB, BDB 923) 또는 야웨의 적 - 시 40:5

1 항은 욥 7:12 에서 용(BDB 49)으로 표현되고 있다.

51:10 “깊은 곳” 이것은 수메르와 바벨론의 창조 기사에서 사용한 신화적 용어이기도 하다.

성경에서는 신(참조, 1:2)을 의미하지 않고 물의 깊음을 의미한다 - *티아맛*(BDB 1062, 63:13).

▣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이것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신 일을 암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참조, 출 14 장, 15 장).

51:11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하여 내셨듯이, 앗시리아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 “영원한 기쁨” “영원한”이라는 용어는 *올람*(BDB 761)이라는 단어이다. 45: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사야는 새 시대를 묘사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1. 영원한 언약, 24:5; 55:3; 61:8

2. 야웨께서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26:4

3. 영원한 기쁨, 35:10; 51:11; 61:2

4. 영원하신 하나님, 40:28

5. 영원한 구원, 45:17

6. 영원한 인자하심(*헷세드*), 54:8

7. 영원한 통치, 55:13

8. 영원한 이름, 56:5; 63:12,16

9. 영원한 빛, 60:19,20

악인에 대한 영원한 형벌과 관련을 가지는 부정적 용법이 33:14 에서 사용되었다(“영원히 불탐”). 이사야서에서는 종종 “불”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는데(참조, 9:18,19; 10:16; 47:14), 여기서만 “영원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참조, 단 12:2).

**개역개정 51:12-13**

<sup>12</sup>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나  
너는 어떠한 자이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sup>13</sup>하늘을 찢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51:12 “사람을 ...사람의 아들을” 이것은 인간을 지칭하는 히브리어적 표현이다(참조, 시 8:4; 겔 2:1). 이 용어는 후에 예수임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이 용어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며, 단 7:13 에서와 같이 그의 신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었다.

**특별주제: 인자(단 7:13 의 나의 주석에서 따온 내용임)**

아람어 구(“벤 *에노쉬*,” BDB 1085 와 1081)인 “인자”는 시편과 에스겔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히브리어 구(“벤 *아담*”)와 다르다. 욥 25:6; 시 8:4; 90:3; 144:3; 사 13:12 에서 두 개의 구 모두가 평행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인성과 연결된다(참조, 8:17; 욥 25:6; 시 8:4; 겔 2:1). 이것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구름은 신성을 의미(참조, 마 24:30; 26:64; 막 13:26; 14:62; 계 1:7; 14:14)하며 아람어와 히브리어 구인 “인자”는 인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구를 자신에 대해 사용하신다. 이것은 랍비적 유대교에서 메시아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었다. 이 구는 배타성 혹은 민족적 군사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 구는 메시아를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독특하게 나타낸다(참조, 요일 4:1-3). 이러한 신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책이 다니엘서이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의미로 이 용어를 자신에게 대해 사용하셨다.

1.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예, 막 8:31; 10:45; 14:21; 눅 9:22,44)
2. 예수께서 심판자로서 오심(예, 마 16:27; 25:31; 요 5:27)
3.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그가 영광 중에 오심(예, 마 16:28; 19:28; 막 13:26-27; 14:62)

유대인 연구 성경 1657 쪽(또한 조지 E. 라드의 신약신학 136-139 쪽을 보라)에는 이 본문에 대한 후기에 속하는 유대적 전통의 목록이 있다.

1. 이 문맥은 메시아를 나타낸다(참조, 예눅 I 서 46:1; 48:10; 에스라 4 서[에스드라서 2 서] 13 장; b. Sanh. 98a)
2. 이 문맥에 있는 모든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다(참조, b. Sanh. 97a)
3. 이 문맥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참조, 창세기 Rab. 98:2)
4. 이 문맥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참조, 이븐 에스라와 라쉬)

▣ “죽을 사람을 . . .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 이 평행법은 인간의 연약성과 생명의 제한성을 강조하여 나타낸다(참조, 40:6,7; 욥 14:1-2; 시 90:5-6; 103:15; 뱀전 1:24). 이 문맥은 뱀 1:24-25 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심을 ‘피조물의 보잘것 없는 능력과 영원하지 못함’을 비교하여 제시한다(즉, 13 절에서 창조자이신 야웨).

51:13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웨가 아니라 바알을 ‘창조주요 생명과 번성함을 주는 이’로 섬긴 우상숭배를 암시적으로 말하는 내용일 것이다. 우상숭배를 인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압제자들의 압제를 받게 되었다.

**개역개정 51:14-16**

<sup>14</sup>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sup>15</sup>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sup>16</sup>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찢으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51:14 이 절은 감옥에 갇힌 자가 풀리게 될 것을 묘사한다, “구덩이”(BDB 1001, KB 1472)는 다음의 항목을 뜻할 수 있다

1. 무덤 또는 스올 - 욥 33:22,24,28; 시 16:10; 49:9
2. 여기서는 “감옥”과 평행을 이룬다

51:15 9-11 절의 경우와 같이, 이 절은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놓아주시심을 암시한다. 9 절과 10 절의 경우처럼, 이 본문은 창 1 장의 내용, 즉 야웨께서 물을 나누시고 주관하심을 시사한다. 10 절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51:16 이 절에는 칼 부정사가 세 번 나온다.

1. 찢으며(BDB 642, KB 694)
2. 기초를 정하며(BDB 413, KB 417)
3. 말하기 위함이니라(BDB 55, KB 65)

문맥에서 이 절은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돌아옴과 관련을 가진다. 한편, 부정사들이 의미하는 내용은 너무나 커다란 일이어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이다. 따라서 이 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이신 “중”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 분께서는 이스라엘이 성취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40-51 장에서는, “중”이라는 칭호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41:8-9; 42:1,19; 43:10)에서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뀐다(49:1-7; 52:13-53:12).

**개역개정 51:17-20**

<sup>17</sup>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sup>18</sup>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sup>19</sup>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라

20 네 아들들이 곧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와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51:17-20 야웨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끝이 난 하나님의 심판을 떨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오도록 준비하기’를 격려하고 계신다!

51:17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것은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연속적으로 사용된 세 가지 명령이다.

1. 깰지어다 - *히트폴렐* 또는 *히트파엘* (BDB 734, KB 802)
2. 반복됨
3. 일어설지어다 - *칼* (BDB 877, KB 1086)

▣ “잔...큰 잔” 이 들은 평행을 이룬다. 이것은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독한 술이 담긴 잔’으로써 심판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29:9; 63:6; 욥 21:20; 시 60:3; 75:8; 렘 25:15-16; 51:17; 애 4:21; 겔 23:32-34). 이 용법을 신약에서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 마 20:22; 26:38-42; 막 14:36; 눅 22:42; 요 18:11
2. 짐승을 섬기는 자들에게 - 계 14:10; 16:19; 19:15

51:19 언약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여 보라.

1. 황폐(BDB 994)
2. 멸망(BDB 991)
3. 기근(BDB 944)
4. 칼(BDB 352)

바벨론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위로하는 분이시다(참조, 3,12 절; 40:1).

51:20 앗시리아와 바벨론이 성읍을 침략하였을 때에, 그들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지도자들을 잘 보이는 장소(즉, “모든 거리의 머리”)에서 죽였다. 이제 이 악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

개역개정 51:21-23

21 그러므로 너 곧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22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23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1:21-23**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잔을 취하실 것임을 약속하신다. 이 잔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황폐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이것을 주신다. 앗시리아와 바벨론은 자기들이 심은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참조, 17:10; 32:19; 갈 6:7-10)!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51:23 “우리가 넘어가리라”** 패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을 짓밟는 이 일이 이집트 벽화에서 묘사되고 있다(참조, IVP 성경배경주석, 633 쪽).

1. “업드리라” - 칼 명령(BDB 1005, KB 1457)
2. “넘어가리라” - 칼 지시형(BDB 716, KB 778)

# 이사야 52:1-12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엎어져 있는 시온을 위하여 선택되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51:17-52:12)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출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해방
52:1-2 (1-2)	52:1-2 (1-2)	52:1-2 (1-2)	52:1-2 (1-2)	52:1-2 (1-2)
52:3-6	52:3 (3)  52:4-6 (4-6)	52:3-6	52:3-6	52:3-6 (3-6)
52:7-10 (7-10)	52:7-10 (7-10)	52:7-10 (7-10)	52:7-8 (7-8)  52:9-12 (9-12)	52:7-12 (7-12)
52:11-12 (11-12)	52:11-12 (11-12)	52:11-12 (11-12)		
높임을 받은 종	죄를 진 종의 노래 (52:13-53:12)	종의 네 번째 노래 (52:13-53:12)	고난받는 종 (52:13-53:12)	종의 네 번째 노래 (52:13-53:12)
52:13-15 (13-15)	52:13-15 (13-15)	52:13-15 (13-15)	52:13-15 (13-15)	52:13-15 (13-1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51 장은 52:12 까지 계속된다.

나. 여러 종류의 사람에게 대하여 명령이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라(52:1-52:12).

1. 오, 내 백성아...오, 내 족속아(51:4-8)
  - ㄱ. 주의하여 들어라 - *히필*(BDB 904, KB 1151)
  - ㄴ. 귀를 기울이라 - *히필*(BDB 24, KB 27)
  - ㄷ. 네 눈을 들라 - *칼*(BDB 669, KB 724)
  - ㄹ. 보아라 - *히필*(BDB 613, KB 661)
  - ㅁ. 들어라 - *칼*(BDB 1033, KB 1570)
2. 오, 야웨의 팔이여(51:9-11)
  - ㄱ. 깨소서 - *칼*(BDB 734, KB 802)
  - ㄴ. 깨소서 - “ㄱ”항과 같음
  - ㄷ. 입으소서 - *칼*(BDB 527, KB 519)
  - ㄹ. 깨소서 - “ㄱ”항과 같음
3. 오, 예루살렘아(51:17-23)
  - ㄱ. 깰지어다 - *히트폴렐* 또는 *히트파엘*(BDB 734, KB 802)
  - ㄴ. 깰지어다 - “ㄱ”항과 같음
  - ㄷ. 일어날지어다 - *칼*(BDB 872, KB 1086)
4. 오, 시온아, 오, 예루살렘아(52:1)
  - ㄱ. 깰지어다 - *칼*(BDB 734, KB 802)
  - ㄴ. 깰지어다 - “ㄱ”항과 같음
  - ㄷ. 입을지어다 - *칼*(BDB 527, KB 519)
  - ㄹ. 입을지어다 - “ㄷ”항과 같음
5. 오, 포로된 자들아(52:1)
  - ㄱ. 흔들어라 - *히트파엘*(BDB 654, KB 707)
  - ㄴ. 일어나라 - *칼*(BDB 877, KB 1086)
  - ㄷ. 풀어라 - *히트파엘* (BDB 605, KB 647[맛소라 본문에서는 남성형이지만 *케레*에서는 여성형임])
6. 분명히 밝히지 않은 자들(52:9-10, 1 항, 3 항, 4, 항 또는 5 항이 적합함)
  - ㄱ. 갑자기 내라 - *칼*(BDB 822, KB 953)
  - ㄴ. 즐거운 소리를 발하라 - *파엘*(BDB 943, KB 1247)
7. 분명히 밝히지 않은 자들(52:11-12, 1 항, 3 항, 4 항, 또는 5 항이 적합함)
  - ㄱ. 떠나라 - *칼*(BDB 693, KB 747)
  - ㄴ. 떠나라 - “ㄱ”항과 같음
  - ㄷ. 나가라 - *칼*(BDB 422, KB 425)
  - ㄹ.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BDB 619, KB 668)
  - ㅁ. 나가라 - “ㄷ”항과 같음
  - ㅂ.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 *니팔*(BDB 140, KB 162)

##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52:1-2

<sup>1</sup>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sup>2</sup>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52:1-2 “꺾지어다 꺾지어다...털어 버릴지어다...스스로 풀지어다” 이것은 51:9,17 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명령이 사용된 문맥이다(문맥적 통찰의 나향을 보라). 많은 이들이 47:1 이하에 기록된 바벨론 성의 반대되는 상황과 이 본문을 서로 대조시킨다.

52:1e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속받음에서 제외됨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이 더 이상 약속의 땅을 공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계 21:27 에서 요한이 사용한 묘사의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52:2

NASB, NRSV,

NJB, NET “포로”

NKJV “앉을지어다”

70 인역, 별게이트,

TEV, JPSOA “앉을지어다[네 보좌에]”

맛소라 본문에서는 “앉을지어다”(BDB 442, KB 444, *칼 명령, 쉰비*)이다. 하지만 후기에 속하는 본문에서는 *숄아*(BDB 985)로서 “포로”로 나타난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앉을지어다”에 B 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이스라엘이 일어나 자신의 보좌에 앉게 된다.

▣ “풀지어다” 이것은 맛소라 본문에서는 남성 복수형인 *히트파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형태를 맛소라 학자들이 여성 단수형으로 제시한 경우(*케레*)이다.

개역개정 52:3-6

<sup>3</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sup>4</sup>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sup>5</sup>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sup>6</sup>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52:3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절을 반드시 45:3 에 비추어 이해하여야 한다. 고레스가 유대인들로부터 값을 받지 않고 그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고레스는 앗시리아와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했던 재배치 정책을 환원시켰다. 그는 붙잡혀 온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본향에 돌아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왕국의 권위를 세우려 하였다. 또한 미신적이었던 고레스는 돌아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신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원하였다.

52:4-5 5 절이 비록 바벨론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내용이다. 이 두절은 과거에 있었던 압제를 바라보는 내용이다(즉, 이집트와 앗시리아). 신학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야웨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었다(참조, 43:22-24; 50:1).

52:4 “**애굽...앗수르**” 이들은 바벨론 이전에 있던 유다의 숙적이었다(참조, 10:5 이하).

52:5 히브리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견해가 있다.

1. 통치자들(“다스리는 자들,” BDB 605, KB 647, **칼 분사**)
  - 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인하여 “울부짖는”(BDB 410, KB 413, **히필 미완료형**)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 ㄴ.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함을 ‘조롱함’

▣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 동사(BDB 610, KB 658)는 드물게 사용된 형태인 **히트폴렐형**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상태와 관련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함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인하여서 행하실 것이다(참조, 48:11; 겔 20:9,14,22,44; 36:19-20,22-23; 단 9:17-19; 롬 2:24).

52:6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은’ 그가 언약을 새로 세우심을 나타낸다. 그의 이름이 또 다시 의미있게 될 것이다!

**특별주제: 야웨라는 “이름”**

야웨 자신을 나타내는 “이 이름”의 사용은 출 23:20-33 과 평행을 이룬다. 그 본문에서는 이 이름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라고 불리는 “천사”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대치는 “그의 영광”(예, 요 1:14; 17:22)이라는 표현에서도 보여진다. 이 모든 경우는 야웨의 직접적이고 신인동형적 임재하심을 부드럽게 나타내기 위한 시도이다(참조, 3:13-16; 6:3). 분명히 야웨께서 인간의 말로 말씀하셨지만, 야웨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계심을 그의 창조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참조, 왕상 8:27; 시 139:7-16; 렘 23:24; 행 7:49 은 사 66:1 을 인용함).

“이 이름”이 야웨의 신적 본질과 그의 인격적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예가 있다:

1. 신 12:5; 삼하 7:13; 왕상 9:3; 11:36
2. 신 28:58
3. 시 5:11; 7:17; 9:10; 33:21; 68:4; 91:14; 103:1; 105:3; 145:21
4. 사 48:9; 56:6
5. 겔 20:44; 36:21; 39:7
6. 암 2:7
7. 요 17:6,11,26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즉, 예배하는) 개념은 이른 시기에 속하는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1. 4:26, 셋의 가게
2. 12:8, 아브라함
3. 13:4, 아브라함
4. 16:13, 하갈
5. 21:33, 아브라함
6. 26:25, 이삭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1. 5:23,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다
2. 9:16, 온 땅에 나의 이름을 나타내라(참조, 롬 9:17)
3. 20:7,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참조, 레 19:12; 신 5:11; 6:13; 10:20)
4. 20:24,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참조, 신 12:5; 26:2)
5. 23:20-21, 천사(“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6. 34:5-7, 모세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다(또는 “소리쳐 부르다”). 이것은 야웨의 성품을 묘사하는 여러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느 9:17; 시 103:8; 율 2:13).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은 친밀함을 나타낸다(참조, 출 33:12). 모세는 여호와와 이름을 알았고, 33:17에서 볼 때 여호와는 모세의 이름을 아셨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문맥(참조, 18 절)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과 평행을 이루는(19 절) “자신의 선하심”을 보도록 허락하신다(19 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신의 “이름”을 파괴해야 하고(참조, 신 12:3)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특별한 장소(참조, 출 20:24; 신 12:5,11,21; 14:23,24; 16:2,6, 11; 26:2)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한다(참조, 신 6:13; 10:20; 26:2).

야웨는 자신의 이름과 관련하여 우주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1. 창 12:3
2. 출 9:16
3. 출 19: 5-6
4. 신 28:10,58
5. 미 4:1-5

▣ “그 날에는” 다음의 특별주제에서 8세기 선지자들에 대하여 내가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라.

**특별주제: 그 날**

“그 날” 혹은 “그 날에”라는 이 구는 8세기의 선지자들이 심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방문하심(임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1:11	1:5		1:14 (2)		2:4
	2:3		2:16		3:6
2:15			3:14	4:6	
2:16			5:18 (2)		5:10
2:21	3:18 (2)		5:20		7:4
	5:9		6:3	7:11 (2)	
	7:5		8:3	7:12	
	9:5		8:9 (2)		
	10:14		8:10		
		9:11	8:13		

이것은 선지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행동을 취하시려고 하신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자들에게 회개와 용서함의 날을 주신다! 구속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백성을 갖게 되신다. 창조의 목적(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이 성취될 것이다!

■	
NASB, NJB, REB	“바로 여기에 내가 있느니라”
NKJV	“보라, 바로 내니라”
NRSV	“바로 여기 내가 있느니라”
JPSOA	“이제 내가 목전에 있느니라”
70 인역	“내가 여기 있느니라”
폐쉬타	“바로 내니라”

일반적으로 이 구는 인간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하는 응답을 나타낸다(즉, 창 22:1,11; 출 3:4; 사 6:8).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하심과 능력 및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수 있으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신 경우로써 이사야서에서만 나온다(참조, 58:9; 65:1).

**개역개정 52:7-10**

<sup>7</sup>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sup>8</sup>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sup>9</sup>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sup>10</sup>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52:7-9 이 본문에서는 (1) 정부의 메신저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참조, 7 절)과 (2) 성문에 있는 파수꾼(참조, 9 절)이 도시 전체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는 일과 관련된 은유적 표현이 나온다. 이 도시는 시온이며, 좋은 소식은 ‘야웨께서 자신이 회복시키신 백성의 왕으로서 다시금 통치하신다’는 내용이다.

52:7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BDB 142, KB 163, *피엘 분사*, 2 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된 소식”에 대한 본문인 롬 10:15 에서 암시되었다(참조, 사 52:13-53:12).

-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에 사용된 평행법적 표현을 주목하여 보라.
1. 평화(BDB 1022)
  2. 행복/좋은(BDB 373 I)
  3. 구원(BDB 447)

**특별주제: 평화(shalom)**

이 히브리 용어(BDB 1022, KB 1532)는 셈족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 가. 아카디아어
  - 1. 무사한 것
  - 2. 잘 지낸다
  - 3. 좋은 상태에 있는 것
- 나. 우가릿어(가나안어)
  - 1. 무사한 것
  - 2. 건강한
- 다. 아라비아어
  - 1. 건강하게 있는 것
  - 2.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
- 마. 아람어
  - 1. 완전하게 된 것
  - 2. 끝/완성에 이른 것
  - 3. 평화로 끝맺다
  - 4. 무사하게 지내다
- 바. 히브리어의 함축적 의미
  - 1. 완성
  - 2. 건실
  - 3. 번영
  - 4. 평화

오늘날 **shalom**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의 첫 인사와 끝 인사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악의 부재와 선(즉, 만족한 삶)의 현존을 나타낸다. 이것은 안전과 만족에 대한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BDB 573, KB 590, **칼 완료형**)은 24:23의 성취이다. 이것은 아주 잘 알려진 예배 의식을 반영하는 표현일 것이다(참조, 시 93:1; 96:10; 97:1; 99:1).

52:8

NASB, TEV, NJB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리로다”

NKJV “그들이 눈과 눈이 보리로다”

NRSV “명확하게 그들이 보도다”

JPSOA “모든 눈이 보게 되리로다”

NET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눈으로 보리로다”

맞소리 본문에서는 “눈과 눈”으로 되어 있다. 류폴드는 자신의 이사야서 주석에서 좋은 설명을 하고 있다.

“‘눈과 눈’이라는 구는 히브리어와 영어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어에서는 어떤 사람의 접근방법에 완전히 동의하며 서로 같은 세계관을 가짐을 의미한다. 히브리어에서 이 구는 “눈 앞에 닥침”을 의미하여, 다가 오고 있는 사람 눈의 흰자위를 네가 볼 수 있도록 어떤 것이 가까이 있음을 뜻한다” (219 쪽).

52:10 야웨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참조, 창 12:3; 출 19:4-6). 그러나 그들이 언약에 불성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됨에서 구출하심으로써(처음에는

이집트로부터, 그 다음엔 앗시리아로부터, 또 지금은 바벨론으로부터),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이 동사(BDB 362, KB 359, **칼 완료형**)는 야웨께서 구원/행동을 취하실 준비가 되셨음(참조, 겔 4:7)을 나타내는 신인동형적 표현이다(41:2의 특별주제를 보라).

“펴신 팔”이라는 구도 종종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낸다(참조, 출 6:6; 신 4:34; 5:15; 26:8). 51:9의 설명을 보라.

▣ “열방의 목전에서” 이것은 다음 구인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와 평행을 이룬다. 이 구도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와 평행을 이룬다(40:5; 또한 욥 2:28에서 전 세계를 뜻하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표현을 보라).

#### 개역개정 52:11-12

<sup>11</sup>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sup>12</sup>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52:11-12 이 두 절은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로서(참조, 11d 절),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위하심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고 계심을 나타낸다(참조, 12 절).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는 경고의 말씀이다!

돌아오는 자들은 야웨의 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참조, 스 1:5-11; 5:14; 6:8; 또한 대하 4장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보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물품(즉, 그 민족 및 그들의 우상들이 폐함을 상징함)을 가지고 나왔듯이 바벨론에서도 그리하였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포로로 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함에 있어서, 이사야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을 사용하였는가?
2. 창조와 출애굽 사건은 사로잡혀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격려를 주었는가?
3. 51:16은 누구에 대한 내용인가?
4.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 이사야 53 장 (52:13-53:12)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고난받는 종	죄를 담당하는 종 (52:13-53:12)	종의 네 번째 노래 (52:13-53:12)	고난받는 종 (52:13-53:12)	종의 네 번째 노래 (52:13-53:12)
53:1-3 (1-3)	53:1-3 (1-3)	53:1-3 (1-3)	53:1-3 (1-3)	53:1-7 (1-7)
53: 4-6 (4-6)	53: 4-6 (4-6)	53: 4-6 (4-6)	53: 4-6 (4-6)	
53:7-9 (7-9)	53:7-9 (7-9)	53:7-9 (7-9)	53:7-9 (7-9)	
				53:8-9 (8-9)
53:10-12 (10-12)	53:10-12 (10-12)	53:10-12 (10-12)	53:10-12 (10-12)	53:10 (10)
				53:11 (11)
				53:12 (1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이 장은 야웨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의 사역과 정체를 이해함(신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이 본문을 인용하거나 암시하고 있는 신약의 본문을 주목하라.

1. 52:15 - 롬 15:21
2. 53:1 - 롬 10:16; 요 12:38

3. 53:3 - 눅 18:31-33(암시); 막 10:33-34(암시); 요 1:10-11(암시)
4. 53:4 - 마 8:17; 뵤전 2:24(암시)
5. 53:5 - 롬 4:25(암시); 고전 15:3(암시); 히 9:28(암시); 뵤전 2:24-25(암시)
6. 53:6 - 뵤전 2:25(암시)
7. 53:7-8 - 마 26:63(암시); 마 27:12-14(암시); 막 14:61(암시); 막 15:5(암시); 눅 23:9(암시); 요 19:9(암시); 행 8:22-23(인용); 뵤전 2:23(암시)
8. 53:9 - 마 27:57-60(암시); 뵤전 2:22
9. 53:10 - 요 1:29(암시); 막 10:45(암시)
10. 53:11 - 요 10:14-18(암시); 롬 5:18,19(암시); 뵤전 2:24(암시)
11. 53:12 - 눅 22:37; 고후 5:21(암시); 빌 2:6,7(암시)

나. 대속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신약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있음을 인하여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내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바 편향은 이 문맥에 대한 나의 이해에서 더욱 드러난다. 구약을 반드시 당시의 시대적 배경(즉, 저자의 의도) 및 성경 전체와의 관계(딤후 3:16)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계시를 통하여 구약을 읽어야만 한다.

- 다. 나는 강력하면서도 독특한 이 구약의 노래/시를 접근하는 유용한 방법으로서는 다음의 방법을 제안한다
1. 연을 파악하라
  2. 화자를 파악하라
  3. 메시지의 개요를 파악하라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52:13-15

- <sup>13</sup>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sup>14</sup>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sup>15</sup>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52:13 “형통하리니” 이 동사(BDB 968, KB 1328, *하필 미완료형*)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고려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생각하다 - 사 41:20; 44:18; 신 32:29; 시 64:9
2. 번영하다, 성공하다 - 삼상 18:15; 사 52:13; 램 20:11; 23:5

문제의 핵심은 어떤 것이 “높이 들리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다”라는 동사와 가장 평행을 잘 이루는가에 있다. 종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2. 높이 들릴 것이다

두 가지 사항이 44-55 장의 문맥에 잘 들어 맞는다.

▣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동사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질문은 그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1. 받들리게 된다 - BDB 926, KB 1202, *칼 미완료형*, 참조, 6:1; 57:15
2. 높이 들리게 된다 - BDB 669, KB 724, *니팔 완료형*(*와브*와 더불어), 참조, 6:1; 33:10; 57:15
3.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 BDB 146, KB 170, *칼 완료형*(*와브*와 더불어), 참조, 5:16

52:14

NASB, NKJV, 70 인역 “너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NRSV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NJB “그에 대하여 겁에 질렸거니와”  
JPSOA “그에 대하여 질겁하였거니와”  
REB “그를 보고 움츠러들었거니와”  
폐쉬타 “그에게 놀랐거니와”

맛소라 본문에서는 “너”(알레카, 또한 70 역도 그러함)로 되어 있는데, 탈군과 일부 시리아역에서는 “그”(엘라브)로 읽는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너”에 B 등급을 준다.

종의 노래에서 공동체에 강조점을 두는 것(“너”)과 개인에게 강조점을 두는 것(“그”) 사이에 유동성이 있다. 한 분의 ‘이상적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참조, 53:8)와 인류 전체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였다!

▣ “내 백성” 이 구는 맛소라 히브리 본문에 들어 있지 않다.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명의 이스라엘, 곧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종을 제시한다.

▣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산헤드린과 로마 군인들에게 심하게 맞으셔서, 사람들이 예수를 거의 알아볼 수 없도록 되셨다. 랍비들은 메시아께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심을 이 절이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

NASB, NKJV “뿌리다”  
NRSV, JPSOA, NET “경악하다”  
NJB, 70 인역 “깜짝 놀라다”  
폐쉬타 “정화하다”

이것은 제사와 관련을 가진 용어이다(BDB 633 I, KB 683, *히필 미완료형*, 참조, 출 29:21; 레 4:6; 8:11; 14:7). 많은 현대 번역본에서는 아랍어 어근을 반영하는 “경악하다”(BDB 633 II, “뛰어 오르게 하다”)로 번역한다. 이것은 70 인역과 벌게이트역을 따르는 번역이다.

중요한 점은 “왕들이 무엇을 듣고 보았는가?”이다

1. 상함을 입은 자(14 절; 53:5)
2.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 자(13 절)

15a 절의 동사는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가?

1. 기쁨으로 놀라다
2. 충격으로 놀라다
3. 희생제물로서 뿌려지다(참조, 53:4-5,10)

개역개정 53:1-3

<sup>1</sup>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sup>2</sup>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sup>3</sup>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3: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말하고 있는 사람(복수형)이 누구인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1) 유대의 신실한 남은 자 또는 (2) 선지자들일 것이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을 이해하였음이 분명하다(참조, 요 12:38; 롬 10:16)! 그러나 어느 날 땅의 왕들이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참조, 52:15; 빌 2:6-11)!

“믿었느냐”(BDB 52, KB 63, *히필 완료형*)에 대하여는 4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여호와와 그의 팔” 이것은 야웨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신인동형적 표현이다(참조, 51:9; 52:9,10; 신 5:15, 4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여기서의 종의 사역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53:2 “연한 순 같고” 이것(BDB 413)은 그가 낮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하심을 가리킨다. 이것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용어인 “가지”(BDB 666, 참조, 사 4:2; 11:1,10)와 의미적으로 관련을 가진다. 둘 다 사 11:1 에서 사용되었다.

특별주제: 나사렛 예수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헬라어 용어가 여러 개 있다.

가. 신약의 용어

1. 나사렛 - 갈릴리의 도시이다(참조, 눅 1:26; 2:4,39,51; 4:16; 행 10:38). 이 도시는 당시의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후기의 비문에서는 나온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것은 찬사가 아니었다(참조, 요 1:46).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있던 죄패에 기록된 이 지명은 유대인들의 경멸을 나타낸다.
2. 나자레노스 - 지형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눅 4:34; 24:19)
3. 나조라이오스 - 도시를 가리키지만, 또한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가지”와 관련된 언어 유희일 것이다(*벧체르*, BDB 666 [또한 이와 관련된 용어], 참조, 사 4:2; 11:1; 53:2; 렘 23:5 [BDB 855]; 33:15; 슥 3:8; 6:12; 신약에서는 계 22:16). 누가는 18:37 과 행 2:22; 3:6; 4:10; 6:14; 22:8; 24:5; 26:9 에서 이 단어를 예수께 대해 사용한다.
4. 3 항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 나지르는 “맹세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을 가리킨다.

나. 신약 이외의 곳에서의 역사적 용법.

1. 이것은 유대인(기독교 시대 이전)의 이단 단체를 가리켰다(아람어인 *나소라이야*).
2. 유대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하였다(참조, 행 24:5,14; 28:22, *노스라*).

3. 시리아(아람어를 쓰는) 교회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 교회에서 신자들을 뜻하는 용어였다.
4.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어느 시점에, 바리새인들은 암니아에서 재조직되었고 회당과 교회의 공식적인 분리를 선동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를 선언한 예는 *베라쿿* 28b-29a 의 “18 개의 축복”에 있는데, 여기서는 신자를 “나사렛 사람들”로 부른다.

“나사렛인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신실한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순교자 저스틴이 *Dial.* 126.1 에서 이사야서의 *넛쩨인* 예수를 말했다.  
다. 저자의 견해

비록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서로 다른 철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용어의 철자가 매우 다양하게 있음에 나는 놀란다. 그럼에도 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를 인해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확실히는 모른다:

1. 메시아적 용어인 “가지(*넛쩨르*)”와의 관계 혹은 이와 비슷한 용어인 *나지르*(맹세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 때문에
2. 부정적인 의미도 가진 갈릴리 때문에
3. 당시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 도시와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기에
4.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귀신의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즉, 당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까?)

이 단어들에 대해 충실한 참고문헌으로서 코린 브라운(편저)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제 2 권 346 쪽 혹은 레이몬드 E. 브라운의 *출생* 209-213, 223-225 쪽을 보라.

#### ▣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는 특별하거나 관심을 끌만한 모습을 가지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서 어느 면으로도 눈에 띄지 않으셨다(즉, 그는 무리 가운데 쉽게 섞여 계실 수 있으셨다, 참조, 요 8:59; 12:36).

**53:3 “그는 멸시를 받아”** 이 동사(BDB 102, KB 117, *니팔 분사*)는 49:7 에서 “멸시함을 받으신 분”이라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의 *칼 수동 분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본문인 시 22:6 에서 사용되었다(참조, 27:35,39,43,46; 막 15:29,34; 눅 23:34; 요 19:24; 20:25).

이사야서의 이 단락에 있는 여러 본문이 신약에서 사용되었다. 이사야는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40: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 3 절의 마지막 두 행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다.

1. 어떤 랍비들은 메시아가 문둥병을 가지게 됨을 이 본문이 말한다고 설명하였다(참조, 11 절)
2. 어떤 이는 이것을 52:14 와 연결시킨다. 즉, 예수께서 헤롯과 빌라도의 군인들로부터 매맞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3. 어떤 이는 이것이 마 26:31; 막 14:27(눅 13:7 의 인용) 또는 요 16:32 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 “간고” 이 용어(BDB 456)는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육신의 아픔 - 출 3:7
2. 정신적 아픔 - 시 38:17-18; 렘 45:3

이 문맥에서는(13 절과 14 절)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참조, 8 절)과 온 인류(참조, 6 절)를 대신하여 받으신 아픔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53:4-6**

- <sup>4</sup>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 <sup>5</sup>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sup>6</sup>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4 “질고”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병듦”을 의미한다(BDB 318, 참조, 신 28:59,61).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참조, 시 107:3; 사 1:6; 6:10). 이것은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일을 가리킨다(참조, 막 10:45; 고후 5:21).

이 연과 5d 절이 ‘신자들의 죄와 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심’을 나타낸다고 많은 이들이 보는데, 이러한 해석은 평행법을 고려할 때 잘못된 해석이다(참조, 시 103:3). “병듦”은 히브리어에서 죄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사 1:5-6). 내가 좋아하는 독실한 저자인 고든 피는 *건강과 부를 부르짖는 복음의 폐해*라는 제목을 가진 강력한 소책자를 저술하였다.

**특별주제: 병고침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1. 병고침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2. 이 일이 의도한 바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왕국에 대해 전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함이었다.
3. 이 일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4.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말 3:6), 병을 고쳐주심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신다.
5.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예들이 있다.
  - ㄱ. 바울, 고후 12:7-10
  - ㄴ. 드로비모, 딤후 4:20
6. 랍비들의 견해와 야고보서에서 ‘죄와 질병’이 서로 결부되어 나온다(참조, 요 9:2; 약 5:13-18).
7. 병고침은 새 언약의 보증이 아니다. 이것은 사 53 장과 시 103 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속죄와 관련이 없다.
8. 어떤 이는 고침을 받고 어떤 이는 고침을 받지 못함에 있어 커다란 신비함이 있다.
9. 병고침을 받는 일이 모든 세대에 있었지만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많이 있을 것이다.

▣ “지고...당하였거늘” 이 두 동사는 평행을 이룬다.

1. 지다 - BDB 669, KB 724, **칼 완료형**, 사람의 죄를 짊어짐을 나타냄, 창 4:13; 레 5:1,17; 7:18; 민 5:31; 14:34; 겔 14:10; 44:12. 하지만 이것은 다른 이의 죄를 지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동물을 나타내기도 한다, 참조, 레 10:17; 16:22; 민 14:33; 겔 4:4,5,6. 또 이것은 사 53:4 에서 고난받는 종의 구속적 사역을 나타낸다
2. 당하였다 - BDB 687, KB 741, **칼 완료형**, 이것은 문자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다”이며, 4 절과 11 절에서 종에게 대하여 사용되었다(**칼 미완료형**)

4-6 절에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야웨께서 종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는 일련의 동사를 주목하라.

1. 하나님께 맞으며, 4 절 - BDB 645, KB 697, **호괄 분사**
2. 고난을 당한다(하나님께), 4 절 - BDB 776, KB 853, **푸알 분사**
3.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5 절 - BDB 319, KB 320, **포알 분사**
4.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5 절 - BDB 193, KB 221, **푸알 분사**
5.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5 절(**동사가 사용되지 않음**)
6.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 절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루신 속죄의 교리를 가리키는 중요한 본문이다.

▣ “하나님께 맞으며”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참조, 10 절; 요 3:16; 마 10:45; 고후 5:21). 예수께서 재판관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은 우연이나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참조, 행 2:23; 3:18; 4:28; 벧전 1:20).

53:5 “찢림은...상함은” “지고” “당하였거늘”이 4 절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듯이, 이 두 동사도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

1. 찢렸다 - BDB 319, KB 320, **포알 분사**는 대개 전쟁에서 칼에 찢림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이 어근은 정화되고 용서받은 인간이 “오염됨”을 나타낸다.
2. 상하였다 - BDB 193, KB 221, **푸알 분사**, 이 동사는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 ㄱ. 57:15 - **니팔 분사**, “회심한 마음”
  - ㄴ. 3:15 - **피엘 미완료형**, “내 백성을 상하게 하다”
  - ㄷ. 19:10; 53:5 - **푸알 분사**, “상함을 받다”
  - ㄹ. 53:10 - **피엘 부정사 연계형**, “상하게 하다”

이 용어는 낮아진 자를 나타낸다. 이 문맥에서는 모든 인류가 누릴 더 커다란 유익을 위하여 야웨 자신이 그렇게 행하심을 나타낸다.

53:6 이것은 롬 3:9-18,23; 5:12,15,18; 11:32; 갈 3:22 과 짝을 이루는 구약의 본문이다. 이것은 창 3 장에 나오는 타락의 진행을 가리킨다(참조, 창 6:5,11-12; 시 14:3; 143:2).

▣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을 가능성을 모든 이가 가지고 있다(참조, 요 1:29; 3:16-17; 롬 5:18; 딤후 2:11; 요일 2:2; 4:14). 결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어떤 주석가들은 6 절에 나오는 “모든”[2 회]과 11d 절 및 12e 절에 나오는 “많은”을 구분지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롬 5:18 의 “모든”과 5:19 의 “많은” 사이의 평행법은 이것이 같은 그룹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즉, 야웨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으나 타락한 인간, 창 1:26-27).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 요 4:42; 딤후 2:4; 4:10; 벧후 3:9).

개역개정 53:7-9

<sup>7</sup>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sup>8</sup>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sup>9</sup>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53:7 “양 같이” 제물에 대한 암시가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참조, 요 1:29; 고후 5:21).

▣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종이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예수께서 심문을 받으실 때에 당하신 여러 일을 암시한다.

1. 예수께서 밤중에 가야바에게 심문받으신 일 - 마 26:63; 막 14:61
2.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심문받으신 일 - 마 27:12-14; 막 15:5; 요 19:9
3. 예수께서 분봉왕 헤롯에게 심문받으신 일 - 눅 23:9

53:8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 구는 “종”이 이 문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을 나타낸다. 종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는다(참조, 8c 절).

이 노래/시에는 드물게 사용된 독특한 여러 동사가 나온다.

1. 52:15, “아직 듣지 못한 것” - **푸알 완료형**(BDB 707, KB 765)
2. 52:15,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 **히트폴렐 완료형**(BDB 106, KB 122)
3. 53:4, “맞으며” - **호팔 분사**(BDB 645, KB 697)
4. 53:4, “고난을 당한다” - **푸알 분사**(BDB 776, KB 853)
5. 53:5, “찢림은” - **포알 분사**(BDB 319, KB 320)
6. 53:5, “상함은” - **푸알 분사**(BDB 193, KB 221)
7. 53:7, “끌려 가는” - **호팔 미완료형**(BDB 384, KB 383)
8. 53:8, “생각하기를” - **폴렐 미완료형**(BDB 967, KB 1319)

53:9 이 절은 예수의 십자가형과 장사지내심을 아주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참조, 마 27:38,49). 시 22 편도 마찬가지로이다.

개역개정 53:10-12

<sup>10</sup>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sup>11</sup>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sup>12</sup>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53: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 여러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를 주목하여 보라.

1. 야웨께서 원하셨다(문자적으로, “이것은 ~의 뜻이었다” - BDB 342, KB 339, **칼 완료형**). 이 동사는 “~을 기뻐하다”(참조, 58:2; 62:4) 또는 “소원하다”(55:11)를 의미한다. 사트 13:25; 삼상 2:25 에서는, 야웨께서 어떤 이를 죽게 하기를 기뻐하심을 이 단어가 나타낸다. 의로운 종에게 공의롭지 않고 또 고통스러운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을 이 동사가 나타내는 점은 충격적이다. 야웨께서 구속을 위한 목적을 가지셨다(40:15의 특별주제를 보라)!
2. 그로 하여금 “상하게 하고”(피엘 부정사 연계형, 참조, 5 절) “질고를 당하게 하심”(히필, 완료형, BDB 317, KB 311)이 야웨의 뜻과 목적이었다. 이 동사는 “병들게 하다”(JPSOA) 또는 “쳐서 상처냄”을 뜻한다.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 야웨와 그의 종께서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거저 누릴 수 있게 하셨다! “



NASB	“만일 그가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된다면”
NKJV, NRSV	“당신이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실 때에”
TEV	“그의 죽음은 용서를 가져오는 희생제물이었다”
NJB	“만일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면”
JPSOA	“만일 그가 자신을 속건제물로 만든다면”
폐쉬타	“그는 죄를 위한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려 놓았다”

이 구는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심원하다. 이 내용은 다음에 대한 것이다

1. 야웨의 뜻
2. 종의 뜻
3. 이 속건제물을 받기로 선택한 죄인들(내포하고 있는 의미임)

신학적으로 이것은 히브리인의 “공동체”적 개념을 나타낸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1. 제사제도(레 1-7 장), 특히 속죄일(참조, 레 16 장)
2. 이스라엘 군대에게 영향을 미친 아간의 죄(수 7 장)
3. 롬 5:12-21 에 나온 분명한 설명
4. 고후 5:21 에 나온 커다란 예

흠없으신 분께서 모든 죄인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

▣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것은 종이 죽게 됨을 분명히 나타낸다(참조, 8,9,12 절). 따라서 이 절은 죽음 이후의 삶을 가리킴이 명백하다!

야웨께서 그를 위하여 행하실 모든 일을 주목하여 보라.

1. 그가 자신의 씨를 보게 된다(문자적으로, “씨”), 10 절
2. 그의 날은 길 것이요(이것은 그의 사후의 삶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10 절
3. 여호와와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창할 것이다(즉,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한 야웨의 계획), 10 절
4. 그가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11 절(야웨의 선하신 기쁨[뜻]을 가리킴), 10b 절
5. 그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11 절
6. 존귀한 자와 함께 그가 몫을 받게 될 것이다, 12 절
7. 그가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될 것이다, 12 절

시를 해석하기가 항상 어렵다. 어떤 부분은 불확실하게 남는다!

53:11 “그것을” 70 인역과 사해사본에서는 “빛”으로 되어 있다(NRSV, NJB). 맛소라 본문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NKJV 를 보라). UBS 본문 프로젝트는 “빛”이 본문에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본다(B 등급).

▣ “자기 지식으로” NRSV 에서는 “그가 그의 지식을 통하여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로 되어 있다. 그것이 “어떤 지식”을 가르키는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1. 자기의 자손을 본다(10c 절)
2. 그의 생명이 길어진다(10d 절)
3. 야웨의 뜻이 성취됨(10e 절)
4. 그의 수고한 결과(11a 절)

▣ “의로운 종이 ... 의롭게 하며” 이 두 용어는 한 어근에서 온 것이다(BDB 842, 843). 죄를 감당하는(참조, 11e 절) 야웨의 종은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를 위한 의를 성취할 것이다(참조, 요 1:12; 3:16; 롬 10:9-13).

▣ “많은 사람들” 6 절에서 “모든”에 대하여 한 설명을 보라.

▣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단어(BDB 687, KB 741, *칼 미완료형*)가 4 절에서도 사용되었다. 그 절에서 한 설명을 보라.

53:12a,b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은 전쟁과 관련을 가진 은유적 표현으로서 승리를 나타낸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회화적으로 영적 승리를 나타낸다(참조, 52:13)!

▣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 동사(BDB 788, KB 881, *히필 완료형*)는 문자적으로 “벌거벗은” 혹은 “벗겨진” 또는 “비어 있는”을 뜻한다. 이사야서에서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병거를 들어내 보임, 사 22:6
2. 성령을 주심(즉, 부으심), 사 32:15
3. BDB 는 이 문맥에서 이 은유적 표현이 *피엘형*의 용법 3 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참조, 시 141:8)
4. KB 에서는 이것을 “쏟아버리다”로 제시하며,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게 던져 버림”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설명한다

▣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눅 22:37 에서는 군병들과 성전지키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심을 말하는 본문으로서 이 구절을 인용하였다.

같은 단어(BDB 833)가 8 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키며, 5 절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가리키고 있음을 주목하라.

▣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것은 대신하여 대속적 사역을 하심을 가리킨다(참조, 마 20:28; 막 10:45; 14:24; 고후 5:21; 갈 1:4; 딤후 2:6; 딤후 2:14). UBS 본문 프로젝트는 “죄”가 복수형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B 등급).

▣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다(참조, 롬 8:27,34; 히 7:25; 9:24; 요일 2:1)!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나의 종”이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메시아를 가리키는가?
2. 이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포함됨에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한가?
3.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가?
4. 종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5. 하나님께서 종을 상하게 하시기를 왜 기뻐하셨는가?
6. 사 53:6 은 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7. 이 본문이 교회에 왜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가?

# 이사야 5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시온이 기쁨지게 됨	영속적인 평화의 언약	이스라엘에 대한 확신의 노래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와의 사랑	예루살렘이 야웨의 은총을 회복하여 받음
54:1-3 (1-3)	54:1-3 (1-3)	54:1-3 (1-3)	54:1-3 (1-3)	54:1-10 (1-10)
54:4-8 (4-8)	54:4-8 (4-8)	54:4-8 (4-8)	54:4-5 (4-5)  54:6-10 (6-10)	
54:9-10 (9-10)	54:9-10 (9-10)	54:9-10 (9-10)	예루살렘의 미래	새 예루살렘
54:11-17 (11-17)	54:11-15 (11-15)	54:11-17 (11-17)	54:11-12 (11-12)  54:13-15 (13-15)  54:16-17 (16-17)	54:11-17 (11-17)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이 장에는 족장시대(창 12-50 장)에 대한 여러 암시가 나타난다.

1. 자녀 없는 어머니
2. 장막에 거함
3. 후손을 “씨”로써 나타냄

나. 9 절에서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암시가 나타난다(창 6-9 장)

다. 야웨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언약을 갱신하고 계시다.

1. 이집트로부터
2. 메소포타미아로부터
3. 마지막 때의 원수들로부터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54:1-3

<sup>1</sup>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sup>2</sup>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sup>3</sup>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54:1-3 이 처음 연에서 유다/예루살렘의 재건과 관련하여 여러 명령을 사용하고 있다(참조, 49:20).

1. 너는 노래할지어다 - 칼 명령, BDB 943, KB 1247
2.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 칼 명령, BDB 822, KB 953
3. 크게 외쳐라 - 칼 명령, BDB 843, KB 1007
4. 네 장막터를 넓히며 - 히필 명령, BDB 931, KB 1210
5. 네 처소의 휘장을 . . . 널리 펴되 - 히필 명령, BDB 639, KB 692,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6. 아끼지 말고 - 칼 명령, BDB 362, KB 359,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7. 너의 줄을 길게 하며 - 히필 명령, BDB 72, KB 88
8.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 피엘 명령, BDB 304, KB 302

바울은 갈 4:21-31 에서 아브라함의 아들과 두 언약에 대한 모형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였다.

오늘날 신자들이 이 구절의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 교회건물을 짓는 설교를 위한 본문으로 사용하는 일은 나로 하여금 경악하게 한다! 만일 원래의 배경 및 영감받은 저자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이라도 그 본문을 가지고 지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심리적으로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행사와 사업을 지지하는 성경 본문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성경 해석에 대한 설교를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참조하라.

54:3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언뜻 보기에, 이 구는 이사야서에 있는 전세계에 관련이 있는 여러 본문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 행의 평행법을 주목하라. 이것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지역을 회복함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고레스 2 세가 영을 내려 앗시리아와 바벨론에 포로된 아브라함의 씨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됨을 가리킨다(참조, 14:1-2).

개역개정 54:4-8

<sup>4</sup>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sup>5</sup>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sup>6</sup>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sup>7</sup>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홀로 너를 모을 것이요  
<sup>8</sup>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공홀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54:4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칼 미완료형(BDB 431, KB 432)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이다(참조, 7:4; 8:12; 35:4; 41:10,13,14; 43:15; 44:2; 51:7; 54:4,14; 57:11). 아브라함의 씨는 그들이 다음과 같은 것의 수혜자임을 기억해야 했다

1. 야웨의 임재하심
2. 야웨의 약속들
3. 야웨의 목적

▣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 . . 수치를 잊겠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주목하여 보라.

1. 수치당하다 - 부정된 칼 미완료형, BDB 101, KB 116(1:19; 20:5 의 반대)
2. 부끄러움을 당한다 - 부정된 니팔 미완료형, BDB 482, KB 480, 참조, 45:17; 50:7
3. 수치를 가진다 - 부정된 칼 미완료형, BDB 344, KB 340

▣ “잊겠고 . . .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평행법을 주의하여 보라. 돌아온 이 자들을 두 가지의 가족적 용어로써 격려하시고 있다.

1. 너의 젊음
2. 너의 과부됨

이스라엘은 일찌기 죄를 지었다(또 그것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야웨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즉, 과부됨). 그러나 이제는 이 두 가지가 잊혀지게 되며, 또한 신실하고 충성됨의 새 날이 희망속에 밝아오고 있다!

54:5 4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관련을 가진 은유적 표현이 다시 사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남편에 대한 여러 호칭을 주목하여 보라(참조, 6-8 절; 호 1-3 장).

1. 너를 지으신 이 - 야웨께서 남편이신 동시에 창조주이시다, 참조, 43:1,7; 44:2,21,24; 신 32:18
2. 만군의 여호와 - 이사야서에서 반복되는 호칭이다(참조, 41:14; 43:14; 44:6,24; 47:41; 48:17; 49:7,26; 54:5,8; 59:20; 63:16)
3.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 이사야서에서 반복되는 호칭이다(참조, 1:4; 5:19,24; 10:20; 12:6; ;17:7; 29:19,23; 30:11,12,15; 31:1; 37:23; 41:14,16,20; 43:3,14,15; 45:11; 48:17; 49:7; 54:5; 55:5; 60:9,14, 이것은 이사야서의 두 부분인 1-39 장과 40-66 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4. 온 땅의 하나님 - 이러한 전 세계적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특징을 이룬다, 즉, 6:3; 11:9; 45:6; 52:10

이 호칭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히브리식 표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는 이러한 놀라운 본문으로는 출 34:6; 민 14:18; 느 9:17; 시 86:15; 103:8; 145:8-9 이 있다. 49: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다음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 1:1 의 특별주제: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나. “만군”(BDB 838)은 다음을 뜻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천사(참조, 느 9:6)
2. 천사로 이루어진 군대(참조, 삼상 17:45; 단 8:10; 눅 2:13)
3. 천사들의 회의(참조, 왕상 22:19; 단 7:10)
4. 인간의 군대(즉, 민 2:4,6; 삿 8:6; 9:29)
5. 밤 하늘에 있는 빛은 영적인 능력들로 여겨졌다(즉, 바벨론 사람들의 별 숭배, 참조, 신 4:19; 17:3; 왕하 17:16; 21:3,5; 23:4-5; 대하 33:3,5; 렘 8:2; 19:13)
6. 이것은 아모스 4:13; 5:27 에서 야웨의 호칭으로 사용되었다(암 3:13; 6:14; 9:5 에서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었고 왕상 5:14,15,16; 6:8; 19:10,14 에서는 전치사 없이 사용됨).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심을 나타내었다.
7. 수 5:14-15 에 특별한 용법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 미가엘을 가리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 자신의 현현하심으로 본다.

54:6 이스라엘을 이혼당한 ‘신실하지 않은 아내’로 묘사한다(참조, 49:14-21; 50:1,2; 62:4).

54:7 야웨께서 신실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셨지만, 이제는 그녀를 다시 찾아 나서신다(참조, 호 1-3 장). 같은 여인과 재혼을 금한 모세의 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이다.

▣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사 26:20 을 보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지만, 이제 그것을 그치셨다(참조, 시 103:9-14).

▣ “너를 모을 것이요” 이것은(피엘 미완료형, BDB 867, KB 1062) 포로됨을 거꾸로 돌려놓음을 가리킨다. 즉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새 출애굽을 말한다(참조, 11:12; 43:5; 49:18; 56:8; 60:4).

54:8 구약에서 야웨의 성품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및 진노하심(문자적으로는, “넘쳐흐르는 진노,” BDB 1009, KB 1637, 오직 이곳에서만 나옴)의 대상이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곳이 메시아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장소이다(52:12-53:13). 사랑과 정의가 갈보리에서 만나고 있다!

▣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다.

1. “영원한” - 45: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자비” - 40:6 의 특별주제를 보라.
3. “긍휼히 여기다” - *피엘 완료형*, BDB 933, KB 1216; 이것은 14:1; 30:18; 49:10,13,15; 54:7,8,10; 55:7; 60:10; 미 7:19 에서 야웨께 대하여 사용되었다(9:17; 27:11 에서는 부정의 형태로 사용됨)

▣ “여호와” 이것은 문자적으로 “야웨”이다. 40: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구속자” 41: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54:9-10

<sup>9</sup>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sup>10</sup>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54:9-10 이 두 절은 램 31:31-34 에 있는 “새 언약”을 묘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참조, 겔 36:22-38). 왜냐하면 돌아온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말라기서).

54:9 이 절은 창 6-9 장에 있는 홍수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이다(특히, 8:21; 9:11).

“노아의 물”이라는 히브리 표현은 사해사본 및 고대의 여러 사본에서 보듯이 “노아 시대와 같이”로 이해할 수 있다(NASB). 그러나 70 인역에서는 다르게 해석하여 “노아 당시의 물로부터”로 표현한다.

54:10 “나의 화평의 언약” 이것은 “영원한 언약”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참조, 55:2; 49:21; 61:8; 창 17:7; 시 105:10; 램 32:40; 50:5). 이 시기에 대하여 에스겔서에서 종종 묘사한다(참조, 16:60; 20:37; 34:25; 37:26; 더 자세한 내용을 내가 저술하여 온라인에 게재한 에스겔서 주석에서 참고할 수 있다,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성전을 황폐하게 하심으로써(겔 8-10 장), 야웨께서 아브라함의 씨와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셨음을 이해함에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일부분은 “영원히” 또는 “영원토록”이라는 영어 어휘에 기인한다(45: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우리가 가진 문제의 또 다른 부분은 이 같은 본문이 두 언약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아주 중요한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 그는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의 성취이다. 신약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며 이 본문들이 가진 놀라운 면을 인하여,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 한편, 예수님과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약속을 결코 재확인하여 말씀하지 않았다(40:9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54:11-17

- <sup>11</sup>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 <sup>12</sup>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 <sup>13</sup>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 <sup>14</sup>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 <sup>15</sup>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 <sup>16</sup>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 <sup>17</sup>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4:11-13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써 사용한 여러 종류의 보석을 주목하여 보라(참조, 겔 28:13).

1. 휘은광(BDB 806, KB 918) - 검은 색 돌(참조, 대상 29:2) 또는 검은 색 회반죽(참조, 사 54:11)
2. 사파이어(BDB 705, KB 764) - 아마 청명한 색의 보석을 뜻함
3. 루비(BDB 461, KB 460)
4. 수정(BDB 869, KB 82) - 아마 녹주석을 뜻함
5. 보석들, 이것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음

이 가운데 단 한 가지 보석(2 항)만 대제사장의 흉패에 사용되었다(참조, 출 28:17-19; 39:10-11). 보석으로 된 성벽에 대한 묘사를 요한이 계 21:18-21 에서 사용하고 있다.

54:11 “너 곤고하며” 이것은 1 절에 나오는 “생산치 못한 너”와 시적 평행을 이룬다. 둘 다 돌아온 자들을 가리킨다.

54:13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램 31:34 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다(즉, “새 언약”). 예수께서는 요 6:45 에서 이 절을 인용하셔서 성부께서 예수를 통하여 믿는 자들/제자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심을 나타내었다.

NEB 는 맛소라 본문의 모음을 다르게 읽어서 “그리고 네 모든 자녀는”을 “네 모든 돌들”로 바꾸었다. 그러나 UBS 본문 프로젝트는 “그리고 네 모든 자녀는”에 A 등급(상당히 확실함)을 준다.

54:14 이 절에서는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1.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 *히트폴렐 미완료형*(BDB 465, KB 464)
2.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 *칼 명령*(BDB 934, KB 1221)

3.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 칼 미완료형(BDB 431, KB 432)
4.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 칼 미완료형(BDB 897, KB 1132)

54:15-17 이것은 명백히 야웨의 주권에 대한 본문이다. 우리는 이 진리가 마지막 때에 박해받는 신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인하여 놀라게 된다.

54:15 이 절은 창 12:3b의 내용과 비슷하다. 돌아온 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그들을 적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기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41:11-16). 여기에 같은 어근(BDB 158, KB 184)을 가진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 및 칼 완료형이 나온다. 이러한 문법적 구조는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강조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동을 분명히 취하실 것임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54:16-17 이 절은 요 6:45에서와 같이, 야웨께서 아브라함의 씨(즉, 이스라엘과 메시아)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주권을 강조하여 제시한다.

54:17 “여호와와 종들” NASB 연구성경은 이 구에 대하여 좋은 설명을 하고 있다(1033 쪽).

“53 장 이후에 나타나는 단수인 “종”은 더이상 이사야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종들”(63:17; 65:8-9,13-15; 66:14)은 참된 신자들을 뜻한다 -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모두(56:6-8)를 보라 -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그 종의 ‘후손’이다(53:10).”

▣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맞소라 본문에는 아무 동사도 없다.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여 내실 것이다.

# 이사야 5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공허하심을 거저 베꾸심	풍성한 삶의로의 초대	기쁨과 승리의 찬송	하나님께서 공허를 베꾸시다	마지막 초청
55:1-5 (1-5)	55:1-5 (1-5)	55:1-5 (1-5)	55:1-2 (1-2)	55:1-3a (1-3a)  55:3b-5 (3b-5)
55:6-13 (6-13)	55:6-7 (6-7)  55:8-9 (8-9)  55:10-11 (10-11)  55:12-13 (12-13)	55:6-9 (6-9)	55:6-9 (6-9)	55:6-11 (6-11)  결론  55:12-13 (12-1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몇 가지 예비 질문

1. 이 장이 누구에게 말하는 내용인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혹은 모든 사람들)
2.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려는 것인가? (약속의 땅으로의 회복 또는 영적 구원[즉, 이븐 에스라])

3. 바로 이 장에서 두 가지 해석학적 원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 ㄱ. 영감을 받은 원저자의 의도에 비추어 모든 본문을 해석하여야 한다. 적절한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원래의 독자(즉, 목표로 하고 있는 청중)들이 무엇을 이해하였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각 본문은 단 한 가지 뜻만 가진다.
  - ㄴ. 신약은 구약의 성취이며 적절한 해석자이다. (참조, 마 5:17-48). 예수께서는 구약에 있는 약속의 목적이며 목표이시다. 예수님 안에서만, 또한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구약을 해석할 수 있다. 신약은 예수님과 온 세계의 구속에 관한 것이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4.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특별하게 언급하거나 암시도 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라 (12a,b 절을 제외한다면). 이 초청이 일반적이며 더욱 광범위하다!

###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메시아의 잔치, 마 25:6-8; 눅 14:15-24; 22:16,18; 계 19:9
  2. 예루살렘의 시장
- 나. 구약의 예언은 종종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사용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시한다 (부록 2 를 보라).
- 다. 복음전도와 제자도를 믿고 또 대위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즉, 마 28:18-20; 눅 24:47; 행 1:8), 이 장은 우리의 마음과 사역에서 소중한 자리를 차지한다. 야웨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 거저 주시는 온전한 용서를 누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자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신다(참조, 1-5 절). 이것은 창 3:15의 목적이다! 한편, 요구되는 언약적 응답이 있다(참조, 6-7 절). 인간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여야 한다. 야웨께서는 영원한 구속적 계획을 가지셨다(참조, 8-11 절). 40:15의 특별주제를 보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전 세계에 대한 메시지였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참조, 롬 2:28-29)!
  - 라. 이 시의 화자가 야웨이심을 주목하라(또는 잠 9:1-6의 의인화된 지혜). 6-7 절에 있는 초청만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다. 야웨의 자비하심이 그 선지자를 감쌌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55:1-5

- <sup>1</sup>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 <sup>2</sup>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 <sup>3</sup>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 <sup>4</sup>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sup>5</sup>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55:1-3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즉, 목마른 모든 자들,” 참조, 1a 절)은 여러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명령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내용을 강조적으로 나타낸다.

1. 물로 나아오라 - 칼 명령(BDB 229, KB 246)
2. 오라 - 1 항과 같음
3. 사라 - 칼 명령(BDB 991, KB 1404)
4. 먹으라 - 칼 명령(BDB 37, KB 46)
5. 오라 - 1 항 및 2 항과 같음
6. 사라 - 3 항과 같음
7. 듣고 들을지어다 - 같은 어근의 칼 명령과 부정사 절대형(BDB 1033, KB 1570)이 사용되어 강조를 나타냄
8. 먹으라 - 4 항과 같음
9. 너희 자신들이 ...즐거움을 얻으라 - 칼 미완료형(BDB 772, KB 851)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10.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 히필 명령(BDB 639, KB 692)
11. 내게로 나아오라 - 1 항, 2 항, 5 항과 같음, 관계적 요소를 주목하라
12. 들으라 - 칼 명령(BDB 1033, KB 1570)
13.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 칼 지시형(BDB 310, KB 309)
14.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 칼 청유형(BDB 503, KB 560, 40:1의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55:1 “너희 모든 ~자들아” 이것은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다(참조, 4-5 절, 창 3:15; 12:3; 출 19:5-6; 요 1:12; 3:16; 4:42; 딤후 2:4; 4:10; 딤후 2:11; 벧후 3:9; 요일 2:1; 4:14).

▣ “목마른” 이것은 영적 필요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항상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단계에 속한다(참조, 마 5:6; 계 22:17).

▣ “물” 초대 교회는 이것을 침례로 해석했다. 그러한 해석은 어떤 견해/신앙을 가지고 본문을 읽는 것(석의에 반대됨)에 대한 좋은 예이다.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 번영의 상징이었다(참조, 41:17; 44:3).

▣ “돈 없는 자도...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이것은 가진 돈이 없음을 의미한다.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가 모든 사람(이스라엘 사람을 포함)의 유일한 소망이다(참조, 스후 36:22-38).

▣ “먹되” 식사는 중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식사를 통하여 언약과 교제를 돈독히 하였다.

▣ “돈 없이...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역설적 진실이다.

1.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2. 인간이 평화와 행복을 찾으려 간절히 추구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다(참조, 전 1-2 장)
3. 하나님께서는 “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여 놓으셨다

4. 여전히 값을 치르어야 한다. 즉, 이제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야 한다

55: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이것은 인간이 행복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되 물건과 쾌락과 권력에서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전도서).

▣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참조, 레 26 장; 신 27-28 장; 요 5:11). 아름답고 풍요한 지구는 인류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55:3 “내게로 나아와” 개인적 관계가 성경적 믿음에 있어서 열쇠이다! ‘야웨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바로 야웨 자신이 목적이 되신다! 45:5의 특별주제를 보라

▣ “들으라” 이것은 *שמע*라는 단어에서 왔다(참조, 신 6:4-5). 이것은 “듣고 행하라”를 뜻한다.

▣ “영원한 언약” 40:28의 설명을 보라. 영원한(BDB 761, 45:17의 특별주제를 보라)은 사 40-66장에서 여러 가지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 “확실한 은혜” 이것은 *חסד*(BDB 338)라는 단어에서 왔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충성”을 나타낸다. 40:6의 특별주제를 보라.

▣ “다윗” 이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보여주는 예이다(참조, 시 32편, 51편). 또한 영속적인 면을 가진 이 용어는 메시아를 나타낸다(참조, 삼하 7:1 이하).

55:4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이것은 다윗 뿐 아니라 메시아를 나타내는 내용이다(참조, 삼하 7장). 그 이유는 이방인을 그 목적어로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4-5절).

맛소라 본문과 70인역에서는 “그를”이 다윗의 씨(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한다. 그런데 시리아역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너를”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52:12-53:13의 본문이 가지는 같은 종류의 신학적 주제를 제시한다.

▣ “만민. . .만민” 이방인들이 포함되었다(복수형으로 되어있음을 주목하라).

55:5 만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참조, 45:14, 22-25; 49:6,12,23; 스 8:20-23).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이것은 믿는 이스라엘, 곧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인가(오늘날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세속적 상태) 아니면 대위임에 대한 종말적 언급인가?

▣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하여 보라(40:3의 특별주제를 보라).

1. 야웨
2. 너의 엘로힘
3.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사 1:4에 대한 설명을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에서 보라).

개역개정 55:6-13

<sup>6</sup>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sup>7</sup>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sup>8</sup>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sup>9</sup>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sup>10</sup>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sup>11</sup>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sup>12</sup>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sup>13</sup>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짙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55: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찾으라”는 칼 명령(BDB 205, KB 233)이다. 이 동사는 종종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음을 나타낸다(참조, 신 4:29; 사 58:2; 65:10). 이러한 찾음은 신 30:1-3,10; 렘 29:13-14; 암 5:14-15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신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다(참조, 45:22; 요 6:44,65).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응답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결코 내어버리지 않으신다(참조, 시 103:8-14). 우리에게 결정할 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만일 그 시간이 지나간다면, 인간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어 버리고 또 하나님께 응답할 수도 없게 된다.

▣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도 칼 명령(BDB 894, KB 1128)이다. 이 시에서 이 행은 앞의 행과 평행을 이룬다. 이 표현은 롬 10:9-13 또는 요 1:12 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배와 관련을 가진다. 인간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써 응답하여야 한다(참조, 렘 3:12-13; 4:1-4; 율 2:12-13; 암 5:4-7,14-15; 막 1:15; 요 3:16; 행 20:21). 언약적으로 합당한 이 응답은 신약에서 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사실이다. 야웨께서는 교제 곧, 그들 자신을 원하신다!

55: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 44: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처음 두 행 사이에 나타나는 평행법을 주목하라. 악을 두 가지로 묘사하였다.

1. 삶에서 취하는 행동
2. 생각의 영역

랍비들은 이 점에 대하여 유용한 사고를 하였다. 그들은 인생의 사고적 측면을 씨를 뿌릴 준비가 된 정원으로 묘사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로써 이 준비된 땅에 심는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에 거하기로 결정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재가 된다. 죄는 사고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으나 손과 발과 입으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사고 영역을 주의하라!

7 절에 있는 세 동사는 지시형이다.

1. 버리라 - 칼미완료형 (BDB 736, KB 806),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2. 돌아오라 - 칼지시형 (BDB 996, KB 1427), 참조, 31:6; 44:22
3. 그가 공홀히 여기시리라- 퍼엘미완료형 (BDB 933, KB 1216),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49:10,13; 54:8

▣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나는 이 장의 말씀을 참으로 좋아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진하게 담긴 놀라운 초청의 말씀이다! 강력한 뜻을 가진 동사들을 주목하여 보라.

1. 그가 너그럽게 - 히필미완료형
2. 용서하시리라 - 칼부정사 연계형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두려움에 있고 당황해 있으며 상처받고 좌절하고 죄악된 상태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강력하면서도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그가 공홀히 여기시리라...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잊으신다(참조, 시 103:12; 사 1:18; 38:17; 43:25; 44:22; 미 7:19).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대한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참조, 히 9:14; 요일 1:7). 야웨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으나 범죄한 인간을 기꺼이 도우려 하시며, 이를 위해 준비되신 상태로 계시며, 그들을 받아 줄 수 있으시며,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55:8-11 이 본문은 한 가지 주제, 곧 야웨의 구속적 목적에 대한 것이다! 8 절에서 평행을 이루는 행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독특성에 대한 내용이다. 인간이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평화와 직접적인 임재하심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전혀 다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위하여(참조, 창 3:8; 레 26:12) 그들을 자신과 같은 모양으로 지으셨다(참조, 창 1:26-27).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홀하심으로 우리를 따라 오신다!

55: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다 (참조, 40:8). 구약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큰 권능을 가졌다(참조, 창 1 장).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있고 목적을 지닌 말씀이 공홀을 베푸시며, 용서하시며, 교제로 이끄시기 위함인 것을 증거한다(참조, 14:24; 25:1; 45:23; 46:10; 59:21; 마 24:35)!

#### 특별주제: 그리스도인의 확신

확신은 (1) 성경적 진리이며 (2) 또한 믿는 자의 믿음의 경험과 (3) 삶의 양식이다.

가. 확신을 위한 성경적인 기초는

1. 성부 하나님의 특성
  - ㄱ. 창 3:15; 12:3
  - ㄴ. 시 46:10
  - ㄷ. 요 3:16; 10:28-29
  - ㄹ. 룿 8:38-39

- ㄱ. 엡 1:3-14; 2:5, 8-9
- ㄴ. 빌 1:6
- ㄷ. 딘후 1:12
- ㄹ. 뵤전 1:3-5
- 2. 성자의 사역
  - ㄱ. 그의 제사장적 기도, 요 17:9-24, 특히 12 절
  - ㄴ. 그의 대속적인 희생
    - 1) 롬 8:31
    - 2) 고후 5:21
    - 3) 요일 4:9-10
  - ㄷ. 그의 계속적인 중재
    - 1) 롬 8:34
    - 2) 히 7:25
    - 3) 요일 2:1
- 3. 성령의 일하심
  - ㄱ. 그의 부르심, 요 6:44, 65
  - ㄴ. 그의 인치심
    - 1) 고후 1:22; 5:5
    - 2) 엡 1:13-14; 4:30
  - ㄷ. 그의 계속적인 중재
    - 1) 롬 8:16-17
    - 2) 요일 5:7-13
- 나. 믿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언약적 응답이 필요하다
  - 1. 믿음의 시작과 계속적인 회개와 믿음
    - ㄱ. 막 1:15
    - ㄴ. 요 1:12
    - ㄷ. 행 3:16; 20:21
    - ㄹ. 롬 10:9-13
  - 2. 구원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
    - ㄱ. 롬 8:28-29
    - ㄴ. 엡 1:4; 2:10
  - 3. 확신은 삶의 양식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 ㄱ. 야고보서
    - ㄴ. 요한일서
  - 4. 확신은 능동적인 믿음과 인내로써 확인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 ㄱ. 막 13:13
    - ㄴ. 고전 15:2
    - ㄷ. 히 3:14
    - ㄹ. 뵤후 1:10
    - ㅁ. 유 20-21 절

**55:12-13** 이 구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농업적 풍요로써 제시한다(즉, 1-2 절). 피조물이 종종 의인화 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에덴 동산에서의 전원적 교제가 회복된다!

해석자가 반드시 질문하여야 할 사항은 이것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가운데 어느 때에 일어난 귀환에서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지금은 답이 분명하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종말적 배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 이사야 5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께 순종함에 대한 상	이방인들의 구원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 대한 축복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약속
56:1-5 (1-5)	56:1-2 (1-2)	56:1 (1)  56:2 (2)	56:1-2   56:3a	56:1-7 (1-7)
	56:3-5 (3-5)	56:3-5 (3-5)	56:3b-5	
56:6-8 (6-8)	56:6-8 (6-8)	56:6-8 (6-8)	56:6-7  56:8	56:8-9 (8-9)
	이스라엘의 무책임한 지도자들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비난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56:9-12 (9-12)	56:9-12 (9-12)	56:9-12 (9-12)	56:9-12	국가 지도자들이 무가치함  56:10-57: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메소포타미아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참조, 40-55 장) 팔레스타인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언약 백성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56-66 장).

개역개정 56:1-5

<sup>1</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sup>2</sup>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sup>3</sup>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sup>4</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sup>5</sup>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56:1 이 장은 적합한 믿음의 삶에 대한 두 가지 명령으로써 시작한다(참조, 55:7).

1. 정의를 지키며 - 칼 명령(BDB 1036, KB 1581, 참조, 1:17); “정의”에 대하여는 42:1의 특별주제를 보라
2. 의를 행하라 - 칼 명령(BDB 793, KB 889); “의”에 대하여는 48:1의 특별주제를 보라

▣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 칼 부정사 연계형(BDB 97, KB 112, 참조, 46:13; 51:5; 시 85:9)
2.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 니팔 부정사 연계형(BDB 162, KB 191, 1 항에 대한 참고 성경구절 중 처음 두 구절을 보라)

신자들은 마치 주께서 오늘 오시듯이 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태도와 삶의 양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끈다(참조, 시 85:9).

56:2 처음 두 행이 평행을 이룸을 주목하라. 또한 “복된 자”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임을 주목하라(참조, 시 112:1; 119:1-2,22,168; 128:1).

▣ 이어 나오는 두 행은 “복된 자”가 행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항을 특별히 지목하여 말한다.

1.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참조, 출 20:8-11)
2.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결론적 표현이다)

“지키다”(BDB 1036, KB 1581)라는 동사가 이 장에서 4 번 나온다(2 절[2 회], 4 절, 6 절).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순종은’ 야웨와의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56:3 이 절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배제된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것임을 확신시킨다.

1.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예배자(참조, 4-5 절)
2. 손상된 신체를 가진 자(참조, 6-8 절; 신 23:1-8)

“말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이방인, 고자), 이것은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칼미완료형**(BDB 55, KB 65)이다.

▣ “고자” 이것은 다음의 사람을 가리킨다

1. 고향이 상한 자
2. 거세한 자

사도행전 8 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내시에 대한 기록은,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잘 예시한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이것은 같은 어근(BDB 95, KB 110)을 가진 **히필 부정사 절대형**과 **히필 미완료형**으로서, 문법적으로 강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더 큰 강조점은 이 진술이 맞지 않음에 있다!

56:6 고자가 자녀를 가질 수 없었기에, 야웨께서는 신실한 고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기념물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자손을 나타내는 히브리 관용어)도 주신다.

▣

NASB, REB “기념”  
NRSV, 70 인역, 페쉬타 “장소”  
NJB, JPSOA “기념비”

이 히브리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손”(BDB 388, 4 항)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기념함을 관용적으로 나타낸다(참조, 삼상 15:12; 삼하 18:18).

개역개정 56:6-8

<sup>6</sup>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sup>7</sup>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sup>8</sup>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6:6 신실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라.

1. 여호와와 연합하여 - **니팔 분사**(BDB 530, KB 522)
2. 그를 섬기며 - **피엘 부정사 연계형**(BDB 1058, KB 1661)
3.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 **칼 부정사 연계형**(BDB 12, KB 17)
4. 그의 종이 되며 - **칼 부정사 연계형**(BDB 224, KB 243)

5.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 칼 분사(BDB 1036, KB 1581, 참조, 2,4 절) 및 피엘 부정사 연계형(BDB 320, KB 319)

6.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 히필 분사(BDB 304, KB 302)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써 야웨를 참되게 따르는 자를 알아 볼 수 있다(참조, 마 5-7 장, 특히 7:15-23,24-27).

56:7-8 6 절에서 신실한 이방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묘사하였듯이, 7-8 절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심을 묘사하고 있다.

1.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즉, 성전)으로 인도할 것이다
2.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3.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다
4.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할 것이다

56:7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것은 진술된 ‘솔로몬 성전의 목적’이다(참조, 왕상 8:41-43). 막 21:13; 막 11:17; 눅 19:46 에 기록된 바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내보내실 때에, 예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셨다.



NASB	“또한 다른 이들을 내가 그들에게로 모으겠다”
NKJV	“또한 내가 그 외에도 다른 이들을 그에게로 모으겠다”
NRSV, 폐쉬타	“내가 다른 이들을 그들에게로 모으겠다”
TEV	“약속하시되 그가 또한 다른 백성들을 그들과 연합하도록 이끌 것이다”
NJB	“다른 이들을 내가 모으겠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1. 야웨께서 포로로 잡혀간 아브라함의 자손의 더 많은 수를 모아들이실 것이다(JPSOA)
2. 야웨께서 소외된 다른 이들을 모아들이실 것이다(즉, 이방인과 고자)

예수께서는 이 본문(참조, 70 인역을 따른 막 11:17)을 광의의 뜻으로 사용하셨다.

개역개정 56:9-12

<sup>9</sup>들의 모든 짐승들이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  
<sup>10</sup>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sup>11</sup>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sup>12</sup>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56:9 이것은 하나님의 잔치로의 초대로서 풍자적이다(참조, 12 절; 55:1-2). 이곳에서 이 명령(“오라” - 칼 부정사 연계형)은 심판을 나타낸다(10-12 절). 이것은 심판의 잔치가 될 것이다!

9-12 절의 해석과 관련한 질문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이다.

1. 포로기 이전
2. 포로기
3.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절들은 어떤 시기에 대한 것인가? 아마도 이것은 각 시대와 어느 정도 관련을 가질 것이다. 믿음이 없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느 때에나 있었다.

**56:10-12** 이 본문은 ‘신실한 소외된 자’에 대한 본문인 1-8 절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대부분의 내용은 그 지도자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1.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에요
2. 다 무지하며
3. 병어리 개들이라 낚지 못하며
4.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5.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6. 탐욕이 심하여
7.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8.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9. 다 제 길로 돌아가며
10.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 언약 백성에 대한 이 얼마나 두려운 설명인가! 그들의 지도자들이 부패하였다. 그 지도자에 그 백성들이라는 격언은 사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성전과 경건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의 열매는 명확하다(즉, 자기 자신)!

**56:10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에요”** 맛소라 학자들은 히브리 본문에서 한 가지 문제를 보았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칼 완료형**(BDB 859, KB 1044)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은 **칼 분사**로 제안하였다. 어느 쪽으로 읽든지, 본문의 의미에 차이를 주지 않는다.

**56:12 “오라”** 이 명령(**칼**, BDB 87, KB 102)은 9c 절에 있는 용어와 잘 맞는다! 인간이 마실 것을 얻기 위하여 오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12b 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삼키게 하신다(참조, 18:6; 램 7:33; 12:9; 15:3; 34:20).

# 이사야 5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책망받은 악한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헛된 우상숭배	우상숭배자들에 대하여	정죄받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국가 지도자들의 무가치함 (56:10-57:2)
57:1-10 (1-10)	57:1-2 (1-2)	57:1-12 (1-12)	57:1-2	(56:10-57:2)
	57:3-6 (3-6)		57:3-10	우상숭배자들에 대하여 57:3-13 (3-13)
	57:7-10 (7-10)			
57:11-13 (11-13)	57:11-13 (11-13)		57:11-13	
	타락자들을 고치심		하나님께서 도움과 병고침을 약속하심	약한 자들을 위한 구원
57:14-21 (14-21)	57:14 (14)		57:14	57:14-16 (14-16)
	57:15-18 (15-18)		57:15-17	
				57:17 (17)
			57:18-21	57:18-21 (18-21)
	57:19-20 (19-20)			
	57:21 (21)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56 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
- 나. 이 본문은 구약에서 말하는 “두 길”을 묘사한다; 하나는 생명과 평화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 죄와 멸망의 길이다(참조, 신 30:15,19).
- 다. 류폴드는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56 장은 믿음이 없는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마치고 57 장은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271 쪽).
- 라.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가나안의 다산적 종교가 우상숭배의 배경을 이룬다(즉, *바알, 아세라, 몰렉*). 이것은 므낫세 왕 시대에 절정에 이르렀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57:1

- <sup>1</sup>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 <sup>2</sup>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 <sup>3</sup>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 너희는 가까이 오라
- <sup>4</sup>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 <sup>5</sup>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 <sup>6</sup>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뿔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 <sup>7</sup>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 <sup>8</sup>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별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sup>9</sup>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sup>10</sup>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57:1 악이 승리하여 의로운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아무도 이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2. 깨닫는 자가 없도다

▣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악한 이들은 이기적인 자아와 죄를 추구하지만, 의로운 자들은 타락의 무서운 영향력에서 구출받는다(참조, 창 3 장; 6:5,11-12).

57:2 이 절은 의로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묘사한다.

1. 평안에 들어갔다(1 절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내용이다)
2.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BDB 1012). 여기서 의인에 대한 면을 묘사함에 있어서 또 7 절과 8 절에서 악인의 삶을 묘사함에 있어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 ㄱ. 잠을 자기 위한 침대
  - ㄴ. 성생활을 위한 침대
  - ㄷ. 무덤
3. 바른 길로 간다(즉, 신실한 삶)

57:3-4 이 본문에서는 1 절에서 언급한 악인들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무당의 자식(BDB 778 II)
2. 간음자의 자식(BDB 610)
3. 음녀의 자식(BDB 275)  
야웨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오라(칼 명령, BDB 897, KB 1132)고 부르신다.
4. 너희는 패역의 자식(BDB 833)
  - ㄱ.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 ㄴ.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느냐
  - ㄷ. 누구를 향하여 혀를 내미느냐(이 모든 내용은 그들이 의인들에 대하여 정죄함을 묘사한다)
5. 거짓의 후손(BDB 1055)

57:5-6 우상숭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운다 (*니팔 분사*, BDB 328, KB 328,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산을 위한 예배를 가리킨다, 즉, 렘 2:23-27)
2.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칼 분사*, BDB 1006, KB 1458, 이것은 *몰렉*을 섬기는 예배를 가리킨다)
3. 전체를 그것들에게 드리니 (*칼 완료형*, BDB 049, KB 1629)
4.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히필 완료형*, BDB 748, KB 828)

###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 숭배

#### I. 섬기는 까닭

- 가. 고대인들이 사냥을 하고 양식을 수집하는 삶에서 유목생활을 거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곡식과 짐승의 떼에 대한 필요를 가지게 되었다.
- 나. 고대 근동의 주민들은 자연의 힘 앞에 무력했다.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들은 계절의 규칙적인 질서에 의존하게 되었다.
- 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의 힘은 신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탄원하고 또 이를 조종하려 했다.

#### II. 어디서 왜

- 가. 다산의 신을 숭배하는 일은 다음의 장소에서 발전되었다
  1. 이집트(나일 강)
  2. 메소포타미아(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3. 가나안(요단 강)
- 나. 고대 근동의 다산 숭배 예식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 다. 계절과 기후의 조건이 예측하지 못하게 변화하는 현상은 신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신화는 영적 세계와 지상에서의 삶을 배경으로 인간과 신의 조화를 다룬다.

#### III. 누가 어떻게

- 가. 누가(남신들과 여신들)
  1. 이집트
    - ㄱ. 이시스(여신)
    - ㄴ. 오시리스(남신)
  2. 메소포타미아
    - ㄱ. 이스탈/이난나(여신)
    - ㄴ. 탐무스/두무시(남신)
  3. 가나안
    - ㄱ. 바알(남신)
    - ㄴ. 아세라, 아스탈테, 아낫(여신)
- 나. 각 쌍의 신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신화화되었다
  1. 하나가 죽는다
  2. 다른 하나가 회복된다
  3. 신들이 죽고 또 일어남은 해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흉내내는 형태였다
- 다. 인간의 성적 결합(즉, 신들의 결혼)을 ‘곡식과 가축과 사람의 번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는 마술적 모방이 행해졌다.

IV. 이스라엘 사람들

- 가. 다산 숭배적 종교(특히 가나안의)를 피하라고 야웨의 백성이 경고를 받았다(즉 레위기와 신명기).
- 나. 이러한 종교는 인간의 존재를 대신하며 성적 행위에 강조점을 두었기에 매우 널리 대중화 되었다.
- 다. 우상숭배는 야웨께 대한 인격적인 믿음과 신뢰 대신에 어떤 종교적 혹은 의식적 방법으로 생명의 축복을 구하려는 시도이다

V. 추천 도서

- 가. W. F. 올브라이트,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
- 나. J. H. 브레스넛, *고대 이집트에서의 종교와 사상의 발전*
- 다. 제임스 G. 프랫저
  - 1. *아도니스, 앳티스, 오시리스*
  - 2. *구약의 전승*
  - 3. *자연 숭배*
- 라. C. H. 고든, *성경 앞에서*
- 마. S. N. 크래머, *고대 세계의 신화학(Mythologies)*

**특별주제: 몰락**

몰락(BDB 574)의 예배 및 풍요를 염원하기 위해 공동사회의 모든 장자를 희생제물로 삼아 제사드렸던 가나안(암몬)의 ‘불’신에 대한 예배를 야웨께서 금하셨다. 그 신의 이름(이스라엘인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서)이 히브리어말로 자음은 “왕”과 같으나 “부끄러움”이라는 모음을 넣어 불렀다. 이스라엘은 이 신들에 대해 일찍부터 그리고 자주 경고를 받았다(참조, 레 18:21; 20:2,3,4,5; 왕상 11:7; 왕하 23:10; 렘 32:35; 미 6:7). 이런 예배는 자주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이란 구절로 불려졌다(참조, 12:31; 18:10; 왕하 16:3; 17:17,31; 21:6; 시 106:37; 렘 7:31; 19:5).

57:6e

- NASB “내가 어찌 이것들에 관하여 노여움을 풀겠느냐”
- NKJV “내가 어찌 이것에 있어서 위로를 받겠느냐”
- NRSV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느냐”
- TEV “너희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이 ‘비록 야웨의 이름으로 다산적 예배를 행할지라도’ 그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다!

57:7 이것은 언덕 위에 놓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가리킨다(참조, 신 12:2; 왕하 17:10; 렘 3:6; 17:2; 호 4:13). “네 침상을 베풀었고”라는 구는 땅의 소산과 짐승 떼와 인구의 증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다산숭배에 따른 성행위 예식을 가리킨다(참조, 8b-d 절).

57:8 처음 두 행의 의미가 애매모호하다. 이것은 다음 여러 장소에 세운 우상을 가리킬 것이다

- 1. 그들의 집에
- 2. 마을의 벽에
- 3. 성전 안에(참조, 겔 8-10 장)

이 일은 이교 국가들과의 정치적/군사적 연합을 함으로써 그들이 이방인의 신들을 섬겨야 했던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을 가질 것이다(참조, 8d-e 절, 9 절).

▣

NASB	“네가 그들의 남자됨을 보았으며”
NKJV	“네가 그들의 손을 본 곳”
TEV	“거기서 네가 네 성욕을 채웠다”
NJB	“거룩한 상징을 네 눈으로 보며”
JPSOA	“네가 성욕을 선택하였다”
NRSV, NIV, 페쉬타	“네가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본 곳”
NET	“그들의 성기를 사모함으로 바라보았다”

서로 다른 문제의 핵심은 문자적으로 “손”을 뜻하는 *야드*(BDB 388, KB 386)와 관련이 있다. 우가릿어에서 *ydd*은 “사랑”을 뜻하고, 아랍어에서는 “남자의 성기”를 뜻한다(참조, NIDOTTE, 제 2 권 56 쪽). 다산적 예배에 관계된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힘”을 나타낸다. 성기를 가리키기 위하여 히브리 저자들이 사용한 여러 종류의 완곡 어구를 사용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발,” BDB 919, 참조, 출 4:25; 신 28:57; 사 3:24; 룻 3:8; 삼상 24:3; 겔 16:25).

57:9-10 이것은 그들이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않으려고 취한 정치적 예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57:9 “물렉” 이것은 다산숭배와 관련을 가진 물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이름은 “왕”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자음으로 되어 있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왕”에 B 등급(약간 불확실함)을 준다.

▣ “스울” 44:23 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개역개정 57:11-13

- <sup>11</sup>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 <sup>12</sup>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 <sup>13</sup>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57:11-13 이 연은 야웨께서 믿음없는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하시는 일련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들이 “종교적”(참조, 12,13a 절)이었으나 다음과 같이 행한 점이 비극적이다

1.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칼 완료형, BDB 269, KB 269, 부정됨)
2.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문자적으로는, “그것을 네 심장에 두지 않았다”임, 칼 완료형, BDB 962, KB 1321, 부정됨)

그들이 야웨를 부정한 것은 야웨께서 잠잠하셨기 때문이었다(11d 절). 이 말은 참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신 일 또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우상은 “헛 것”이며 “빈 것”이다. 바람이 우상들과 우상을 의뢰하는 자들을 날려 버릴 것이다.

57:11

NASB, NJB	“오랫동안”
NKJV	“옛부터”
TEV	“상당히 오래”
JPSOA	“오래”
REB	“눈길을 돌리다”
NAB	“보지 않아”

JPSOA에서는 수정된 본문을 제시하여 ‘그래서 내 눈을 감았다’로 제시한다(898 쪽). 이것을 REB와 NAB가 따른다. 이 *wm'lm*이라는 히브리 자음은 “또 영원부터” 혹은 “또 감추인”으로 번역될 수 있다.

57:13d-e 그러나 야웨를 의뢰하고 그에게 “피하는”(칼 분사, BDB 340, KB 337) 소수의 사람들은 보호하심을 받으며 다음의 선물을 누리게 될 것이다

1. 약속의 땅
2. 야웨의 임재하심(즉, 성전)

개역개정 57:14-21

<sup>14</sup> 그가 말하기를

돌우고 돌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sup>15</sup>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sup>16</sup>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sup>17</sup>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sup>18</sup>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sup>19</sup>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sup>20</sup>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sup>21</sup>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57:14** 포로에서 돌아오는 신실한 자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심과 관련하여 야웨께서 명령하시는 일련의 **명령문**이 나온다(참조, 40:3-4; 62:10).

1. 돌우고(2 회) - **칼 명령**, BDB 699, KB 757
2. 길을 수축하여 - **피엘 명령**, BDB 815, KB 937
3.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 **히필 명령**, BDB 926, KB 1202

**57:15** 하나님께 사용한 호칭 및 하나님의 특징을 주목하여 보라.

1. 높으신 분 - **칼 분사**, BDB 926, KB 1212(같은 **동사**가 14 절에서 “제거하다”로 사용됨, 즉, 높이기)
2. 존귀하신 분 - **니팔 분사**, BDB 669, KB 724(같은 **동사**가 7 절과 13 절에서 사용되었으나 다른 의미를 가짐)
3. 영원히 거하시며 - **칼 분사**, BDB 1014, KB 1496(문자적으로는, “영원히 거주하시는 분”; NET[1275 쪽]에서는 이 문맥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4.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5.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느 - **칼 미완료형**, BDB 1014, KB 1496(헛된 우상과 대조를 이룸)
6. 통회하고 (BDB 194 I) 마음(BDB 924)이 겸손한 자(BDB 1050)와 함께 있으심
7.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 **히필 부정사 연계형**, BDB 310, KB 309, 두 번 사용됨
  - ㄱ. 야웨께 대하여, 6 항
  - ㄴ. 야웨의 신실한 자에 대하여

**57:16a-b** 이것은 야웨께서 자신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하시는 내용이다.

1.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 **칼 미완료형**, BDB 936, KB 1224, 참조, 창 6:3
2.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 **칼 미완료형**, BDB 893, KB 1124, 참조, 시 79:5; 85:5; 103:9; 미 7:18-19

어느 기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침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어김으로 인하여 강박함에 따른 무서운 결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인간의 마음이 듣고 응답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구약에서 ‘인간이 가지는 사랑과 노함의 감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대한 묘사를 할 때, 이를 대조하여 나타내는 것은 흥미롭다.

1.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며 확실하다 - 신 5:10; 7:9; 시 30:5; 사 54:7-8; 렘 31:3
2. 노함은 잠간이다 - 신 5:9; 시 30:5; 사 26:20; 54:7-8; 57:16-19

**57:16c-d** 야웨께서는 왜 자신이 계속하여 노하지 않으시는지를 말씀하신다(41:2 의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된 하나님을 보라). 이것은 시 103:8-14 과 상당히 비슷하다.

1. 영(40:7 의 특별주제를 보라)이 내 앞에서 약하게 될 것이다
2. 호흡이 약해질 것이다

42:5 에 나타난 “영”(BDB 924)과 “호흡”(BDB 675)이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하여 보라. 신체적인 허약 및 ‘여기에 제시된’ 타락한 인간의 심리적 상태는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심(11 절과 17 절)과 분노하심(16 절과 17 절)을 감당할 수 없다!

**57:17** 야웨의 심판은 부모가 행하는 징계와 유사하다(참조, 호 11 장).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의 자녀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 하지만 슬프게도 어떤 이들은 깨달아 돌이키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돌이킬 수도 없다(17c 절, 1:3,4).

**57:18-21**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자들과 반역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명백한 대조를 이룬다.

1. 누우치는 자들 - 15-16,18-19 절
2. 반역하는 자들 - 17,20-21 절

57:18-19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19 절), 야웨께서 회개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위해 행하시려는 일들을 주목하여 보라(15 절).

1. 소생시킨다, 15 절 - *히필 부정사 연계형*(BDB 310, KB 309)
2.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한다, 16 절 - *칼 미완료형*(BDB 936, KB 1224)
3.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 할 것이다, 16 절 - *칼 미완료형*(BDB 893, KB 1124)
4. 내가 고쳐 줄 것이다, 18 절 - *칼 미완료형*(BDB 950, KB 1272)
5. 내가 인도할 것이다, 18 절 - *히필 미완료형*(BDB 634, KB 685)
6.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8 절 - *피엘 미완료형*(BDB 1022, KB 1532)
7. 평강이 있을지어다, 19 절 - *칼 분사*(BDB 135, KB 153)
8. 내가 그를 고치리라, 19 절 - *칼 완료형*(BDB 950, KB 1272)

57:20-21 반역적이고 신실하지 않은 언약백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 요동하는 바다
2. 평온할 수 없는 바다
3.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바다
4. 진흙을 늘 솟구쳐 내는 바다
5. 평강이 없음

# 이사야 5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금식을 행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	주께서 금식이 아니라 친절함과 정의를 바라신다	참된 금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
58:1-12 (1-12)	58:1-3a (1-3a)	58:1-5 (1-5)	58:1-2  58:3a  58:3b-5 (3b-5)	58:1-12 (1-12)
	58:6-9a (6-9a)	58:6-9a (6-9a)	58:6-7  58:8-9a	
	58:9b-12 (9b-12)	58:9b-12 (9b-12)	58:9b-12	
안식일을 지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상	안식일
58:13-14 (13-14)	58:13-14 (13-14)	58:13-14 (13-14)	58:13-14	58:13-14 (13-1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이 장에서는 인격적인 신뢰없이 행하는 종교적 의식을 정죄한다(참조, 사 29:13; 렘 7 장).

나. 이러한 영적 문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초래하였다.

개역개정 58:1-12

- <sup>1</sup>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 <sup>2</sup>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 <sup>3</sup>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 <sup>4</sup>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 <sup>5</sup>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끓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 <sup>6</sup>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명예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 <sup>7</sup>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 <sup>8</sup>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 <sup>9</sup>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 <sup>10</sup>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 <sup>11</sup>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sup>12</sup>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58:1 이사야서의 여러 장에서 보듯이, 이 장은 일련의 명령으로 시작한다(즉, 새로운 시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문학적 표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누가 말하고 있는가?
2. 누가 듣고 있는 내용인가?

여기서 명령으로서 나타내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평행법을 주목하여 보라):

1. 크게 외치라 - 칼 명령, BDB 894, KB 1128
2.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 칼 미완료형, BDB 362, KB 359,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3.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라 - 히필 명령, BDB 926, KB 1202
4. 알리라 - 히필 명령, BDB 616, KB 665

아래에서 자신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 다음의 사람들이 수신자이다:

1.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2. 포로기의 이스라엘
3. 포로에서 돌아 온 이스라엘
4.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

▣ “나팔” 이것은 BDB 1051 에 나온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이스라엘이 사용한 뿔**

히브리어에는 뿔/나팔과 관련된 단어가 4 개 있다.

1. “그 수양의 뿔” (BDB 901) - 소리를 내는 도구로 됨, 참조, 수 6:5. 같은 단어가 창 22:13 에서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사용한 뿔이 걸려 있던 양에 대해 사용되었다.
2. “나팔” (BDB 1051) - 들 양(야생 염소)을 말하는 앓시리아 단어이다. 이것은 출 19:16,19 에 있는 시내산/호렙산에서 사용되었다; 1 항과 2 항은 수 6:5 에서 병행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예배와 전투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였다(즉, 여리고의 경우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참조, 6:4).
3. “수양의 뿔” (BDB 385) - 수양을 말하는 페니키아어(참조, 6:4,6,8,13). 이것은 또한 희년을 나타냈다(참조, 레 25:13,28,40,50,52,54; 27:17,18,23,24).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아무런 구분이 없이 사용되었다. 미쉬나[RH 3.2]는 소의 뿔을 제외하고는 어느 동물의 뿔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양, 염소, 또는 영양)
4. “나팔” (BDB 348) - 아마도 “내뿔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똑바른 뼈(동물의 뿔처럼 굽지 않은 것)를 뜻한다. 은으로 이것을 만들었다(이집트에서 사용하던 것의 모양과 형태를 따라서).
  - ㄱ. 예배 의식에(참조, 민 10:2,8,10)
  - ㄴ. 군사적 목적에(참조, 민 10:9; 31:6; 호 5:8; 스 3:10; 느 12:35,41)
  - ㄷ. 왕의 용도로(참조, 왕하 11:4)

이러한 금속 뿔은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에도 나타난다; 또한 요세푸스는 이것에 대해 *유대 고대사*. 3.12.6 에서 설명한다.

▣ “그들의 허물을, . . . 그들의 죄를” 형식적 의식행위가 개인의 의를 대신하였다. 그들이 종교적이었지만, 야웨께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참조, 딤후 3:5). 종교는 각 사람의 참된 믿음을 방해한다!

58:2 거짓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라.

1.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는다
2. 그들이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3. 그들이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4. 그들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한다
5.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모든 내용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단지 말 뿐이요 행함이 없는 익살적인 종교적 행사와 겉치레에 지나지 않았다(참조, 29:13).

▣ “마치 공의를 행하여 . . . 하는 나라 같아서” 이것은 풍자적 말이다.

▣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이것은 다음 내용을 가리킨다

1. 우림과 둠뫼(즉, 대제사장, 참조, 출 28:30; 민 27:23; 신 33:8; 느 7:65)
2. 선지자들
3.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

58:3 “우리가 금식하되 . . .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하되”(칼 완료형, BDB 847, KB 1012)와 “마음을 괴롭게 하되”(피엘 완료형, BDB 776, KB 853, 참조, 레 6:29,31)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약에서는 금식하는 날로서 일년에 하루를 제시한다(속죄일, 참조, 6a 절).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이 날 외에도 국가적으로 있었던 비극적인 네 날을 금식일로 지켰다(즉,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성전이 파괴된 날, 등, 참조, 스후 7:3,5; 8:19).

▣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들이 “종교적” 이유에서 금식을 하였지만, 그 일꾼들이 일을 멈추고 함께 금식하게 하지는 않았다! 타락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58:4 금식일이 믿음을 돈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내게 하였다.

▣

NASB

“악한 주먹으로 치기”

AB

“가난한 자들을 주먹으로 치는도다”

70 인역

“겸손한 자를 네 주먹으로 치는도다”

맛소라 본문에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가 있다. 70 인역이 어떻게 3c-d 절에 있는 단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주목하여 보라.

▣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 금식의 한 가지 목적은 기도로써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이 금식이 정반대되는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참조, 1:15; 59:2).

58:5 이 절에서는 베옷과 재의 경우처럼 슬픔을 나타내는 여러 표식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것들은 단지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참조, 마 6:5, 16-18). 47:1의 특별주제를 보라.

58:6-7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 . .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신다(즉,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정의, 참조, 출 21:2; 레 25:39-41; 신 15:12; 렘 34:8-11, 예레미야서의 본문은 회년을 나타낸다; 딤후 1:16).

1.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 *피엘 부정사 절대형*, BDB 834, KB 986
2. 멍에의 줄을 끊어 주며 - *히필 부정사 절대형*, BDB 684, KB 736
3.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 *피엘 부정사 절대형*, BDB 1018, KB 1511
4.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 *피엘 수동 분사*, BDB 954, KB 1285
5.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 *칼 부정사 절대형*, BDB 828, KB 969
6.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 *히필 미완료형*, BDB 97, KB 112, 참조, 마 25:35; 롬 12:13; 딤후 3:2; 딤후 1:8; 히 13:2; 벧전 4:9
7.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 *피엘 완료형*, BDB 491, KB 487, 참조, 약 2:14-18
8.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 *히트피엘 완료형*, BDB 761, KB 834, 참조, 딤후 5:8

이것은 마 25:31-46 에서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께서 양(믿는 신실한 자들)과 염소(이기적으로 행하는 불신자들을) 구별함에 있어서 사용하신 기준의 배경을 이룬다. 이것은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뒤바뀐 타락(즉, 이기적 삶)의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이다(즉, 이타적 삶).

58:8-9b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삶으로써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다. 어떤 종류의 신실함에 대한 것인지를 주목하라.

1.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다
2.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3.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할 것이다
4.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할 것이다
5.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6.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참조, 65:1)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시기 원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와 반역은 심판과 분리를 가져왔다!

▣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것은 출애굽 때에 나타났던 “영광의 구름”을 가리킨다(참조, 출 14:19 및 사 52:12).

58:9c-10 “만일” 이것은(참조, 9 절과 10 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상호적 언약 관계에 있는 조건적 요소를 나타낸다. 그 조건을 살펴보자.

1.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
2. 손가락질을 멈추라, 참조, 잠 6:13
3.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4.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라(*히필 지시형*, BDB 807, KB 920)
5.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

58:9 “손가락질” 이것은 악한 몸짓과 악한 말을 가리킨다(참조, 잠 6:13)

58:10c-12 조건적 언약에서 “~하게 된다”라는 내용(축복)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참조, 레 26 장; 신 28-29 장).

1.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르게 될 것이다
2.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3.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실 것이다
4. 여호와께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5. 여호와께서 네 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6. 너는 물 댄 동산 같게 될 것이다
7.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8.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9.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10.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11. 너를 일컬어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선지자가 야웨의 임재하심과 축복을 묘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그림을 사용하였다.

1. 빛 대 어두움
2. 목자의 그림
3. 농업적 축복
4. 재건하는 그림

58:11 이 절에서는 본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 11b 절

NASB “네 욕구를 만족시키신다”

NKJV “가뭄에서 네 영혼을 만족시키신다”

TEV “너를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신다”

NJB “마른 땅에서 너의 필요를 만족시킬 것이다”

JPSOA “그가 말라붙은 곳에서 네 갈증을 해결시켜 주실 것이다”

페쉬타 “네 영혼을 좋은 음식으로 만족시키신다”

70 인역 “네 영혼의 욕구, 바로 그것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욕구”라는 단어는 *네페쉬*(BDB 659)로서, 많은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마른 땅”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나온다(BDB 850, KB 1019). 그 의미는 불확실하다.

2. 11e 절

NASB, NKJV “그곳의 물이 그치지 않는다”

맛소라 본문의 동사(BDB 469, KB 467, *피엘 미완료형*)은 “거짓말하다” 혹은 “속이다”를 뜻한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이 결코 ‘거짓을 말하거나 속이지 않음을’ 나타낸다(즉, 항상 흐른다[NJB]).

58:12

NASB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JPSOA “거주하도록 길을 수축하는 자”

70 인역 “너는 그들 사이의 길들로 하여금 쉬게 할 것이다”

페쉬타 “거할 곳으로 가는 길을 수축하는 자”

REB “폐허가 된 집들을 개건하는 자”

맛소라 본문에는 “길들”(BDB 677)로 되어 있다. 이 단어는 “거주하다”(칼 부정사 연계형, BDB 442, KB 444)라는 동사 때문에 “거리”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 개역개정 58:13-14

<sup>13</sup>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58:13-14 이 연은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써 우리의 자세와 신실함을 알 수 있음을 나타낸다.  
 1.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참조, 13 절)  
 2. 안식일을 일컬어 “존귀한 날”(동사 카보드, BDB 457, KB 455, 13 절에서 두 번 사용됨)이라 부르면  
 언약의 조건적 요소를 주목하여 보라(“만일...그렇다면”). 그 혜택이 14b,c 절에 나온다.

58:13 “안식일” 출 20:8-11 과 사 56 장을 보라.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안식일**

이 용어는 “휴식” 혹은 “활동을 중단함”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다. 이날은 창조의 제 7 일과 관련이 있다. 그 날 하나님은 초기의 창조를 마치신 후 일을 멈추셨다(참조, 창 2:1-3).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여 쉬신 것이 아니라 (1) 창조를 마치셨으며 이 일이 좋았기 때문이며(참조, 창 1:31) 또한 (2) 사람들에게 예배와 쉼을 위한 정기적인 질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안식일은 창 1 장에 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저녁에 시작된다. 따라서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공식적인 안식일 기간이다. 이 날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특히 16, 20, 31, 35 장)와 레위기(특히 23-26 장)에 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지킨 규정들의 내용을 그들의 구전적 전통이 다루어 제시하는 것 및 이 규정들을 해석하여 여러 세부 규정을 추가시킨 내용을 지켰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까다로운 규정을 아시면서도 종종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와 사랑이 없음에 대해 그리하신 것이다.

58:14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능력과 그 약속이 신실함을 나타낸다(참조, 사 55:11)!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성경적인 믿음과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2. 윤리적 삶은 신학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3. 금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4.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날 유효한가?

# 이사야 5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께서로부터 분리됨 59:1-8 (1-8)	하나님께서로부터 분리됨 59:1-3 (1-3)  59:4-5 (4-5)  59:6-8 (6-8)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함 59:1-8 (1-8)	선지자가 백성의 죄를 정죄하다 59:1-3  59:4-8	회개의 시 59:1-4 (1-4)  59:5-8 (5-8)
악함을 고백함 59:9-15a (9-15a)	죄를 고백함 59:9-15a (9-15a)  시온의 구속자	59:9-15a (9-15a)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다 59:9-11  59:12-15a	59:9-11 (9-11)  59:12-15a
59:15b-20 (15b-20)	59:15b-19 (15b-19)  59:20 (20)	59:15b-19 (15b-19)  59:20 (20)	59:15b-21	59:15b-20  예언
59:21	59:21	59:21		59:21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사야서의 이 단락에서 여러 시(즉, 장들)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나는 R. K. 해리슨의 견해, 즉 이사야가 죽은 후에 그의 설교/가르침/글을 모아 놓은 선집이 이사야서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 책은 서구의 역사적 순서에 따른 방법이 아니라 동양적 방법(주제, 언어유희)에 의해 구성되었다.
- 나. 사람들은 이 예언의 내용에 대하여 놀란다.
1. 이 예언들은 다중적 성취를 나타내는가(즉, 7:14; 또한 단 11:31; 12:11)?
  2. 이 예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을 나타내는가? 즉, 언약에 따른 모든 종류의 혜택에도 불구하고(참조, 롬 9:4-5) 그들이 행할 수 없음을 뜻하는가?
  3. 이 예언들은 이사야의 사역기간 중 서로 다른 시기에 속하는 시/예언들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 다. 오늘날의 해석가들이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것은 시이지 역사적 서술체가 아니다
  2. 이 시들은 각각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진술이 없이 제시되고 있다
  3. 여기에 있는 여러 단어가 성경 혹은 알려진 셈어의 자료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었다
  4. 일부 시행에 근거하여 교리적 내용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보라
    - ㄱ. 평행법
    - ㄴ. 이사야서와 미가서 사이의 평행본문
    - ㄷ. 본문/개념의 신약에서의 용법(참조, F. F. 브루스, *질문에 대한 대답*, 87-88 쪽)
- 라. 유대인의 연구성경(901 쪽)은 이 장을 세 부분으로 제시한다.
1.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한다(즉, 공동체의 죄)
  2. 백성들 중 신실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다(개인적으로)
  3. 선지자가 다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야웨의 말씀을 증거한다
    - ㄱ. 회개하는 충성된 자들에 대한 긍휼하심(참조, 20, 21 절)
    - ㄴ. 강박한 자들에 대한 심판
      - (1) 유대인
      - (2) 해변거민(즉, 이방인)

##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59:1-8

<sup>1</sup>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sup>2</sup>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sup>3</sup>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sup>4</sup>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sup>5</sup>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sup>6</sup>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sup>7</sup>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sup>8</sup>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59:1-2 앞에 나오는 이 두 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품이나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에 기인한 것이었다.

1 절은 선지자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반문하는 내용이다(즉, 여호와와 약속이 어디 있는가?). 이사야는 백성들이 수군대는 말을 여러 번 기록하였다(즉, 40:27; 49:4,14).

59:1 “손” 이것은 행동을 뜻하는 히브리어 관용어이다(참조, 51:9). 40:2의 특별주제를 보라.

인간의 여러 신체 부위로써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음을 주목하라(41:2의 특별주제를 보라).

1. 손
2. 귀
3. 얼굴

또한 인간의 악함을 묘사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신체 부위를 사용하고 있음도 주목하여 보라.

1. 손, 3 절
2. 손가락, 3 절
3. 입술, 3 절
4. 혀, 3 절
5. 발, 8 절에서 암시하고 있음

59:2 “듣지 않으시게” 이 단어(BDB 457, KB 455, **칼 완료형**)는 “무겁다,” “짐이 되다” 또는 “명예롭게 하다”를 뜻한다. 이 문맥에서 이것은 들을 수 없음을 나타낸다. 창 48:10에서는 “눈”이, 출 9:7에서는 바로의 “심장”이 이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이 동사(BDB 95, KB 110, **히필 분사**)는 여러 의미를 가진다.

1.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에서 갈라놓으심, 창 1:4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분하심
3.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함
4. 여러 조각으로 나눔(즉, 희생제물)
5. 야웨와 모세가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세움(특히, 아론, 대상 23:13)
6.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함(참조, 신 29:30)
7. 외국인을 배제시킴(참조, 느 13:3)
8. 음악가들을 구별함
9.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기자신을 외국인과 이교도로부터 구별함(참조, 스 6:21; 9:1; 10:11; 느 9:2)
10. 자신을 지도자로 구별함(즉, 다윗, 대상 12:8)

이 문맥에서 이것은 독특한 용법을 가진다. 이스라엘의 죄는 언약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을 정서적 및 영적으로 언약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임재, 약속, 공급하심, 보호하심으로부터 단절시켰다!

이러한 심각한 영적 상태는 이 시의 다음 행과 평행법을 이룸으로써 잘 제시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감추셨다(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59:3-8** 이 절들은 분리됨을 가져온 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하고 있다(평행을 이루는 행으로써).

1.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졌다, 3 절
2.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 3 절
3. 재판이 부정부패로 가득찼다, 4 절(네 가지의 **부정사 절대형**을 주목하라)
4. 너희는 악과 폭력을 피한다, 5-7 절(참조, 욥 8:14-15; 15:35; 잠 1:16; 또한 7 절에 대하여는 롬 3:15-17 을 보라)
5. 그들은 평강(참조, 26:3,12; 57:20-21; 눅 1:79) 또는 정의(8 절)의 길을 알지 못한다(네 가지 **완료형 동사**를 주목하라)

**59:4** 13 절의 경우처럼, 4 절도 인간의 악한 행위를 묘사하기 위하여 **부정사 절대형**을 사용하고 있다.

1.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칼*, BDB 105, KB 120
2. 거짓을 말하며, *피엘*, BDB 180, KB 210
3. 악행을 잉태하여, *칼*, BDB 247, KB 255(참조, 욥 15:35)
4. 죄악을 낳으며, *히필*, BDB 408, KB 411

#### 개역개정 59:9-20

- <sup>9</sup>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하므로
- <sup>10</sup> 우리가 맹인 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 <sup>11</sup> 우리가 꿈 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 <sup>12</sup>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14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엮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15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으로 삼으시고  
 18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19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2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59:9-11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를 나타낸다(3-8 절)

1.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2.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3.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4.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하므로
5. 우리가 맹인 같이 담을 더듬으며(BDB 178, KB 206, *피엘 청유형*, 2 회, 참조, 신 28:29; 렘 13:16; 암 5:18,20)
6. 우리가 꿈 같이 부르짖으며
7.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8. 정의를 바라나 없고
9.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6 항은 구약에서 단 한 번 사용된 은유적 표현이다. TEV 는 이 구와 다음 행을 “우리가 놀라고 낙담하였다”로 번역한다(풀어서 말한다). NASB 연구성경의 각주에서는 이것을 “초조해하고 좌절한”으로 나타낸다.

7 항의 은유적 표현은 38:14; 겔 7:16; 나 2:7 에도 나온다.

59:12 12 절은 현재의 영적상태를 묘사한다.

1. 이스라엘의 허물이 야웨 앞에 심히 많다
2.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을 쳐서 증언한다
3. 이스라엘의 허물이 그들과 함께 있다
4.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을 알고 있다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언약백성이 지은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스 9:6-7). 이것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행한 일이었다(참조, 레 16 장). 개인이 범한 죄에 그 결과가 따르듯이, 공동체가 범한 죄에도 죄의 결과가 따른다!

59:13 13 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말한다.

1. 배반하고 - BDB 833, KB 981, 칼 부정사 절대형
2. 야웨를 속였으며 - BDB 471, KB 469, 피엘 부정사 절대형
3.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 BDB 690, KB 744, 니팔 부정사 절대형
4.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 BDB 180, KB 210, 피엘 부정사 절대형
5.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 BDB 247, KB 255, 포엘 부정사 절대형
6. 거짓말을 마음에서부터 낳으니/말하니 - BDB 211, KB 237, 포엘 부정사 절대형

저자가 4 절과 13 절에서 **부정사 절대형**을 사용하여 기교있게 제시함을 주목하여 보라! 아브라함의 신실치 않은 씨들이 자신들의 속 마음(즉, 자기 중심적 사고)을 그들의 삶의 자세로써 나타내 보이고 있다(참조, 딤후 1:16). 그들이 말은 야웨께 대하여 하지만, 삶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있다(참조, 6:9-10; 29:13).

59:14-15a 미리 계획한 이 영적 반역의 결과를 보라.

1.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2. 공의가 멀리 섰으며
3. 성실이 거리에 었드러지고
4.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5. 성실이 없어진다

의인법을 주목하여 보라! 의롭게 살려는 자들이 죄악된 자들의 표적과 먹이가 되고 있다!

59:15b-16b 언약백성인 이스라엘은 야웨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야웨의 도구였다. 그들은 비참하게도 실패하였다.

1. 그들의 행위와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2. 정의가 없었다
3. 의로운 자가 없었다
4. 중재자가 없었다(참조, 겔 22:30)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을 취하셔야만 되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겔 36:22-38 과 비슷한 내용이다. 즉, 겔 31:31-34 에 나오는 “새 언약”을 묘사한다.

선지자가 15b-20 절에서 야웨께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야웨께서는 21 절에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59:16d 타락한 인간(비록 그들이 언약 백성일지라도)의 무능력함을 인하여, 야웨께서 행동을 취하신다.

1. 그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참조, 52:10; 63:5
2. 그가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신다

누가 “그”인가? 문맥상, 이것은 고난받는 종(즉, 메시아) 또는 야웨의 선지자(즉, 이사야)를 가리킨다.

59:17 야웨께서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로서 묘사된다. 이 본문은 바울이 엡 6:10-17 에서 사용한 군인의 그림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이룬다.

1. 그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2. 그가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3. 그가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4. 그가 열심을 입어 겹옷으로 삼으신다

59:18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리이다.

1. 욥 34:11
2. 시 28:4; 62:12
3. 잠 24:12
4. 전 12:14
5. 렘 17:10; 32:19
6. 마 16:27; 25:31-46
7. 롬 2:6; 14:12
8. 고전 3:8; 고후 5:10
9. 갈 6:7-10
10. 딤후 4:14
11. 벧전 1:17
12. 계 2:23; 20:12; 22:12

모든 사람이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선택하여 행한 일의 결과가 시간을 두고 우리를 따라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잊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린다!

▣ “섬들에게” 이 단어(BDB 15 D)는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40:15; 41:1,5; 42:4,10,12,15; 49:1; 51:5; 59:18; 60:9; 66:19). 이 단어는 종종 다른 여러 민족 혹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59:19-20 야웨께서 보응(BDB 168)하시는 목적은 구속하시기 위함이다(즉, 주님의 이름을 경외함). 구속자(참조, 41:14; 43:1; 44:22)가 이스라엘에서 오신다(즉, 메시아). 그는 모든 이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BDB 996, KB 1427, **칼 분사**, 44: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유대인의 불신앙과 반역을 다룬 신약의 문맥은 롬 9-11 장이다. 바울은 롬 11:26-27 에서 20 절의 내용을 사용하였다. 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르고, 또 이 둘이 어떻게 하나로 되는지를 잘 나타내는 신약의 본문은 바로 롬 3:21-31; 9-10 장; 갈 3 장; 히브리서의 본문이라고 생각한다!

59:19 “여호와와 이름” 52:6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59:21

<sup>21</sup>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59:21 야웨(“나로서는”)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또는 영적으로 신실한 아브라함의 씨에게, 참조, 롬 2:28-29; 9:6; 갈 6:16). 하나님께서 다음의 사항을 약속하신다

1. 하나님의 영
2. 하나님의 계시

### 3.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심

▣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45:17의 특별주제를 보라. 예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내가 즐겨 사용하는 책은 D. 브렌트 샌디의 *보습과 전정고리*이다. 그는 “영원히”의 용법이 가진 은유적 성격을 잘 다루고 있다(99-101쪽을 보라). 그는 “영원히”는 종종 “이 표현이 설명하는 동사의 뜻을 강화하여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제시한다.

# 이사야 6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영화롭게 된 시온	이방인들이 시온을 축복하다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	예루살렘의 미래의 영광	예루살렘의 광채
60:1-3 (1-3)	60:1-3 (1-3)	60:1-3 (1-3)	60:1-3 (1-3)	60:1-11 (1-11)
60:4-9 (4-9)	60:4-7 (4-7)	60:4-16 (4-16)	60:4-5 (4-5)  60:6-7 (6-7)	
	60:8-9 (8-9)		60:8-9 (8-9)	
60:10-14 (10-14)	60:10-12 (10-12)		60:10-12 (10-12)	
				60:12 (12)
	60:13-14 (13-14)		60:13-14 (13-14)	60:13-18 (13-18)
60:15-22 (15-22)	60:15-16 (15-16)		60:15-16 (15-16)	
	60:17-18 (17-18)	60:17-22 (17-22)	60:17-18 (17-18)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신 하나님			
	60:19-22 (19-22)		60:19-22 (19-22)	60:19-22 (19-2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59장과 60-62장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나. 60-62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제시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하여 다루는 단락이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60:1-3

- <sup>1</sup>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 <sup>2</sup>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 <sup>3</sup>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60: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개의 **칼 명령**이 언약백성들에게 그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세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밝힌다.

빛은 이 장에서 다음 내용을 묘사하기 위하여 반복되는 은유적 표현이다:

1. 하나님의 임재, 60:1,2,9-20; 계 21:23; 22:5
2. 영적 거룩함, 60:1,3,5,21; 62:1
3. 빛과 관련이 있는 이 은유적 표현이 이사야서에서 반복하여 나타난다(참조, 9:2; 58:8; 59:9)

▣ “네 빛이 이르렀고” 1-22 절에서 주어는 “시온”이다(참조, 14 절).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오다”(BDB 97, KB 112)라는 동사가 이 장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1. 이르렀다 - **칼 완료형**, 1 절
2. 왔다 - **칼 완료형**, 4 절
3. 올 것이다 - **칼 미완료형**, 4 절
4. 올 것이다 - **칼 미완료형**, 5 절
5. 올 것이다 - **칼 미완료형**, 6 절
6. 가지고 올 것이다 - **히필 부정사 연계형**, 9 절
7. 가지고 오다 - 6 항과 같음, 11 절
8. 올 것이다 - **칼 미완료형**, 13 절
- 9-10. 가지고 올 것이다 - **히필 미완료형**, 2 회, 17 절
11. 있을 것이다 - **칼 미완료형**, 5 절

히브리 동사가 시간적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그 요소가 나타남을 기억하라.

▣ “여호와와의 영광” 이것은 1 행에 있는 “빛”과 평행을 이룬다. 이 구는 이사야서의 다른 곳에서 빛/빛들(참조 24:23; 58:8) 및 농업적 풍요(참조, 35:2)와 관련을 가진다. “영광”(BDB 458)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영광의 구름인 **쉐키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참조, 출 13:21-22; 14:19,20,24; 19:16-18; 20:21), 야웨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함께 임재하셨음을 상징한다. 불과

번개는 야웨께서 시내 산으로 강림하심과 관련을 가졌다(참조, 출 19-20 장). 따라서 밝음은 “영광”의 한 면을 이룬다.

60:2 이것은 물리적인 어두움을 창 1:1-2; 출 10:21-23; 9:1 에서 뜻하는데, 죄에 의해 영적으로 어두움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다. 야웨께서는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뒤덮는 어두움이 계속됨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참조, 창 3 장).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인한 빛이 떠오를 것이다(칼 미완료형, BDB 280, KB 281).

60:3 “나라들은 네 빛으로...나아오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신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는 일’이었음을 드러낸다(참조, 61:6,11b; 62:2,11; 창 12:3; 출 19:5-6). 40: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미가와 요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 가운데 다음 사항의 전세계적 적용을 바라본 자는 이사야였다.

1. 유일신 신앙
2. 구약의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들
3. 이스라엘의 복음전도적 목적

2:3; 45:14,22-25; 49:23 을 참고하라. 이 절은 분명히 요 3:16; 딤후 2:4; 뱀후 3:9 의 선구자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을 전 세계에 대한 내용으로 세계화시켰다(참조, 마 28:18-20; 눅 24:47; 행 1:8).

#### 개역개정 60:4-9

<sup>4</sup>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sup>5</sup>그 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움이라  
<sup>6</sup>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sup>7</sup>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웃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sup>8</sup>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sup>9</sup>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60:4 “눈을 들어...보라” 이 둘은 칼 명령이다(참조, 49:18; 요 4:35). 명령문은 종종 새 연의 시작을 알린다.

▣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이사야 60-62 장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종말적 징조가 여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온다.

1.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자기 선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2. 열방이 유대인 죄수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오고 찬송을 올리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60:5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보게 된다”(칼 미완료형, BDB 906, KB 1157). 하나님의 빛을 봄에 뒤따르는 결과를 주목하라(참조, 1,4,19,20 절).

1. 기쁜 빛을 내며 - 칼 완료형, BDB 626, KB 676
2. 네 마음이 놀라고(문자적으로, 떨리고) - 칼 완료형, BDB 808, KB 922
3. 화창하리니 - 칼 완료형, BDB 931, KB 1210

이 소망과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인함이다.

1.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즉, 해상 민족의 부)
2.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올 것이다(참조, 6-7,11 절; 61:6)

평행을 이루는 시행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말한다

1. 야웨를 드러냄
2. 온 땅에 야웨의 임재하심이 있게 함
3.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족에 포함될 수 있게 길을 열음(참조, 56:7)

60:6 “여호와와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동사(피엘 미완료형, BDB 142, KB 163)는 이스라엘 및 온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참조, 40:9-10; 41:27; 42:10-13; 52:7). 이교도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놀랍지 않는가? 이것은 명백히 신학적으로 유일신 신앙적 목적을 제시한다(40: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께서 한 분 이시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창 3:8 과 레 26:12 에서 암시하고 있는 내용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다(참조, 창 1:26-27). 창 3:15 에 있는 바 모든 인간에 대한 약속 및 창 12:3 에 있는 바 온 땅의 족속들에 대한 언약적 축복의 소망이 결실케 되었다.

60:7 “느바웃” 이것은 “계달의 양 무리”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아랍족속을 가리킨다. 이 족속들을 창 25:13 에서 언급하고 있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들을 나바티안으로 불렀다.

60:8 “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것은 ‘회복되어 새롭게 된 예루살렘’으로 오는 수평선 위에 있는 배들의 돛을 가리킨다(참조, 9 절).

60:9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섬들”(또는 “해변”)을 사용하였다.

“앙망하다”라는 동사(피엘 미완료형, BDB 875, KB 1082)는 야웨를 신뢰함을 종종 나타낸다(참조, 8:17; 25:9; 26:8; 33:2). 30:18 에서 야웨께 대하여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라!

▣ “다시스의 배들” 다시스는 다음을 가리킬 것이다

1. 스페인 남부
2. 살디니아
3. 땅끝을 가리키는 잠언의 표현

▣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을 주목하라(또한 14,16 절을 보라).

1. 야웨(구원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2. 엘로힘(창조자요 공급자이신 하나님)
3.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언약의 하나님)

40:3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60:10-14

- <sup>10</sup>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 <sup>11</sup>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이라
- <sup>12</sup>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 <sup>13</sup>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 <sup>14</sup>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60:10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야웨의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본다: 그의 은혜(긴 기간, 참조, 시 103:10-14)와 그의 노하심(짧은 기간, 참조, 57:16; 시 103:9). 하나님의 심판은 그 성격상 부모가 행하는 면을 가지며,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참조, 롬 1-3 장; 히 12:1-13).

60:11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이 구는 (1) 확실한 안전이 보장됨과 (2) 성에 용이하게 들어감을 나타낸다(참조, 계 21:25).

60:12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이 경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 12:3 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과 비슷하다(참조, 27:29).

60:13 이 절은 새로운 성소(즉, 성전)를 레바논의 아름다운 목재를 사용하여 지음을 나타낸다.

▣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언약케와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심을 상징한다. 유대인들은 그룹의 날개 사이에 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인식하였다(참조, 시 99:5; 132:7).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60:14 “시온” “시온”(BDB 851)은 예루살렘 성과 동의어를 이룬다. 성전이 모리아 산에 있었지만, 이 도시를 그 지명으로는 좀처럼 부르지 않았다(참조, 62:1).

개역개정 60:15-22

<sup>15</sup>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sup>16</sup>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sup>17</sup>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sup>18</sup>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sup>19</sup>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sup>20</sup>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sup>21</sup>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sup>22</sup>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가 속히 이루리라

60:15-22 이 본문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계 21:1-27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관계에 대하여 두 가지 주요 견해가 있다:

1.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취하여,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중앙 성소에서 제사가 행해진다, 즉,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2. 이 본문은 교회를 상징하며, 이 내용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에게 이루어 진다, 즉, 무천년설.

이같은 모호성이 이스라엘을 “제사장들의 나라”로 일컫는 61:6에서 나타난다(참조, 출 19:6). 그러나 바로 이 용어는 뵤전 2:5,9 및 계 1:6에서 교회를 뜻한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언제나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끄는 일'이었다(참조, 62:2,11; 40:15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러나 그들이 이 일에 실패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택하시어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40:9의 특별주제를 보라!

60:15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이 구는 결혼을 가리키는 히브리 관용구이다. 우리는 이 용어가 창 29:21 이하에서 “레아”에 대하여 사용되었음을 본다. 결혼과 관련을 가진 이 관용어가 62:4-5에서 계속되며, 신약에서는 엡 5:21-31에서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나온다. “미워하다”는 비교를 뜻하는 히브리 관용어이다.

60:17 이것은 왕상 14:26-27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그 본문은 이집트에게 공물을 바치려고 성전의 귀금속을 벗겨낸 일을 말한다.

▣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것은 7-14장에서 언급한 바 메시아의 통치를 뜻한다.

60:18 이 예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폭력과 사회적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60:19-20 요한은 이 내용을 계 21:23; 22:5에서 사용하고 있다. 야웨의 임재하심이 참 빛이다!

60:20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새 날이 밝았다(밝을 것이다), 참조, 사 35:10; 65:19; 계 21:4.

60:21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은 백성이 회개할 경우에만 있을 것이다(44:22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새 심장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참조, 렘 31:31-34; 겔 36:22-38).

이러한 종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관한 신학적 논쟁의 자료가 되었다. 범죄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즉, 믿음, 회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가?(참조, 행 5:31; 11:18; 딤후 2:25). 다른 본문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끄는 설교에 대하여 말한다(즉,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응답한다, 참조, 마 3:8; 눅 3:8; 요 1:12; 행 2:38 등). 두 가지가 함께 성경적 진리이다! 이것은 동양의 역설적 제시를 서구인이 이해함에 있어서 가지는 문제를 나타낸다!

▣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이것은 창 17:8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영원히”라는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45:17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가 심은 가지요” 이같은 은유적 표현이 61:3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시 1편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표현은 사 11:1에서도 나타난다. 구약은 농업과 관련을 가진 여러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60:22 “천 명” 이 용어는 “천 명”을 의미한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천(אלפים)**

이것은 “천”(BDB 48)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진다.

1. 가족의 단위, 수 22:14; 삿 6:15; 삼상 23:23; 슥 9:7; 12:6
2. 군대의 단위, 출 18:21, 25; 신 1:15
3. 글자 그대로 천, 창 20:16; 출 32:28

- |   |
|---|
| <p>4. 상징적인 수자, 창 24:60; 출 20:6; 34:7; 신 7:9; 렘 32:18</p> <p>5. 동계 언어인 우가릿어의 알루프는 “지도자”를 의미한다, 창 36:15</p> |
|---|

▣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참조, 45:23; 61:11).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장에서는 “빛남” 혹은 “빛”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 왜 많이 나오는가?
2. 유대인들에게 문자적 의미의 회복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본문은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가?
3. 이방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가?
4. 15-22 절과 요한계시록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 이사야 6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고난받는 자가 높아짐	구원의 좋은 소식	시온의 사명	구원의 좋은 소식 (61:1-62:12)	선지자의 사명
61:1-3 (1-3)	61:1-3 (1-3)	61:1-4 (1-4)	61:1-4 (1-4)	61:1-9 (1-9)
61:4-9 (4-9)	61:4-7 (4-7)	61:5-7 (5-7)	61:5-7 (5-7)	
	61:8-9 (8-9)	61:8-11 (8-11)	61:8-9 (8-9)	감사
61:10-11 (10-11)	61:10-11 (10-11)		61:10-11 (10-11)	61:10-11 (10-11)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60 장은 마지막에 있을 결과를 말하며, 61 장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을 묘사한다.
- 나. 예수께서는 이 본문을 눅 4:16-21; 7:18-23 에서 자신에게 대하여 사용하셨다. 따라서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임이 분명하다(즉, 중).
- 다.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성령은 ‘삼위일체적 의미를 가진 신약의 성령’과 명백히 일치한다(즉, 미리 드러낸다).
  1. 40:7 의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영”을 보라

2. 40:13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라. 이 장은 어떤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역사적 상황을 사용하여 메시아 시대에 있을 미래의 사건을 묘사하는 경우를 잘 예시하고 있다(즉, 모형론).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61:1-3

<sup>1</sup>주 여호와와 그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sup>2</sup>여호와와 그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sup>3</sup>무릇 시온에서 슬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1:1 “주 여호와와 그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눈으로 볼 수 있게 일어났다(참조, 11:1-2; 42:1; 마 3:13-17; 막 1:9-11; 눅 3:21,22; 요 1:31-34). 한편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42:1의 특별주제: 성령의 인격을 보라.

▣ “기름을 부으사” 이것은 “메시아”(BDB 602, 40:10의 특별주제를 보라) 또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와 같은 단어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심 및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심을 나타내는 표시였다(참조, 시 23:5). 구약에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왕들이 기름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특별히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친히 부르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점에 기초하여, 요한 칼빈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묘사되는 세 가지 영역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참조, 히 1:2-3).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기름 부음(BDB 603)

- 가. 미용을 위해 사용(참조, 신 28:40; 룻 3:3 삼하 12:20; 14:2; 대하 28:15; 단 10:3; 암 6:6; 미 6:15)
- 나. 손님을 위해 사용(참조, 시 23:5; 눅 7:38,46; 요 11:2)
- 다. 병고침을 위해 사용(참조, 사 6:1; 렘 51:8; 막 6:13; 눅 10:34; 약 5:14) [위생을 위해서는 겔 16:9]
- 라. 장례의 준비를 위해 사용(참조, 창 50:2; 대하 16:14; 막 16:1 요 12:3,7; 19:39-40)
- 마. 종교적 목적을 위해 사용(물건, 참조, 창 28:18; 31:13[기둥]; 출 29:36[제단]; 출 30:36; 40:9-16; 레 8:10-13; 민 7:1[회막])

마.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사용

1. 제사장
  - ㄱ. 아론(참조, 출 28:41; 29:7; 30:30)
  - ㄴ. 아론의 아들들(참조, 출 40:15; 레 7:36)
  - ㄷ. 일반적 표현이나 칭호(참조, 민 3:3; 레 16:32)
2. 왕
  - ㄱ. 하나님에 의해(참조, 삼상 2:10; 삼하 12:7; 왕하 9:3,6,12; 시 45:7; 89:20)
  - ㄴ. 선지자에 의해(참조, 삼상 9:16; 10:1; 15:1,17; 16:3,12-13; 왕상 1:45; 19:15-16)
  - ㄷ. 제사장에 의해(참조, 왕상 1:34,39; 왕하 11:12)
  - ㄹ. 장로에 의해(참조, 사 9:8,15; 삼하 2:7; 5:3; 왕하 23:30)
  - ㅁ. 메시아적 왕인 예수님의(참조, 삼 2:2; 눅 4:18[사 61:1]; 행 4:27; 10:38; 히 1:9[시 45:7])
  - ㅂ.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참조, 고후 1:21; 요일 2:20,27 [크리스마])
3. 아마도 선지자들의(참조, 사 61:1)
4. 신적 구원을 위한 믿지 않는 자들
  - ㄱ. 고레스(참조, 사 45:1)
  - ㄴ. 두로 왕(참조, 겔 28:14, 여기서 그는 에덴동산의 은유적 표현을 사용함)
5. “메시아”라는 칭호나 용어는 “기름부음 받은 자”를 뜻함(BDB 603)

▣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40:10의 특별주제: 메시아를 보라)의 메시지는 소외되고 격리되며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는 자들에게 소망과 용서를 주는 내용이 될 것이다(참조, 35:5-6).

1-3 절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묘사함에 있어서 사용한 일련의 부정사 연계형을 주목하라.

1.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 *피엘*, BDB 142, KB 163
2.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 *칼*, BDB 894, KB 1128
3.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 2 항과 같음
4.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 *피엘*, BDB 636, KB 688
5.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 ㄱ. 준다 - *칼*, BDB 962, KB 1321
  - ㄴ. 준다 - *칼*, BDB 678, KB 733
6. 또 다른 부정사 연계형이 메시아 자신에게 대하여 사용됨 -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히트파엘*, BDB 802, KB 908

61:2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 이것은 희년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레 25:10). 이것은 매 50년마다 모든 빚진 자들을 놓아주어 원래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해였다. 구약에는 이 일이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예가 없다.

▣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동시에 일어남을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상을 받는 날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심판과 큰 슬픔의 날이다. 좋은 소식이 있기 전에 반드시 나쁜 소식이 있다(참조, 롬 1-3 장).

61:3 대조되는 내용을 주목하라(즉, “대신하여”).

1.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2.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3.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또한 7 절에서도 같은 종류의 대조가 있음을 주목하라.

1.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2.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 “화관...그 재” 이것은 머리 위에 놓는 여러 종류의 물건의 일부 예이다(참조, 겔 24:17).

▣ “기쁨의 기름으로” 화장품이 없었기에, 고대 사람들은 즐거운 때나 축제 때 올리브 기름을 바름으로써 준비하였다(참조, 시 45:7).

▣ “찬송의 옷으로” 이것은 옷을 자세나 영적 지위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한 구약의 예이다.

▣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시 1 편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람 및 지속적인 지원과 공급하심을 가리킨다(참조, 램 17:7-8). 여기서는 메시아를 뜻한다(참조, 60:12).

#### 개역개정 61:4-9

- <sup>4</sup>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 <sup>5</sup>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 <sup>6</sup>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 <sup>7</sup>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 <sup>8</sup>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 <sup>9</sup> 그들의 자손을 뜻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61:4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약속의 땅과 관련을 가진 이 내용의 강도를 충분히 느끼기는 쉽지 않다(참조, 49:8; 58:12; 60:10).

이 절은 풀려난 자들이 행할 여러 일들을 제시한다.

1.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2.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3.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 4 절의 마지막 행은 메소포타미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자들에게 저자가 말하는 내용이다.

**61:5** 5 절은 이방인들이 예물과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는 주제를 계속하여 다룬다.

신약의 계시에서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른다(참조, 막 1:15; 행 3:16,19; 20:21)!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이 다중적 성취를 뜻하는 예언이라고 해석한다. 그 약속들은 그들의 죄와 반역을 인하여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약속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된다. 40:9 과 40: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벧전 2:5,9 에서 바로 이 절을 사용한다(참조, 출 19:56-60; 또한 계 1:6 의 용법도 보라).

**61:7 “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상속제도에서 장자가 받는 몫을 가리킨다(참조, 신 21:17). 이스라엘이 야웨의 진노하심에서 배나 받았듯이(참조, 40:2), 이제 상을 배나 받게 된다.

▣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같은 놀라운 약속이 시 16:11 에도 있다. 언제 이 일이 있게 되는가?

1. 이 일은 메소포타미아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 온 포로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2. 이 일은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3. 그렇다면 미래적인 일이다
  - ㄱ. 메시아가 오신 이후의 이스라엘
  - ㄴ. 교회
  - ㄷ. 천년시대
  - ㄹ. 회복된 에덴동산

이것은 영감받은 옛 시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 않는다. 이 연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또 그것을 신약의 계시를 통하여 보는 것이 좋다!

**61:8 “무릇 나 여호와를 정의를 사랑하며”** 야웨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행동을 요구하신다!

열거된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

1. 정의를 사랑하며
2.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야웨의 성품을 묘사하는 놀라운 본문으로는 이 외에도 출 34:6; 민 14:18; 느 9:17; 시 86:15; 103:8-14; 145:8-9 이 있다! 49: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번제”** 70 인역 및 일부 맛소라 본문의 변이에서는 “불의의”(같은 자음으로 됨)로 나온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제사를 말하는 구에 B 등급을 준다.

▣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첫 언약을 계속하여 범했다. 이러한 사실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에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마침내 종료시키셨다(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을 떠남; 예루살렘의 멸망). 이러한 종료의 목적은 영적으로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가지는 새 언약을 시작하시기 위함이었다(참조, 렘 31:31-34; 겔 36:22-38).

61:9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는 표적과 메시지임을 가리킨다(즉, 빛, 참조, 42:6; 49:6; 51:4; 행 13:47).

개역개정 61:10-11

<sup>10</sup>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sup>11</sup> 땅이 짝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든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61:10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절은 야웨 안에서의 분깃을 인하여 기뻐하는 메시아 혹은 민족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12:1-2; 25:9; 41:16). AB 는 이 장에 세 화자가 나온다고 주장한다.

1. 선지자, 1-7 절(종일 것임)
2. 야웨, 8-9 절
3. 의인화된 시온, 10-11 절(181 쪽)

이 단락은 화자와 청중과 관련하여 이 시에 애매성이 나타남을 보여준다(즉, 시기). 많은 주석가들은 61:1-3 이 종의 다섯 번째 노래라고 생각한다.

나는 10-11 절이 회복되고 구속받은 인류(참조, 창 3:15)에 대한 것으로서, 엡 2:11-3:13; 롬 9-11 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크게 기뻐하리니”라는 동사구는 같은 어근(BDB 965, KB 1314)을 가진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강조를 나타내는 문법적 구조이다.

다음 행은 이 행과 평행을 이룬다. “즐거워 한다”라는 동사는 칼 지시형, (BDB 162, KB 189)이다.

▣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기쁨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적 표현으로 결혼 축제의 즐거움을 사용하고 있다. 이 은유적 표현은 신약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으로 확장되었다(참조, 고후 5:21).

61:11 사 40:8 과 55:10-11 을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만일 이 장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면, 왜 그 표현이 그렇게 민족적인 용어로 되어 있는가?
2. 메시아라는 용어를 정의하라.
3. 어떤 면에서, 또 어떤 목적에서 유대인이 제사장 나라인가?
4. 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과의 처음 언약을 깨뜨리셨는가?
5. 10절 이후에 나오는 옷과 관련된 은유적 표현이 왜 상당히 중요한가? 이 은유적 표현은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신자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 이사야 6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시온의 영광과 새 이름	시온의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구원의 좋은 소식 (61:1-62:12)	예루살렘의 영화
62:1-5 (1-5)	62:1-5 (1-5)	62:1-9 (1-9)	62:1-5 (1-5)	62:1-5 (1-5)
62:6-9 (6-9)	62:6-7 (6-7)  62:8-9 (8-9)		62:6-7 (6-7)  62:8-9 (8-9)	62:6-9 (6-9)  결론
62:10-12 (10-12)	62:10-12 (10-12)	62:10-12 (10-12)	62:10-12 (10-12)	62:10-11 (10-11)  62:12 (1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62:1-5

<sup>1</sup>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sup>2</sup>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와 입을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sup>3</sup>너는 또 여호와와 그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sup>4</sup>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빨라 (뿌르라) 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sup>5</sup>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2:1 “시온...예루살렘”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평행적 관계를 나타낸다. 예루살렘은 일곱 개의 산 위에 건축되었다. 시온 산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윗의 왕궁이 위치한 장소는 후에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 “잠잠하다”(칼미완료형, BDB 364, KB 361)와 “쉬다”(칼미완료형, BDB 1052, KB 1641) 라는 동사의 뜻이 부정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61:1 에 있는 긍정적인 진술과 관련을 가진다. “나”는 선지자 또는 종/메시아(하나님께서 42:14; 57:11; 64:12; 65:6 에 언급된 침묵을 깨뜨리신다)를 가리킨다. 60-62 장은 분명히 문학적으로 한 단위를 이룬다.

■ “의...구원” 이 단어도 평행적 관계에 있다. 의(48:1 의 특별주제를 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지위와 삶의 양식에 대한 것으로서, 그들이 적들로부터 구출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우선적으로 육체적 구출을 뜻하지만, 신약에서는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용서를 받는 일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가리킨다. 시온(참조, 61:10-11)의 새 날이 이르렀고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참조, 2 절; 60:3)!

**특별주제: 구원(예수야)**

이 용어(BDB 447)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복지, 번영, 욥 30:15
2. 육체적 영적 면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
  - ㄱ. 창 49:18
  - ㄴ. 신 32:15
  - ㄷ. 시 3:2,8; 22:1; 35:3; 62:2; 69:29; 70:5; 78:22; 80:3; 89:26; 91:16; 106:4; 140:7
  - ㄹ. 사 12:2; 33:2; 51:6,8; 52:7,10; 56:1; 59:11; 60:18; 62:1
3. 육체적 영적인 구원의 개념은 욥 2:9-10 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4. “기쁨”은 종종 야웨의 구원과 관계된다, 삼상 2:1; 사 25:9; 26:1; 시 9:14; 13:5; 35:9

구원은 야웨께서 원래 의도하신대로 그의 창조물인 인간과의 교제와 교제권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온전성을 뜻한다!

▣ “빛...햇불” 시내 산에서와 마찬가지로(참조, 출 19-20 장), 또 다시 야웨의 임재하심을 빛으로 나타낸다. 60:1 의 설명을 보라.

이스라엘은 이교주의와 다산숭배로 인해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야웨의 “빛”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사로잡혀 갔다. 신약에서는 같은 내용의 계시적 사명(참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궁극적 빛이 되신다, 참조, 요 1:4; 8:12; 12:35)과 복음전도의 일을 신자들에게 맡기고 있다(참조, 마 5:14-16).

62: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볼 것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야웨를 증거하여 그들을 야웨께로 이끌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았다(참조, 11 절; 52:10; 60:3; 61:6,11; 뱀전 2:5,9; 계 1:6) 이것은 “제사장 나라”라는 구의 참된 의미이다(참조, 출 19:5-6).

▣ “너는...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성령의 새 시대를 나타낸다. 새 언약이 실현된다.

“새”(BDB 294 I)라는 용어는 의의 새 날을 묘사하기 위하여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아주 많이 나온다.

1. 새 일, 42:9; 48:6
2. 새 노래, 42:10(참조, 계 5:9; 14:3)
3. 새로운 어떤 것, 43:19(참조, 계 3:12)
4. 새 이름, 62:2(참조, 56:5)
5. 새 하늘과 새 땅, 65:17; 66:22(참조, 뱀후 3:13)

실체에 있어서, “새” 날(참조, 계 21:5)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항상 갖기를 원하신 날이었다. 그런데 창 3 장에 나오는 타락이 심각한 파멸을 가져왔다! 성경에서는 회복된 에덴 동산이란 그림이 천국을 나타냄이 분명하다(참조, 계 21:2).

62:3 *제롬 성경주석*(제 1 권, 383 쪽)은 ‘고대 동양인들은 그들이 사는 성과 같은 모양의 면류관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쓰고 있다고 믿었음’을 언급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이 개념에 대한 문화적 암시일 것이다. 이 견해는 다음에 기초한다

1. 야웨께서 62 장의 화자이심
2. 이 이교도적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었음

성경은 야웨를 묘사하고 또 높이기 위하여 이교도들이 가진 개념도 사용한다.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네 가지 예로서는 다음 사항이 있다:

1.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
2. 페르시아의 신에 대한 암시, 말 4:2
3. 황도대의 12 궁에 대한 암시, 계 12:1
4. 악을 용으로써 암시하는 것

사 28:5 에서는, 야웨 자신이 언약 백성의 면류관이심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이요 빛이며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며 승리이시다!

슌 9:16 에서는, 언약 백성이 야웨의 면류관에 있는 보석임을 말한다.

62:4 “버림 받은 자...황무지” 이것은 포로됨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설명한 내용이다(즉, 이것은 그들 자신에 대한 호칭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고 느꼈다(참조, 54:6-7).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기뻐함”은 “헵시바”(BDB 343, 참조, 왕하 21:1)라는 이름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우자로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의 연장선에 있다(참조, 4-5 절). 무한하시며 거룩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개념으로 묘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표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41:2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가까운 친족으로 묘사하는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온다.

▣ “결혼한” 이것은 “뿔라”(BDB 127)를 번역하여 놓은 표현일 것이다. 4행과 5행은 2절에서 말하는 “새 이름”을 나타낼 것이다.

이 동사(BDB 127, KB 42)가 4-5절에서 네 번 사용되었다.

1. 칼수동 분사, 4절
2. 니팔미완료형, 4절
3. 칼미완료형, 5절
4. 3항과 동일함

62:5

NASB, NKJV “그래서 네 아들들이 너와 결혼할 것이다”  
 NRSV “그래서 네 건축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다”  
 TEV “너를 만드신 이가 너와 결혼할 것이다”  
 NJB “너의 재건자가 너와 혼인할 것이다”  
 REB “그래서 네가 너를 재건하시는 분과 혼인하게 될 것이다”  
 70인역 “그래서 네 아들이 너와 함께 거할 것이다”

“아들들”이라는 자음(*byk*)을 다른 모음을 넣어 읽으면 “건축자”가 되어(즉, 야웨, 참조, 시 51:18; 102:16; 147:2), 이 연에서 말하는 결혼과 관련된 내용에 적합하게 된다.

엑스포지터스 성경주석(제1권, 336쪽)에서는 이 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5절은 60:16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상한 유비(analogy)를 제시한다. 두 경우 다 유비의 일반적 적용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생생한 감흥을 주기 위함일 것이다. 이러한 유비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만, 그것을 잊을 수 없게 한다!”

개역개정 62:6-9

<sup>6</sup>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sup>7</sup>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sup>8</sup>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sup>9</sup>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62:6 랍비들은 이것을 천사들에 대한 것으로 보았지만(참조, 슄 1:12-17), 이 본문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내용이다(참조, 52:8; 56:10[부정]; 램 6:17; 겔 3:17; 33:7).

▣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기도에 스스로 자신을 묶으심’을 말하는 신학적 진리를 가리킨다(참조, 약 4:2). 이것은 무감정한 신이 내켜 하지 않음을 극복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중보사역을 함에 대한 것이다(37:21-24의 특별주제를 내가 저술한 주석 제 11A 권에서 보라).

“세워”와 “기억하시게 한”이라는 동사는 둘 다 *히필*형이다.

62:8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41:2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신체를 갖고 있지 않으시다. 그는 영이시다(참조, 요 4:24).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맹세하신다! 야웨는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 안에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시며, 또한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맹세하심은 중요한 약속을 이룬다(참조, 54:9; 히 6:13-20; 7:20-28).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 사항을 상기시킨다

1.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55:11; 66:2d
2.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할 수 있음, 45:22-2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참조, 행 2:23; 3:18; 4:28; 벰전 1:20, 40:15의 특별주제를 보라). 52:13-53:12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우주적 구속의 기작을 제시한다(참조, 롬 5:12-21). 에덴에서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 “원수들...이방인” 이것은 이방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함을 가리킨다. 이것은 레 26:16 및 신 28:30-33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은 그것에 뒤따르는 결과를 맞보았다. 야웨께서는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 질 미래의 한 날을 약속하셨다.

62:9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적 동반자가 가지는 식사를 통한 교제를 나타낸다(참조, 신 12:18). 이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며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개역개정 62:10-12**

- <sup>10</sup>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 <sup>11</sup>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 <sup>12</sup>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62:10-11 이것은 야웨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여기에 일곱 가지 명령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1. 나아가라 - 칼, BDB 716, KB 778
2. 나아가라 - 1 항과 같음
3. 길을 닦으라 - 피엘, BDB 815, KB 937
4. 수축하라 - 칼, BDB 699, KB 757
5. 수축하라 - 4 항과 같음
6. 돌을 제하라 - 피엘, BDB 709, KB 768
7. 기치를 들라 - 히필, BDB 926, KB 1202
8. 이르라 - 칼, BDB 55, KB 65

62:10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다음 내용을 의미할 것이다

1.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성의 문(특히, 바벨론)

2. 아마 연대적 순서를 벗어나 재건축된 성문을 가리킬 것이다
  - ㄱ. 예루살렘(에스라, 느헤미야)
  - ㄴ. 성전

▣ “기치를 들라” 이것은 지파나 군대의 기를 가리킨다. 여기서 기치가 “백성들”위에, 11a 절에서는 “땅 끝까지” 들려 있음을 주목하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기가 ‘야웨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인정하는 모든 자들’의 기가 되었다.

▣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것은 자주 사용된 은유적 표현으로서 왕의 방문을 위하여 길을 닦는 것을 나타낸다(참조, 사 35:6-10; 40:3-4; 57:14).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1. 포로된 자들이 돌아옴을 나타낸다
2. 침례요한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로써 제시하였다

62:11 “땅 끝까지” 이것은 야웨의 약속이 온 세계에 대한 것임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이스라엘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나타낸다. 40:15의 특별주제를 보라.

▣ “~ 이르라” 세 가지 진리를 말하여야 한다(칼 명령).

1.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참조, 49:6)
2. 상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3. 하나님의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62:12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이것은 2 절에 나오는 “새 이름”에 대한 암시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이 이제 그들을 일컬어 “버림을 받은 자”나 “황폐한 자”(4 절)로 부르지 않고, 오히려 다음과 같이 부르게 될 것이다

1. 거룩한 백성
2.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3. 찾은 바 된 자

▣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구속하신”(BDB 145 I, 41:14의 특별주제를 보라)은 *고엘*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 사람은 가난 혹은 전쟁을 인하여 종이 된 자신의 친척을 사서 속량할 수 있는 친족이었다. ‘야웨께서 고엘이시다’라는 사실은 친밀한 가족적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실례에 속한다.

▣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 이 호칭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로부터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로 달려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사 62 장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에게만 대한 내용인가, 아니면 메시아의 통치를 가리키는 모형론에 속하는가?
2. 구약의 용어인 “의”와 “구원”을 정의하라.
3. 하나님께서는 왜 6 절에서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계신가?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은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 이사야 6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심	심판과 구원의 주님	신적 보복에 대한 시	민족들에 대한 주님의 승리	민족들에 대한 심판
63:1-6 (1-6)	63:1a (1a)  63:1b (1b)  63:2 (2)  63:3-6 (3-6)	63:1a (1a)  63:1b (1b)  63:2 (2)  63:3-6 (3-6)	63:1a  63:1b  63:2  63:3-6	63:1-6 (1-6)
옛적에 베푸신 공휼하심을 회상함	하나님의 공휼하심을 기억함	중보의 시 (63:7-64:1)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선하심	이스라엘의 역사를 묵상함 (63:7-64:1)
63:7-14 (7-14)	63:7-10 (7-10)  63:11-14 (11-14)	63:7-9 (7-9)  63:10-14 (10-14)	63:7 (7)  63:8-10  63:11-13a  63:13b-14	63:7 (7)  63:8-10 (8-10)  63:11-14 (11-14)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회개의 기도 (63:15-64:12)		공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63:15-64:12)	
63:15-19 (15-19)	63:15-19 (15-19)	63:15-19 (15-19)	63:15-17  63:18-64:7	63:15-19b (15-19b)  63:19c-64:11 (19c-64:11)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63:1-6

<sup>1</sup>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sup>2</sup>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나

<sup>3</sup>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sup>4</sup>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sup>5</sup>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sup>6</sup>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63:1-6 이것은 선지자/종 및 야웨 사이의 대화 또는 신랄한 비난(질문과 답변)이다.

1. 선지자가 처음 질문을 제기 한다, 1 절 - 야웨께서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에돔에서 오시는 것으로 묘사된다, 1a-d 절, 2 절
2. 야웨께서 대답하신다, 1e 절
  - ㄱ. 공의를 말하는 이요
  - 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3.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제기한다, 2 절
4. 야웨께서 대답하신다, 3-6 절
  - ㄱ.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다(즉, 심판)
  - ㄴ.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었다(참조, 5 절; 59:16)

▣ “에돔” 이 이웃나라는 야웨께 심판 받는 모든 이방 민족을 종종 상징한다(참조, 34:5-15).

## 특별주제: 에돔과 이스라엘

- 가. 에돔은 사해 동편에 있는 나라로서 야곱의 형제인 에서에게서 출발했다(참조, 창 25-28 장; 32-33 장). 에돔은 “붉은”을 뜻하고 에서는 “털이 많은”을 뜻한다(참조, 창 25:25,30).
- 나. 이스라엘은 에돔을 존중할 것에 대해 명령을 받았다(참조, 신 23:7)
- 다.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1. 민 20:14-21
  2. 삿 11:16-17
  3. 삼상 14:47-48
  4. 삼하 8:14
  5. 왕상 11:14-22
  6. 왕하 14:22; 16:5-6
  7. 대하 20:10-30; 21:8 이하
  8. 암 1:6,9
- 라. 에돔에 대항하여 선포된 예언들
1. 사 34:5 이하; 63:1 이하
  2. 렘 49:7-22
  3. 애 4:21-22
  4. 겔 25:12-14; 35:1-15; 36:2-6
  5. 암 1:11-12
- 마. 오바다서에서 에돔이 정죄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그들의 교만함을 인해, 3-4 절
    - ㄱ. 지정학적 안전함
    - ㄴ. 정치적 유대와 군사력
    - ㄷ. 상업적으로 부요함
    - ㄹ. 전통적으로 지혜로움
  2. 그들이 자신의 친족인 유다에 대한 범죄를 인해, 10-14 절
    - ㄱ.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음(애 2:15-17; 4:21)
    - ㄴ. 도와주기를 거부했음(15 절)
    - ㄷ. 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함(14 절)
    - ㄹ. 유다의 재산을 취함(렘 13:19)
  3. 그들이 야웨를 거부하고 업신여김(16 절)
- 바. 에돔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해 반역하는 모든 나라를 상징(모형)하였을 것이다, 15-21 절(참조, 시 2 편).
- 사. 이 예언의 역사적 성취는 다음과 같다
1. 예루살렘이 멸망한지 5년 후에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 에돔이 멸망함, 주전 580년
  2. 에돔이 나바티안 아랍에 의해 주전 550-449년 경에 페트라에서 쫓겨남(참조, 말 1:2-5). 느헤미야가 말한 주위의 적들에서 에돔은 언급되지 않았고 아랍 족속으로 대치되었다. 에돔은 네겝지방으로 이주했다
  3. 에돔이 알렉산더의 장군인 아티고누스에 의해 주전 312년에 패함(디오도루스 셀쿠루스에 기록됨)
  4. 에돔이 유대 마카비에 의해 주전 175년 경에 네게브에서 패함(참조, 마카비상 5:3,15; 마카비하 10:15;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2:8:1; 13:9:1)

5. 에돔이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 주전 125 년에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당함. 그들은 이제 이두메인으로 불린다
6.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주후 70 년에 이두매의 영향을 근절시켰다

▣ “보스라” 이곳은 에돔의 주요 도시였고, 종종 수도였다. 이 도시는 “화로다”로 시작되는 심판의 예언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다(참조, 사 34:6; 63:1; 렘 49:13,22; 암 1:12).



NASB, NRSV,

TEV, NJB

NKJV

JPSOA

REB

“진군하는”

“여행하는”

“압박하는”

“따라 확보하는”

51:14 에서, 이 단어(*차아*, BDB 858, KB 1040)는 “몸을 굽힘”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맞지 않는다. 어떤 이는 그 어근을 “행진함” 또는 “확보함”을 뜻하는 *차아드*(KB 1040)로 제시한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굽히다”에 B 등급을 주는데, 그 뜻은 평행법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

63:3 “포도즙틀” 심판을 나타내는 이 묘사가 애 1:15; 율 3:13; 계 14:19,20; 19:15 에서도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메시아께서 전사이신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63:4 보수의 날(참조, 34:8; 35:4,8; 61:2)이 구속의 날(해)에 앞서야 함을 주목하라!

야웨의 날과 구원의 날은 오시는 한 가지 일이 가지는 두 면을 나타낸다!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심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재연합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신실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심이 분리와 거부를 나타내는 최종적 사건이 된다(참조, 마 25:31-46; 계 20:11-15)!

63:5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이것은 1-2 행과 관련이 있다. 야웨께서 구원을 가져 오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으실 수 없으셨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참조, 겔 36:22-38).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5 장에서 사용한 회화적 표현의 배경이 될 것이다 -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메시아/종이신 그 분만이 홀로 그 책을 펼 수 있으시다!

63:6 야웨의 심판을 세 가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다(즉, 전사이신 야웨, 참조, 59:17; 출 15:3).

1. 밟았으며 - *칼 미완료형*, BDB 100, KB 115(2-3 절에서 세 번 사용된 단어인 “밟다”와 평행을 이룸)
2. 그들을 취하게 하였다 - *피엘 미완료형*, BDB 1016, KB 1500(심판을 술취함으로 나타냄, 참조, 51:22-23; 시 75:8)
3. 쏟아지게 하였느니라(문자적으로, “그들의 주스를 땅으로 가지고 왔다”) - *히필 미완료형*, BDB 432, KB 434(백성들이 죽어 땅에 뒹굴음)

개역개정 63:7-14

<sup>7</sup>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sup>8</sup>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sup>9</sup>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sup>10</sup>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sup>11</sup>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sup>12</sup>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sup>13</sup>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sup>14</sup>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63:7 “베푸신 모든 자비” 이것은 언약을 뜻하는 특별한 명사인 *hesed*이다. 40:6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을 따라” NASB에서 야웨를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세 번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모든 자비
2. 그의 많은 자비
3. 큰 은총

63:8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이것은 언약을 나타내는 용어이다(참조, 출 6:7; 사 51:4).

▣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것은 1:2-3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참조, 램 3:22).

▣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5절과 8b절 사이에 나타나는 대조를 주목하라. 비록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여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여야 한다!

63:9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영어에서는 야웨와 그의 언약 백성 사이의 연합을 나타내는 진술로 되어 있지만(참조, 57:15), 맛소라 본문에서는 그러한 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1. 이 구는 8절의 마지막 행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NRSV, TEV).

2. 이 구는 9 절의 두 번째 행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NJB).  
 맛소라 본문에는 “아니다”(לו, l')로 되어 있지만, 맛소라 학자들은 לו(lw, 그 사람)로 제시한다(케레, JPSOA).

▣ “자기 앞의 사자” 이것은 출 23:20-23; 33:14,15 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이다. 이것은 광야 방랑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의 죄는 야웨께서 자시의 한 대표자(즉, 주의 천사)를 대신 세워 행하시도록 만들었다.

야웨께서는 자신의 친밀한 임재하심을 확증하셨다(참조, 신 32:9-14).

1.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 칼 완료형, BDB 145, KB 169
2.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셨다 - 피엘 미완료형, BDB 642, KB 694
3.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셨다 - 피엘 미완료형, BDB 669, KB 724(참조, 46:3; 신 1:31)

또한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위격이 9-10 에 나타남을 주목하라.

1. 성부, 9a 절
2. 성육신 이전의 메시아, 9b 절
3. 성령, 10b 절

### 특별주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한 문맥적 상황에서 각각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개념은 설득력이 있다.

- 가. 복음서
    1. 마태복음 3:16-17; 28:19(또한 이와 평행을 이루는 구절에서)
    2. 요한복음 14:26
  - 나. 사도행전 - 행 2:32-33,38-39
  - 다. 바울
    1. 롬 1:4-5; 5:1,5; 8:1-4,8-10
    2. 고전 2:8-10; 12:4-6
    3. 고후 1:21; 13:14
    4. 갈 4:4-6
    5. 엡 1:3-14,17; 2:18; 3:14-17; 4:4-6
    6. 살전 1:2-5
    7. 살후 2:13
    8. 딤후 3:4-6
  - 라. 베드로 - 벧전 1:2
  - 마. 유다 - 20-21 절
- 하나님의 복수성을 구약에서 암시하고 있다
- 가.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형
    1. 엘로힘이란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항상 단수형 동사형 이다
    2. “우리,” 창세기 1:26-27; 3:22; 11:7
  - 나. 하나님의 천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나타남
    1. 창세기 16:7-13; 22:11-15; 31:11,13; 48:15-16
    2. 출애굽기 3:2,4; 13:21; 14:19
    3. 사사기 2:1; 6:22-23; 13:3-22
    4. 스가랴 3:1-2
  - 다. 하나님과 성령은 서로 구별됨, 창 1:1-2; 시 104:30; 사 63:9-11; 겔 37:13-14

라. 하나님(야웨)과 메시아(아돈)는 서로 구별됨, 시 45:6-7; 110:1; 스가랴 2:8-11; 10:9-12

마. 메시아와 성령은 서로 구별됨, 스가랴 12:10

바. 사 48:16; 61:1 에서는 3 위가 모두 언급됨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위격은 경직된 유일신을 믿는 초기의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다.

1. 터툴리안 - 성자를 성부께 종속시킴
2. 오리겐 - 성자와 성령의 신적 속성을 종속시킴
3. 아리우스 -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
4. 모나키안 주의 - 한 하나님께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연속해서 나타나셨다고 믿음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자료에 기초한 사항을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내용이다.

1. 주후 325 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그가 성부와 동등하심을 확인함
2. 콘스탄티노플 회의(주후 381 년)에서는 완전한 위격과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 동등하심을 확인함
3.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거스틴의 *데 트리니타테*에서 잘 설명된다.

여기에 커다란 신비가 있다. 한편 신약은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 위격으로 나타나셨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63:10** 두 동사가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또 두 동사가 야웨의 반응을 나타냄을 주목하라(동의어적 평행법).

1. 반역하여 - **칼 완료형**, BDB 598, KB 632
2.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 **피엘 완료형**, BDB 780, KB 864(참조, 행 7:51; 42:1 의 특별주제: 성령의 인격을 보라; “구약에서 성령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좋은 글을 성경의 어려운 말[273-274 쪽 및 306-307 쪽]에서 보라)
3.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 **니팔 완료형**, BDB 245, KB 253, 참조, 출 23:22; 애 2:4-5
4. 그들을 치셨더니 - **니팔 완료형**, BDB 535, KB 526

**63:11-14** 이 단락은 야웨께서 출애굽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제시하고 있다.

1. 그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심(참조, 출 14-15 장)
2.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심(참조, 민 11:17,25,29; 학 2:5)
3.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심(참조, 출 6:6; 15:16)
4.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심
  - ㄱ. 홍해 - 출 14-15 장(사 11:15; 51:10)
  - ㄴ. 요단 강 - 수 3 장
5.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심(4 항과 같음)
6. 그들을 편히 쉬게 하심(즉, 성령, 참조, 수 21:44; 23:1)
7. 주의 백성을 인도하심

야웨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야웨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은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함이었다(즉, 구속의 영원한 계획, 40: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63:15-19**

<sup>15</sup>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sup>16</sup>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sup>17</sup>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sup>18</sup>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sup>19</sup>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63:15 “굽어 살피시며 . . .보옵소서” 야웨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사용한 두 가지 명령이 나온다.

1. 굽어 살피소서 - *히필* 명령, BDB 613, KB 661, 참조, 신 26:15
2. 보옵소서 - *칼* 명령, BDB 906, KB 1157, 참조, 시 80:14

▣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 이것은 성전을 뜻하는 표현이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늘에 거하시는 야웨의 발등상이었다(참조, 대상 28:2; 시 99:5; 132:7; 사 66:1; 애 2:1; 마 5:35; 행 7:49).

존 왈톤의 새 저서인 *잃어버려진 창세기 일 장의 세계*는 창 1:1-2:3 이 야웨께서 자신의 성전을 지으심을 묘사한다고 주장한다.

▣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것은 의인화된 예루살렘이 야웨께서 자기들의 사정을 돌아 보시고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 드리는 강력한 시이다.

63: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들들”로 불리는 것의 논리적 결론이다(즉, 1:2). 이 구는 64:8 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 I. 구약

가.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이다:

1. 창 1:26-27
2. 말 2:10
3. 행 17:28

나. 아버지는 유추적으로 여러 의미를 나타낸다:

1. 이스라엘의 아버지(선택에 의해)
  - ㄱ. “아들” - 출 4:22; 신 14:1; 39:5; 사 1:2; 63:16; 64:8; 렘 3:19; 31:20; 호 1:10; 11:1; 말 1:6
  - ㄴ. “첫 태생” - 출 4:22; 렘 31:9
2.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메시아적)
  - ㄱ. 삼하 7:11-16
  - ㄴ. 시 2:7; 행 13:33; 히 1:5; 5:5
  - ㄷ. 호 11:1; 마 2:15

3.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유추

ㄱ. 아버지(은유)

- (1)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다 - 신 1:31
- (2) 훈련하다 - 신 8:5; 잠 3:12
- (3) 공급(즉, 출애굽기) - 신 32:1
- (4)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 시 27:10
- (5) 사랑하다 - 시 103:13
- (6) 친구/안내자 - 렘 3:4
- (7) 고치는 자/용서하는 자 - 렘 3:22
- (8) 자비를 베푸는 자 - 렘 31:20
- (9) 훈련자 - 호 11:1-4
- (10) 특별한 아들 - 말 3:17

ㄴ. 어머니(은유)

- (1)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 시 27:10
- (2) 젖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 - 사 49:15; 66:9-13; 호 11:4(“멍에”를 “젖 먹는 자식”으로 바꾸기를 제시한 본문에서)

II. 신약

가. 삼위 일체(삼위가 모두 언급된 본문들)

1. 복음서

ㄱ. 마 3:16-17; 28:19

ㄴ. 요 14:26

2. 바울 서신

ㄱ. 롬 1:4-5; 5:1, 5; 8:1-4, 8-10

ㄴ. 고전 2:8-10; 12:4-6

ㄷ. 고후 1:21; 13:14

ㄹ. 갈 4:4-6

ㅁ. 엡 1:3-14, 17; 2:18; 3:14-17 4:4-6

ㅂ. 살전 1:2-5

ㅅ. 살후 2:13

ㅇ. 딤후 3:4-6

3. 베드로서 - 벧전 1:2

4. 유다서 - 20-21 절

나. 예수

1. “독생자”로서의 예수 - 요 1:18; 3:16, 18 요일 4:9

2.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 마 4:3; 14:33; 16:16; 눅 1:32, 35; 요 1:34, 49; 6:69; 11:27

3.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예수 - 마 3:17; 17:5

4. 예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를 사용함 - 막 14:36

5.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께서 사용하신 대명사

ㄱ. “나의 아버지,” 예, 요 5:18; 10:30, 33; 19:7; 20:17

ㄴ. “너의 아버지,” 예, 마 17:24-27

ㄷ. “우리 아버지,” 예, 마 6:9, 14, 26

다.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가족에 대한 많은 은유 중 한 가지:

1.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2. 믿는 자들을 일컬어:
  - ㄱ. 하나님의 아들들
  - ㄴ. 자녀
  - ㄷ. 하나님께로서 난
  - ㄹ. 거듭난
  - ㅁ. 양자된
  - ㅂ. 출생했다
  - ㅅ. 하나님의 가족

▣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족장들은 이 유대인들을 다음의 이유 때문에 알지/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1. 세대 사이의 시간 간격
2. 이 후손들의 죄

▣ “구속자” 41:14의 특별주제를 보라. “구속하다”라는 개념에 관하여는 41:14의 특별주제를 보라.

63:17 이 절의 처음 두 행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람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44:18의 특별주제: 선택/예정과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및 아래에서 제시한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라.

**특별주제: 예정(칼빈주의) 대 인간의 자유의지(알미니안주의)**

디도서 2:11은 선택에 관한 신약의 다른 본문과 균형을 이룬다. 나는 롬 8:29과 9장 및 엡 1장에 대한 주석에서 내가 설명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I. 로마서 8:29 - 바울은 “예지하다”(프로기노스코, “미리 알다”)라는 단어를 이곳과 11:2에서 사용하였다. 11:2에서 이 단어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가리킨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용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그와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함을 기억하라(참조, 창 4:1; 렘 1:5). 여기서 이 단어는 일련의 영원한 사건들을 포함한다(참조, 롬 8:29-30). 이 용어는 예정과 관련을 가진다. 한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은 선택의 기초가 되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만일 범죄한 사람이 미래에 행할 반응에 기초한 선택이라면 이는 인간의 행위를 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행 26:5; 벰전 1:2,20; 벰후 3:17에서도 나온다.
- 가. “예지하다”(프로기노스코, “미리 알다”)

“미리 알다”와 “예정하다”라는 용어는 “미리”라는 전치사와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이것을 “미리 알다”, “미리 범위를 정하다” 또는 “미리 표시하다”로 번역해야 한다. 신약에서 예정을 다룬 중요한 본문은 롬 8:28-30; 엡 1:13-14; 롬 9장이다. 이 본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맞추어 이미 설정하신 계획이 있다. 한편 이 계획은 임의적이거나 취사선택적이지 않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지하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왜곡시키는 우리의 서구적(미국인의) 개인주의 혹은 복음적 열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어거스틴 대 펠라기우스 혹은 칼빈주의 대 알미니안주의 사이에 있는 역사적 신학적 갈등으로 양극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나. “예정하다”(프로오리조, “미리 한계를 설정하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하심을 제한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복음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세계관을 형성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돕기 원하신다(참조, 딤후 2:4; 벧후 3:9).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단 말인가(참조, 롬 8:31-39)?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현재로 보신다; 인간은 시간에 묶인 존재이다. 우리의 관점과 지적 능력은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다. 이것은 언약적 구조를 갖는다. 이것은 변증법적 긴장으로 제시된 진리의 한 예이다. 성경의 교리는 다른 종류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그것은 종종 역설적으로 나타난다. 서로 반대를 이루는 쌍으로 보이는 것 사이에 진리가 위치한다. 우리는 이 진리들의 어느 한 쪽을 취함으로써 그 긴장을 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진리라도 그것을 따로 격리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택의 목적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천국 뿐 아니라 현재 가질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있음도 강조되어야 한다(참조, 롬 8:29; 엡 1:4; 2:10).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살도록” 선택을 받았다. 우리의 바뀐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예정하심은 우리의 개인적 특권이 아니라 언약적 책임을 나타낸다. 이것이 이 본문의 주요 진리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목적이다. 거룩함은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특별한 지위를 뜻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의미한다(참조, 엡 1:4). 창조 때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 5:1,3; 9:6)은 회복되어야 한다.

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따르다”—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형상의 회복에 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미리 정해졌다(참조, 엡 1:4).

## II. 로마서 9 장

가. 로마서 9 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신약의 가장 강력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다른 본문으로는 엡 1:3-14 이 있음). 한편, 10 장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명확하게 또 반복하여 언급한다(참조, “모든 사람” 4 절; “누구든지” 11,13 절; “모든” 12 절 [2 회]). 바울은 결코 이러한 신학적 긴장을 조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양쪽 다 진리이다! 대부분의 성경적 교리는 역설적 혹은 변증적 쌍으로 제시된다. 대부분의 신학적 체계는 논리적으로 절반의 진리를 나타낸다.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 대 반펠라기우스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진리와 오류의 요소를 갖고 있다. 기존의 해석적 틀을 가지고 성경에 변형을 가하는 성경 인용주의적, 교리적, 이성적, 신학적 체계는 교리 사이에 나타나는 성경의 긴장을 선호한다.

나. 이같은 진리(롬 9:23 에서 발견됨)가 롬 8:29-30 및 엡 1:4,11 에서 언급된다. 이 장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내용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강조는 결코 약화되거나 감소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이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구약의 어떠한 언약(창 15 장의 경우처럼)은 무조건적 특성을 가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응답과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언약은 인간의 응답에 의해 조건지어짐(예, 에덴, 노아, 모세, 다윗)이 확실하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계의 구속을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 어떤 사람도 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기를 선택하셨다. 이 참여의 기회는 주권(롬 9 장)과 인간의 자유의지(롬 10 장) 사이의 신학적 긴장을 낳는다.

성경의 어떤 강조점을 택하여 다른 강조점을 놓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동양 사람들이 진리를 변증법적 혹은 긴장으로 가득찬 쌍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교리에 긴장이 나타난다. 반드시 다른 교리와의 관계에서 교리들을 이해해야 한다. 모자이크 형태로 진리가 이루어져 있다.

### III. 에베소서 1 장

가. 선택은 놀라운 교리이다. 한편, 이것은 편애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속을 돕기 위한 통로, 도구, 방법으로의 부르심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섬김을 나타낸다; 신약에서 이 용어는 섬김을 가져 오는 구원을 뜻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을 결코 화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둘을 모두 확증한다! 성경에 나타난 긴장에 대한 좋은 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로마서 9 장과 인간이 해야 할 응답에 대한 로마서 10 장의 경우일 것이다(참조, 10:11,13).

이 신학적 긴장에 대한 열쇠가 1:4 에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시며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을 가능성을 가진다(칼 바르트). 예수께서는 범죄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예”(yes)이시다(칼 바르트). 엡 1:4 은 또한 예정의 목적이 오직 천국만이 아니라 거룩함(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있음을 확증함으로써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해준다. 우리는 종종 복음의 혜택에 의해 끌림을 받지만 책임있는 삶은 무시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선택)은 영원은 물론 일시적인 삶을 위한 것이다!

교리는 따로 떨어진 별개의 진리로서가 아니라 다른 진리들과의 관계성에 비추어서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는 성운 대 한 개의 별이다. 하나님께서는 서구의 장르가 아니라 동양의 장르를 취하여 진리를 나타내신다. 우리는 변증적(역설적) 쌍을 이룬 교리적 진리들로 인한 긴장을 제거해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월적인 하나님 대 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안전함 대 인내함; 성부와 동등하신 예수 대 성부께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언약의 형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기타).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항상 주도권을 갖고 일을 시작하시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시는 분)을 인간이 취하여야 하는 믿음의 처음 응답 및 지속적인 회개의 믿음과 하나로 엮는다. 역설적 진리의 한 쪽을 성경 구절로써 입증함으로써 다른 쪽을 무시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이 좋아하는 교리나 조직신학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 엡 1:4 에서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표현은 주어를 강조하는 **부정과거 중간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 만세 전에 성부께서 하신 선택에 초점이 놓여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슬람의 결정론적 의미 혹은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 대 다른 사람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되고 언약적 의미로 이해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다(참조, 창 12:3; 출 19:5-6).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가지신다(참조, 요 6:44,65). 이 본문과 롬 9 장은 어거스틴과 칼빈이 강조한 예정의 교리에 대한 성경의 기초를 이룬다.

하나님은 구원(칭의) 뿐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도 신자들을 택하셨다(참조, 골 1:12). 이것은 (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참조, 고후 5:21) 혹은 (2)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자기 자녀들에게서 재생산하고자 하시는 바람(참조, 2:10; 롬 8:28-29; 갈 4:19)과 관련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 갖고 계신 뜻은 어느 날 천국에서의 삶과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대한 것이다!

엡 1:4 에서는 “그 분 안에서”가 핵심 개념이다. 성부의 축복, 은혜,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른다(참조, 요 14:6). 이 문법적 형태(공간을 말하는 위치격)가 반복되어 나타남을 주목하라—3 절, “그리스도 안에서”; 4 절, “그 분 안에서”; 7 절, “그 분 안에서”; 9 절, “그 분 안에서”; 10 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 안에서”; 12 절, “그리스도 안에서”; 13 절, “그 분 안에서”(2 회).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예”였다(칼 바르트). 예수께서는 선택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은 그 분 안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가진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 온다.

“세상이 형성되기 전에”라는 구는 마 25:34; 요 17:24; 뱀전 1:19-20; 계 13:8 에서도 나온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이 창 1:1 이전에 속함을 나타낸다. 인간은 시간적으로 제한을 갖는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인식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예정하심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지 특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담의 자녀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참조, 창 1:26-27) 하나님을 닮도록(참조, 살전 5:23; 살후 2:13) 하기 위함이다. 예정하심을 거룩한 삶이 아닌 신학적 교리로 바꾸는 일은 비극이다. 종종 우리의 신학이 성경 말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

“흠없는”(아모모스) 혹은 “책망할 것 없는”이라는 용어가 (1) 예수님(참조, 히 9:14; 뱀전 1:19) (2) 스가랴와 엘리사벳(참조, 눅 1:6) (3) 바울(참조, 빌 3:6) (4)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참조, 빌 2:15; 살전 3:13; 5:23)에 대해 사용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천국에서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참조, 롬 8:29-30; 갈 4:19; 뱀전 1:2). 신자들은 복음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잃어버려진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

문법적으로 볼 때 이 절에 있는 “사랑 안에서”라는 구는 4 절과 5 절과 함께 사용된다. 한편, 에베소서에서는 이 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나타낸다(참조, 3:17; 4:2,15,16).

- 다. 엡 1:5 에서 “그가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문장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로 되어 있다. 이 헬라어 용어는 “미리”와 “표시하다”의 합성어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구속적 계획을 나타낸다(참조, 눅 22:22; 행 2:23; 4:28; 17:31; 롬 8:29-30). 예정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일련의 진리나 신학적 형태의 하나를 이룬다. 이것은 결코 따로 떼어져서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성경의 진리는 긴장이 가득찬 역설적 쌍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진리로 제시되었다. 교파주의는 변증적 진리의 한 쪽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긴장을 제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신자의 구원의 안정성 대 성도의 인내; 원죄 대 고의적인 죄; 죄 없음 대 죄가 적음; 즉각적으로 선포되는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 믿음 대 행함;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 초월하심 대 내재하심).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행할 일에 대한 미리 아심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기초한다(참조, 9 절과 11 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영지주의자들 혹은 오늘날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참조, 겔 18:21-23,32; 요 3:16-17; 딤후 2:4; 4:10; 딤후 2:11; 벧후 3:9). 예정하심을 다룬 또 다른 본문인 롬 9-11 에서는 하나님의 공휼하심이 그 열쇠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하나님의 성품)는 이 본문에 있어서 신학적 열쇠가 된다(참조, 6a, 7c, 9b 절).

범죄한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휼하심에 있다(참조, 사 53:6 및 롬 3:9-18 에서 인용한 구약의 여러 본문).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앞부분의 장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바울이 인간의 행함과 완전히 상관없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예정하심(1 장), 은혜(2 장),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신비, 2:11-3:13).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 자랑을 강조하는 거짓교사들의 강조점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것은 칼 명령(BDB 996, KB 1427)이 기도로 사용된 경우이다.

63:18-19 이 두 절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나타낸다.

1. 그들은 성소를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가졌다
2. 그들의 원수가 성소를 유린하였다
3. 그들은 “다른 민족처럼” 되어 버렸다
4. 그들은 결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

# 이사야 6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공홀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 (63:15-64:12)	중보의 시 (63:7-64:12)	공홀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63:15-64:12)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상고 (63:7-64:12) (63:19b-64:12)
			63:18-64:7	
64:1-7 (1-7)	64:1-7 (1-)	64:1-12		
	64:6-7 (6-7)			
64:8-12 (8-12)	64:8-12 (8-12)		64:8-1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64:1-7

<sup>1</sup>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sup>2</sup>불이 섰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sup>3</sup>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sup>4</sup>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sup>5</sup>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sup>6</sup>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sup>7</sup>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64:1 맞소리 본문에서 처음 두 행은 63:19 의 것과 같다. 18 절과 19 절에는 여러 **완료형** 동사가 나온다.

높은 곳에 거하시는 야웨께서는 지상의 대기(즉, 하늘들, 참조, 창 1:1)를 “가르신다”(갈 **완료형**, BDB 902, KB 1146, 참조, 34:4; 계 6:14).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강림하실 때에, 피조물이 진동한다(*니팔 완료형*, BDB 272, KB 272[이 형태는 이곳과 사 5:5 에서만 나온다, 사사기의 본문은 드보라가 하솔과 그의 군대를 이기고 찬송한 내용/시이다], 참조, 2 절; 시 18:7-15; 68:8; 77:18; 144:5).

“하늘들”에 대하여는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하늘들

구약에서 “하늘”은 대개 **복수형**(즉, *샤마임*)으로 되어 있다. 히브리 용어는 “높이”를 뜻한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뛰어나심을 나타낸다.

창 1:1 에 있는 “하늘들과 땅”의 복수형은 하나님께서 (1) 이 지구의 대기층 혹은 (2) 모든 실재(즉, 영적 및 물질적)를 창조하신 것을 뜻한다. 이러한 기본적 이해에 기초하여 다른 본문들이 천국의 여러 층을 뜻하는 말로써 인용되었다: “하늘들의 하늘”(참조, 시 68:33) 혹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참조, 신 10:14; 왕상 8:27; 느 9:6; 시 148:4). 랍비들은 하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했다.

1. 이층 천(즉, R. 유다, 하기가 12b)
2. 삼층 천(레위의 증거 2-3; 이사야의 승천기 6-7; 시 114:1 의 미드라쉬 테힐림)
3. 오층 천(바룩 3 서)
4. 칠층 천(R. 시몬. 라키스; 에녹 2 서 8 장; 이사야의 승천서 9:7)
5. 십층 천(에녹 2 서 20:3b; 22:1)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물질세계와 분리되어 계심과 그의 뛰어나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였다. 랍비들의 유대교에서 하늘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한 수는 일곱이였다. A. 코헨 (*모든 이의 탈무드*, 30 쪽)은 이것이 별들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일곱이라는 수가 완전 수라고 본다(즉,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칠일에서 제 칠일이 하나님의 안식을 나타낸다).

바울은 고후 12:2 에서 “삼층” 천(헬라어로는 *우라노스*)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몸소 계신 위엄있는 장소를 표현한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다!

64:2 “불” 47: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야웨의 이름이 알려진 바 되고 또 민족들이 떨게 되는 것을 목적하고 계심을 주목하라(떠는 것은 회개함을 나타냄, 참조, 시 99:1-5; 렘 33:9).

64:3

NASB, NKJV,

NRSV, REB “두려운 일들”

TEV “무서운 것들”

NJB “예상치 못한 기적들”

JPSOA “기사들”

이 히브리 단어(BDB 431, KB 432, *니팔 분사*)는 문자적으로는 “두려움”을 뜻한다. 그러나 이 단어의 형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웨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두려운 기적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신 10:21; 삼하 7:23; 대상 17:21; 시 66:3,5-6; 106:22; 145:6).

시 139:14 에서는 평행을 이루는 여러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다.

1. BDB 431 - 두려운
2. BDB 811 과 810 - 놀라운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놀라운 일들(꺾기)**

이 단어(BDB 810)는 놀라움과 경이를 일으키는 행동으로서 인간이 스스로 이를 수 없거나 설명할 수도 없는 행동을 가리킨다(참조, 창 18:14; 렘 32:17,24; 숙 8:6).

**동사**

1. 출애굽 사건, 출 3:20; 34:10; 미 7:15
2. 재앙, 신 28:59
3. 요단강을 건넌, 수 3:5
4.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 삿 6:13; 대상 16:9,12,24; 느 9:17
5. 삼손의 출생, 삿 13:19
6.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사랑, 삼하 1:26
7. 읍기에서 종종 사용함, 5:9; 9:10; 10:16; 37:5,14; 42:3
8. 시편에서 32 회 사용됨
9. 야웨의 모사, 사 28:29
10. 야웨의 행하심, 사 29:24(2 회); 율 2:26

**명사**

1. 출애굽, 출 15:11; 시 77:11,14; 78:12
2. 죽은 자와 관련하여, 시 88:10,12
3. 야웨의 행하심에 대한 하늘에서의 찬송, 시 89:5
4. 야웨의 법, 시 119:129
5. 야웨의 메시아, 사 9:5
6. 야웨의 행하심, 사 25:1; 29:14
7. 마지막 때의 행동, 단 12:6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가장 귀한 피조물(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능력과 구속적 방법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계시이고, 이러한 행하심의 기록은 영감된 내용이며, 이러한 행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조명이다. 야웨께서는 세계가 자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64:4 해석을 위해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이다.

1. 이스라엘 국가
2. 돌아온 신실한 자들
3. 열방(참조, 2 절)
4. 2 항 및 3 항

▣ “주 외에는” 40:14 의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이 단어는 “일하신다”(칼 미완료형, BDB 793, KB 889)이다. 이것은 야웨와 우상을 신학적으로 구별짓는다. 우상들은 볼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것은 믿음의 사람을 뜻한다. 그/그녀는 앙망하는 자이다(피엘 분사, BDB 314, KB 313). 이 단어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기다림”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참조, 817; 30:18; 합 2:3). 또 다른 어근(BDB 875 I)도 “기다리다”로 번역되지만, 대개의 경우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앙망하다’만큼 중요하지는 않다(참조, 사 25:9; 26:8; 33:2; 40:31; 시 25:3; 27:14; 37:34; 40:1; 130:5; 잠 20:22).

64:5 “주께서 . . .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 동사(칼 완료형, BDB 803, KB 910)는 이 문맥에서는 교제와 만남 및 친절을 베푸심을 나타낸다.

야웨께서 “만나 주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주목하여 보라.

1.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2.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 둘은 서로 평행을 이룬다(부록 1: 히브리 시를 보라).

▣ 3-5 행은 적절한 질문을 듣는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트린 백성이다. 범죄한 백성이 다음의 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즉, “구출함을 받다,” BDB 446, KB 448).

1. 죄로 인한 물질적(육신적) 결과
2. 죄로 인한 영적 결과

나는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라고 믿고 싶다(참조, 8-9)!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공휟하심과 은혜(이 장은 야웨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기도이다)로써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UBS 본문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번역, 164 쪽). 창 3 장의 결과는 가차없이 우리를 비틀거리게 한다.

한편, 이 문맥에서(즉, 4-7 절) 볼 때, 이 절은 구속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죄하고 있는 내용이다(8-12 절은 공휟하심을 호소하는 외침이다). 이스라엘은 과거 및 현재에 죄를 범하였다. 만일 이러한 의미를 인정한다면, “구출되다”(wnws’, BDB 446, KB 448)라는 동사는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악했다”(wnrs’, UBS 본문 프로젝트, 163 쪽; NET, 16 항, 1283 쪽)로 바뀌어져야 한다.

▣

NASB	“우리가 그 가운데 오래 지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NKJV	“우리가 이렇게 계속했으니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NRSV	“당신이 당신 자신을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NJB	“이제 우리가 당신의 길에 굳게 있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JPSOA	“우리가 오래 전부터 그 안에 적셔졌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70 인역	“따라서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이 맞소라 본문은 명확하지 않다. AB 는 두 자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우리가 오랫동안 반역했습니다”로 제시한다(190 쪽).

64:6-7 죄의 결과를 주목하라.

1. 우리는 다 - 문제의 범위(참조, 롬 3:9-18,23; 11:32; 갈 3:22)
2. 부정한 자(BDB 379)
3.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생리한 옷, BDB 723, 참조, 레 15:19-24)
4.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BDB 614, KB 663, 칼미완료형, 참조, 1:30; 34:4)
5.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6.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즉, 예배)

야웨께서는 범죄한 언약백성의 이러한 비극적 모습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사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또 명확히 하신다.

1.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참조, 1:15; 54:8; 신 31:18)
2.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멸되게(맞소라 본문에서는 “눅다,” BDB 556, KB 555) 하셨음이니이다(이것은 신학적으로 롬 1:24,26,28 과 평행을 이룬다!)

이 두 절은 고백의 탄원을 나타낸다. 야웨께서 용서하시고 잊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심에도, 야웨께서는 그렇게 하신다(참조, 55:6-7)! 새 언약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참조, 램 31:31-34; 겔 36:22-38). 야웨께서 그들(즉, 이스라엘) 및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기초한 새로운 방법으로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행동하시며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

개역개정 64:8-12

- <sup>8</sup>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sup>9</sup>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sup>10</sup>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sup>11</sup>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뒀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sup>12</sup>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64:8-12 이것은 야웨께서 자녀들의 죄가 아니라 그의 언약을 기억해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이다.

1.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63:16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주는 토기장이시니
3.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참조, 29:16; 45:9)

64:9 일련의 명령이 간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 칼미완료형(BDB 893, KB 1124)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참조, 54:7-8

2.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칼 미완료형(BDB 269, KB 269)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참조, 43:25
3.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 히꼐 미완료형, BDB 613, KB 661)

이 모든 내용이 57:16-17; 시 103:8-14 의 것과 비슷하다.

**64:10-11** 이 모든 동사가 완료형이다(“되었다”가 4 회 사용됨). 이 단어들은 야웨의 진노하심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였음을 묘사한다.

1. 팔레스타인에 성읍들이 광야가 됨
2. 예루살렘이 황폐함
3. 성전이 불에 탐(즉, 바벨론에 의하여 주전 586 년에, 티투스에게 주후 70 년에)
4. 이스라엘의 중요한 물건들이 파괴됨

**64:12** 하나님의 백성이 자제와 동정을 간청한다. 제발, 제발, 더 이상 . . . 하지 마소서라고 그들이 부르짖는다. 제발 우리를 다시 한 번 돌아보소서!

# 이사야 6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반역하는 백성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	하나님의 대답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다가오는 심판
65:1-7 (1-7)	65:1-7 (1-7)	65:1-16 (1-16)	65:1-5	65:1-7 (1-7)
			65:6-7	
65:8-12 (8-12)	65:8-12 (8-12)		65:8-10	65:8-25 (8-25)
			65:11-16	
65:13-16 (13-16)	65:13-16 (13-16)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새 창조		새 창조	
65:17-25 (17-25)	65:17-19 (17-29)	65:17-25 (17-25)	65:17-25	
	65:20-23 (20-23)			
	65:24-25 (24-2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 마지막 두 장은 56 장에서 66 장까지 이르는 문학적 단위에 들어 있다. 이것은 “새 날” 또는 “새 시대”로 특징된다.
- 나. 구약의 예언서는 미래에 있을 사건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고하는 내용이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은 원래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교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돌아옴’을 영적으로 예고한다(참조, 40: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다. 65 장은 63:7-64:12 에 기록된 바 이사야가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한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도우시려 하지만(참조, 55:6-7),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줄곧 떠나있음을 말씀하신다(5 절).
- 라. 바울이 롬 10:20-21 에서 사 65:1-2 을 사용하고 있음은 상당히 흥미롭다. 바울은 1 절이 이방인에 대한 것으로, 2 절이 유대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문맥에서 이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 돌아온 유대인들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d 절에서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 민족을 비꼬며 풍자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다.
- 마. 사 65 장이 독특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장에서 공동체적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적 응답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그룹이 65:10c 및 11a 절에서 분명히 제시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분명히 구분하실 것이다(참조, 겔 18:1-21; 33:10-20; 렘 31:29-30).
- 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이방인들을 품고 계심’에 대한 이사야서의 독특한 강조점이 사 65 장에서 절정에 이른다(즉, 2:2-4; 42:6; 49:6; 51:4-5; 56:7; 60:1,3).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방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실 것에 대하여도 말한다(참조, 21 절). 이것은 유대인의 유일신 신앙 및 창 12:1-3 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의 분명한 결론을 고려할 때 매우 특별한 진술이다. 창 12 장의 본문은 세상의 모든 자들이 포함되고 있음에 대하여도 말한다(40: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사. 9 장과 11 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암시가 없이 이 새로운 시대를 묘사하고 있음은 놀랍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65:1-7

<sup>1</sup>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sup>2</sup>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걷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sup>3</sup>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sup>4</sup>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sup>5</sup>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sup>6</sup>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sup>7</sup>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5:1 “나는...물음을 받았으며...찾아냄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영적 영역에 있어서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즉, 요 6:44,65). 이 문맥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찾아냄이 되게 행하신다. 곧, 자신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참으로 계시하신다. 이 앞 부분에 있는 구절은 나로 하여금 롬 11 장을 떠올리게 한다.

▣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 중복은 강조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 구는 준비되어 있음을 뜻한다(즉, 6:8). 하나님께서 언제나 준비되어 계시지만, 그의 백성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구하다,” “찾다”).

▣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이 문맥에서 이것은 (1) 우상. 특히 다산의 우상을 부르는 유대 민족 또는 (2) 이방인들(참조, 롬 10:20-21)을 가리킨다. 어떤 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에게 응답함을 나타낸다. 바울은 바로 이 개념을 사용하여 10:9-13 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참조, 행 7:59; 9:14,21; 22:16; 고전 1:2; 딤후 2:22). 이것은 신뢰와 예배를 뜻한다.

#### 특별주제: 주님의 이름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심과 역동적 능력을 교회에 나타내심을 표현하는 신약의 중요한 구이다. 이것은 마술적인 주문의 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함을 나타낸다.

이 구는 종종 예수를 주님으로 나타낸다(참조, 빌 2:11)

1. 침례(세례) 받을 때에 예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참조, 롬 10:9-13; 행 2:38; 8:12,16; 10:48; 19:5; 22:16; 고전 1:13,15; 약 2:7)
2. 귀신을 내어쫓을 때(참조, 7:22; 막 9:38; 눅 9:49; 10:17; 행 19:13)
3. 병을 고칠 때(참조, 행 3:6,16; 4:10; 9:34; 약 5:14)
4. 사역을 할 때(참조, 마 10:42; 18:5; 눅 9:48)
5. 교회에서 징계를 행할 때(참조, 마 18:15-20)
6.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행할 때(참조, 눅 24:47; 행 9:15; 15:17; 롬 1:5)
7. 기도를 할 때(참조, 요 14:13-14; 15:2,16; 16:23; 고전 1:2)

8. 기독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참조, 행 26:9; 고전 1:10; 딤후 2:19; 약 2:7; 뱀전 4:14)

우리가 설교가, 사역자, 돕는 자, 병고치는 자, 귀신쫓아내는 자 등 무엇으로 일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행한다!

65:2 “내가 종일 손을 펴서 . . .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41:2의 특별주제를 보라)으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제시를 나타낸다(참조, 롬 10:21).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환영의 의미를 나타낸다.

▣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어서 나오는 절에서는 유대 백성이 행한 우상숭배의 여러 특징을 열거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에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였는가를 완벽하게 알기는 매우 어렵다(참조, 3-7 절). 어떤 이는 이것이 3 절에서 언급하는 바 정원에서 예배를 그들이 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는 이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명백한 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행한 우상숭배의 모습을 다음의 내용에서 확인하여 볼 수 있다

1. 동산에서 제사하며
2.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3.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4.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5. 돼지고기를 먹으며
6.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7.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8.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9. 행운의 신에게 상을 베풀며, 11 절
10. 운명의 신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65:3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반항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다. 우상숭배가 아주 보편화되어, 그들이 이러한 일을 숨기지도 않았다.

▣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것이 사 1:29에 기록된 바 당시에 나무를 섬긴 일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산에 차려진 장소에서 행하는 어떤 특정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참조, 66:17).

▣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벽돌”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1. 다듬은 돌로 만든 제단(참조, 레 20:24-25)
2. 바알 숭배에 사용되는 여러 기둥(참조, 레 26:1)
3. 바벨론의 별신들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지붕의 타일
4. 분향단(*IVP 성경배경주석: 구약*, 640 쪽을 보라)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은 이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음을 드러낸다.

65:4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것은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것 또는 죽은 자와의 대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마 혼령과 대화하는 주술 및 조상숭배를 나타낼 것이다(참조, 신 18:10-12).

▣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은밀한 처소”(BDB 665)라는 이 히브리 용어는 문자적으로 “보다,” “지키다,” “보관하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비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은밀한 일들, 사 48:6
2. 은밀한 처소, 사 65:4
3. 은밀한 생각, 잠 7:10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배의 행위와 관련을 가진다.

▣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중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주석가들이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행위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지만, 그 점은 불확실하다. 이 두 가지는 레위기의 음식 규정을 범하는 행동이다(참조, 11:7). 돼지는 인근 국가에서 제사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즉, 우가릿 본문).

맛소라 본문(케티브)에는 “조각”(프락, BDB 830)으로 되어 있는데, BDB 는 사해사본, 70 인역, 아람어 탈굼을 따라서 마락(“진한 국물,” BDB 600 II)으로 제시한다(케레).

▣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처음 두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1.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 칼 명령, BDB 897, KB 1132
2.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 칼 미완료형(BDB 620, KB 670)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이 명령은 우상숭배자들(참조, 2-4,7,11-12 절)이나 그들의 “제사장들”이 말하는 내용이다. 그들은 다음 사항에 관심을 가졌다.

1. “거룩함”이 옮겨짐(참조, 겔 44:19, 즉, 그들의 능력 혹은 특권이 경감되게 하는 일)
2. 평범한 이교도 예배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됨

▣

NASB, NKJV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NRSV	“나는 너에게 너무 거룩함이라”
TEV	“우리가 상당히 거룩하기에 네가 만질 수 없음이라”
NJB	“나의 거룩함이 네게 가까이 있지 않도록”
JPSOA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함이라”
REB	“나의 거룩함이 너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페쉬타	“나는 거룩함이라”

UBS 본문 프로젝트는 다른 모음을 사용하여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맛소라 본문의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에 B 등급을 준다.

▣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 관용적 표현은 이러한 자세와 우상숭배적 행위가 하나님을 거슬리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함을 나타낸다.

65:6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기록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가리키는 고대의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 단 7:10; 계 20:12-15). 심판이 어느 날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 야웨께서 행하실 일들을 주목하라.

1.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2. 반드시 보응하되
3.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 특별주제: 하나님의 두 책

가. 어떤 의미에서 이 특별한 주제는 다음과 관련이 있다

1. 자연(즉, 창조, 참조, 시 19:1-6)

2. 성경(참조, 시 19:7-14)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점이 과학과 믿음 사이에 궁극적인 갈등이 있다고 내가 여기지 않는 이유이다.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사이트로 올린 나의 창세기 1-11 장 주석을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나. 성경에서 언급하는 책이 두 권이 있다(참조, 단 7:10; 계 20:12)

1. 인간이 행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책.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에 대한 은유로서, 어느 날 모든 인간이 생명을 주신 자신의 창조주께 청지기로서 모든 일을 고할 것을 말한다.

ㄱ. 시 56:8; 139:16

ㄴ. 사 65:6

ㄷ. 말 3:16

ㄹ. 계 20:12-13

2. 야웨/예수님께 대한 신실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가진 자의 이름이 있는 책. 이것은 구속받아 하늘에 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ㄱ. 출 32:32-33

ㄴ. 시 69:28

ㄷ. 사 4:3

ㄹ. 단 12:1

ㅁ. 빌 4:3

ㅂ. 히 12:23

ㅅ. 계 3:5; 13:8; 17:8; 20:12,15; 21:27

ㅇ. 또한 예녹 1 서 47:3; 81:1-2; 103:2; 108:3

이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반역하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지만,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섬기며 인내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잊으신다(참조, 시 103:11-13; 사 1:18; 38:17; 43:25; 44:22; 미 7:19). 하나님께서 변함 없이 자비하신 인격과 약속과 공급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에 대한 커다란 확신과 신뢰가 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품”이라는 은유적 표현은 “내가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갚을 것이다”를 뜻한다(참조, 욥 34:11; 시 28:4; 62:12; 잠 24:12; 전 12:14; 렘 17:10; 32:19; 마 16:27; 25:31-46; 롬 2:6; 14:12; 고전 3:8; 고후 5:10; 갈 6:7-10; 딤후 4:14; 벧전 1:17; 계 2:23; 20:12; 22:12).

65:7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이것은 공동체의 죄와 개인이 의지적으로 범한 죄를 가리킨다. 우리는 공동체가 과거와 현재에 행한 일에 의하여는 물론 개인이 현재 결정하는 일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출 20:5; 신 5:9 에 있는 십계명으로부터, 부모의 죄가 삼 사대에 걸쳐 영향을 미침을 듣는다. 우리는 겔 18 장으로부터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정반대 되는 진리도 듣는다.

▣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호세아서에 의하면, 이것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예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참조, 호 4:13-14).

▣

NASB, NKJV	“그들의 이전 행위”
NRSV	“충분한 지불”
TEV	“그들이 전에 한 행위”
NJB, JPSOA	“충분히”

NASB는 맛소라 본문을 따른다. NRSV, NJB, JPSOA는 “이전”을 뜻하는 단어인 리쇼나(BDB 911)를 “충분히”(레 5:24) 또는 “처음으로”(렘 16:18)를 뜻하는 브로숀(BDB 1168)으로 바꾸어 제시한다.

개역개정 65:8-12

<sup>8</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sup>9</sup>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sup>10</sup> 사론은 양 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 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sup>11</sup>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므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sup>12</sup>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구푸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65:8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이것은 일부 나쁜 열매를 가진 포도송이라도 그것에는 좋은 열매가 조금이라도 있음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것은 8 절부터 10 절에 이르는 단락의 시작으로, 유대인의 남은 자(46:3의 특별주제를 보라)가 야웨께 충성스러울 것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한편, 11-13 절은 하나님을 계속하여 거부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부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제시한다. 이 단락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될 것임을 고통스럽지만 확실히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종교적 형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참조, 사 29:13).

다음의 특별주제인 “새 포도주”를 보라.

## 특별주제: 술과 술취함에 대한 성경적 입장

### I. 성경적 용어

#### 가. 구약

1. *야인* - 이것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BDB 406)로서 141 번 사용되었다. 이 어근이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이것은 항상 과일(주로 포도)의 즙을 발효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사용된 특별한 구절들은 창 9:21; 출 29:40; 민 15:5,10이다.
2. *티로쉬* - 이것은 “새 포도주”(BDB 440)이다. 왜냐하면 근동의 날씨에서 발효가 즙을 짜낸 후 6 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발효 중에 있는 포도주를 말한다. 다음의 특징적인 구절을 보라, 신 12:17; 18:4; 사 62:8-9; 호 4:11.
3. *아시스* - 이것은 분명히 알코올 음료를 말한다(“달콤한 술,” BDB 779, 예, 율 1:5; 사 49:26).
4. *쎬카* - 이것은 “독주”(BDB 1016)를 말한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은 “술 취한” 또는 “주정뱅이”를 가리킨다. 이것은 좀 더 취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첨가한 것을 말했다. 이것은 *야인*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잠 20:1; 31:6; 사 28:7).

#### 나. 신약

1. *오니스* - 이것은 *야인*과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
2. *네오스 오이노스*(새 포도주) - *티로쉬*와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참조, 막 2:22).
3. *글레우코스 비노스*(달콤한 포도주, *아시스*) - 발효의 이른 시기에 있는 포도주(참조, 행 2:13)이다.

### II. 성경에서의 사용

#### 가. 구약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창 27:28; 시 104:14-15; 전 9:7; 호 2:8-9; 율 2:19,24; 암 9:13; 슥 10:7).
2. 포도주는 희생 제사의 일부분이었다(출 29:40; 레 23:13; 민 15:7,10; 28:14; 신 14:26; 사 9:13).
3.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되었다(삼하 16:2; 잠 31:6-7).
4. 포도주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노아 - 창 9:21; 롯 - 창 19:33,35; 삼손 - 사 16:19; 나발 - 삼상 25:36; 우리아 - 삼하 11:13; 암몬 - 삼하 13:28; 엘라 - 왕상 16:9; 벤하닷 - 왕상 20:12; 지도자들 - 암 6:6; 부녀자들 - 암 4장).
5. 포도주는 남용될 수 있다(잠 20:1; 23:29-35; 31:4-5; 사 5:11,22; 19:14; 28:7-8; 호 4:11).
6. 포도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다(임무를 수행중인 제사장, 레 10:9; 겔 44:21; 나실인, 민 6 장; 지도자들, 잠 31:4-5; 사 56:11-12; 호 7:5).
7. 포도주는 중말론적인 배경을 나타내었다(암 9:13; 율 3:18; 슥 9:17).

#### 나. 신구약 중간시대

1. 포도주를 적당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집회서 31:27-30).
2. 랍비들은 “포도주는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포도주가 없을 때 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BB 58b).

#### 다. 신약

1. 예수님은 많은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요 2:1-11).

2.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다(마 11:18-19; 눅 7:33-34; 22:17 이하).
3. 오순절 때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 되었다(행 2:13).
4. 포도주는 약으로서 사용되었다(막 15:23; 눅 10:34; 딤후 5:23).
5. 지도자들이 술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금욕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딤후 3:3,8; 딤후 1:7; 2:3; 뱀전 4:3).
6. 포도주는 종말론적 배경에서 사용되었다(마 22:1 이하; 계 19:9).
7. 술 취함을 깊이 뉘우쳐야 한다(마 24:49; 눅 12:45; 21:34; 고전 5:11-13; 6:10; 갈 5:21; 뱀전 4:3; 롬 13:13-14).

### III. 신학적인 통찰

#### 가. 변증법적 긴장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술 취함은 심각한 문제이다.
3. 어떤 문화권에서 신자는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마 15:1-20; 막 7:1-23; 고전 8-10장; 롬 14 장).

#### 나. 주어진 한계를 넘는 경향성

1.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다.
2.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해왔다.

다. 남용의 여부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 물질을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참조, 막 7:18-23; 롬 14:14,20; 고전 10:25-26; 딤후 4:4; 딤후 1:15).

### IV. 1 세기의 유대 문화와 발효

가. 발효는 포도가 으깨어진 후 6 시간 정도 후부터 바로 시작된다.

나. 표면에 거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발효의 표시) 그것이 포도주를 십일조로 드리기엔 적당하다(마 아세로쓰 1:7)라고 유대의 전통은 말했다. 그것은 “새 술” 또는 “달콤한 술”이라 불렀다.

다. 첫 번째 격렬한 발효는 1 주일 후에 이루어진다.

라. 두 번째 발효는 40 일이 걸린다. 이 상태를 “숙성된 포도주”라고 간주하며 제단에 제사드릴 수 있다고 보았다(엘후요쓰 6:1).

마. 포도주의 앙금(오래된 포도주) 위에 있었던 포도주를 상품으로 여겼지만, 사용하기 전에 잘 걸러야 했다.

바. 보통 1 년 동안 발효된 포도주를 적당하게 숙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3 년은 포도주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었다. 이와 같은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라 불렀고 반드시 물로 묽게 해야만 했다.

사. 최근 100 년 동안에서야 멸균적 환경과 화학적 첨가제의 사용으로 발효기간이 길어졌다. 고대에는 발효의 자연적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 V. 맺음말

가. 당신의 경험, 당신의 신학, 당신의 성경해석을 가지고 예수님, 1 세기의 유대인, 그리고 혹은 기독교 문화를 깎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분명히 완전한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었다.

나. 나는 알코올의 사회적인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리고 문화적/교파적 편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의를 주장해 왔다.

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 전서 8-10 장 말씀은 나에게 통찰력을 주었고 안내서가 되었다. 이 안내서는 개인적인 자유나 판단하는 비평적 자세가 아니라, 모든 문화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동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 라. 만약 우리가 완전한 금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이를 강요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한 포도주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문화(예 -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 65:10-11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이것은 구약의 새로운 개념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항상 국가를 공동체로서 다루셨다.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민족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즉, 레 26 장; 신 28-29 장). 이제 우리는 개인에 강조점을 둔 겔 18:32; 30:10-20; 렘 31:29-30 을 대하게 된다. 이 본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구분하여 말한다(참조, 신 29:24-28). 뒤에 나오는 66 장에서는 모든 인류를 야웨를 거부한 자들과 야웨를 영접한 자들로 구분짓는다.

65:11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이 동사(칼 분사, BDB 736 I, KB 806)는 “버리다” 또는 “떠나다”를 뜻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신 28:20; 31:16; 사 10:10; 렘 1:16; 은 2:9). 그들은 야웨를 버리고 우상을 택하였다(참조, 왕하 9-22 장; 대하 36:13-21).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참조, 신 31:17; 사 41:17; 49:14; 54:7).

#### ▣ “갓에게 상을 베풀며

**므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갓”(BDB 151 II, KB 176 II)과 “므니”(BDB 584, KB 602)라는 히브리어는 이방신의 이름이다(참조, 수 11:17). 이들은 행성을 신으로 섬기는 일, 즉 “하늘의 여신”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렘 7:18; 44:17). 이 두 용어가 어떤 형태의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분명하다!

#### ▣

NASB “내가 너희를 칼을 위하여 붙일 것인즉”  
NKJV “내가 너희를 칼을 위하여 너희 수를 세리니”  
NRSV, NJB “내가 너희를 칼에게 붙일 것인즉”

이 동사(칼 완료형, BDB 584, KB 599)와 관련된 언어유희를 보라. 이것은 11 절에서 거짓 신인 “므니”(BDB 584)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1-7 절의 요약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부르셨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며 거절하였다(참조, 41:28; 50:2; 66:4; 호 11:2).

12 절의 마지막 행이 66:4 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 개역개정 65:13-16

- <sup>13</sup>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sup>14</sup>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sup>15</sup>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춧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sup>16</sup>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65:13-16 이 단락은 아브라함의 두 종류의 씨(즉, 후손)에 대한 대비를 계속하여 강조한다—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약에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대한 내용으로 바뀐다(참조, 롬 2:28-29).

65:14 다음에 나타나는 대조를 주목하여 보라

1. 신실한 자 -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다
2. 신실하지 않은 자 -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다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참조, 마 7:13-14,15-23,24-27; 눅 13:22-30).

65:15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춧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것은 “이름”(BDB 1027)과 관련된 또 다른 언어유희이다. 여기서 이것은 불신자들의 이름이 저주를 받지만, 신자들은 새 이름을 가진다는 개념을 나타낸다. 이 단락의 직접적인 문맥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다. 16 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새 이름을 언급한다—“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또는 “신실함의 하나님”(참조, 계 3:14). 신자들의 새 이름은 아마도 이 본문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

창세기에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들이 경고 혹은 축복을 받음에 대하여 야웨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다. 그 본문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한다(참조, 창 12:2; 18:18; 22:18).

65:16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잊으신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가 감추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 계속하여 나옴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잊어 주신다(참조, 시 103:11-13; 시 1:18; 38:17; 43:25; 44:22; 미 7:19)!

▣

NASB, NKJV, NJB “진리의 하나님”  
 NRSV “신실함의 하나님”  
 TEV “신실하신 하나님”  
 70 인역, JPSOA “참 하나님”  
 REB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

“하나님,” *엘로아흐*(BDB 43)라는 호칭은 종종 고대의 시에서 사용되었다(참조, 신 32:15,17; 욥 3:4; 시 18:32; 50:22; 114:7; 139:19; 잠 30:5; 사 44:8; 합 3:3).

하나님께 사용한 호칭의 두 번째 요소는 “아멘”이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아멘

### I. 구약

- 가. “아멘”이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다.
1. “진리”(에페쓰, BDB 49)
  2. “진실성”(에문, 에무나, BDB 53)
  3. “믿음” 또는 “신실함”
  4. “신뢰”(야만, BDB 52)
- 나. 이것의 어원은 사람의 안정된 육체적 자세이다. 이것의 반대는 불안정한, 미끄러지는(참조, 신 28:64-67; 시 40:2; 73:18; 렘 23:12) 또는 비틀거리는(참조, 시 73:2) 사람이다. 이 문자적 용법으로부터 신실한, 믿을만한, 충성된, 의지할만한의 뜻을 가지는 은유적 확장이 이루어졌다(참조, 창 15:6; 합 2:4).
- 다. 특별용법
1. 기둥, 왕하 18:16(딤펢전 3:15)
  2. 확산, 출 17:12
  3. 견실함, 출 17:12
  4. 안정성, 사 33:6; 34:5-7
  5. 참, 왕상 10:6; 17:24; 22:16; 잠 12:22
  6. 견고한, 대하 20:20; 사 7:9
  7. 믿을 수 있는(토라), 시 119:43,142,151,168
- 라.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다른 두 단어가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1. *바타*(BDB 105), 신뢰
  2. *야라*(BDB 431), 두려움, 존경, 예배(참조, 창 22:12)
- 마. 신뢰 또는 신뢰감이라는 의미가 신뢰나 신뢰감을 나타내는 예식적 용법으로 발전되었다(참조, 신 27:15-26; 느 8:6; 시 41:13; 70:19; 89:52; 106:48).
- 바. 이 단어의 신학적 열쇠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야웨의 신실하심이다(참조, 출 34:6; 신 32:4; 시 108:4; 115:1; 117:2; 138:2).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야웨와 그의 약속의 언약적 성실하심에 있다. 야웨를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이 될 것이다(참조, 합 2:4).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27)을 인간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록이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인간의 능력을 회복시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 II. 신약

- 가. 어떤 진술의 신뢰감에 대한 결론적 의식적 확인인 “아멘”이란 단어의 사용은 신약에서 일반적이다(참조, 고전 14:16; 고후 1:20; 계 1:7; 5:14; 7:12).
- 나. 신약에서 기도를 마칠 때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참조, 롬 1:25; 9:5; 11:36; 16:27; 갈 1:5; 6:18; 엡 3:21; 빌 4:20; 살후 3:18; 딤펢전 1:17; 6:16; 딤펢후 4:18).
- 다. 중요한 진술을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분은(요한의 책에서는 종종 중복된다) 오직 예수 한 분 뿐이다(참조, 눅 4:24; 12:37; 18:17,29; 21:32; 23:43).
- 라. 계시록 3:14 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칭호로서 사용되었다(사 65:16 에서 야웨의 칭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 마. 신실함 또는 믿음, 신뢰감 또는 신뢰의 개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스*로 표현된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신뢰하다, 믿음, 믿다로 번역되었다.

개역개정 65:17-25

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17-25 절의 문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문맥이 마지막 두 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다(참조, 42:9; 48:6; 66:22; 뱀후 3:13)—이 단락이 새 시대 또는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참조, 롬 8:18-25). 이 본문은 현재의 질서가 무너질 것에 대하여도 말한다(참조, 사 51:6; 뱀후 3:10). 16 절과 17 절은 새 질서에 죄가 들어 있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16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들이 용서받게 되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는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 문학에서 자주 나온다(참조, 에스드라스 2 서 6:11-24; 예녹 1 서 91:16). 이것은 계 21-22 장에 나오는 상징적 표현을 이룬다! 땅이 창 3 장 이전의 영광과 목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65:18 이 시의 처음 행에는 평행을 이루는 두 명령이 있다.

1. 기뻐하라 - 칼 명령, BDB 965, KB 1314, 참조, 61:10(2 회); 62:5; 64:5; 65:18,19; 66:10,14
2. 기뻐하라 - 칼 명령, BDB 162, KB 189, 참조, 61:10; 65:18,19; 66:10

AB(198 쪽)는 이것을 예루살렘 및 돌아온 자들을 가리키는 새로운 호칭으로 여긴다.

▣ “다시는” 이 용어(BDB 723 I)는 창조주와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 사이의 영속적인 교제를 나타낸다(참조, 대상 28:9; 미 7:18).

**65:19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로서,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현재의 땅에 있는 고통이 새 시대에는 없을 것임을 말한다(참조, 사 25:8; 30:1; 35:10; 55:11). 이 내용을 계 21:4 에서 암시하고 있다.

**65: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 과장적인 표현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창 1-5 장에 나오는 장수함에 대한 암시, 즉 에덴 동산의 시기로 돌아감을 나타냄
2. “새 시대”를 묘사하는 구약적 표현, 신약에서는 육체적으로 긴 수명을 누림 뿐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생명(조예)을 의미함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긴 수명과 신약에서 말하는 영생에 관한 좋은 논의를 성경의 어려운 말(307-309 쪽)에서 참고하라.

**65:22** 이 여러 은유적 표현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그 열매를 누리게 됨을 묘사한다. 이것은 포로됨 및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옴에 대한 약속을 직접적으로 암시한다. 40:9 의 특별주제를 보라.

70 인역은 아람어 탈군과 마찬가지로 “나무”(BDB 781)라는 단어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 나무”로 번역하였다.

**65:24** 이것은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나타내는 놀라운 약속으로서, 마 6:8 의 내용보다도 더 확장된 내용을 말한다.

**65: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기서 또 다시 동물이 같이 있는 정원을 배경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하는 전원적인 그림이 제시된다(참조, 사 11:6-9; 창 1 장; 2 장; 계 21:22). 이것은 내가 독특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되고 정화된 땅으로 하늘이 돌아옴’을 나타낸다. 원래 있었던 대로 될 것이다!

▣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관용적 표현이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흙을 뱀의 양식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 표현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

1. 창 3:14 - ‘믿음을 가진 새롭게 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에 관한한, 이 본문은 사탄의 시험이 완전히 끝나게 됨을 말한다
2. 사 11:8, 이 연도 새 시대를 묘사하고 있다

# 이사야 6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참 예배와 거짓 예배	결론적 예언	주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	성전에 대한 예언
66:1-2 (1-2)	66:1-2 (1-2)	66:1-2 (1-2)	66:1-2 (1-2)	66:1-2 (1-2)
위선을 꾸짖으심				
66:3-6 (3-6)	66:3-4 (3-4)	66:3-5 (3-5)	66:3-4 (3-4)	66:3-4 (3-4)
	주께서 시온을 변호하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66:5 (5)		66:5-6 (5-6)	66:5 (5)
	66:6 (6)	66:6 (6)		66:6 (6)
66:7-9 (7-9)	66:7-9 (7-9)	66:7-9 (7-9)	66:7-9 (7-9)	66:7-9 (7-9)
예루살렘의 미래를 인하여 기뻐함				
66:10-17 (10-17)	66:10-11 (10-11)	66:10-11 (10-11)	66:10-11 (10-11)	66:10 (10)
				66:11 (11)
	66:12-13 (12-13)	66:12-16 (12-16)	66:12-14 (12-14)	66:12a (12a)
	하나님의 통치와 분개하심			66:12b-13 (12b-13)
	66:14-16 (14-16)			66:14 (14)
			66:15-16	66:15 (15)
				66:16-17 (16-17)
	66:17 (17)	66:17	66:17-19a	종말에 대한 설교
66:18-24 (22-24)	66:18-21	66:18-21		66:18-22
			66:19b-21	
	66:22-23 (22-23)	66:22-23 (22-23)	66:22-2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66:1-2**

<sup>1</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sup>2</sup>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66:1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것은 왕상 8:27 에 있는 솔로몬의 봉헌기도에 대한 명백한 암시로서, 행 8:47-48 에서도 암시된 내용이다.

이 본문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와 관련을 가지는가를 알기 어렵다. 어떤 이는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관련을 가진다고 이해한다. 아마도 이러한 설명은 문맥에서 왔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건물에 거하지 않으심’을 뜻하며,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1.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인 인간의 몸
2. 하나님의 가족,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씨(믿음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 참조, 2:28-29)
3. 창 1 장에 있는 우주적 성전(존 H. 월튼, 잃어버려진 창세기 1 장의 세계를 보라)

66:2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손”에 대하여는 40:2의 특별주제를 보라.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 창조에 있어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셨음을 안다(참조, 요 1:3; 고전 8:6; 골 1:16; 히 1:2).

▣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동기와 성품을 보신다. 야웨께서는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아신다(참조, 18 절).

1. 삼상 2:3; 16:7
2. 왕상 8:39
3. 대상 28:9
4. 대하 6:30
5. 시 7:9; 17:3; 26:2; 44:21; 139:1,23
6. 잠 15:11; 16:2; 21:2; 24:12
7. 렘 11:20; 17:9-10; 20:12
8. 눅 16:15
9. 행 1:24; 15:8
10. 롬 8:27

예수께서도 인간의 마음 속 생각과 동기를 아신다. 요 2:24-25; 6:61,64; 13:11 을 보라!

밧세바와 범한 죄를 다윗이 회개한 본문에서 이같은 묘사가 사용되었다(참조, 시 51:17). 57:15; 시 34:18; 마 5:3-4; 눅 18:13-14 을 보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사용한 두 개의 호칭으로서 매우 아름다운 묘사이다.

1. 겸손하고 통회하는 백성
2.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참조, 5 절)

개역개정 66:3-6

<sup>3</sup>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sup>4</sup>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sup>5</sup>여호와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sup>6</sup>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66:3-4 이것은 예배의식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참조, 29:13; 렘 7 장),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나타낸다. 우리들이 거듭하여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그 일이

평상적인 것으로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참조, 2 절).

**66:3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것은 이교도들이 행한 여러 종류의 예배 의식을 가리킨다(참조, 65:4,7,11). 그들은 죄(참조, 1:4; 57:17; 65:2; 66:18; 시 81:11-12)를 사랑하며 또 선택했다(BDB 103, KB 119, 3-4 절에서 세 번 사용됨)!

**66:4**  
NASB “벌”  
NKJV “환영”  
NRSV, JPSOA “조롱”  
TEV “재난”  
NJB “그들을 놀려주기”  
REB “고의적인 과정”

이 단어(BDB 760, KB 1768)는 이곳과 3:4 에서만 사용되었다. KB 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장난(울렐[BDB 760]이라는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어린아이들이 치는 장난), 3:4
2. 여기서는 잘못 대우함

NET 은 “혹독하게 대하다”라는 알랄(BDB 760)을 취한다.

▣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된다(참조, 잠 1:27; 10:24)!

▣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여기서 이 주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참조, 41:28; 50:2; 65:12).

**66:5**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과 긴장이 있다(참조, 롬 9:6-8). 선지자들이 동료 유대인에게서 받은 핍박은 이러한 종류의 어려움을 잘 제시한다(참조, 마 5:10-12; 10:22). “종교적”인 사람들이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행한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주목하라—기쁨(BDB 970, 참조, 51:11; 55:12; 61:7; 기쁨과 동의어를 이루는 여러 단어가 나오는 66:10 을 주목하여 보라).

1. 즐거워 하다 - BDB 162
2. 기뻐하다 - BDB 965(2 회)
3. 또한 “기쁨”(BDB 970)의 **칼 명령**

5 절에는 3 가지 명령이 나온다.

1. 여호와와 명령을 들으라 - **칼 명령**, BDB 1033, KB 1570
2.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 **칼 미완료형**, BDB 457, KB 455,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70 인역은 이것을 **수동태**로 번역함)
3.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 **칼 미완료형**, BDB 906, KB 157, **청유형**의 의미를 가짐

**66:6** 이 절이 문맥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주석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는 이것이 5 절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고 말한다. 5 절은 교만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개역개정 66:7-9

<sup>7</sup>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sup>8</sup>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나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sup>9</sup>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66:7-13 이 문맥은 하루 동안에 이방인을 포함한 국가를 해산하는 시온에 대한 내용이다. 어떤 이는 이 본문이 포로에서 돌아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사건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즉, 신약).

개역개정 66:10-17

<sup>10</sup>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sup>11</sup>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빨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sup>12</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못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sup>13</sup>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sup>14</sup>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sup>15</sup>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sup>16</sup>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sup>17</sup>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6:10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심(즉, 행 12:1; 15:16)에 있어서 행하신 일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신다

1. 기뻐하라 - 칼 명령, BDB 970, KB 1333
2. 즐거워하라 - 칼 명령, BDB 162, KB 189
3.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 칼 명령과 명사, BDB 965, KB 965

66:12 이 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강력한 표현이다. 야웨께서 여성으로도 묘사되고 있다(참조, 49:15; 66:9-13; 41:2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께서 “유모”라는 용어를 자신에 대하여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강력한 내용이다.

###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 I. 구약

- 가. 문화적으로는 여자를 재산으로 여겼다
  - 1. 재산 목록에 포함됨(출 20:17)
  - 2. 노예 여자에 대한 대우(출 21:7-11)
  - 3. 여자가 한 맹세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남성에게 의해 취소될 수 있었다(민 30 장)
  - 4. 전쟁의 전리품인 여자(신 20:10-14; 21:10-14)
- 나. 실제적으로는 남녀 간에 친밀함이 있었다
  - 1.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음(창 1:26-27)
  - 2. 부모를 공경함(출 20:12[신 5:16])
  - 3. 부모에 대한 존경(레 19:3; 20:9)
  - 4. 남자와 여자가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었다(민 6:1-2)
  - 5. 딸들도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민 27:1-11)
  - 6. 언약백성의 한 구성원이 됨(신 29:10-12)
  - 7. 부모의 가르침을 지킴(잠 1:8; 6:20)
  - 8. 헤만(레위 족)의 아들 딸이 성전에서 음악을 지도함(대상 25:5-6)
  - 9. 새 시대에 아들 딸이 예언할 것임(욥 2:28-29)
- 다. 여자가 지도력을 가짐
  - 1.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불림(출 15:20-21)
  - 2. 회막을 건설하는 일을 위해 여자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음(출 35:25-26)
  - 3. 여선지자(참조, 삿 4:4) 드보라도 모든 지파를 이끌음(삿 4:4-5; 5:7)
  - 4. 요시아 왕이 불러 와 새로 발견한 “율법 책”을 읽고 해석하게 한 홀다가 여선지자였다(왕하 22:14; 대하 34:22-27)
  - 5. 경건한 여인 룯은 다윗의 조상이었다
  - 6. 경건한 여인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구했다

#### II. 신약

- 가. 유대교와 헬라-로마 세계의 문화에서 여자들은 인권과 특권을 거의 가지지 않은 이등국민으로 여겨졌다 (단, 마게도니아는 예외였음).
- 나. 여성 지도자
  - 1. 경건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눅 1-2 장)
  - 2. 경건한 여인으로서 성전에서 섬긴 안나(눅 2:36)
  - 3. 신자요 가정 교회의 지도자였던 루디아(행 16:14,40)
  - 4. 여선지자였던 빌립의 네 딸(행 21:8-9)
  - 5.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뵈뵈(롬 16:1)
  - 6.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가(브리스길라) (행 18:26; 롬 16:3)
  - 7. 바울의 여성 동역자인 마리아,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 네레오의 자매(롬 16:6-16)
  - 8. 유니아(KJV)는 아마도 여사도였다(롬 16:7)
  - 9. 유오디아와 순두게(빌 4:2-3)

III. 다양한 성경의 예를 오늘날의 신자가 어떻게 균형있게 취할 것인가?

가. 원래의 문맥에서 역사적 혹은 문화적인 진리로부터 어떻게 모든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영원히 유효한 진리를 구별해 낼 수 있는가?

1. 우리는 영감받은 원저자의 의도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우리는 명백히 역사적 환경 가운데 영감을 받은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ㄱ. 이스라엘의 예배(즉, 예식과 의식)
  - ㄴ. 제 1 세기의 유대교
  - ㄷ.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조건적인 바울의 진술
    - (1) 이교도인 로마의 법적 제도
    - (2) 노예로 남아 있는 것(7:20-24)
    - (3) 독신(7:1-35)
    - (4) 처녀(7:36-38)
    - (5) 우상에게 바친 음식(8 장; 10:23-33)
    - (6) 주의 만찬에 있어서 부적합한 행동(11 장)
3. 하나님은 자신을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시대에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우리는 계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역사적 환경에 맞추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다.

나.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적절한 해석의 기초요 중요한 면이지만 우리는 또한 이것을 우리 자신의 시대에 적용해야만 한다. 이제 여기에 여자 지도자의 문제가 제기된다(해석에 있어서 실제 문제는 그 용어의 정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목사외에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여집사와 여선지자는 지도자로 여겨졌는가?) 고전 14:34-35 과 딤후전 2:9-15 에서 여자는 공공 예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할 것인가? 나는 바울 당시의 문화나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잠잠케 하기를 원한다고 보지 않는다. 바울 당시에는 그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너무 풀어져 있다. 바울의 말과 가르침은 제 1 세기의 지역교회 상황에만 들어맞는 제한적인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상당히 불편하다. 내가 누구라고 내 생각이나 내가 속한 문화로 하여금 영감받은 저자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한단 말인가!

한편 성경에 여성 지도자들의 실례가 나오는데(바울서신에서 조차, 참조, 로마서 16 장)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바울이 공공예배에 대해 고전 11-14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된다. 바울이 11:5 에서는 여자가 공공예배에서 머리를 가리고 설교나 기도를 하여도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14:34-35 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집사들(참조, 롬 16:1)과 여선지자들(참조, 행 21:9)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나로 하여금 바울의 언급(여자에게 제한을 주는)을 1 세기의 고린도와 에베소에 국한시키게 한다. 두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새롭게 얻은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참조, 브루스 윈터, *바울이 떠난 후의 고린도*). 즉 그 교회들이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였다.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여야 했다.

오늘날은 바울 시대의 상황과 정반대이다. 오늘날 잘 훈련되고 준비된 여성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복음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 공적 예배의 궁극적 목적인가? 바로 복음전도와 제자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여성 지도자들을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사역을 인해 기뻐하시는가? 성경 전체는 이것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다!

나는 바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며, 내가 가진 신학도 바울신학이 주된 내용이다. 나는 현대의 여성운동자들로부터 과도하게 영향을 받거나 그들에 의해 조종되기를 원치 않는다! 한편 교회는 노예제도, 인종차별, 편협주의, 성차별 등의 부적절한 관습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따름에 있어 느렸다고 나는 느낀다. 교회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히 행동함에 있어서도 느렸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와 여성을 자유롭게 하셨다. 문화적으로 묶여져 있는 본문이 그들에게 다시 족쇄를 채워서는 안된다고 나는 담대히 주장한다

한 마디 더: 해석자인 나는 고린도 교회가 매우 어지러운 교회였음을 안다. 은사를 갖고 자랑하고 과시했다. 여자들은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었을 것이다. 나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다. 거짓교사들은 여자들을 이용하여 에베소의 가정교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대리하여 말하게 했다.

다. 추가적인 독서를 위한 제안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61-77 쪽)

고든 피의 *복음과 성령: 신약 해석학의 질문*

왈터 C. 카이저, 피터 H. 데이빗, F. F. 브루스, 맨프렛 T. 브랜치의 *성경의 난해구절*(613-616; 665-667 쪽)

66:13 이 절에서는 “위로하다”라는 단어(BDB 636, KB 688)가 세 번 사용되었다.

1-2. *피엘 미완료형*(2 회)

3. *푸알 미완료형*

이것은 40:1(*피엘 명령*)의 내용을 상기시킨다. 또한 12:1; 53:3(2 회), 12,19; 52:9; 61:2 의 설명을 보라(57:18, BDB 637). 이것은 사 40-66 장의 주제이다. 야웨께서는 그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죄를 잊으시며, 또 그들을 회복시키신다(2,5 절)!

66:15-16 야웨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여러 종류의 은유적 표현을 주목하여 보라.

1. 불(BDB 77; 47:14 의 특별주체를 보라)

2. 회오리바람(BDB 693 I, 참조, 5:28; 렘 4:13)

3. 험악한 위세(BDB 404, 참조 42:25; 51:20; 63:3,6)로 노여움(BDB 60 I)을

4.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참조, 29:6; 30:30

5.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6.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66:16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됨을 나타낸다. 유대인 공동체와 교회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66:17 “동산에 들어가서” 이것은 이교도의 예배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65:3).

▣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가운데”(BDB 1063)로 번역된 단어는 창 3:3 에서 “생명의 나무”에 대하여 사용된 용어이다. 70 인역에서는 65:22 도 생명의 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여기서 *아세라* 기둥 혹은 가나안 사람들의 다산숭배적 예배를 위한 아로새긴 말뚝을 뜻할 것이다. 57:5-6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을 먹는 자가”

1. 돼지고기를, 참조, 69:4
2. 가증한 것을(BDB 1054, 참조, 레 11:10,11,12,13,20,23,41,42)
3. 쥐 고기(BDB 747, 참조, 레 11:29)

나는 레 11 장에 있는 음식규정은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 규정들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어떤 사회적 종교적 접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개역개정 66:18-24

<sup>18</sup>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못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sup>19</sup>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못 나라에 전파하리라 <sup>20</sup>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못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sup>21</sup>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sup>22</sup>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sup>23</sup>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sup>24</sup>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66:18-21 “때가 이르면 못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에벤 에스라는 맛소라 본문을 번역하면서 “때”라는 단어를 삽입하였다. 이 절의 정확한 배경에 대하여 약간의 혼란이 있다. “알다”라는 동사는 히브리 본문에 있지 않다.

이것은 열방을 모으는 것과 관련을 가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즉, “생존자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때에(참조, 24b 절),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징조를 주신다(19 절, 참조, 11:10,12). 즉, 전도자로서 그들을 그들의 본국으로 보내신다. 놀라지 말라 - 이방인들이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삼으신다(참조, 21 절).

19-24 절로 이루어진 단락은 전세계에 미칠 매우 충격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이 내용이 랍비들에게 경악함과 불확실함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창 3:15; 12:1-3 의 명백한 성취이다! 40: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66:18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1:2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66:20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선물과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성전으로 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여러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2:2-3; 56:7; 시 22:27; 86:9; 램 3:17; 미 4:1-2).

66:22” 65:17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항상 있다”라는 동사(BDB 763, KB 840)가 두 번 사용되었다.

1. 새 하늘과 땅이 항상 있을 것이다 - 칼 미완료형
2. 신실한 자들의 씨가 항상 있을 것이다 - 칼 완료형

비록 이 단어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자주 사용되었지만(참조, 44:11; 46:7; 47:12,13; 48:13; 50:8; 59:14; 61:5), 바로 이곳(66:22)에서만 “항상 있다”로 번역되었다.

66:23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이 동사(BDB 1005, KB 295)는 드물게 사용된 형태인 히스타펠이다(여기서만 나온다). 이것은 유일신 신앙을 명백히 나타낸다(40: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66:24 이것은 신실하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묘사이다. 이 절에 기초하여 ‘마지막 때에 있을 형벌에 대한 신학’을 형성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본문은 “힌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지닌 케헨이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사용하신 소재를 이룰 것이다. 그곳은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사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 대해 말씀하셨다(57:9 의 특별주제를 보라). 죽지 않는 구더기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요소를 주목하라. 예수께서는 그를 믿기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에 대하여 설명하시려고 이러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셨다(참조, 마 25:46).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사야 65-66 장의 중심주제는 무엇인가?
2. 65 장에서 언급하는 이교도의 예배의식을 열거하라.
3. 65:1 절과 2 절은 누구에 대한 본문이며, 또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4. 이사야 65 장, 특히 10 절과 11 절에서 독특한 내용은 무엇인가?
5. 하나님께서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가?
6. 사 66:19-23 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 부록 I

## 히브리 시 서론

### I. 서론

- 가. 이 문학 장르는 구약에서 3분의 1 을 차지한다. 이 장르는 히브리 정경 가운데 특히 “예언서”(학개서와 말라기서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에 시가 들어 있다)와 “성문서”에서 자주 나온다.
- 나. 히브리 시는 영어의 시와 매우 다르다. 영어의 시는 주로 소리에 기초한 시인 헬라이어와 라틴어의 시에서 발전되었다. 히브리 시는 가나안어로 된 시와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 근동의 시에는 강세가 있는 행이나 리듬이 없다(하지만 운율에 강음이 있다).
- 다. 이스라엘 북쪽의 우가릿(라스 샴라)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은 학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시들은 주전 15 세기에 속하며 성경에 나오는 시와 매우 깊은 문학적 관계를 가진다.

### II. 시의 일반적 특징

- 가. 히브리 시는 매우 축약적이다.
- 나. 히브리 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진리, 느낌, 경험을 나타낸다.
- 다. 히브리 시는 구두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기록을 통해 전해졌다. 히브리 시는 매우 특별한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 균형을 이룬 행(평행법)
  - 2. 단어유희
  - 3. 소리유희

### III. 구조 (R. K. 해리슨 구약개론, 965-975 쪽)

- 가. 로버트 로우쓰 주교는 *히브리인의 거룩한 시에 대한 강의*(1753)를 통해 성경에 있는 시가 사상적 균형을 이루는 행으로 되어 있음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대부분의 현대 영어 번역본들은 히브리 시의 행을 반영하는 구조로 인쇄되고 있다.
  - 1. 동의어적 -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 행이지만 같은 사상을 나타낸다:
    - ㄱ. 시 3:1; 49:1; 83:14; 103:13
    - ㄴ. 잠 19:5; 20:1
    - ㄷ. 사 1:3,10
    - ㄹ. 암 5:24; 8:10
  - 2. 반의적 - 대조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을 말함으로서 반대되는 사상을 나타내는 행으로 되어 있다:
    - ㄱ. 시 1:6; 90:6
    - ㄴ. 잠 1:29; 10:1,12; 15:1; 19:4

3. 종합적 - 이어 나오는 두 행 혹은 세 행이 첫 행에서 제시한 사상을 발전시킨다 - 시 1:1-2; 19:7-9; 29:1-2
  4. 교차대조적 - 메시지를 나타냄에 있어서 확장되어 가는 것과 거슬러 올라 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강조점이 가운데에 있다.
- 나. A. 브릭스는 *성경 연구를 위한 일반적 서론*(1899)에서 히브리 시의 분석을 발전시켰다:
1. 표상적 - 한 절은 문자적의미를 갖고 다음 절은 은유적 의미를 가짐, 시 42:1; 103:3
  2. 점증법 혹은 계단법 - 절들이 상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진리를 드러낸다, 시 19:7-14; 29:1-2; 103:20-22
  3. 내향적 - 대개의 경우 4 절 이상의 일련의 절에서 1 행과 4 행, 2 행과 3 행이 서로 내적 관련이 있는 형태임 - 시 30:8-10a 절
- 다. C. B. 그레이는 *히브리 시의 형태*(1915)에서 균형을 이루는 절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1. 완전한 균형 - 첫 행에 있는 모든 단어가 다음 행에서 반복되거나 균형을 이루는 경우 - 시 83:14 와 사 1:3
  2. 불완전한 균형 - 서로 길이가 다른 행 - 시 59:16; 75:6
- 라. 오늘날 교차대조법으로 불리는 히브리 시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것은 모래시계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독특한 평행법으로서 가운데 행이 강조점을 갖는다.
- 마. 동양의 시에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소리 유형
1. 알파벳에 관련된 유희(알파벳 시, 참조, 시 9, 34, 37, 119 편; 잠 31:10 이하; 애 1-4 장)
  2. 자음과 관련된 유희(두음법, 참조, 시 6:8; 27:7; 122:6; 사 1:18-26)
  3. 모음과 관련된 유희(모음운, 참조, 창 49:17; 출 14:14; 겔 27:27)
  4. 비슷한 소리를 나타내지만 다른 의를 갖는 단어의 사용과 관련된 유희(동음이의어)
  5. 발음을 하였을 때 나는 소리가 그 이름이 되는 단어와 관련된 유희(의성어)
  6. 특별한 시작과 끝(포괄법)
- 바. 구약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다. 어떤 종류는 주제와 관련이 있고 어떤 종류는 형태와 관련이 있다.
1. 헌신의 노래 - 민 21:17-18
  2. 일하며 부르는 노래 - (삿 9:27 에서 암시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나타나지는 않음); 사 16:10; 렘 25:30; 48:33
  3. 민요 - 민 21:27-30; 사 23:16
  4. 술을 마심에 대한 노래 - 부정적 의미, 시 5:11-13; 암 6:4-7; 부정적 의미, 사 22:13
  5. 사랑의 노래 - 애가서, 결혼식 수수께끼 - 삿 14:10-18, 결혼 노래 - 시 45 편
  6. 애가/만가 - (삼하 1:17 과 대하 35:25 에 암시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나타나지는 않음) 삼하 3:33; 시 27, 28 편; 렘 9:17-22; 예레미야 애가; 겔 19:1-14; 26:17-18; 나 3:15-19
  7. 전쟁의 노래 - 창 4:23-24; 출 15:1-18, 20; 민 10:35-36; 21:14-15; 수 10:13; 삿 5:1-31; 11:34; 삼상 18:6; 삼하 1:18; 사 47:1-15; 37:21
  8. 지도자의 특별한 축도 혹은 축복 - 창 49 장; 민 6:24-26; 신 32 장; 삼하 23:1-7
  9. 마법의 본문 - 발람, 민 24:3-9
  10. 거룩한 시 - 시편
  11. 알파벳 시 - 시 9, 34, 37, 119 편; 잠 31:10 이하; 애 1-4 장
  12. 저주 - 민 21:22-30

- 13. 조롱의 시 - 사 14:1-22; 47:1-15; 겔 28:1-23
- 14. 전쟁 시의 책(야살) - 민 21:14-15; 수 10:12-13; 삼하 1:18

IV. 히브리 시의 해석을 위한 안내

- 가. 연 혹은 절(이것은 산문에서 문단과 같다)의 중심진리를 파악하라. RSV 는 시를 연의 구조로 나타낸 최초의 현대 번역본이다. 현대의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는 일은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 나. 회화적인 표현을 찾아 내고 이를 산문으로 바꾸어 보라. 히브리 시는 매우 축약적이어서 독자가 이를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라.
- 다.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더 큰 문맥(종종 책 전체)과 역사적 상황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라.
- 라. 시로 어떻게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 사사기 4 장과 5 장은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된다. 사사기 4 장은 산문이고 사사기 5 장은 같은 사건을 시로 나타낸 것이다(또한 출애굽기 14 장과 15 장을 비교하라).
- 마. 관련된 평행법이 어떤 종류의 평행법(동의어적, 반의적, 종합적)인지를 규명하라.

## 부록 II

###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서론

#### I. 서론

##### 가. 초기적 진술

1.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믿음의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수 세기를 거치면서 정통적인 입장이 정립되었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2. 구약의 예언을 구분하는 잘 정의된 여러 시기가 있다

##### ㄱ. 왕정 이전(사울왕 이전)

1) 선지자로 불려진 개인들

(ㄱ) 아브라함 - 창 20:7

(ㄴ) 모세 - 민 12:6-8; 신 18:15; 34:10

(ㄷ) 아론 - 출 7:1(모세의 대변인)

(ㄹ) 미리암 - 출 15:20

(ㄴ) 메닷과 엘닷 - 민 11:24-30

(ㄷ) 드보라 - 삿 4:4

(ㄹ)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 - 삿 6:7-10

(ㅇ) 사무엘 - 삼상 3:20

2) 선지자 그룹에 대한 언급 - 신 13:1-5; 18:20-22

3) 선지자 그룹 혹은 길드 - 삼상 10:5-13; 19:20; 왕상 20:35, 41; 22:6, 10-13; 왕하 2:3,7; 4:1,38; 5:22; 6:1 등

4) 선지자로 불린 메시아 - 신 18:15-18

##### ㄴ. 글을 남기지 않은 왕정시기의 선지자(그들은 왕에게 말했다)

1) 갓 - 삼상 7:2; 12:25; 삼하 24:11; 대상 29:29

2) 나단 - 삼하 7:2; 12:25; 왕상 1:22

3) 아히야 - 왕상 11:29

4) 예후 - 왕상 16:1,7,12

5)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 - 왕상 18:4, 13; 20:13,22

6) 엘리야 - 왕상 18 장; 왕하 2 장

7) 미가야 - 왕상 22 장

8) 엘리사 - 왕하 2:8,13

##### ㄷ. 글을 남긴 고전적 선지자들(그들은 왕에게는 물론 국가에 대하여 말했다): 이사야—말라기(다니엘은 예외)

##### 나. 성경의 용어

1. *로에* = 보는 자, 삼상 9:9. 이것은 *나비라*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된다. 후자는 “선지자”를 뜻하며 “부르다”라는 어근에서 나왔다. *로에*는 “보다”를 뜻하는 일반적인 히브리어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이해했고,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2. *호제* = 보는 자, 삼하 24:11. 이것은 근본적으로 *로에*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드물게 사용되는 용어인 “환상을 보다”에서 나왔다. 주로 분사형이 선지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3. 나비 = 선지자, 아카디아 동사 *나부* = “부르다”와 아랍어의 *나바아* = “선언하다”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 이것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300 번 이상 사용된다. 정확한 어원적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부르다”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는 모세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말하도록 야웨께서 모세의 역할을 설명한 것에서 취할 수 있다(참조, 출 4:10-16; 7:1; 신 5:5).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자이다(참조, 암 3:8; 렘 1:7,17; 겔 3:4).
4. 대상 29:29 에서는 선지자직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된다: 사무엘 - 로애; 나단 - 나비; 갓 - 호제.
5. *이쉬 하-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인을 뜻하는 광범위한 표현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라는 의미로서 대략 76 회 사용된다.
6. 영어의 “선지자”는 헬라어에서 왔다. 이것은 (1) *프로* = “앞” 또는 “위해서” (2) *헤미* = “말하다”에서 왔다.

## II. 예언의 정의

- 가. “예언”이라는 용어는 영어보다 히브리어에서 더 광범위한 어원적 영역을 갖는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룻기는 제외)까지의 역사적 책들을 “전기 예언서”로 부른다. 아브라함(창 20:7; 시 105:5)과 모세(신 18:18) 모두 선지자로 불린다(또한 미리암도, 출 15:20). 따라서 영어의 뜻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것은 조심을 요한다!
- 나.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참여의 관점에서만 역사가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예언주의의 합법적 정의이다”(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제 3 권 896 쪽).
- 다. “선지자는 철학자도 조직신학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언약의 증재자로서 백성들의 현재 삶을 개혁함으로써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하기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선지자와 예언,” *유대 백과사전* 제 13 권 1152 쪽).

## III. 예언의 목적

- 가.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였다. 이것으로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지침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심을 인해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일치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고, 격려하고,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의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종종 예언은 하나님께서 대변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신 13:1-3; 18:20-22).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다.
- 나. 종종 선지자들은 당시의 역사적 혹은 신학적 위기를 취하여 그것을 종말론적 상황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목적론적) 관점은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언약적 약속을 주셨다는 독특한 생각을 가져왔다.
-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서 선지자 직은 대제사장 직과 균형을 이루고(렘 18:18)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대언자에 의해 우림과 둠뭇은 말로 표현된 메시지가 되었다. 선지자 직은 말라기(혹은 역대기 저작)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진다. 400년 후에 침례(세례)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이 직은 없었다.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구약과 연결시키지는 확실하지 않다. 신약의 예언자들(행 11:27-28; 13:1; 14:29, 32, 37; 15:32; 고전 12:10, 28-29; 엡 4:11)은 새로운 계시의 계시자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그것을 미리 말하는 자들이었다.

- 라. 예언은 전적으로 혹은 주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언은 그들의 직분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하지만 구약의 예언 가운데 . . . “2% 미만이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 5% 미만의 내용이 새언약의 시대를 특별하게 설명한다. 1% 미만의 내용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다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피 & 스투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66 쪽).
- 마. 선지자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 백성을 대표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이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하박국서 처럼 예외가 있다.
- 바. 선지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그 책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책들은 연대적인 순서로 되어있지 않다.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을 따르지는 않는다. 종종 분명한 역사적 상황이나 시간의 지침 혹은 신적 예언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말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1) 어떤 책을 한 가지 배경에서 이해하여 읽는 것이 어렵고 (2) 그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이 어려우며 (3) 각 예언의 중심진리나 혹은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 IV. 예언의 특성

- 가. 구약에서 “선지자”와 “예언”의 개념이 발전되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았다. 때때로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킨다(왕하 2 장). 선지자들은 때로 황홀경적 형태에 의해 구별되어졌다(삼상 10:10-13; 19:18-24).
- 나.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급하게 개인 선지자들의 시기로 이어졌다. 그들은(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모두) 왕과 관계하여 일했고, 왕궁에서 살았다(갓, 나단). 또한 독립적으로 일했던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때로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와 철저히 관련을 끊은 경우도 있었다(아모스, 미가). 남자와 여자 둘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왕하 22:14).
- 다. 선지자는 종종 미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그 미래는 개인이나 국민의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다르게 되었다. 종종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우주적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반응에 의해 하등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우주적인 종말론적 계획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갖는 독특한 내용이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예언과 언약적 충성은 두 가지 초점을 이룬다(참조, 피와 스투어트, 150 쪽). 이것은 선지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공동체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했다.
- 라. 대부분의 예언적 자료는 구두로 전해졌다. 이것은 후에 주제나 연대 혹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근동 문학의 다른 양식을 따라서 합쳐졌다. 구두로 전해진 것이기에 글로 쓰여진 산문의 구조를 갖지 않는다. 이 점은 예언서를 쪽 읽는 것과, 특별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없이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 마.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의 말씀을 전했다
  1. 재판 장면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법정에서 서게 하신다; 종종 이것은 야웨께서 자기의 아내(이스라엘)를 그녀의 충성되지 않음을 인해(호세아 4 장; 미가 6 장) 거절하시는 이혼소송으로 나타난다.
  2. 장례식의 만가 - 이런 양식의 메시지에 사용되는 특별한 운율과 특징적인 단어인 “화 있을진저”라는 용어는 이것을 따로 구별짓는다(이사야 5 장; 하박국 2 장).
  3. 언약적 축복의 선언 - 언약의 조건적인 면이 강조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래에 나타날 결과가 선언된다(신명기 27-29 장).

V. 성경이 말하는 참 선지자의 자격요건

- 가. 신명기 13:1-5(예언/기적이 순전한 유일신 신앙과 일치함)
- 나. 신명기 18:9-22(거짓 선지자/참 선지자)
- 다. 남녀 모두 선지자 혹은 여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임명받았다
  1. 미리암 - 출애굽기 15 장
  2. 드보라 - 사사기 4:4-6
  3. 홀다 - 열왕기하 22:14-20; 역대하 34:22-28
- 라. 주위의 문화에서는 점을 통해 그들이 선지자임을 확인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그들이 선지자임을 확인했다
  1. 신학적 시험 - 야웨의 이름을 사용
  2. 역사적 시험 - 예언의 정확한 성취

VI. 예언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

- 가. 각 예언의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문맥을 살펴서 원래의 선지자(편집자)가 의도했던 바를 확인하라. 이것은 보통 이스라엘이 모세의 언약을 어떤 모습으로든 깨뜨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나. 예언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고 해석하라; 내용에 따라 대지를 잡으라. 이것이 주위의 예언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라. 예언서 전체(문학적 단위와 문단에 따른 구분에 의해)의 대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라.
- 다. 해당 본문이 상징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본문의 문자적 해석을 취하라; 상징적 용법인 경우에는 그것을 산문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라.
- 라. 상징적 행동은 역사적 상황과 병행귀절에 비추어 분석하라. 이것이 고대 근동의 문학에 속하는 것이지 서구나 현대의 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라.
- 마. 예언의 내용을 신중하게 다루라
  1. 그것이 전적으로 저자의 시대에만 해당하는가?
  2. 그 내용이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루어졌는가?
  3. 그 내용이 아직도 미래적인가?
  4. 당시에 성취되었으면서도 아직 미래적 성취에 속하는가?
  5. 현대 저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당신에게 답하게 하라.

바. 특별한 주의점

1. 예언의 내용이 어떤 반응의 조건에 의존적인가?
2. 누구에게 이 예언이 말해지는지(또한 왜) 분명한가?
3. 성경적으로 혹은/또한 역사적으로 다중적 성취의 가능성이 있는가?
4. 영감을 받은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하지 않은 메시아에 대한 많은 귀절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형론 혹은 언어유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영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방법을 그들의 것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VII. 유용한 도서

가. 칼 E. 아덴딩과 W. 워드 바스큐의 *성경 예언 안내*

나. 고돈 피와 더글라스 스튜아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 에드워드 J.영의 *나의 종 선지자들*

라. D. 브렌트 샌디의 *쟁기와 전정 낮: 성경의 예언과 묵시의 언어를 다시 생각함*

마.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스 Jr.의 *구약의 암호를 해석하기*

## 부록 III 간략한 역사적 개관

메소포타미아 열강에 대한 간단한 역사적 개관(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 462 쪽 이하에 있는 자료에 주로 기초함):

### I. 앗시리아 제국(창 10:11)

가. 앗시리아의 종교와 문화는 수메리아/바벨론 제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나. 지배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연대에 대한 개략적이고 잠정적인 제시:

1. 1354-1318 앗수르-우발랏 I 세:
  - ㄱ. 히타이트 도시인 칼케미쉬를 정복함
  - ㄴ. 히타이트의 영향력을 제거하여 앗시리아가 발전하게 함
2. 1297-1266 아닷 나라리 I 세(강력한 왕)
3. 1265-1235 살만에셀 I 세(강력한 왕)
4. 1234-1197 투쿨티-니누르타 I 세
  - 바벨론 제국이 처음으로 남쪽을 정복함
5. 1118-1078 티글랏-빌레셀 I 세
  - 앗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에서 강대국을 이룸
6. 1012-972 앗수르-라비 II 세
7. 972-967 앗수르-레위-이슈이 II 세
8. 966-934 티글랏-빌레셀 II 세
9. 934-912 아수르-단 II 세
10. 912-890 아닷-나라리 II 세
11. 890-884 투쿨티-니누르타 II 세
12. 883-859 앗수르-나실-아팔 II 세
13. 859-824 살만에셀 III 세
  - 853년에 카르카르 전투
14. 824-811 샬마쉬-아닷 V 세
15. 811-783 아닷-나라리 III 세
16. 781-772 살만에셀 IV 세
17. 772-754 앗수르-단 III 세
18. 754-745 앗수르-나라리 V 세
19. 745-727 티글랏-빌레셀 III 세:
  - ㄱ. 바벨론 왕위의 이름인 불로 불림, 왕하 15:19
  - ㄴ. 매우 강력한 왕
  - ㄷ. 피정복민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함
  - ㄹ. 주전 735년에 “시리아-에브라임 연맹”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용 가능한 군사적 역량을 하나로 합쳐 앗수르의 커지는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이 연맹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여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이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티글랏-빌레셀 III 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참조, 왕하 16 장; 사 7-12 장).
  - ㅁ. 주전 732년에 티글랏-빌레셀 III 세가 침략하여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이스라엘의 왕좌에는 조공을 바치는 왕으로서 호세아(주전 732-722 년)를

세웠다. 북왕국에 살던 수 천의 유대인들이 메테로 추방을 당했다(참조, 왕하 15-16 장).

- 20. 727-722 살만에셀 V 세
  - 호세아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앗수르의 침략을 받았다(참조, 왕하 17 장)
- 21. 722-705 사르곤 II 세:
  - ㄱ. 살만에셀 V 세가 시작한 3 년 간의 포위 후에 사르곤 II 세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정복했다. 27,000 명 이상이 메디아로 추방되었다.
  - ㄴ. 히타이트 제국도 정복되었다.
  - ㄷ. 714-711년에는 요단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집트가 동맹을 이루어 앗시리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 동맹은 “아스돗 반란”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유다의 히스기야도 관계했다. 앗시리아가 침략하여 여러 팔레스타인 도시를 멸망시켰다.
- 22. 705-681 산헤립:
  - ㄱ. 705년에는 사르곤 II 세 사후에 요단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집트가 동맹을 이루어 반란을 일으켰다. 히스기야는 이 반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산헤립이 701년에 공격해 왔다. 반란이 진압되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져졌다(참조, 사 36-39 장과 왕하 18-19 장).
  - ㄴ. 산헤립은 또한 엘람과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했다.
- 23. 681-669 에살핫돈:
  - ㄱ. 이집트를 공격하여 정복한 최초의 앗시리아 왕
  - ㄴ. 바벨론에 강한 동정을 가져 이것을 수도로 재건함
- 24. 669-633 - 앗술바니팔:
  - ㄱ. 에스라 4:10 에서 오스납팔로 불린다
  - ㄴ. 그의 형제인 샬마쉬-슘-우킨이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짐(후에 총독으로 물러남) 이것은 앗시리아와 바벨론 간에 여러 해에 걸친 평화를 가져 왔지만, 기저에 흐르는 독립사상이 652년에 그의 형제(총독으로 물러났던)에 의해 일어났다.
  - ㄷ. 테베가 주전 663년에 멸망했다
  - ㄹ. 엘람을 주전 653년과 645년에 무찔렀다
- 25. 633-629 앗술-에틸-일라니
- 26. 629-612 신-살-이스쿰
- 27. 612-609 앗술-우발릿 II 세:
  - 추방된 중에 하란에서 왕위에 올랐다. 주전 614년에 앗수르가 멸망하고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한 후에 왕이 되었다

## II. 신바벨론 제국:

- 가. 703-? 프로닥-발라단
  - 앗시리아의 지배에 대항하여 여러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함
- 나. 652 샬마쉬-슘-우킨:
  - 1. 에살핫돈의 아들과 앗술바니팔의 형제
  - 2. 그가 앗시리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됨
- 다. 626-605 나보폴라살:
  - 1. 신바벨론 제국의 처음 왕
  - 2. 그는 남쪽에서 앗시리아를 공격했고 메테의 씨야싸레스는 북동쪽에서 공격했다
  - 3. 앗시리아의 옛 수도인 앗슈르는 614년에, 강력했던 새 수도인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멸망했다
  - 4. 남은 앗시리아 군대는 하란으로 퇴각했고 그들의 왕을 세우기까지 했다.

5.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608 년에 바로 느고 II 세(참조, 왕하 23:29)는 남은 앗수르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북쪽으로 출전하였다. 유다의 경건한 왕 요시아(참조, 왕하 23 장)는 이집트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거쳐 전진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 므깃도에서 약간의 접전이 있었다. 요시아는 부상을 입어 죽었다(왕하 23:29-30).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졌다. 바로 느고 II 세가 앗시리아 군대가 망하는 것을 막기에는 이미 늦은 때에 하란에 도착했다. 그는 왕세자인 느부갓네살 II 세가 지휘하는 바벨론 군대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메쉬에서 주전 605 년에 싸워 크게 패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느고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 성을 약탈했다. 그는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있는지 3 개월만에 그를 폐위시켰다. 그는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קים을 왕으로 세웠다(참조, 왕하 23:31-35).
  6. 느부갓네살 II 세는 팔레스타인을 통해 이집트 군대를 남쪽으로 쫓아갔으나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왕위에 오르기 위해 바벨론으로 돌아갔다. 같은 해에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갔다. 그는 여호야קים을 유다의 왕위에 그대로 두었지만 수 천명의 지도자급 시민들과 왕족의 다수를 사로잡아갔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때 강제이송된 사람 가운데 있었다.
- 라. 605-562 느부갓네살 II 세:
1. 주전 597-538 년에 바벨론은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지배했다.
  2. 여호야קים 이집트와 동맹을 맺음으로(왕하 24 장), 주전 597 년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강제이송이 발생했다. 여호야קים은 느부갓네살 II 세가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은 오직 석 달 동안 왕위에 있던 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에스겔을 포함한 만 명의 시민들은 그발 강(운하)가 옆 바벨론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재정착되었다.
  3. 주전 586 년 이집트에 계속 의존하는 관계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었고(왕하 25 장) 집단 이송이 발생했다. 여호야킨의 뒤를 이은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었고 그달리야가 통치자로 임명되었다.
  4. 그달리야는 변절한 유대인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 군대는 이집트로 도망을 갔고 예레미야에게 그들과 함께 갈 것을 강요했다. 느부갓네살은 네 번째 침략했고(605, 596, 586, 582) 그의 눈에 보이는 남아 있던 모든 유대인을 사로잡아갔다.
- 마. 562-560 에빌-므로닥은 아멜-마르둑으로 알려져있다  
- 그는 여호야קים 감옥에서 풀어주었지만 여호야קים은 바벨론에 남아 있어야만 했다(참조, 왕하 25:27-30; 렘 52:31).
- 바. 560-556 네리글리살  
- 그는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느부갓네살의 장군이었다
- 사. 556 라바스키-마르둑  
- 그는 네리글리살의 아들로서 오직 9 개월 후에 암살당했다
- 아. 556-539 나보니두스:
1. 나보니두스는 왕의 가문이 아니었기에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했다
  2. 그는 많은 시간을 달신인 “썬”의 신전을 테마에 세우는데 썼다. 그는 이 여신의 대체사장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우두머리인 마르둑의 제사장들과 원수가 되게 했다.
  3.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반란을 진압하고 왕국을 안정시키는데 사용했다.
  4. 그는 테마로 옮겼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의 수도에서 나라의 일을 보도록 했다(참조, 단 5 장).

자. ? - 539 벨사살 (협동 통치)

- 바벨론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물의 방향을 바꾸고 저항없이 그 도시에 들어간 구티움의 고브리아스 지휘 아래에 있던 페르시아 군대에게 매우 빠르게 함락되었다. 도시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페르시아를 해방자요 마르둑 예배의 회복자로 보았다. 고레스 II 세는 고브리아스를 바벨론의 통치자로 세웠다. 고레스 II 세 혹은 고브리아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단 5:31 과 6:1 에 나오는 “메데 사람 다리오”이다. 다리오는 “왕족”을 뜻한다.

III. 메데-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II 세의 흥왕에 대한 역사적 개관(사 44:28; 45:1-7):

- 가. 625-585 키악사레스는 바벨론이 앗시리아를 쳐부수는 것을 도왔던 메데의 왕이었다
- 나. 585-550 아스티아게스는 메데의 왕이었다. 고레스는 만다네가 낳은 그의 손자이었다
- 다. 550-530 안삼의 고레스 II 세는 조공을 바치는 왕이었지만 반란을 일으켰다

- 1.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는 고레스를 지지했다
- 2. 고레스 II 세는 아스티아게스를 폐위시켰다.
- 3. 나보니두스는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 ㄱ. 이집트
  - ㄴ. 리디아의 왕인 크로에수스(소아시아)

라. 547 고레스 II 세는 사디스(리디아의 수도)로 진군했다

마. 539년 11월 2일 구티암의 고브리아스는 고레스의 군대와 함께 저항없이 바벨론을 점령했다. 고브리아스가 바벨론의 통치자로 세워졌다.

바. 539년 10월 “대”고레스 II 세는 해방자로서 자신이 직접 입성했다. 민족들에 대한 그의 관용적인 정책은 민족들에게 대해 오랫동안 행해진 추방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538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받았다

아. 530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II 세가 뒤를 이었다

자. 530-522 캄비세스 II 세의 통치

- 주전 525년 이집트 제국을 메데-페르시아 제국에 합병시켰다
- 그는 자살했을 것이다

카. 522-486 다리오 I 세가 통치자가 되었다

- ㄱ. 그는 왕족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었다.
- ㄴ. 그는 고레스의 지방총독 제도를 사용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조직했다(참조, 스 1-6 장; 학개서; 스가랴서)
- ㄷ. 그는 리디아처럼 화폐를 주조했다

타. 486-465 크세르크세스 I 세의 통치:

- ㄱ.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했다
- ㄴ. 그리스를 침략하여 페르시아의 꿈을 이루려고 의도했지만 주전 480년 쉰모폴리 전쟁과 주전 479년 살라미스 전쟁에서 패했다
- ㄷ.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라고 불린 에스더의 남편은 주전 465년에 암살되었다

파. 465-424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 세가 통치함(참조, 스 7-10 장; 느헤미야서, 말라기서):

- ㄱ. 그리스 사람들은 펠로파니아 내전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영토를 확장했다
- ㄴ. 그리스는 나누어진다(아테네 사람 - 펠로파니아 사람)
- ㄷ. 그리스 내전은 약 20년 동안 계속되었다
- ㄹ. 이 기간 동안 유대 공동체는 강해진다

하. 423-404 다리오 II 세가 통치했다

가. 403-35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 가 통치했다

냐. 358-33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I 세가 통치했다

다. 338-336 아르세스가 통치했다

라. 336-331 다리오 III 세가 통치했다

#### IV. 이집트 역사의 개관

가. 힉소스(양치기 왕 - 셈족 통치자)-주전 1720/10-1550 년

나. 제 18 왕조(주전 1570-1310 년):

1. 1570-1546 아모시스
2. 1546-1525 아메노피스 I 세(아멘호텝 I 세)
3. 1525-1494 툫모세 I 세
4. ? 툫모세 II 세
5. ? 하트솨수트
6. 1490-1435 툫모세 III 세
7. 1435-1414 아메노피스 II 세
8. 1414-1406 툫모세 IV 세
9. 1406-1370 아메노피스 III 세
10. 1370-1353 아메노피스 IV 세(아케나텐)
11. ? 스멘크하레
12. ? 투탄크하문
13. ? 아이
14. 1340-1310 하렘합

다. 제 19 왕조(주전 1310-1200 년):

1. ? 라메세스 I 세
2. 1309-1290 세티 I 세
3. 1290-1224 라메세스 II 세(람세스 II 세)
4. 1224-1216 - 마르네프타(메렌프타)
5. ? 아멘메세스
6. ? 세티 II 세
7. ? 싯타
8. ? 테오스렛

라. 제 20 왕조(주전 1180-1065 년)

1. 1175-1144 라메세스 III 세
2. 1144-1065 라메세스 IV-XI 세

마. 제 21 왕조(주전 1065-935 년):

1. ? 스멘데스
2. ? 헤리호르

바. 제 22 왕조(주전 923-725 년 - 리비아인):

1. 935-914 시삭(쇼센크 I 세 또는 쉘룽 I 세)
2. 914-874 오소르콘 I 세
3. ? 오소르콘 II 세
4. ? 쇼스넵 II 세

사. 제 23 왕조(주전 759-715 년 - 리비아인)

아. 제 24 왕조(주전 725-709 년)

자. 제 25 왕조(주전 716/15-663 년 - 이디오피아인/누비아인):

1. 710/09-696-95 샤마코(샤마쿠)
2. 696/95-685/84 셉테코(세비트쿠)
3. 690/689, 685/84-664 - 티르하카(타하르카)
4. ? 탄타문

차. 제 26 왕조(주전 663-525 년 - 사이틱인):

1. 663-609 사메티쿠스 I 세(삼틱)
2. 609-593 네코 II 세(네쵸)

3. 593-588 사메티쿠스 II 세(삼틱)
  4. 588-569 아프리에스(호프라)
  5. 569-525 아마시스
  6. ? 사메티쿠스 III 세(삼틱)
- 카. 제 27 왕조(주전 525-401 년 - 페르시아인):
1. 530-522 캄비세스 II 세(고레스 II 세의 아들)
  2. 522-486 다리오 I 세
  3. 486-465 크세르크세스 I 세
  4. 465-424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 세
  5. 423-404 다리오 II 세

\*상이한 연대를 보기 위해서는 존더반 출판사의 *화보 성경 백과사전* 제 2 권 231 쪽을 보라.

## V. 그리스 역사의 개관

- 가. 359-336 마케도니아의 필립 II 세:
1. 그리스를 세웠다
  2. 주전 336 년에 암살당했다
- 나. 336-323 알렉산더 “대제” II 세 (필립의 아들):
1. 이수스 전쟁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 III 세를 패주시켰다
  2. 주전 323 년 32/33 세의 나이에 열병으로 바벨론에서 죽었다
  3. 알렉산더의 장군들은 그가 죽자 그의 제국을 나누었다:
    - ㄱ. 카센더 -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 ㄴ. 리시미쿠스 - 쓰라세
    - ㄷ. 셀류쿠스 I 세 - 시리아와 바벨론
    - ㄹ. 톨레미 -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 ㅁ. 안티고누스 - 소아시아(그는 오래 가지 않았다)
- 다. 셀류시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는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 투쟁한다:
1. 시리아(셀류시드 왕조의 통치자):
    - ㄱ. 312-280 셀류쿠스 I 세
    - ㄴ. 280-261 안티오쿠스 I 세 소터
    - ㄷ. 261-246 안티오쿠스 II 세 데우스
    - ㄹ. 246-226 셀류쿠스 II 세 칼리니쿠스
    - ㅁ. 226-223 셀류쿠스 III 세 케라우누스
    - ㅂ. 223-187 안티오쿠스 대왕 III 세
    - ㅅ. 187-175 셀류쿠스 IV 세 필로파토
    - ㅇ. 175-163 안티오쿠스 IV 세 에피파네스
    - ㅈ. 163-162 안티오쿠스 V 세
    - ㅊ. 162-150 데메트리우스 I 세
  2. 이집트인(톨레미 왕조의 통치자):
    - ㄱ. 327-285 톨레미 I 세 소터
    - ㄴ. 285-246 톨레미 II 세 필라델푸스
    - ㄷ. 246-221 톨레미 III 세 에베게테스
    - ㄹ. 221-203 톨레미 IV 세 필로파토
    - ㅁ. 203-181 톨레미 V 세 에피파네스
    - ㅂ. 181-146 톨레미 VI 세 필로메토
  3. 간단한 개요
    - ㄱ. 301 - 팔레스타인은 톨레미 통치 하에 181 년간 있었다.

- ㄴ. 175-163 - 셀류시드 왕조의 여덟 번째 통치자인 안티오쿠스 IV 세 에피파네스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유대인을 헬라화 시키기 원했다:
- (1) 경기장을 지었다
  - (2) 성전 안에 이방 제단인 제우스 올림푸스의 제단을 만들었다

## 부록 IV 도표

구약의 연대표  
(다음 페이지에 있음)



## 시기를 정할 수 없는 사건들(창 1-11 장)

1. 창조(창 1-2 장)
2. 인간의 타락(창 3 장)
3. 노아 시대의 홍수(창 6-9 장)
4. 바벨탑(창 10-11 장)

##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사건들

- |                           |                     |
|---------------------------|---------------------|
| 1. 족장 시기(창 12-50 장과 율기)   | 주전 2000 년           |
| 2. 애굽에서 나옴(출애굽기)          | 주전 1445 년 또는 1290 년 |
| 3. 가나안 정복(여호수아서)          | 주전 1440 년 또는 1250 년 |
| 4. 통일왕국(사울, 다윗, 솔로몬)      | 주전 1000 년           |
| 5. 분열왕국(르호보암-여로보암 I 세)    | 주전 922 년            |
| 6. 앗시리아에게 사마리아(이스라엘)가 멸망함 | 주전 722 년            |
| 7.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유다)이 멸망함    | 주전 586 년            |
| 8. 돌아가라는 고레스(페르시아)의 칙령    | 주전 538 년            |
| 9. 성전 재건                  | 주전 516 년            |
| 10. 구약시대의 마침(말라기서)        | 주전 430 년            |

## 왕의 계보

- |  |  |
|--|--|
| <p>가. 통일왕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울(a)</li> <li>2. 다윗(b)</li> <li>3. 솔로몬(c)</li> </ol> <p>나. 이스라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로보암 I 세(e)</li> <li>2. 아합(f)</li> <li>3. 여로보암 II 세(g)</li> </ol> <p>다. 유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르호보암(d)</li> <li>2. 웃시야(h)</li> <li>3. 히스기야(i)</li> <li>4. 므낫세(j)</li> <li>5. 요시야(k)</li> <li>6. 여호아하스(l)</li> <li>7. 여호야김(m)</li> <li>8. 여호야긴(n)</li> <li>9. 시드기야(o)</li> <li>10. 그달리야(p)</li> </ol> | <p>라. 앗시리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티글랏 필레셀 III 세(745-727)</li> <li>2. 살만에살 V 세(727-722)</li> <li>3. 사르곤 II 세(722-705)</li> <li>4. 산헤립(705-681)</li> <li>5. 에살핫돈(681-669)</li> <li>6. 앗수르바니팔(669-663)</li> </ol> <p>마. 바벨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보폴라살(626-605)</li> <li>2. 느부갓네살(605-562)</li> <li>3. 나보니두스(556-539)</li> <li>4. 벨사살</li> </ol> <p>바. 페르시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레스 II 세(550-530)</li> <li>2. 캄비스 II 세 (530-522)</li> <li>3. 다리오 I 세(522-486)</li> <li>4. 크세르크세스 I 세(486-465)</li> <li>5. 아르타크세르크세스(465-424)</li> </ol> |
|--|--|

##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왕조의 왕들과 사건들

- 612(주전)            니느웨가 신바벨론의 군대(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함
- 608                바로 느고 II 세가 신바벨론의 세력 확장을 저지시키기 위해 갈게미스로 진격함  
 유다왕 요시아가 그를 제지하려고 함  
 요시아의 죽음으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름  
 바로 느고 II 세의 압력으로 3 개월 만에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여호아김이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왕이 됨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가 이집트의 지배하에 들어감  
 요시아의 개혁이 끝나버림
- 605                나보폴라살이 갈게미스로 군대를 보내 앗시리아의 남은 군대와 이집트를  
 상대로 싸움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 평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함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버지(나보폴라살)의 부고를 듣고 왕관을 받기 위해  
 바벨론으로 귀국함  
 돌아가는 길에 그가 다니엘과 다른 여러 왕족을 사로 잡아감
- 605-538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함, 597 년; 10,000 명을 바벨론으로 사로 잡아감
- 586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수의 사람이 추방당함
- 582                유대인 케릴라 전사들이 그달랴를 죽였기에 또 다시 대규모의 추방이 행해짐

###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들

- 562-560            에월 프로닥이 여호아김(참된 메시아 계보에 속함)을 감금에서 석방함
- 560-556            네리글리살
- 556                라바스키 마르дук이 다스림
- 556-539            나보니두스:  
 달신인 신을 위한 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냄. 이러한 일은 마르дук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적대감을 초래함  
 생애의 나머지 기간은 반란을 진압하고 왕국을 안정시키는데 사용함  
 그는 테마로 옮겨 갔고 국가의 일을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김  
 벨사살:  
 대부분의 시간을 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사용함  
 메대는 바벨론에게 커다란 위협이 됨

## 고레스의 지배

- 585-550 아스티아지스가 메대의 왕으로서 다스림(고레스 II 세는 만데인이 낳은 그의 손자였다)  
조공을 바치던 고레스 II 세가 반란을 일으킴  
나보니두스는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음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다:
1. 이집트
  2. 크레커스, 리디아의 왕
- 547 고레스는 사테(리디아의 수도)로 진격하여 소아시아 지역을 모두 손에 넣음
- 539 고비야스는 저항없이 바벨론을 손에 넣음(단 5 장;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와 공동으로 다스림; 또한 고비야스는 메데 사람 다리오였을 것임, 단 5:31)
- 539 년 10 월 11 일 나보니두스가 섬기던 달신인 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람으로서 고레스가 입성함

## 고레스의 후계자들

- 530 고레스의 아들이 그를 이어 왕이 됨(캄비세스 II 세)
- 530-522 캄비세스의 통치(엘리판틴 파피루스)  
525 년에 이집트를 메데-페르시아 제국에 합병함
- 522-486 다리우스 I 세가 다스림  
그는 고레스가 사용한 총독제로써 페르시아 제국을 조직함  
그는 리디아와 같은 화폐제도를 확립함
- 486-465 크세르크세스 I 세(에스터)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함  
그리스를 침략하려고 시도했지만 주전 480 년에 테모폴리 전투에서 패함  
크세르크세스 I 세는 465 년에 암살당함
- 480 테모폴리 전투
- 465-424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 세 룡기마누스(에스라 7-10 장, 느헤미야, 말라기)  
그리스가 페로파니스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확장해 옴  
전쟁이 20 년간 지속됨  
이 기간 동안 유대인 공동체가 재건됨
- 423-404 다리우스 II 세  
엘리판틴 성전에서 무교병의 절기를 행하도록 공인함
- 401-35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 세
- 358=33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I 세
- 338-336 알세스
- 336-331 다리우스 III 세

## 헬라

- 359-336      마케돈의 필립 II 세가 헬라를 세움  
그는 336 년에 암살당함
- 336-323      알렉산더 대제(필립의 아들)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II 세를 몰아냄  
그는 지중해 동부와 근동지역을 정복한 후에 323 년에 열병으로 바벨론에서  
죽음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그의 사후에 제국을 분할함:
1. 카산더 -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2. 리시미커스 - 트래이스
  3. 셀렉스 I 세 - 시리아와 바벨론
  4. 톨레미 -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5. 안티고누스 - 소 아시아의 적은 부분
- 셀류시드 왕조 대 톨레미 왕조**
- 301      팔레스타인이 100 년 동안 톨레미의 지배를 받음
- 175-163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고 체육관을 건축함  
이교도의 제단을 건축함; 제사장들을 학대함
- 168 년 12 월 13 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단 위에서 돼지를 죽임.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멸망의 가증한 일로 여긴다
- 167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킴. 마타디아스가 죽임을 당함.  
유다스가 정권을 잡음  
유다스 마카비우스가 성공적으로 게릴라 전을 수행함
- 165 년 12 월 25 일      성전을 재 봉헌함

## 통치자들

### 바벨론

626-605

605-562

562-560

556

556-539

539-

### 메대

나보폴라살이 죽음(“나부, 태양을 지킨다”)

625-585

시르자레스

느부갓네살 II 세

(“느보, 국경을 지킨다”)

아스티아게스

에월 므로닥 550

고레스 II 세

라마스키 마르둑

나보니두스

벨사살

고비야스

## 메대-페르시아

550-530

고레스 II 세(538 년에 메대-페르시아의 통치를 아케메니아 제국으로 부름)

530-522

캄비세스 II 세(이집트와 키프러스를 합병함)

522

가우마타 혹은 슈도, 스펠디스(6 개월 동안 통치함)

522-486

다리우스 I 세(히스타스페스)

486-465

크세르크세스 I 세(에스터의 남편)

465-424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 세(팔레스타인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423-

크세르크세스 II 세

424-404

다리우스 II 세 노터스

404-359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 세 르네몬

359-33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I 세 노커스

338-336

알서스

336-331

다리우스 III 세 코도만누스

## 헬라

359-336	마세돈의 필립 II 세
336-323	알렉산더 대제
323-	장군들이 제국을 분할함
	1. 카산더 - 마케도니아
	2. 리시미커스 - 시리아
	3. 셀류커스 I 세 - 시리아와 바벨론
	4. 톨레미 - 이집트
	5. 안티고누스 - 소 아시아(주전 301 년에 죽임을 당함)

톨레미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다가 주전 175-163 년에는 셀류커스에게 지배권이 넘어감

175-163 안토니커스 IV 에피파네스, 셀류커스 왕조의 8 번째 통치자

\*연대와 이름은 대부분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의 역사* 461-471 쪽에서 취함.

## 분열 왕국의 왕들

유다의 왕들(대상 3:1-16; 마 1:6-11)					이스라엘의 왕들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헤리슨	성경 본문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헤리슨	성경 본문
르호보암	922-915	933-917	931/30-913	왕상 11:43-12:27; 14:21-31 대하 9:31-12:16	여로보암 1 세	922-901	933-912	931/30-910/09	왕상 11:26-40; 12:12-14:20
아비아 (아비얌)	915-914	916-914	913-911/10	왕상 14:31-15:8 대하 11:20,22					
아사	913-873	913-873	911/10-870/69	왕상 15:8-30; 16:8,10,23,29; 22:41,43,46 렘 41:9	나답  바아사	901-900  900-877	912-911  911-888	910/09-909/08  909/08-886/85	왕상 14:20; 15:25-31  왕상 15:16-16:7; 왕하 9:9 대하 16:1-6 렘 41:9
여호사밧	873-849	873-849	870/69-848	왕상 15:24; 22:1-51 왕하 3:1-12; 8:16-19 대상 3:10 대하 17:1-21:1	엘라	877-876	888-887	886/85-885/84	왕상 16:8-14
(여호람 섭정왕)	----- ---	----- ---	853-848	왕상 22:50 왕하 1:17; 8:16; 12:18	시므리 (군대 장관) 오므리 (군대 장관)	876  876-869	887  887-877	885/84  885/84-874/73	왕상 16:9-20 왕하 9:31  왕상 16:15-28 왕하 8:26 미가 6:16
여호람 (요람)	849-842	849-842	848-841	대하 21:1-20 마 1:8					
아하시야	842	842	----- ----	왕하 8:24-9:29 대하 22:1-9	아합  아하시야	869-850  850-849	876-854  854-853	874/73-853  853-852	왕상 16:29-22:40  왕상 22:40,41, 49,51-53 왕하 18:1-3,19
아달라 (여왕)	842-837	842-836	841-835	왕하 8:26; 11:1-20 대하 22:2-23:21	여호람 (요람)	849-842	853-843	852-841	왕하 1:17; 3:1-27; 8:16-9:29
요아스	837-800	836-797	835-796	왕하 11:2-3; 12:1-21 대하 22:11-12; 24:1-27	예후 (군대 장관)	842-815	842-815	841-814/13	왕상 19:16-17 왕하 9:1-10:36; 15:12 대하 22:7-9 호 1:4

유다의 왕들(대상 3:1-16; 마 1:6-11)[계속]					이스라엘의 왕들(계속)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헤리슨	성경 본문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헤리슨	성경 본문
아마샤	800-783	797-779	796-767	왕하 12:21; 14:1-22 대하 25:1-28					
(웃시아 섭정왕)	----- ---	----- ---	791/90-767	왕하 14:21; 15:1-7	여호아하스	815-801	814-798	814/13-798	왕하 10:35; 13:1-9
웃시아 (아사랴)	783-742	779-740	767-740/39	대하 26:1-23 호 1:1; 암 1:1 슌 14:5	요아스	801-786	798-783	798-782/81	왕하 13:9-13,25 대하 25:17-25 호 1:1; 암 1:1
(요담 섭정왕)	750-742	----- ---	750-740/39	왕하 15:7,32-38	여로보암 2세 (섭정왕)	----- ---	----- ---	793/92-782/81	왕하 13:13; 14:16,23-29 호 1:1
요담	742-735	740-736	740/39-732/31	대상 5:17 대하 26:23-27:9 사 1:1; 7:1 호 1:1; 미 1:1	여로보암 2세	786-746	783-743	782/81-753	암 1:1; 7:9-11
(아하스 섭정왕)	----- ---	----- ---	744/43-732/31	왕하 15:30-16:20 대하 27:9-28:27	스가라	746-745	743	753-752	왕하 15:8-12
아하스	735-715	736-728	732/31-716/15	사 1:1; 7:1 이하; 14:23; 38:8 호 1:1; 미 1:1	살룸	745	743	752	왕하 15:10,13-15
(히스기야 섭정왕)	----- ---	----- ---	729-716/15	왕하 16:20; 18:1-20,21 대하 28:27-32:33 잠 25:1	므나헴	745-738	743-737	752-742/41	왕하 15:14,16-22
히스기야	715-687	727-699	716/15-687/86	사 1:1; 36:1-39:8 호 1:1 미 1:1 마 1:9-10	브가히야	738-737	737-736	742/41-740/39	왕하 15:23-26
(므낫세 섭정왕)	----- ---	----- ---	696/95-687/86	왕하 20:21-21:18; 23:12,26; 24:2	베가	737-732	736-730	740/39-732/31	왕하 15:27-31; 16:5 대하 28:6; 사 7:1
므낫세	687/86-642	698-643	687/86-642/41	대하 32:33-33:20 렘 15:4 이하; 왕하 21:18-26	호세아	732-724	730-722	732/31-723/22	왕하 17:1-18
아몬	642-640	643-641	642/41-640/39	대하 33:20-25 렘 1:2; 슌 1:1 왕상 13:2-3	앗시리아에 의한 사마리아의 멸망	주전 724년	주전 722년	주전 722년	

유다의 왕들 (계속)					이스라엘의 왕들(계속)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해리슨	성경 본문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해리슨	성경 본문
요시아	610-609	640-609	640/39-609	왕하 21:24; 22:1-23:30 대하 33:25-35:27 렘 1:2; 습 1:1 마 1:10-11					
여호아하스	609 (3 달)	609	609	왕하 23:30-34 대하 36:1-4					
여호야김	609-598	609-598	609-597	왕하 23:34-24:6,19 대하 36:4-8 렘 1:3; 22:18-23; 25:1 이하; 26:1 이하; 27:1 이하; 35:1 이하; 36:1 이하 단 1:1-2					
여호야긴	598/97 (3 달)	598	597	왕하 24:6,8-17; 25:27-30 대하 36:8-9 렘 52:31; 겔 1:2					
시드기야	597-586	598-587	597-587	왕하 24:17-25:7 대하 36:10-11 렘 1:3; 21:1-7; 24:8-10; 27:1 이하; 32:4-5; 34:1-22; 37:1-39:7; 52:1-11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주전 586년	주전 587년	주전 587년	예레미야 애가					

연대 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위해 E. R. 틸레의 *히브리 왕들의 신비한 수들을 보라*.

## 부록 5 - 교리적 선언

나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신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믿음의 진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적 입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신학적 오류와 속임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신학의 간략한 요약물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초자연적 인도하심아래 사람에게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시고 창조주 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진실로 분리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 똑 같으시다.

3.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과 허락없이 아무것도 일어 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없는 상태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다. 비록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의 반역은 인류와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우리가 함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의지로 반역한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

5.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죄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6. 우리 각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죄로부터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신뢰와 죄의 회개에 기초하여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됨을 누린다. 또한 이렇게 새로워진 관계의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하늘에서 있을 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믿음과 자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다.

8. 성령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세상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세와 동기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9. 성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맛을 여러분께 주리라 기대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본질적인 내용에는—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사랑을”